퀸즈장로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그 길을 걷습니다.

기도방석과 성경책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29]

퀸즈장로교회는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눈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생명샘과 같은 교회로 넘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말씀 속에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며,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됨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 모두는 온전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가페는 흐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b)

담임 **김성국** 목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이 땅에 한 방울 툭 떨어졌다가
말라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며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말라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아침을 깨우는 창가의 새 소리부터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정겨운 사랑 소리,
잘 들리시나요?

눈을 뜨니 하늘과 땅에 넘치고
눈을 여니 성경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편지,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흘리신 골고다 십자가 피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표현,
이제는 가슴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은
마르거나 식지 않고 계속 힘차고 뜨겁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도 그러셨듯이
교회설립 50주년 기념 책이자 이름도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단 하나 외(外)에.

교회설립 50주년 기념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없는 시간 쪼개 쓰고 잠도 줄여가며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에 힘쓰신
모든 분들, 원고 청탁이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우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설립 50주년 기념 아가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가페는 흐른다 | 김성국 목사 3

01
축사

자유를 공포하라 9
이용걸 목사 | KAPC 전 총회장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퀸즈장로교회를 축하합니다 10
권혁천 목사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48대 총회장
하늘의 문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영원 하라 10
오세훈 목사 | 전총회장, KAPC 세계선교회 이사장
퀸장의 희년을 대하며 11
임영건 목사 | KAPC 뉴욕노회 노회장
찬란한 과거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12
류응렬 목사 |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더불어 사는 큰 나무 13
양춘길 목사 | 필그림선교교회
하나님의 큰 손이 되어 보여 준 교회 13
김바나바 목사 | 퀸즈한인교회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가슴에 심어준 교회 14
김승욱 목사 | 한국 할렐루야교회
하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교회를 응원합니다 14
정갑신 목사 | 한국 예수향남교회
한 분 한 분, 축하드립니다! 15
조은아 교수 | 고든 콘웰 신학교
퀸즈장로교회는 "...교회입니다" 15
손경민 목사 | 작곡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큰 나무 16
정승환 목사 | 필라영생장로교회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퀸즈장로교회! 16
박성권 목사 | 베델교회
퀸장의 희년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17
이윤석 목사 | 부르클린제일교회
고향 집 같은 '우리 교회' 17
김재형 목사 | 뉴욕교회
지난 50년의 감사, 앞으로 50년의 기대 18
조성윤 목사 | Eternal Life Mission Church
교회의 가르침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19
김덕진 목사 | Hospice Chaplain 사역

02
특별인터뷰

열정보다 사랑이다!
김성국 담임목사님 부부의 삶과 목회 20

03
대담

충성과 아멘의 삶 | 은퇴장로 대담 26
은혜와 감사의 삶 | 권사 대담 30
사랑과 섬김의 삶 | 여교역자 대담 34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며 | 퀸장1.5세 대담 38

04
성전건축

프랭클린 역사의 서막 | 장미은 사모 45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메시아 연주회 | 허경화 장로 47
성전을 남긴 사람 | 정영숙 권사 49
세번의 성전 건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 박정봉 장로 52

05
50년을 돌아보며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 장미은 사모 54

06
퀸즈장로교회 50년

교회연혁 58
사진화보 60

07
사역위원회

사역위원회 조직도 69
선교위원회 71
찬양위원회 | 찬양대 86
예배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재정위원회 92
예배방송위원회 93
차량위원회 94
봉사위원회/시설관리위원회 95
토기장이 북카페 97

08
간증

나의 사랑하는 교회 | 윤혜진 집사 102
그래도 감사 | 정진규 집사 103
새내기 노년의 피가 다시 끓는다 | 김숙자 권사 104
부르신 하나님, 돌아온 퀸즈장로교회 | 지경화 교우 105
기도실에서의 새로운 출발 | 박노운 집사 106
아들 딸과 함께 한 사순절 성경암송대회 | 저우리 교우 107
매일 매일 불러야 할 은혜 | 박상용 집사 108
그날에 | 김정윤 권사 110
모든 사역자는 '예배자'이다 112
윤원상 전도사, 김소연 청년
제 삶의 지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강혜영 권사 115

09
KAPC 47회 총회

제47회 KAPC 총회를 준비하며 | 박정봉 장로 122

10
THE WAY

THE WAY-길을 만드시는 주님 | 남형욱 장로 128
설립 50주년 감사예배, 뮤지컬 예배 'The Way' 133

11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꿈을 꾸며 | 남형욱 장로 139

12
선교지

지금의 국제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일훈,박수영 선교사 142
선교를 꿈꾸는 선교지 교회
김관중,이재의 선교사 144
"약속의 땅"
정길표,정경애 선교사 146

13

KAPCQ MISSION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 정해성 장로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점철된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158
케냐 단기선교 | 김도현 목사
"프라미스랜드(Promiseland) 선교" - 약속의 땅으로 159
온두라스 단기선교 | 조정숙 권사
삼겹줄로 지침없는 선교 160
캄보디아 단기선교 | 최치훈 집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단기선교와 새로운 비전 161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 | 이민진 집사 162
캄보디아 킹덤 미션을 기억하며 | 장누리 집사 163
어디에 있든지,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 백미혜 청년 164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 최경민 집사 165
온라인 선교 킹덤미션 QT | Stella Hong 166

14

교회행사

돌아온 붕어빵 | 김현정 집사 170
첫날부터 이제까지- 설립50주년 기념예배 | 조성순 집사 173
부활절 찬양축제 | 조성순 집사 174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HERITAGE CHOIR | 윤수영 집사 175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 최성호 장로 176
아름다운 직분,함께한 시간 | 강석춘 권사 176
임직을 향한 마지막 준비과정 | 이현승 집사 177
2024 임직식 스케치 | 조성순 집사 178
기독교 세계관 훈련 | 홍한나 권사 183
T4,무슨 뜻인가요? | 이정훈 장로 185
ARISE:청소년 부흥회 | 차평화 목사 191
퀸장 전교인 수련회 2024 | 한상윤 집사 193
2024 KAPCQ VBS 194

15

다민족

퀸즈장로교회에서 영어 예배부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역할
영어 예배부 김도현 목사 202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중국어 예배부 첸위지 목사 206
선교적 비전과 열정을 가진 교회
러시아어권 예배부 송요한 목사 210
퀸즈장로교회의 다민족 이해하기
손요한 목사 213

16

빛과 소금

크리스천에게 직업이란 | 조용기 청년 217
전천후 하나님의 Messenger | 김누리 집사 218
소아병동으로 부르신 하나님 | 이하은 성도 219
어둠속에서도 소망을 잃지않는 이유 | 송수진 집사 221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며 | 최치훈 집사 222
주님과 함께 잘 사는법 | 박새롬 집사 223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 이혜연 집사 224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머무는 곳 | 송현림 집사 225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공간 | 송명남 집사 227
진정한 아름다움은 | 정지연 성도 228
세상 문화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 이동훈 집사 229

17

다음세대 | 교회학교

의인의 비전
교육위원회 이정훈 장로 232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이명옥 전도사 234
교회학교 부서소개 238
Navigating the Future:전통적인 혁신
차평화 목사 266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가르치다
이오스틴 전도사 268
교회가 다음세대에 주는 영향
Catherine Lin 전도사 270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학교 아이들
강지영 전도사 272
부모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전진영 전도사 274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
김정민 목사 276
Embracing special needs student
김성은 목사 278
믿음의 계승
황웨이 전도사 280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우는 것
남주인 권사 282

18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미주크리스천신문

신학의 길에 서서 | 임지홍 목사 286
신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 정지원 권사 287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 설희숙 권사 288
개혁주의 삶 | 민준성 집사 288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 정기태 학감 289
복음과 사랑 싣고 세계를 향하여!! | 이성자 전도사 290
포스터로 담은 퀸장 292

19

퀸장문단

사랑하는 나의 교회 | 김윤 집사 296
사랑하는 나의 교회 | 신예슬 청년 297
저 담장 너머에 | 함상윤 집사 298
사랑하는 나의 교회 | 황은애 권사 299
사랑하는 나의 교회,나의 친정 | 서천순 권사 300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 정혜경 권사 301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 최경선 권사 302
당신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지 아시나요? | 정해성 장로 303
사랑하는 퀸장에게 | 이영경 권사 304
사랑하는 퀸장 삼행시 | 그루터기 청년2부 305
사랑하는 우리교회 | 유년부 306
사랑하는 우리교회 | 초등부 307
사랑하는 우리교회 | 중등부 308
사랑하는 우리교회 | 고등부 30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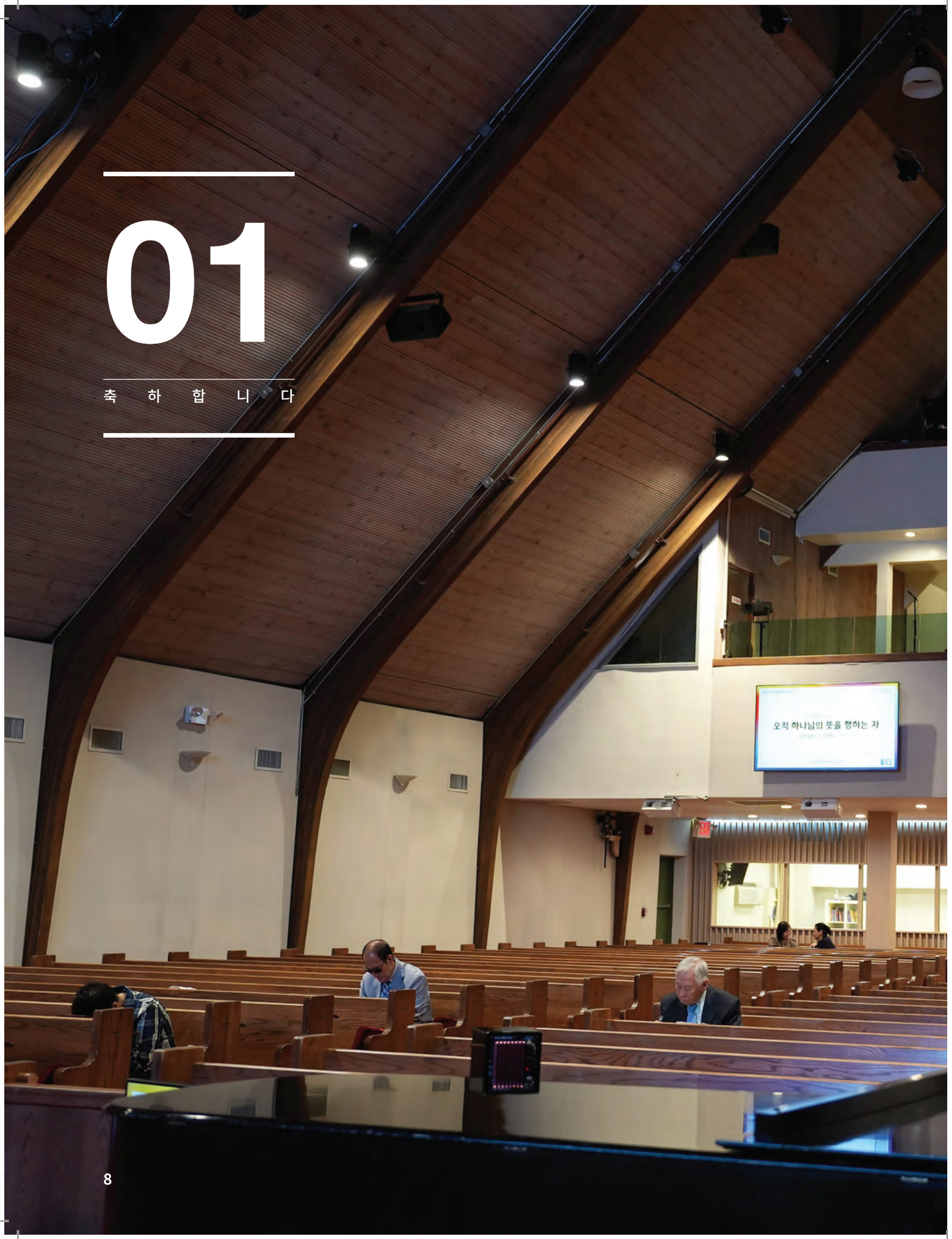
그리운 얼굴들

하나님 | 고국환 장로 310
내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 이근우 장로 311
그리운 퀸즈장로교회 가족분들께 | 이승조 양찬미 집사 312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축하하며 | 손정호 석영지 집사 313

21

아가페실록

장로가 되면서 | 윤영철 장로 315
감사뿐인 내 인생 | 김숙례 권사 316
땅 속에 있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 김수산 장로 317
성경을 베끼면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겼습니다 | 김기호 장로 317
청소하는 기쁨 | 서길웅 집사 318
내가 심방원이 되기까지 | 이귀순 전도사 319
잊을 수 없는 성탄절 | 이규성 장로 320
나의 기도 | 함정순 권사 320
주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 이무근 장로 321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 황계덕 권사 322
어머니의 기쁨과 슬픔 | 소은자 권사 323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 장정자 권사 324
믿음의 선배 우리엄마 | 최윤희 권사 325



01

축 하 합 니 다

이용걸 목사

KAPC 전 총회장

자유를 공포하라

퀸즈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나온 5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진 교회도 더러 있는데 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희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고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 수양의 뿔 하나로 메시야가 오심을 알리는 나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요벨의 해 라고 부르기도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회 반복된 그 이듬해 50년 되는 해의 속죄일인 7월10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속죄일까지 1년동안 지켰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성격이 더욱 확장되고 보안 된 것입니다. 노동이 금지되고 땅이 휴경되고 이스라엘 백성중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 되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나 가옥등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빚을 못 갚아도 다 탕감해주어야 합니다. 희년은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의 주제는 안식과 자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것이 아니고 실제적 해방이며 역사적 해방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은 희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것으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스러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 자유로운 경제, 자유로운 환경 이 모든 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감옥 선교가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 때 당시 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박사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8개월간 감옥에 있으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만이 죄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년의복 회복의 복은 사람이 사람되는것입니다. 경제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중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의 알바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희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50년의 하나님의 주실 다른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역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권혁천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48대 총회장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퀸즈장로교회를 축하합니다

제 사무실에는 10년 쯤 된 작은 분재가 있습니다. 처음 비슷한 분재를 몇 사람이 함께 구입해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방에 있는 것만 살아있습니다. 몇 번쯤 진귀한 꽃도 피워준 기특한 것입니다. 출근해 방에 들어가면 의례 이 분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살아내 주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지면 다시 이 분재를 봅니다. 은근한 위로가 됩니다.

작은 식물 하나가 십 년 제 곁에 있었더니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50년이라면 이는 참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욕 퀸즈의 중심에 퀸즈장로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고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스러져가는 많은 소중한 것들 속에서 여전히 굳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드리워 쉼터를 만들고 생명을 누릴 숨터를 만들어 낸 퀸즈장로교회는 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 귀한 버텨냄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 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퀸즈장로교회를 향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존경과 감사를 담아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오세훈 목사
전총회장, KAPC 세계선교회 이사장

하늘의 문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영원 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민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척하여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인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퀸즈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원하며, 주님께 충성하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운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땀방울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하는 것은 믿음으로 큰일을 하는 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권의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으니 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로 출발한 퀸즈장로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의 문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교회이름의 6행시로 축하드립니다.

퀸, 퀸즈 거리에 우뚝 선 퀸즈 장로교회여!
즈, 즈려밟는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50회를 맞았으니
장,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더욱 주님을 높이며
로, 로드(Lord)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교회로 축복을 받고
교,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회, 회중인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늘의 문과 세상의 빛이 되소서.

임영건 목사
KAPC 뉴욕노회 노회장

퀸장의 희년을 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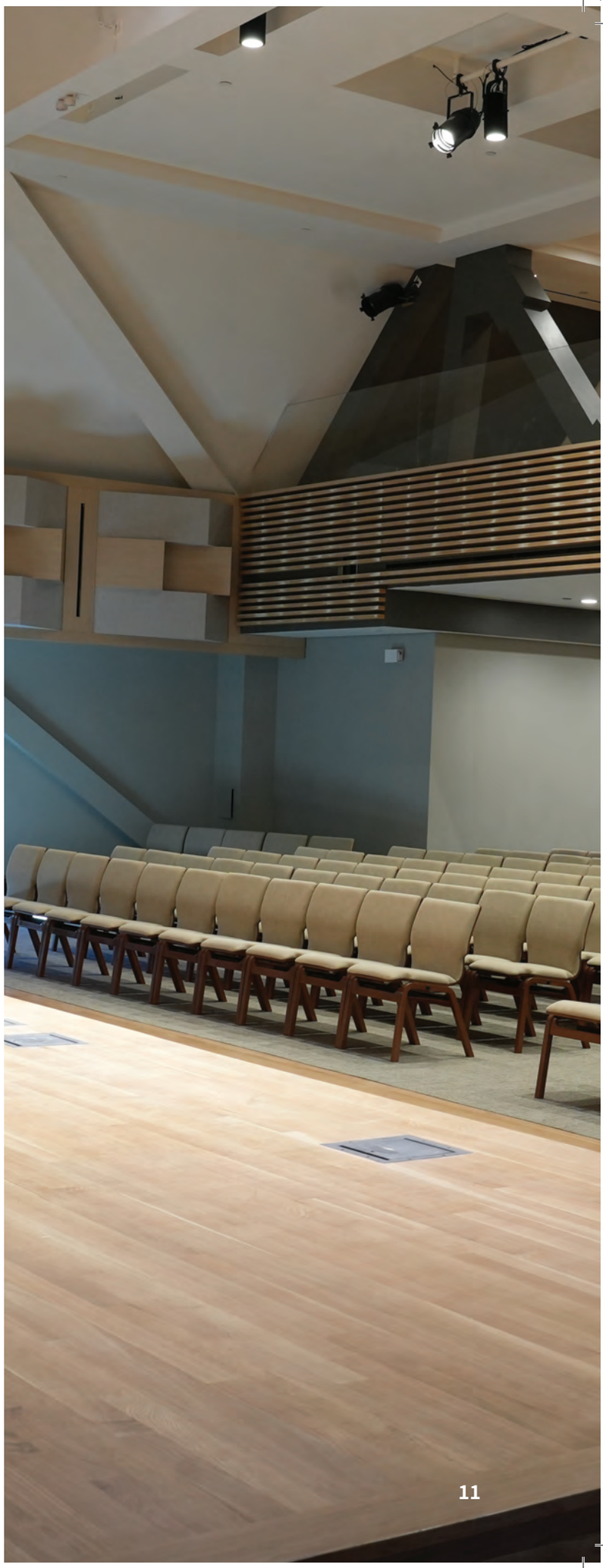
그날 정신없이 퀸장을 향해 자동차를 몰았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10년간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어 마침내 찾게 된 곳이었다. 등록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시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신 것 같아 취소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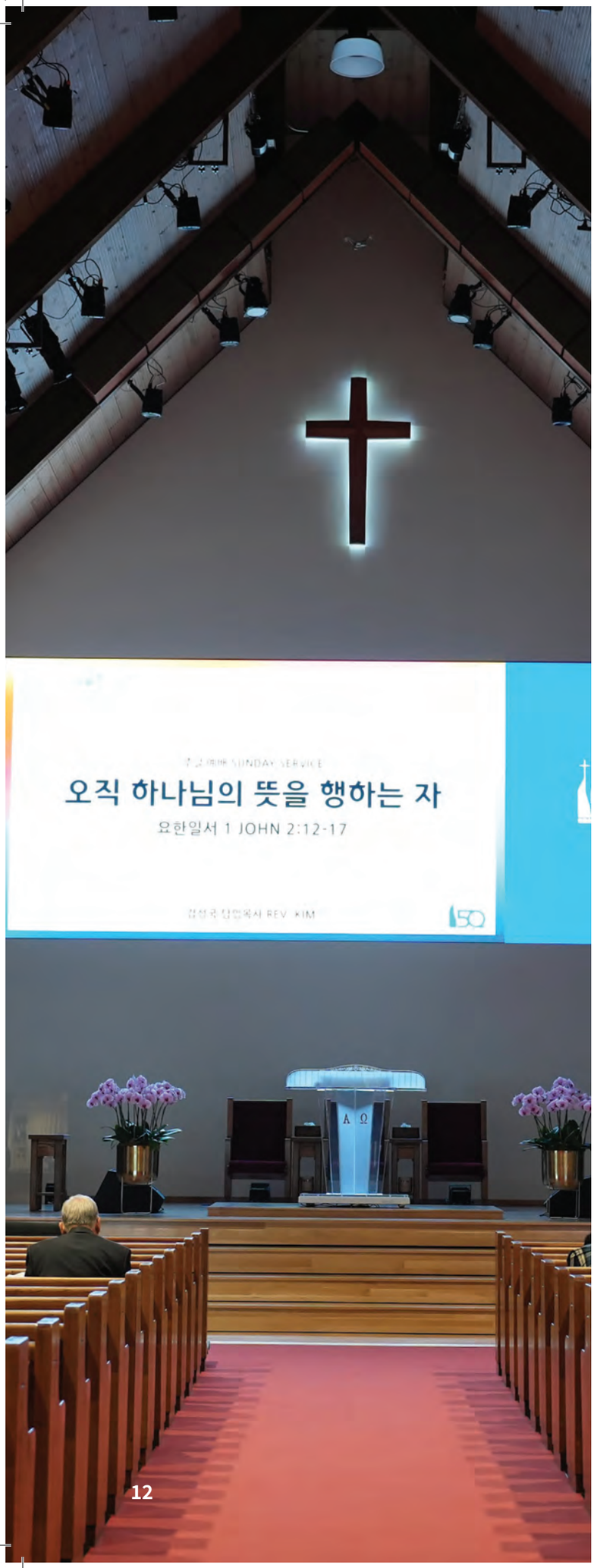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섭게 환부에서 고름이 쏟아져 나왔다. 죽지 않으려고 순종을 해서 신학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3주일간 금식기도를 했다. 10년간 불순종할 때부터 시작하여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질병이 기적같이 사라져 버렸다. 퀸장은 내가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

삼 년간 신학을 한 기간은 장영춘 목사님을 비롯한 교수님들로부터 신학 지식만이 아니라 농축된 은혜가 생수처럼 심령을 적시며 새로운 사역자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꼭 맞는 환경을 통해 신학과 함께 훈련하시는 은혜가 퀸장 2층의 신학교에서 있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탈진해 어디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모빌카에서 생활하며 전도나 하며 살까 생각하고 있을 때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자고 하셨다. "못 갑니다". 먹고 죽을려 해도 돈이 없었다. 500$ 지원하신다고 하셨다. "그래도 못갑니다". 비행기 표를 다 내어 주시겠다고 가자고 하셨다. "죄송합니다". "왜 안가?" "호텔 체류 및 여행 경비가 없어 못갑니다". 다시 연락을 주셨다. "걱정말고 가도록 해!" "그래도 못갑니다". "도대체 왜 그래?". "아내와 같이 갈 수 없으면 안갑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해 버스 안에서 우리 부부가 많이 울며 갔었든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처음 밝히는 간증이다.

퀸장의 희년은 이렇게 위로부터 쌓여 있는 은혜가 이제 (눅 4:18-19) 말씀과 함께 온 세상에 생수의 강수로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며!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VA | 고든콘웰신학교 객원교수

찬란한 과거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상에서 아름다운 천국공동체를 이루어 오신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는 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뉴욕 지역뿐 아니라 미주 전역 그리고 세계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명에 고귀하게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며 지역사회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50년 역사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돌아보며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많은 성도님을 통해 오늘까지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과 미주 전역의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물레방아가 흐르는 물을 두번 돌리지 못하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역사라 해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위해 더욱 준비하고 단 한번의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결하게 던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존경 받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품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NJ

김바나바 목사

퀸즈한인교회, NY

더불어 사는 큰 나무

퀸즈장로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1974년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50년이 지난 오늘 퀸즈장로교회는 큰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미주의 대표적인 한인교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한 지붕아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이 모여 더불어 사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반세기의 모진 세월동안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으로 물을 주고, 균형 잡힌 말씀의 영양분을 주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개혁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퀸즈장로교회는 고 장영춘 목사님의 선구자적 신념 , 강한 믿음, 사랑의 헌신과 목양일념의 리더쉽 아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김성국 목사님의 선교적 비전, 복음의 열정, 희생적 섬김과 온유한 리더쉽 아래 차세대와 다민족을 품고 더불어 사는 큰 나무가 되어 위기에 처한 이민교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퀸즈장로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살전 1:2)로 충성을 다해 섬기신 제직들과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향후 5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퀸즈장로교회의 리더쉽과 온 성도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을 품고 더불어 사는 거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로 높이 세워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되어 보여 준 교회

희년 (The Year of Jubilee) 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기반으로 7년이 7번 되는 해인 49년을 넘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 영어로는 The Year of Jubilee (주의 은혜의 해)라 칭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해방 되고, 잃어버렸던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며 이스라엘 사회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올 해 퀸즈장로교회에 이런 귀한 은혜의 희년을 맞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퀸즈장로교회는 뉴욕 시내에 있는 단순한 한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뉴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큰 손이 되어 보여 준 교회이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요한계시록의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천국 예배의 정신을 현실 교회에 실제로 구현해 낸 특별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기는 앞으로 5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뉴욕을 향한 꿈이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김성국 목사님과 사모님은 뉴욕이 낯선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6년 전 처음 뉴욕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목사님 계신 퀸즈장로교회에 올 때면 마치 오랜 시절 섬겼던 고향 교회에 오는 기분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제작년부터 두 교회가 협력 가능한 행사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는 모습은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생전 장영춘 목사님과 저희 교회의 원로이신 한진관 목사님은 이민 초창기 선의의 경주자로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푯대를 향해 함께 뛰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시며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 놀라운 여정을 축복하며 진심 어린 축하의 맘을 전합니다.

정갑신 목사
한국 예수향남교회

하나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교회를 응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열망하며 축하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2019년 여름, 퀸즈장로교회 수요예배와 전교인 수련회를 섬겼던 경험으로, 또 김성국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몇 가지 이야기들로 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을 뿐 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퀸즈장로교회의 이미지는 탁월하고 주도적인 리더십과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빚어가는 '부흥하는 전통교회'였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대를 반영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 시대에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 중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가지게 된 이미지는 고집이 셉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담긴 일정한 이미지를 거의 바꿀 생각이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방문하게 된 귀 교회에서, 제 가슴과 기억에 남게 된 단어들은 '신선한 충격, 따뜻한 감동, 풍성한 사랑과 소망, 온 성도들이 공감하는 열정으로 이어지는 사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제가 아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나, 지금만큼은 99%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함께 다녔고 같은 동아리에서 잠시나마 같이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김성국 목사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은 익히 아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편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토록 풍성하고 지혜롭고 유능할 줄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때의 경험 이후로 김 목사님은 제 마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유능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김 목사님의 그런 존귀함이 퀸즈장로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과 신뢰와 성숙한 헌신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질서정연하면서도, 풍성하고 신실한 열정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 것 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선 굵은 리더십으로 묵직한 사역의 흔적을 남기신 장 목사님의 40년 가까운 헌신적인 목양 이후, 잠시 간의 성장통을 거쳐, 이제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10년의 세월을 넘기면서 열방을 향한 목양을 펼치고 계시는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다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진실로 기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귀 기울여 온 힘 다해 순종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야기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교회'가 되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김승욱 목사
한국 할렐루야교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슴에 심어준 교회

저의 모 교회이며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심어주신 퀸즈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이민사회를 품으면서 동시에 세계선교를 감당해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역의 다민족 사회를 품고 헌신해 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여러분이 걸어오신 발자취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긍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과거와 함께 더 자랑스러울 미래를 꿈꿔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퀸즈장로교회의 기반을 다져주신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저의 스승님들이셨고 영적인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저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오늘날 저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김성국 목사님 내외분과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조은아 교수
Associate Professor of Intercultural Studies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한 분 한 분,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을 뒤돌아 보는 퀸즈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어 듣다 보면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코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갈 하지도 허 하지도 않게 하신 아바 아버지!" 라는 감사가 터져 나오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0-13).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 오신 퀸즈장로교회 선진 세대 한 분 한 분도 축하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9-10).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며 문화적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시는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축하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진 세대를 본 받아 살며, 보고 배운 복음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도 부탁 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 다음세대 한 분 한 분도 축하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50년, 그 이후의 50년도 변함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퀸즈장로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손경민 목사
'은혜', '행복', '감사',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은혜라' 등 다수 작사,곡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

퀸즈장로교회는 "… 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국 목사님과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퀸즈 장로교회를 만났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과분하고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퀸즈장로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행복, 함께 모여 예배하는 행복, 기쁨으로 찬양하는 행복, 섬김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은혜' 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김성국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년 전 이별의 아쉬움은 10년 후에 더욱 큰 감사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 집회에도 가장 앞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귀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퀸즈장로교회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였습니다.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가장 귀한 삶'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가장 귀한 삶' 이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 닮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섬겨주신 사랑, 그리고 저희 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의 50년을 넘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퀸즈장로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퀸즈장로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승환 목사
필라영생장로교회, PA

큰 나무

퀸즈장로교회 50주년 기념 아가페 원고를 청탁 받고, 제목양실 책장에 꼽혀 있는 '교회설립 30주년기념 아가페 (2004년 2월29일 제 270호)' 를 빼어 보니 그립고 존경하는 고 장영춘 목사님의 사진과 글귀가 저를 반겨줍니다. 목사님의 따스한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하며 그 분의 손길이 책장을 뚫고 나와 제 손을 잡아 주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위하여 연고 없는 필라델피아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2002년 부터 2007년 까지 퀸즈장로교회를 섬기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20여년이 흐른 뒤, 이북 장산곶에서 장영춘 목사님을 부르셔서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중국 청도에서 이용걸 목사님을 부르셔서 필라델피아에 영생장로교회를 설립케 하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케 하셨습니다. 와 보니 퀸즈장로교회와 영생장로교회가 닮았는데 그것은 고 장영춘 목사님과 이용걸 목사님께서 사제 지간이셨을 뿐더러 두 분의 영성이 동일하며, 저 또한 고 장영춘 목사님께 목회를 배워, 존경하는 원로 이용걸 목사님과 영생장로교회의 영성에 어긋남 없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에 그리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 장영춘 목사님과 퀸즈장로교회는 큰 나무입니다 (마 13:32). 지난 50년간 수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영혼의 쉼을 얻었으며 (마 11:28) 특별히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세계 곳곳에서 보고 배운대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음박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대 김성국 목사님의 목숨을 건 목양과 열정적인 리더십 하에 미주한인교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믿음으로 선도해 가며, 귀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만인의 흠모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민 초기 50년전의 퀸즈장로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는 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지속될 것임을 보여 주는 귀한 예표입니다. 지난 세월 하신 그대로, 쉬지 말고 먼저 달려 가십시요.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박성권 목사
베델교회, CA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퀸즈장로교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을 이루시고 50주년을 맞이 하는 주님의 신부되는 퀸즈장로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서 태어나 존경하는 원로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저의 출산부터 유아세례, 입교, 결혼예식과 제 다섯 자녀들의 유아세례까지 다 집례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었고 또 디모데 처럼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이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하며 솔선수범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다음세대를 주님의 열정으로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제 기억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영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 이 이민 한인사회에 한 밀알의 씨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선교로 주님의 꿈과 나라를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 오셨던 퀸즈장로교회의 DNA가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퀸즈장로교회로 다음세대와 다세대 민족의 복음을 위해 성벽을 쌓아 나아가는 전진적인 교회가 됨을 알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늘 건강한 퀸즈장로교회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사랑충만, 그리고 감사충만으로 전능하신 주님께 늘 쓰임 받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고 충성하는 퀸즈장로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이윤석 목사
부르클린제일교회, NY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

퀸장의 희년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1974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으로 걸어온 퀸장의 희년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와 기도로 설립되어 건강한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김성국 목사님과 사모님의 열정과 겸손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양육과 선교의 귀한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보는 이들의 기쁨이 되도록 하셨으니 축복합니다. 필자가 퀸장에서 9년을 섬기고 또 다시 10년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받으시는 교회됨에 대해 마음에 감사함과 만족함이 여전하여 퀸장 희년의 나팔을 함께 불어 소리를 더해봅니다.

첫째, 퀸장은 한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답게 거룩한 열심과 청결한 신앙으로 달려왔으며, 대뉴욕 지역 교회 기관들에 대해 보수적 신앙의 선도역할을 해 왔습니다. 든든한 개혁신앙의 내용과 선도적 신앙 인도로 뉴욕의 한인들이 보수신앙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전도폭발이란 적극적이고 복음의 진수를 담은 확신에 찬 전도수단을 통해 교회를 전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천국열쇠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9년 동안 저도 이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예배의 구성으로 예배의 감격과 더불어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최근 십년동안 집중적인 선교지 사역뿐 아니라, 교회 내의 다민족 선교 비전이 놀랍게 성취되어 4개 국어로 예배를 드리며 열방을 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학재단을 만들어 2세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절기마다 관공서와 장애인들을 도와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로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섯째, 2세들을 향한 열정으로 교사들이 장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며 체계적인 교육에 앞장 선 교회, 철저한 양육 시스템과 전진의 모습으로 이민 교회의 차세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사역의 핵심에 장영춘 목사님과 김성국 목사님의 예수로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몸을 세우려는 철저한 개혁신앙 메시지의 일관성이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쓰임 받으며, 경기장의 선수의 역량을 가지고 개혁신앙의 직선궤도를 달리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결한 교회로, 온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교회로, 지속적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실 것을 확신하며, 퀸장에 시시각각 희년의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Soli Deo Gloria!

김재형 목사
뉴욕교회, NY

고향 집 같은 '우리 교회'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를 신실하게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고향 집 같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훈련시켜 주시며 다듬어 주셨던 저의 '고향 집' 입니다. 교회의 밥을 먹으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고 겸손하게, 온 몸이 다 부서지도록 평생 그 자리를 지키시고, 섬기시던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 선배님들의 모범을 눈으로 보며 배웠고(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또한, 반면교사로서, 닮지 말아야 할 분들의 모습들도 마음에 새기며, 조심하고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처 주었던 분들은 깊이 마음 속에 품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의 고향 집, 우리 교회, 퀸즈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추억들입니다. 고향 집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믿음의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고향 집, 퀸즈장로교회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로 더 든든히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성윤 목사
Eternal Life Mission Church, PA

지난 50년의 감사, 앞으로 50년의 기대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고 장영춘 목사님과 담임 김성국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신 역사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그 많은 무리들 중 한 사람인 것을 생각 할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남 부터 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 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속담을 빌려 사용하자면 “한 크리스찬을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세례 교육부터 해서 새신자 훈련, 주일 학교, 선교회, 등등 여러 사역들을 통해 교회는 다민족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지난 50년 동안 세워 나갔습니다 (엡 4:12).

50주년을 뒤돌아 보며 축하와 감사가 넘치는 동시에 앞으로의 50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미주 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통계 때문에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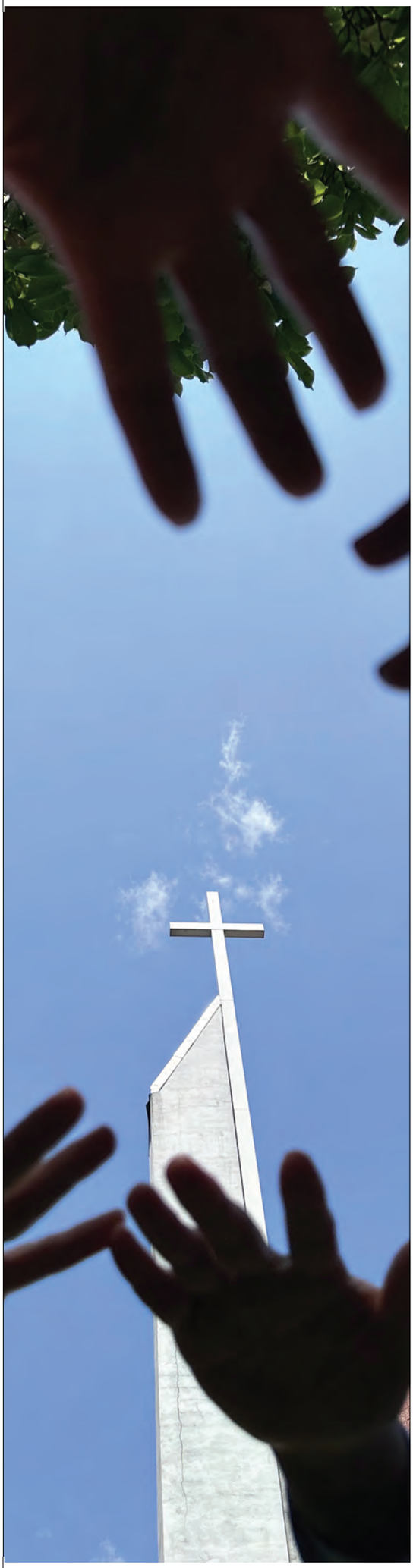
- 교회들의 평균 역사는 92년이며 국립 역사 유적지 교회들을 제외하면 약 75년의 역사를 이룬다.
- 미국 중간 연령은 39세이지만 교인 중간 연령은 60대 초반이다.
- 목사 중간 연령은 57세이며 평균 재임 기간은 4년에서 6년사이다.
- 각 지역 교회의 평균 성도 수는 약 65명이다.
- 매년 개척되는 교회 수 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수가 많다. (예: 2019년에 3,000 개의 교회가 개척 되었지만 4,500 개의 교회가 해체되었다)

저도 목회자로서 미주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몇가지의 진리를 다시금 제 자신에게 깨우치며 교회 통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끊임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퀸즈장로교회에게도 이 진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지역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능력이 부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 입니다 (H. Ridderbos). 어떤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 16:18). 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찌라도 그것은 폐쇄가 아니고 이주인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에 대한 신실함 입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입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과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은 다음세대 즉 앞으로 올 세대가 아니고 현 세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4).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충분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복음이 생명의 길 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의 단계를 지날 때 살아 남기 위해 유지와 보존 단계로 들어 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50년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이 진리들을 붙잡고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덕진 목사
Hospice Chaplain 사역

교회의 가르침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한 교회가 50년을 서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이 세대에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해 낸 교회인지는 저처럼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퀸즈장로교회의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의 50주년을 축하드리는 데 가장 뜻 깊은 일이 아닐까 하여 이 글을 씁니다.

장영춘 목사님께서는 몸이 아픈 환우들을 잘 챙기라고 늘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타향살이에 몸까지 아프면 그처럼 서러운 일이 없으니 환우 심방은 때를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른 교회에서도 제 사역의 일순위는 늘 환우 심방이었고, 그것은 점점 가장 큰 보람과 사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환우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호스피스의 채플린(원목)으로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교회가 아닌 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편견 섞인 시선이 느껴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권유도 자주 받지만,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심방하고 그들의 장례를 치러 드리는 사역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에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일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님께서는 제가 전도사때부터 목사 안수 받은 시기를 거치기까지 퀸장 선임 부교역자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 예보가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예배 나오기 힘들거라며 교회에서 주무시던 날이 많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셔도 늘 자리를 지키시며 목사가 그 자리에 늘 있어야 성도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지쳐 낙심하던 때에 우촌에서 설렁탕 한 그릇 사 주시며 힘내라시던 목사님 덕에 다시 일어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았던지요.

저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셨던 김승욱 목사님께서는 잘 사는 것만 가르치고 더 이상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명 감당보다 교세 확장에 힘쓰는 교회들이 더 자주 보일 때에 들은 말씀이라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라는 생각에 지금도 기회가 될 때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탄도 시험할 수 없는 열심으로 사역하라시던 조정한 목사님, 학자의 지성과 설교자의 영성을 동시에 보여주신 엄태용 목사님. 지면이 좁아 다 열거할 수 없는 퀸즈장로교회의 수 많은 가르침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50년이라는 세월동안 퀸즈장로교회가 빚어내고 만들어 온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또 다른 50년과 그 후까지 더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02

특 별 인 터 뷰

김성국 목사, 목회자로서 40여년 한 길을 걸어 왔다. 올해 11월이면 퀸장의 담임목사로서 섬긴지 11년째다.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긴 7년을 더하면 퀸장을 18년째다. 그의 목회와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새 성전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새성전 2층 대예배실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50주년 기념 특집 아가페- 김성국 담임목사님 부부의 삶과 목회

대담: 최원일 장로 이정혜 권사

열정보다 사랑이다!

열정보다 사랑이다!

최원일 장로 (최): 목사님, 보통 하루 몇 시간 주무십니까?

김성국 목사 (목사님): 글쎄요… 날마다 다른데, 다음날 사역이나 설교가 있으면 잠을 덜 자거나 설치는 편입니다. 그런 날은 두 세 시간… 다른 날은 다섯 시간 정도 잡니다. 항상 신인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 날 내가 마주할 일들에 대한 새로움이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습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최: 목회 여정 40년인데 아직도 신인 같다는 말씀이 좀 의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목사님: 목회와 말씀 전하는 일은 경험이 아니더라구요. 항상 새로운 일들이 발생해요.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일은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와는 다르죠. 옛날 강의 노트를 반복하고 추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비슷한 패턴 같지만 누군가를 영적으로 상담하는 일은 제가 아닌 그 분에게는 새로운 일이죠.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이야기이니 저 역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지요. 상담은 내게는 익숙한 일이지 하는 자세로는 그 분에게 공감이 되질 않지요. 항상 모든 상황이 새롭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고 또 새로워져야 하기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목사님이 "No"라고 하시는 것을 저로서는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 가며 전력 질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전력 질주하게 합니까?

목사님: 사랑이죠. 주님의 부름에 대한 저의 반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 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때는 다 뛰어 넘잖아요. 늦는 것도 상관없고, 기다리고, 달려가고, 참고..

최: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사랑이다?

목사님: 맞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면 주님의 모습이 묻어 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마음을 비우시고 험한길을 가신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길 가운데는 가시밭길도 있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까지 담보해야 한다면 제가 보이는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흉내조차도 부끄러운 오직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있을 뿐이지요.

최: 그 가시밭 길을 헤쳐 가는 것은 혼자만으로 힘드실거에요. 목사님께 필요한 동역과 돕는 손길들을 적절히 공급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목사님: 그럼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베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조력자이구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스탭들과 교역자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너무도 익사이팅(exciting) 한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멋진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정혜 권사 (이): 목사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많은 돕는 손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모님 역할일텐데요. 사모님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일까요?

김명자 사모 (사모님): 목사님과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귀중한 일을 맡고 있으니 제가 귀를 기울여서 목사님께 항상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고 감사 해야하는데 어떤 때는 제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소통문제…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목사님 사역에 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 사모님께 드리는 첫 질문인데… 첫 질문부터 눈물로 답하시네요… 다른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와 목사의 아내로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정보다 사랑이다!

사모님: 밤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증거되지 못할 때 목사님이 갖는 마음 아픔, 복음이 잘 전달 되었을 때 목사님이 느끼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인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제가 긴장을 놓질 못해요. 목사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주먹을 꽉 쥐게되고… 끝나는 순간 저의 긴장도 함께 풀리죠.

이: 두 아드님도 아버지와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모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어머니이시기도 한데 세대가 변하면서 사모로서의 역할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사모님: 예. 더러 느끼죠. 저의 남편과 아들들이 목회자로서 세대 차를 느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아이들 양육 방식등에 있어서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 가정이 휴가를 같은 기간에 내고 그 기간 동안 아들들 뿐 아니라 며느리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다음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 이들과의 진솔한 대화는 목사님과 저에게는 사실 많은 공부가 되요. 본질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소통의 문제로 여겨져요.

최 : 다민족 목회, 새 성전 건축등은 지나놓고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 편리한 해석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릴 당시로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본다면 모험과도 같은 중대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중대한 결단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데 목사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목사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지점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의 목회에도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민족이고 새성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잘못 디디면 저 혼자만이 아닌 수많은 이들이 같이 헛 디디는 것이 될텐데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확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떠나고 있던 플러싱에서의 변화된 목회 환경은 저

열정보다 사랑이다!

에게는 벼랑 끝과도 같았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기도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다. 한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저들 모두를 나의 자녀로 삼는 그 예배공동체를 꿈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꿈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열릴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최: 내년이면 다민족 목회 10년을 맞습니다. 누구도 먼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다민족 목회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채운 빈칸은 무엇이고, 앞으로 채워 가야 할 빈칸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십니까?

목사님: 기독교를 특징 짓는 핵심 어휘 가운데 하나로 '코이노니아 (Koinon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교, 연합, 함께하기라는 뜻입니다. 언어 장벽, 민족적 관습과 문화적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이대로"를 유지하는 편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편리함을 애써 마다하고 어떻게 연합하는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강렬한 체험을 통해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민족이 연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것이 친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는 성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성찬의 레시피 (recipe)를 발견한 것이죠. 그 레시피는 내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아 줘서 함께 먹고 함께 버무리

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즉 코이노니아 레시피입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권 회중을 이끌고 있는 다민족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저 자신이 담임목사로서 나눔과 포기와 수용과 어울림이라는 코이노니아 레시피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채워가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이 보여주는 '한 새 사람', 즉 'one new man'을 향해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민족간의 친교를 통해 one new church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기대됩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목양 칼럼을 매 주 쓰고 계십니다. 10년을 한주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문학을 사랑하고 글쓰기를 즐겨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매주 정한 시간에 묵상을 글로 승화 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목사님의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며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목회자의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엄중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묵상되게 하는 것이 저의 글쓰기입니다. 써 내려가다 보면 더 정직한 묵상이 되더라구요. 영적 지도자가 매 시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앙 공동체와 공유하는 것은 목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양칼럼을 쓰는 것은 의무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작업입니다.

열정보다 사랑이다!

이: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장점 또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사모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설교나 훈련, 공부를 준비하는데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수많은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데…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목회자 가정, 목회자 부부의 철칙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사모님: 부부가 살면서 저희라고 왜 싸울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꼭 3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요. 목사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사실 제가 잘못했을 때에도, 목사님이 먼저 사과하세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셔야 하니까요. 그걸 풀지 않고 설교를 하면 너무 괴롭다는 거에요. '아내의 마음도 풀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 약속을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켜 오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의 보물 중에 큰 보물이에요.

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 가셔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잘못하셨을 거에요. 사모님이 늘 옳아요. (웃음)

목사님: 맞아요 (웃음)

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님이 지도하시던 청년부 때도 들었어요. 청년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그 때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는 화를 품은 채 잠 자리에 들지 않는다, 싸운 채 밤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3분 이었던 거네요.

최: 3분은 카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음) 사과의 타이밍도 3분이네요. 근데 정말 타이밍을 놓치면 점점 하기 어려워지는게 사과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틈이 생기면 갑자기 더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상상이 커지게 되죠. 마귀에게 그 틈을 내주고 싶지 않은거에요. 여기는 주님의 땅이니까 마귀는 있을 자리가 아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3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집은 안되겠다 머쓱해서 가도록요.

이: 휴가가 생기면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짧은 여가가 생기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최: 여가가 있기나 하세요? (웃음)

사모님: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시간이 나면 목사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해요.

최: 목사님의 목회에는 산책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끝난 13주 과정 기독교 세계관 훈련 과정에도 문학산책이 있었고 펜데믹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펴낸 공동 묵상집의 제목도 "하나님과의 산책" 이었는데요. 그 묵상집에서 목사님은 "그 순간 맨하탄이 제대로 보였다. 맨하탄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다. 맨하탄은 거친 광야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의 배경인 뉴욕과 맨하탄에 대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목사님: 맨하탄은 화려하잖아요.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살아요. 높은 연봉이 있고 화려한 쇼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실패한 것 같은 노숙자도 있고 소상인들도 있는데 거기서 모두 다 울고 있어요. 화려한 직장인들도 멋진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다 울더라구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칠고 힘들고 비바람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곳. 아무리 화려해도 그 곳은 광야입니다. 모두가 풍랑과 맞닥뜨리고 있으니까요. 광야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당신도 광야, 나도 광야에 있지만 이곳 너머가 있으니 가야 해, 갈 수 있어, 자꾸 뒤돌아 보지마 하는 메시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지만 여전히 소망과 기대가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고, 깎아 내는 곳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일어나라고.

최: 저도 맨하탄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맨하탄은 광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퀸장이 저에겐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 40여년 목회 인생가운데 수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퀸장을 퀸장이게 하는 독특한 빛깔이나 소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가 퀸장에서 분명하게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는 왕의 소리, 또 하나는 종의 소리 입니다. 왕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종들이 "네"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명령하시는 소리에 장로님들이 "네"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네"하면서 왕을 왕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기쁩니다. 왕께서 말씀하시네, 그의 종들이 여기 있다고 하시네. 왕의 소리, 종의 소리가 퀸장에 아주 선명하다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최: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희년을 맞이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신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일 텐데요. 이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희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너희가 맘대로 살아왔다고?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너희는 내려놓아라, 돌려놓아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주님이 주인되심을 상기하는 시간이구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것을 풀어주라는 거에요. 우리가 우리됨, 코이노니아의 맥락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무시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섬기시며 장거리 사역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시느라 수척해지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다음달이면 임기를 마치시는데,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동안 이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셨는지요?

목사님: 특별히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총회가 가졌으면 했던것이 매거진, 정기 간행물이었어요. 우리 것을 담아내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저기서 이런 모임, 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뿐 전체를 아우르는 톤(tone)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년 간의 준비 끝에 헬라어로 천국, 왕국이라는 뜻을 가진 잡지 〈바실레이아〉 창간호가 곧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 울타리안에만 갇히지 말고 다른 이들과 연합하고 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의 왕국이라는 그림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의 킹덤 (Kingdom), 바로 "바실레이아"를 강조한 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매거진을 통해 그 뜻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최: 인터뷰를 마칠 시간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저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한 자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의 자리였어요. 설교가 저의 큰 갈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잘 해서가 아니라 설교는 제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본업이고 본질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설교가 주는 영광이 큰데 이것을 부여잡고 사는 저는 너무 감격되고 송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가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이, 실패도 많이 했고 말도 어눌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에요. 제가 만난 가장 큰 기적의 하나입니다. 설교는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아드님의 목회자로서의 길을 위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혹시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이 있으신지요?

사모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나침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이 기준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최:목사님, 사모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을 기획한 아가페 특집호 발간위원회, 방송영상팀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측의 QR Code를 스캔하시면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3

대 담

충성과 아멘의 삶

권장&은퇴장로님

참석자: 장봉석, 이무근, 황주현, 김영오, 허경화, 김용생, 김원도, 임정

진행: 채영주, 계화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를 써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 허경화 장로님, 김용생 장로님, 황주현 장로님, 이무근 장로님, 김영오 장로님, 김원도 장로님, 임 정 장로님, 장봉석 장로님을 모시고 아가페 웨이브 예배실에서 허경화 장로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채영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사역연도와 사역 초창기는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경화: 1986년 장로로 장립을 받았고 2007년에 은퇴하였습니다. 1975년에 이민 와서 2월 23일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에 처음 출석하였고 설립 초기 김동훈, 이규성 장로님 두 분만 계셨는데 허경화, 김기호, 박선도, 홍순용 네 명의 장로가 더해져서 6명이 되었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부흥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생: 1980년 등록, 1998년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충성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황주현: 1965년 조국을 떠나 몇 개국을 옮겨가며 살다가 1979년 미국에 도착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거주 후 1980년 전 가족이 함께 차로 대륙횡단을 하여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 장영춘 목사님의 배려로 등록하여 본 교회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8월 24일 본당 기공예배를 드릴 때 고 황선희 권사가 반주를 한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이무근: 2002년 장로로 장립 받았고 2022년에 은퇴하였습니다.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권면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에는 회계실 봉사로 화장실 몇 번 다녀오면 오후 6,7시가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아가페 편집장으로 원고 청탁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인쇄 기술이 좋은 때가 아니어서 사진이 검게 나오면 야단 맞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김영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무 장로로 사역하였습니다. 1979년에 미국에 와서 친구 소개로 온 가족이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량 운송부장으로 당시 교회 버스가 20대가 넘게 있을 때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임정: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시무 장로로 사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의 소개로 퀸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장봉석: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무장로로 사역하였습니다.주재원으로 발령받아 뉴욕에 왔을 때 이억채 집사의 인도로 등록하였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선교, 재정, 의전을 맡아 사역하였으며 밤 늦게 집에 가야 했으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도 교회에서 부르면 항상 달려와서 섬겼습니다

채영주: 많은 사역들을 담당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허경화: 1975년에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였고 1978년 맨하탄 음대 강당에서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였습니다.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일이라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며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휘자, 독창자, 관현악단을 극적으로 구하게 되어 훌륭하게 메시아를 연주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두번째는 성전을 완공하면서 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 한글 학교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는 꿈을 이루어 가게 되었고 신학교까지 설립한 것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조부 허응석 목사님께서 31세로 전도사로 섬겼던 황해도 장연군의 서의동 교회에 장영춘 목사님의 조부 장치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곳에서 저는 장로로 장영춘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였습니다. 교회 초창기 목사님이 부르시면 주일, 주중 밤낮에 상관없이 달려가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드리려 애썼습니다.
김용생: 찬양대를 위해 봉사했던 일과 새 교우 부장으로 처음으로 총동원 전도 주일 행사를 했던 일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홀에서의 메시아공연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 오릅니다.
황주현: 차량부에서 봉사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첫 임직 장로님들이 기증한 대형 버스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겼던 일이 생생합니다.
이무근: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아가페 특집호를 만들기 위해 9개월 동안 밥 사 주어가며 원고 모집했던 일과 편집 과정에서의 목사님과 의견 조율을 어렵게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김영오: 차량 운송부장으로서의 사역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설교를 위해 다른 교회로 가시는 장목사님을 모시고 다닌 일과 교회행사시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공항에서 교회로 모셔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김원도: 당시 찬양대 대장 장로님께서 출장이 잦은 일을 하

고 계셔서 저를 처음으로 부대장으로 임명하셔서 섬기게 되었는데 유난히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애로 사항을 장영춘 목사님께 이야기하던 중 "걷지 못하면 업고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 기도하던 중 그 말씀이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35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귀에 생생히 들리는 듯합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지표가 되었습니다.

임정: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송 받아 사역하며 선교사의 영주권 해결, 교회 재산을 종교 재산으로 등록하는 행정적인 처리와 함께 현재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일훈 선교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장봉석: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초청한 중국 교포의 칼춤 퍼포먼스를 예배 중간에 장영춘 목사님이 중단시키셨고, 당시 부목사로 있던 하경남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기억이 새롭습니다.

채영주: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현장에서 섬기신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성전 건축할 때의 상황과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의 새성전 건축을 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가요?

허경화: 1981년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설계사 윤원국 장로(윤원상 전도사의 형)와 여러 번 만나 교회 설계도를 만들고, 땅을 파고, 철근들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 나갈 때 남자 집사님들이 매일 숙직을 서며 기도하던 일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자 전도회(현 여자 선교회)에서는 성전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하였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김용생: 처음 성전 건축할 때는 집사였는데 두 사람씩 현장을 지키며 숙직했던 것이 생각납니다.새성전이 속히 완공되어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 땅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황주현: 샌프란시스코에서 쌓은 1년간의 페인트 경험을 살려 퇴근 후 교회로 와서 늦은 시간까지 페인트 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장목사님께서 저녁 심방을 다녀오시며 들리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이무근: 파킹장에 둔 컨테이너에서 야간 불침번을 섰었던 일이 생각나며 입당 예배를 드렸던 때의 감동이 새롭습니다.

김영오: 본 성전 건축 당시 매년 있었던 성전 건축 바자회을 열심으로 섬겼던 일이 생각납니다. 새 성전을 향한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바라며 천사, 만사 건축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어려움 없이 새 성전 건축이 마쳐 지기를 기도합니다.

장봉석: 금년내로 새 성전이 TCO를 받아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채영주: 당시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어서 밤에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며 공사현장을 지키셨던 일을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허경화: 은퇴한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이사회의 부이사장 이외에 특별히 맡은 사역은 없으며 제직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회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황주현: 교회 안팎 정리, 조경수를 정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 찬양대와 킹스콰이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오: 은퇴 후에도 선교회 회장으로 봉사를 계속했으며 차량 운송부에서 힘 닿는데까지 봉사하였습니다.

김원도: 총회 임원으로 섬겼습니다. 찬양대, 킹스콰이어에서 봉사합니다.
임정: 아가페 웨이브 보조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봉석: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드려 기도하고 더 크게 더 많이 선교하기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화자: 교회에서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는 어떠셨나요?

허경화: 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자녀들이 보고 함께 따라오도록 한 것뿐입니다.
황주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전원이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무근: 자녀가 하나 더 있다면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수동적이었는데 지금이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오: 자녀들이 결혼하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하고 있으며 7명의 손자 손녀들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장봉석: 많이 부족하여 매일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영주: 선배로서 후배 시무장로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가요?

허경화: 교회 평안과 부흥을 위해 늘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 것, 당회에서는 항상 아멘!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생: 모든 것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무근: 상식과 열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넘쳐서 상식(배려)이 없어지면 민폐를 끼치고 상식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김영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원도: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후원합니다.

장봉석: 장로는 봉사직이며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우리 교회의 근간인 KM을 더욱 부흥시켜야 합니다.

계화자: 마지막으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퀸장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허경화: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합시다.
김용생: 우리는 영적 장자 이민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알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되기를 기도합니다.
황주현: 계속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무근: 감사, 감사, 감사,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퀸장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돼야 합니다.
김영오: 은총의 5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봉석: 오직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화자: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장로님들의 섬기심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감사의 삶

참여: 황은애, 채현주, 김미견, 민미숙, 함정순, 김경구, 최여순, 손숙자, 김연희, 정영숙 진행: 최효진 장소: 토기장이 북카페 @4/6/2024 (9:00-10:30)

최효진: 오늘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셨는지, 어느 부서에서 그동안 봉사하셨는지로 오프닝을 해볼까요?

함정순: 저는 거의 창립 멤버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찬양대로 40년 봉사했어요.
민미숙: 저는 김미견 권사님의 어머니셨던 노임순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지 7년 되던 해에 왔어요.
김미견: 저는 1977년 도미해서,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그후로 찬양대와 지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저는 1983년에 등록해서 찬양대, 한국학교, 선교회와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그리고 관혁악에서 41년간 섬겨왔습니다.
채현주: 저는 1993년에 등록해서 찬양대와 교육부에서 27년간, 그리고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여순: 저는 47년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주로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김연희: 저는 91년에 등록해서 교육부서의 교사와 부장으로, 그리고 아가페 편집 위원으로 봉사하다가 지금은 블레싱과 그레이스 합창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저는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고등부 교사와, 찬양대로 섬기다가 지금은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황은애: 저는 1979년 2월 15일에 도미해서 바로 그 주에 퀸장에 등록하고, 영아부 부장으로 27년, 그리고 찬양대와 지역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손숙자: 저는 1997년도에 교회에 와서 영아부 교사로 19년간 섬겼습니다.

최효진: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감사했거나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 한가지 씩 한번 나눠볼까요?

채현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보게 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함정순: 저는 우리 교회가 카네기 홀에서 찬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수많은 바자회를 했던 기억이 감사하고,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는게 정말 감사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최여순: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믿음생활을 배우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성도들에게도 제자훈련을 권했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교육부서에서도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숙자: 제 나이 80에 가장 감격했던 것이 50주년 행사에 의상팀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한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구약시대의 의상을 준비한다는 부담감으로 의상 스케치를 위해 Jewish Museum도 가보며 몇번이나 고심하며 수정했고 그 결과물들이 김미견 권사님과 민미숙 권사님과 함께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김미견: 저는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겼던 때와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할 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규성 장로님 가정에서 장소를 오픈해주시고, 저희 가정은 빈대떡을 담당하면서 여러 교회분들이 전기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빈대떡을 열심히 부쳐서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가득했던 기억

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황은애: 저는 장영춘 목사님때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함께 공부했던 믿음이 연약했던 가정들이 최근에 권사로 임직받았다는 소식과, 또 전도했던 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영아부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여전히 퀸장을 자랑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민미숙: 저는 남편과 함께 직분을 받기위해 18년간 남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다렸다가 함께 직분을 받은 때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들려서 '오늘은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갈까?' 하고 젊은 나이에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던 그 모습이 아직도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것 같습니다.

김연희: 저는 갓난아이 신앙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어른들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시기도 하고 연로하신데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직장 관계로 COVID-19을 겪으며 교회의 많은 어른들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일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영숙: 저는1994년 2월 27일 [양순관] 헌당을 큰 기억으로 꼽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셨지만 자녀들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헌금해주신 시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순관]을 영어 예배부와 중국 예배부가 사용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성전 역할을 하게 된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03년 2월 23일 남편이 장로로 임직 받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효진: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권사님들의 30대, 40대, 50대의 우리가 잘 모르던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것 같아요. 집을 내주고, 밤을 새고, 빈대떡 냄새로 온 집이 가득하고, 참 열심히들 달려오셨던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김미견: 지금도 우리 교회 젊은 직분자들이 참 잘 섬기고 있어요.

최여순: 맞아요. 우리 교회의 젊은 직분자들이 참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영춘 목사님과 김성국 목사님이 보여주신 리더쉽과 더불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웠던 기억은 저에게 교회 찬양대 가운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남편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남편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온 몸의 세포가 일어나서 노래부르고, 성령충만하고, 감히 나같은 존재가 예배 때 입는 찬양대 가운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시 드리는 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정순: 최여순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예전에 찬양대의 철제 의자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가운데 스폰지로 덮여있는 의자로 바꿀 수 있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드릴 형편이 안되었는데 기도한 대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철제 의자를 다 바꿨어요. 지금은 교회가 그때에 비해서 참 풍족해요.

황은애: 저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를 지어서 이사올 때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전의 그 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크게 교회를 지었지요. 우리 교회에서 영아부 부터 자란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영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믿음이 자라고, 이번에 영아부에서 올라가서 임직자가 된 분들을 보면 감격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교회 30주년 때 카네기홀에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나 카네기홀에 설 기회가 없잖아요. 50주년 행사 때, 제 인생의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마지막 곡을 네 나라 언어로 부르면서 그 마지막 찬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손숙자 권사님이 직접 디자인했던 옷들을 입고 찬양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다니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당이 꽉 찼던 그 뜨거운 감격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김미견: 저도 30주년 행사 때의 감격과 권사 임직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선진들의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던 조심스런 마음과 감동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총회를 총선교회 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격스러웠고, 50주년 의상을 준비하며 손숙자 권사님과 한 팀으로 섬겼던 그 기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교회분들과 일을 나눠서 함께 한 팀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숙자: 저도 김미견 권사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일단 일이 떨어져서 하긴 했는데, 거의 3개월동안 봉사하면서 싫다는 마음보단, 계속적으로 디자인을 바꿔가며 연구하던 그 시간들이 보람 있었습니다.

채현주: 저도 권사로 임직받을 때와 남편의 장로 임직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30주년 행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유년부에게 떨어진 미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선포하는 그 찬양대로 아이들의 인생이 정해질 거라는 생각에 곡 선정에 아주 고심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군병]과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만 믿을거예요] 라는 이 두 곡을 정했는데 그때 참여한 아이들이 계속 신앙으로 자라나고, 지금도 이 아이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최여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다민족 교회를 선포하실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봐요. 모두들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황은애: 우리 교회 출신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 곳에서 좋은 리더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영숙: 저는 우리 교육관 헌당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건축 후에 등록하였기에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에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잘 하고 있고, 이렇게 다민족 회중을 위한 새성 전 건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최효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잘해야 하는 것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네요.

김경구: 저는 우리가 새 교우 분들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은애: 새로운 가족은 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챙겨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예배드리는 자세와 옷차림입니다. 좀 더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다니는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생각외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음식을 돌아가면서 챙겨주는 것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들거나, 새로 왔을 때 함께 어울리고 챙겨주는 것을 우리 교회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영숙: 저는 교인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살펴 주고 새 교우들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부교역자들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끼리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교

회에 관심을 가질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개방하고 다민족을 위해서도 성전개방이 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후러싱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더 많은 다민족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땅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뉴욕의 후러싱이 모든 민족이 모인 땅끝이 아닐까요?

김연희: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계획들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더욱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 더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마음에 품는 당당하고 멋지고 성실한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미견: 제 생각에는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신경 써서 가야 할 것 같고, 다민족 예배와 부흥도 중요하지만 KM의 부흥도 중요하고 2세, 3세의 부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미숙: 맞아요. 예전에 사순절 때면 파슨 블러바드가 우리 교회로 오는 차들로 가득했는데, 다시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민족과 우리 한인들도 다수로 잘 유지하고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김경구: 사순절 때 우리 교회로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 전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 를 하던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황은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타 교회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여순: 우리 교회처럼 사순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곳이 없지요.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하세요.

손숙자: 한국에서 이민 오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김경구: 한인들이 예전에 비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손숙자: 젊은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해서 젊은이들을 좀 더 예배의 자리로, 일어서는 세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전도가 더 활성화 되고,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이 한팀이 되어서 젊은 세대를 인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최효진: 아직도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나눴던 말씀들처럼, 돌아보니 감사와 감격도 많고,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오늘 함께 자리해주셔서 귀한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

참석자: 김명자, 심의례, 계화자, 이명옥, 이소영, 이양미, 함미희, 홍현숙, 김미영, 전진영

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퀸즈장로교회를 여전도사님으로서 섬기셨고 또한 지금 섬기고 계신 전도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 좌담을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 여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퀸즈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먼저 심의례 전도사님께는 어떤 계기로 퀸즈장로교회를 오시게 되었나요?

심의례: 저는 한국에서 78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고 90년도에 도미하여 3년간 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길자연 목사님의 소개로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장결자 심방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시험받은 성도를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저를 매주 초대해 주셨습니다. 심방 중에 투병 중인 남편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인은 왜 자꾸 방문을 하냐고 면박을 주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문하였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되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김명자 전도사님은 고 장영춘 목사님과 친척관계이신데 퀸장에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김명자: 네 전, 아이들 유학 보내느라 미국에 왔는데 집이 준비가 안되어 사촌오빠이신 장 목사님 댁에서 한 달 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장로님의 사업상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던 중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98년 장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바로 들어와 교회 전도사로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이틀 만에 미국으로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길도 모르고 지도를 보고 심방을 하다 보니 하루는 롱아일랜드 교우집을 찾아가다 너무 어두워 불 켜진 곳만을 따라갔더니 소방서였습니다. 친절한 소방서 덕분에 심방할 집을 찾은 적도 있고 뉴저지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져 의도치 않게 1박 2일로 심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는 네비게이션이 없던 때라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그 때 많은 전도사님들의 헌신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집니다.

김명자: 장 목사님의 친척이라 더욱 더 조심스럽고 목사님의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욕먹을 테니 더,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남동생의 투병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온 후 장례식도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교구의 결혼식과 겹쳐 못가게 되어 아직도 그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계화자 전도사님은 간호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시게 됐나요?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사역을 병행하시면서 힘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계화자: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좀 알아 교우 식구들에게 쇼셜 워커처럼 조언을 좀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가셨는데 인터뷰 통과가 안 되어 갑자기 전도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역 시작 당시 두 남매는 초등학생이었고 남편은 매일 11시가 가까워 들어오는 저에게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같았습니다. “심방했어요. 놀다 온 것 아니예요!” 심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둥근 달을 보며 “하루 종일 잊고 있었던 자녀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퀸장 먼저, 그리고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계 전도사님처럼 이명옥 전도사님도 얼마전 은퇴를 하셨지만 계속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명옥: 저는 79년에 미국에 와 그 당시 이규성 장로님의 장녀 김미영 사모가 사무실도 없이 교회 사무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느라 몇 번 장 목사님 댁에서 장결자에게 편지 보내는 사무일을 돕다가 결국에 장 목사님의 비서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이 없으신 장 목사님과 같이 일하니 밤10시에도 주보 원고를 기다리기도 하고 지금 교회의 자리에 이사 오고 히팅도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 “I am almost dying” 이라고 팩스를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첫아이를 낳고 영아부가 없어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고 예배를 드리다가 사역자가 오셔서 영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신학교를 권고하시는 가운데 삼하 7:18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권사 임직후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사에서, 부장을 거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돌아왔을 때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부담감을 느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선배 전도사님들의 사역 방식을 들으면 젊은 세대의 전도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진영: 선배님들의 말씀은 들으면서 많이 놀랐고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의 문화가 그랬고 전체적인 사역 방식이 그랬으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소영: 선배님들의 사역은 듣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자: 우리 때는 새로 들어온 전도사는 문 옆에 앉히고 매우 군기가 셌습니다. (하하)
이양미: 그렇게 군기가 세서 이렇게 50주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하)

이소영, 전진영 두 전도사님의 사역 계기와 지금 사역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소영: 저는 새가족을 맡았고 새가족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등록했을 때 이명옥 언니 전도사님이 케어해 주시며 청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별로 반응 없이 무시했던 기억이 있어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웃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새 교우들이 작년에 와서 감사하고, 처음 온 교우들을 챙겨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가끔 남자 새 교우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남자는 남자 새가족 맴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하)
전진영: 전 유치부, 어와나, 한국학교, 특별활동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커리큘럼을 만들고 플래닝하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의 사역은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도 아이들이 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힘이 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사역같습니다.
함미희: 전진영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처음 왔을 때 같은 구역이라서 함께 식사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교육디렉터로 오라고 한 상황이라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 전도사님과 이양미 전도사님은 선배들과도 일을 했고 젊은 전도사님들과도 함께 일을 하셨는데 중간 입장에서 어떠신지요?

함미희: 저는 유년부 교사로 섬기던 중 유년부 전도사님의 권유에 순종하여 동부개혁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첫 학기 학기말 시험 바로 전날 유년부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서 첫 설교와 헬라어 시험을 앞두고 한 주간 내내 밤을 새운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후배들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서로의 다름과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도와서 발맞춰 나가려 합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사역자들을 세우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양미: 저 또한 동부개혁장로회 신학 중, 고 장영춘 목사님의 권유로 유치부 사역을 하다가 김성국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풀타임 심방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임하니 계 전도사님이 10시까지 일 안해도 된다고 럭키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감사하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 전도사님께서 많은 조언과 가이드를 주십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역과 교회 서무 일을 각각 담당하고 계시는 홍현숙 전도사님과 김미영 전도사님은 힘든일이나 즐거웠던 일들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홍현숙: 사역하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때로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길만을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에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김미영: 감사하게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큰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지원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사역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유아부를 담당했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집에서 부모님과 나누며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여사역자로 일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었이 있을까요?

김명자: 장결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심방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화자: 코로나 때 집에서 투병하던 딸이 이미 소천한 줄도 모르고 전화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부탁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제 가슴에 이슬 맺혀 있습니다.
함미희: 상상하지 못한 오해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으며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이겨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양미: 교인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날 때 힘들지만,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가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통로가 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힘든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마다 만드신 모습과 성격과 성향으로 인한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모난 모습이 있고 또 다듬어져야 하는 모습이 있으니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기려고 합니다.

이명옥 전도사님은 은퇴를 하고 다시 사역하고 계시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선 자들이 없으면 뒤따르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자 이전에 성도입니다. 이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일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것,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나가지만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여 주신 만남이며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믿음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무슨 일에나 내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바른길로 갈 수 있습니다.

n/a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님들께 한마디 하실 수 있다면?

김명자: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특히 대학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화자: 교회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섬겨오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와 다민족들이 교회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더욱 부흥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양미: 지난 50년간 교회의 모든 행사와 건축에 말없이 순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50년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소영: 퀸장이여! 힘을 내라 ~ 퀸장이여 빛을 발하라~ 퀸장이여! 영원하라 ~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영: 지난 50년 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홍현숙: 하나님께서는 잔잔함 속에서도 큰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퀸장이 지난 5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루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김미영: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히며 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든 사역이 다민족과 다음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50년간 퀸즈장로교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모든 여교역자님들이 이 자리에 모두 다 참석하였으면 좋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여기 계신 교역자님들의 말씀만을 통하여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느끼며 모든 여교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교회 모든 교우를 대표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하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미주와 전 세계의 모범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퀸장&1.5세

참석자: 참석자: 허강, 황태현, 최미희, 김지현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며

1.5세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리송한 단어입니다. 1세와 2세의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세대입니다. 단어가 그러하듯이 우리 1.5세들의 위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중간..... 1.5세로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영어예배와 한국어 예배를 대표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대표하는 네 분을 모셔서 1.5세로서 바라보는 지난 50년과 앞으로의 퀸즈장로교회의 방향을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권사님은 아버님 황주현 장로님, 고 황선희 권사님의 2남1녀의 장녀로 어려서부터 피아노 반주로 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남편 최성호 장로님께서 얼마전 장로임직을 받아 더욱더 큰 사명을 장로 사모로, 또한 교회 반주자로 감당하고 계시다.

황태현 장로님은 고 황동오 장로님과 황복순 권사님의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고 지금은 영어 예배부의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다.

허강 집사님은 원로 장로이신 허경화 장로님과 고 허애숙 권사님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지금은 안내부에서 섬기시고 계시다.

김지현 장로님은 은퇴 장로이신 김기호 장로님과 고 김정자 권사님의 2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나셔서 지금은 경배와 찬양과 청장년 선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가페 50주년 기념호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네 분은 한국어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영어 예배부 장로로서 퀸즈장로교회와 함께 지난 50년간을 함께 성장하셨고 이제는 부모님들의 헌신을 이어받아 계속적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퀸즈장로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황미희 권사: 저는 퀸즈장로교회에 1980년 10월에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8년 살다가 온 가족이 뉴욕으로 이민 왔습니다.
황태현 장로: I came to the church in early 1975 with my family. I was 7 years old at the time. My first impression of the church was that it was great having kids my age at church. Our family moved from central New Jersey to Elmhurst in January 1975 and the Korean church we attended in New Jersey was quite small. I recall my parents telling one another that it was such a blessing to hear Rev. Chang preach. 저는 75년도 7살에 뉴저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엘머스트로 이주하며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친구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장영춘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허강 집사: 75년 2월 10살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부모님과 바로 퀸즈장로교회를 출석하던 그 날이 1주년 예배였습니다. 이제 벌써 퀸즈장로교회를 나온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장로: 다들 비슷한 시기에 온 것 같은데 저는 78년 중학교 때 식구들과 함께 이민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성도교회를 다녔는데 뉴욕에 가면 고 장영춘 목사님이 계신 퀸즈장로교회로 가라는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핑계로 몇 주 필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작전(?)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이민교회가 생소하고 어리둥절하였고 좀 내성적이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친구들이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들 나중에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용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네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학생부를 졸업한 것도 있지만 83년 제1회 시와 찬미의 밤에 참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1회 시와 찬미의 밤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최: 네. 저는 그때 어렸는데 피아노 반주로 시와 찬미의 밤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토요일 학생부 성경 공부를 마치면 함께 모여, 혹은 서로 나뉘어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저와 허강 집사님은 졸업생 12학년이었기 때문에 학생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의 밤에 참여하였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던 기억뿐만 아니라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학생부행사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학하러 오신 이기선 집사님(지금은 장로님)과 함께 연습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와 찬미의 밤이 몇십 년간 이어져 오다가 한동안 없어져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샌포드에 있는 루터란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어렸을 때 성전 건축을 경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최: 성전 건축을 어린 나이에 보고 체험했을 때도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빌리지 않고 실컷 뛰놀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신났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건축하는 동안 온 교인이 같이 먼지도 치우고 청소하며 어린 우리들은 여기저기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옮긴 기억도 납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두번째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민자들로서 많이 힘드셨을거예요. 언어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퀸즈장로교회는 모두에게 위로와 영적 축복이 흐르는 귀한 곳이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성전도 많은 다민족 교인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뜨겁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 이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자재를 훔쳐 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청년들과 돌아가며 밤을 새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김지현 장로도 함께 지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건축하는 일에 모두 참여하여 부모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만…

김: 저 또한 루터란 교회를 빌려 예배드릴 때부터 학생부를 다녔습니다. 아직 어려서 남의 예배당을 빌려 예배드리는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를 가지게 되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지는 않지만 최 권사님처럼 그때는 성전 건축할 때 토요일 성경 공부가 끝나면 벽돌을 나르고 콘크리트 작업 밖에 안 된 본당을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해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팔뚝이 벽돌로 다 긁혀도 너무 재밌었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미희 권사

황태현 장로

허 강 집사

김지현 장로

황: The new building that our church is building for the next generation is a wonderful endeavor. It is a bit different from our parents building the sanctuary and the educational wing, but we can certainly relate with respect to the prayer, dedication and giv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and the excitement surrounding worshipping in the new church building. About 20 years ago, the vision that some of the recently retired elders shared with me was for QPEM to grow in number and worship in the main sanctuary. The vision has changed, so that instead of our church transitioning, it is transitioning and growing. 새 성전 건축은 놀라운 우리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도와 헌신과 기대감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비전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모님들은 처음에 한인 그로서리가 없던 때라 김치를 만들어 팔았는데 점차 발전되어 바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헌신을 하셔서 그때는 그것이 헌신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큰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2세들과 다민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1.5세로 교회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쉽게 친구들을 사귈 수 없었고 영어도 쉽게 배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내가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혼자 고민하며 십대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교회생활과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황: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we faced was after moving to Rockland County, continuing to come to our church. There were other Korean churches nearby, but we decided to continue coming to KAPCQ because our parents were there, our friends were there, and it was our home church. 조금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록크랜드 카운티로 이사를 하고 계속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 그 당시에는 한인이민 초창기였고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희한하다는 느낌으로 바라봤다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다가올 가장 큰 어려움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황: Our children's biggest challenge in the future of our church may be that their school and work will take them to a location that is further away from our church.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의 학교와 직장이 우리 교회에서 먼 곳으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 황 장로님의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후러싱 중심으로 생활의 터전을 잡았고 교회 중심으로 거처를 삼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이 좁고 복잡한 공간에 있는 교회를 떠나 넓은 공간과 편한 곳,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고, 혹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자녀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최: 저도 앞으로 2세 자녀들이 커서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과연 여기만 살거라는 보장은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퀸즈장로교회는 그들의 home church 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Flushing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허: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은 부모님들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캠퍼스와 직장으로 떠나게 되면 부모들의 영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품안에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목격한 여러분들로서, 여러분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허: 아버님 허경화 장로님이 건축하시면서 힘들게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성전과 교육관을 건축하고 교육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부 학생들이 많이 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교육부의 부흥을 꿈꿔봅니다. 한국에서 교사이셨고 교회 장로이신 아버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일을 하다 욕도 많이 먹으시면서도 아버님께서 꿋꿋하게 교회 일하시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고 감사를 느낍니다. 작은 아들이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조금은 반대했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 아버님이 목사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던 그 바람이 비로소 3대 후에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황: Our parents' dedication certainly affected our dedication and I hope that our dedication will similarly affect our children in the same way. For our parents, they sometimes exhorted dedication as a duty, but when we share our dedication with our children, it may be better if we communicate that our dedication comes from love.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의 헌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명으로 헌신을 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 우리 1.5세들은 부모님의 헌신을 보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조금은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헌신을 보고 배우며 교회생활과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조금씩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만들어져 가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앞으로 5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허: 앞으로 50년 후 우리 교회가 또한 부흥하고 교육부가 잘 양육되고 다민족 교인들의 부흥을 꿈꿔봅니다.
황: I don't know that I will be around in 50 years, but I hope to see a thriving, growing church that shares the good news with the community in Queens and beyond. 5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퀸즈와 모든 곳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50년 후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이 교회에서 활동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며 또 하나의 성전을 우주선 위에 건축하자고 바자회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의 미국교회처럼 교인이 없어 텅 비고 렌트를 주는 교회가 안 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방법보다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는 건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50년 전 이름 모를 성도님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듯이 50년 후 우리 자녀와 자녀들이 이름 모를 우리의 헌신으로 이 성전과 새 성전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헌신을 감사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 바라기는 50년 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며, 다민족과 함께 2세대가 날로 성장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을 자녀의 눈으로, 앞으로 50년을 부모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귀한 말씀을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퀸즈장로교회가 뉴욕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같이 기도하며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04

성 전 건 축

머 릿 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을 바치나이다
DEDICATED TO THE GLORY OF GOD BY PURITANS FROM KOREA
주후 1981 년 6 월 24 일에 착공하여
1982 년 12 월 25 일에 입당함
한국에서 온 청교도인 퀸즈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프랭클린 역사의 서막

장미은 사모

1975년 4월부터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한 성요한 루터란교회는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출발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뉴욕에서 최초로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를 건축하게 한 실질적인 동기를 준 곳이기도 하다. 이 미국 교회를 빌려 보는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무척 많은 제재를 하였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는 교회 건물의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전화가 왔다. '오늘은 층계 옆의 창문의 반이 안 닫혀 있었다.', '청소를 더 깨끗이 해라!',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워라', '지난 주일 저녁에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다', '너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후에 뛰어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니 그 아이들을 감독할 사람을 너희가 고용하라'는 등의 수 없는 지적을 하였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해 달라고 목사님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금 뒤돌아보면 루터란교회의 까다로운 제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건축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76년 봄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힘으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봅시다" 라고 선포하셨다. 성도들이 앞다투어 건축헌금에 동참했다. 이어서 여전도회가 주최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가 열렸다. 바자를 통해 김치를 담그고 냉면을 정성껏 만들어 팔았는데 첫 바자 수익금이 사천여 불이었다.

1976년 8월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76년 11월 첫 성전 건축 기금으로 5만여불이 작정되었다.

1978년 5월 성전 건축 대지를 구입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성전 건축 기금으로 14만 여불이 작정되었다. 이어 1981년 6월 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24시간 연쇄 금식기도가 시작되었다. 성전 건축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함께 기도가 함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각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하게 하셨다. 드디어 1981년 8월 24일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1983년 2월 27일 설립 9주년 기념 예배 및 입당 축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역사적인 성전 건축에 여전도회 회원들은 1985년까지 성전 건축기금을 위한 바자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섬겼다. 그 당시는 여전도회가 마리아 전도회 하나뿐이었다.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김치와 냉면, 빈대떡, 만두, 떡을 만들었고 밑반찬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1978년에 조직된 남전도회 회원들도 바자를 위해 자동차도 내놓고, 아끼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였다. 또한 성전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축 공사장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두 명씩 교대로 철야 근무를 하며 건축자재를 지키는 어려운 일도 감당하였다.

성전 건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각난다. 어느 날 한 여성도로부터 심방 요청이 있어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방문했다. 서른 살에 딸 넷을 데리고 과부가 된 여성도였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백만불을 헌금할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 달라고 계속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네가 그것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제품공장에 나가 바느질을 해서 살아가는 이 여성도는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오버타임으로 일을 해서 두 달 동안 일한 임금을 모았다고 하며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 그녀는 교회당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오버타임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목사님이 성경책 위에 다섯 식구의 손들을 모아 놓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넘쳐 흘렀다.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녀의 눈물겨운 건축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성전 건축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그녀의 헌신이 성전 건축의 밀알이 된 것이다.

서삼정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였을 때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 라는 서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여성도들이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나 목걸이 등의 패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직분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자기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헌금한 여집사가 있었다.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리하여 퀸즈장로교회를 뉴욕에서 한인들이 자체 성전을 건축한 첫 교회가 되게 하셨다. 프랭크린의 역사적인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프로필 신앙지휘자 전봉구 선생 부부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경이여 여호와께 노래 할지어다 (시 96:1)

찬양하라!! 주의 성호를 영원도록 찬양할지어다. 장장 4년 여. 남로 그 오묘함을 더해가고 있는 본교회 성가대를 새로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전봉구 선생은 서울 상명여자사범대학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 보다 큰 뜻을 가지시고 1975년 도미하시어 캔자란음악학교를 거쳐 현재 플리아드 에서 성악(바리톤)을 전공하고 계시는 순수 음악인 이시다. 또한편 총회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가르치시던 독실한 기독교인 이기도 하신 전선생은 주일 오후여면 성가대원 한분 한분을 불러주고 오-ㄴ 아-ㅣ에서 부터 그 열정적인 지휘 마디마디까지 음악이 묻어나와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못케 하신다. 대전사범을 졸업하신후 서울음대 성악과에 입학 동 대학원을 1971년에 마쳤고 대학 재학 중인 1967년 한국 귀위의 신인 등용문인 동아콩쿨 성악부에 입상 성악계에 권위있는 실력파로서 이후 '지휘' 전기연주회에 출연함을 비롯(솔리스트) 메시아 합동연주회의 독창, 국립오페라단, 김자경오페라단 등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은바 있다.

또마라비후 L.A에서의 메시아공연, 플리핀 리드에서의 부부초청공연, 뉴-욕 오페라단의 '돈죠반지' 출연을 비롯, 플리아드의 American Opera Theatre 가 제작한 풋치니의 나비부인과 라·가리스등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은바 있다.

성전건축기금마련을 위한‘ 메시아’ 지휘를 맡은 전봉구 집사를 소개한 아가페 글 (아가페16호 1978년 5월 14일)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메시아 연주회

허경화 장로

1978년 6월 10일에 있었던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메시아 연주회”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1975년 2월 23일 주일에 미국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퀸즈장로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날이었다. 광대한 미국 땅에서, 그중에도 뉴욕에서 한국인들만이 모여서 우리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웠다.

그날 이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던 중, 8월에 갑자기 찬양대 지휘자가 교회를 떠나므로 장영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다. 나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30여 명의 찬양대원들과 기쁘게 찬양하며 교회를 섬겼다. 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에는 가벼운 칸타타를 불렀고 때로는 메시아 중의 합창곡들을 택하여 서툴게나마 찬양하며 정기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중 1977년 8월 광복절에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역사가 오래된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도 우리 교회가 찬양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뉴욕에서 좋은 소문이 났던 모양이다.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곡을 얻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나 은혜로워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그 후 장영춘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전 건축기금 모금을 위하여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큰 강당을 빌려서 뉴욕의 모든 한인들을 초청하여 연주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러나 찬양 지휘자를 먼저 모셔 와야 한다고 하였더니 나더러 하라고 하신다.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나에게 무조건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합창곡을 파트별로 모여서 연습하던 중, 줄리아드 음대에 유학 온 독창자 전봉구 선생 부부를 소개받아, 밤에 운전하여 가던 중 하나님께 기도로 “독창자만이 아니라 지휘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장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큰일을 이루게 하심을 알았다.

전봉구 선생은 나의 말을 듣더니, 자기가 독창자보다 지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유를 물은즉 광복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우리 교회의 찬양에 크게 은혜받고 퀸즈장로교회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줄리아드 음대학생인 전봉구 선생이 줄리아드 음대의 강효 교수에게 부탁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당시 유학 중이던 박인수 선생(나중에 서울대 교수)이 테너 독창자로, 그 외에 독창자를 모두 구하여 성대한 찬양을 맨해튼 음대 대강당에서 올려 드리게 되었다.

〔성전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큰 축복〕

성전을 남긴 사람

정영숙 권사

올해 사순절 서원새벽기도회 여섯째날 목사님의 설교제목이 바로 '성전을 남긴 사람' 이었습니다 .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30여년 전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당시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인 훈석이가 12살, 작은 아들인 훈제가 8살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정예배시간에 기도를 돌아가며 하는데 8살인 훈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서 우리 내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 황당한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살면서 보잘 것 없는 작은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 손자들을 보러 서울에서 뉴욕으로 오셨던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네 식구가 사는 집이라도 구입해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가정예배 기도 제목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날 훈제가 '우리 집대신 예배당"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하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느라 그 다음부터는 함께 예배당을 위한 기도는 했지만 영혼없는 기도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6개월여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에 서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어느날 훈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 안에 작은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집을 사 주는 대신 예배당을 해 주시면 안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래서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의 놀란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아들 가족이 섬기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어린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린아이를 시켜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여를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훈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먼저 들어와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도되어야만 이 성전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개월 후 시부모님은 하시는 사업에 변화가 생기자 어린 손자의 부탁에 마음이 계속 끌리게 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야한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시부모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확신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축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 백성 중 한 사람을 쓰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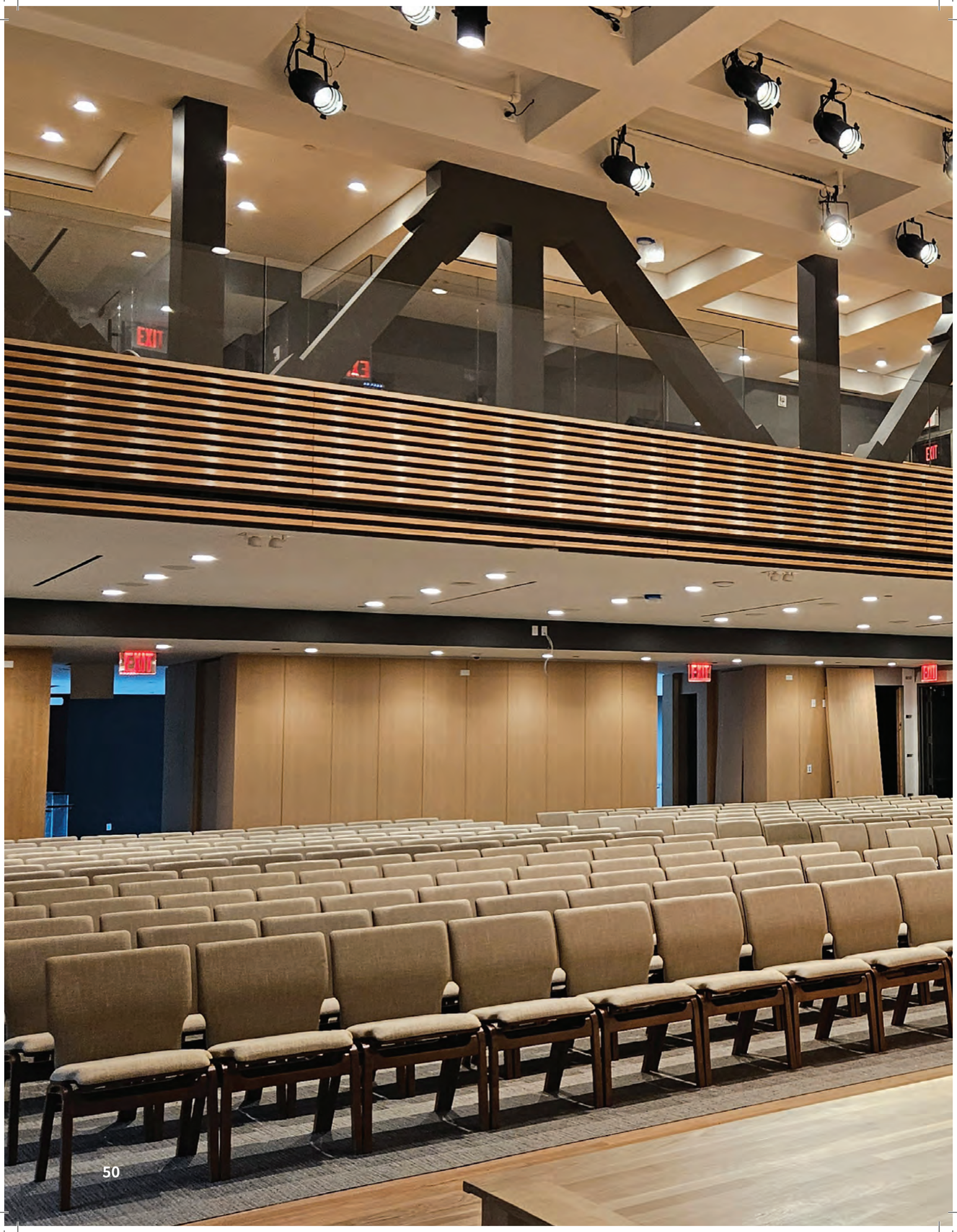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그 입을 열게 역사하시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소자의 기도도 흘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는 뜻이 있어도 감히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 하나만 보시는 것 같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8살 꼬마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시부모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손을 통해 봉헌한 곳이 바로 '양순관'입니다. 양순관을 봉헌한 후 그곳에서 영어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 지금은 영어예배부 회중과 중국어 예배부 회중이 함께 예배당으로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 많은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지 않는가! 두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유산으로 남겨 주신 대대로 기억되는 귀한 성전임에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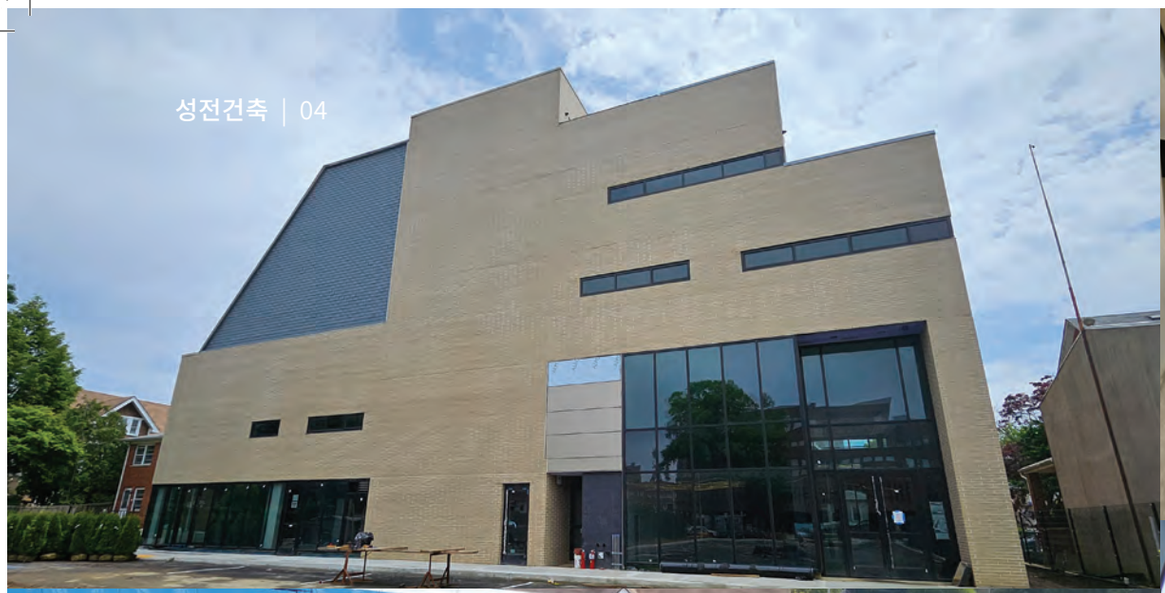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사순절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성전을 남기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성전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그만 마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 되어야만 내 손으로 그 귀한 일을 맡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번 다민족을 위한 새성전 건축이 처음 일 수 있으나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은 처음 성전건축과 교육관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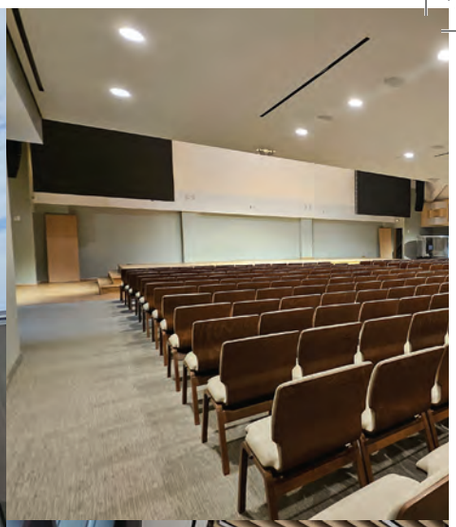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남길 수 있는자의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남길 수 있는 것 중 성전건축의 기회를 주셨을 때 내 손을 내밀어 어느 한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성전을 남기고 가신 시부모님을 기억하며, 두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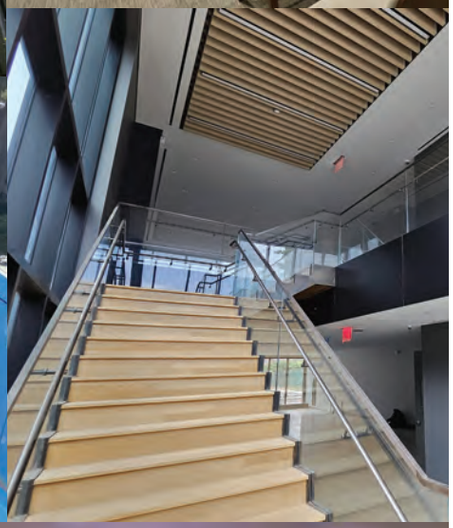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들 훈제의 가족사진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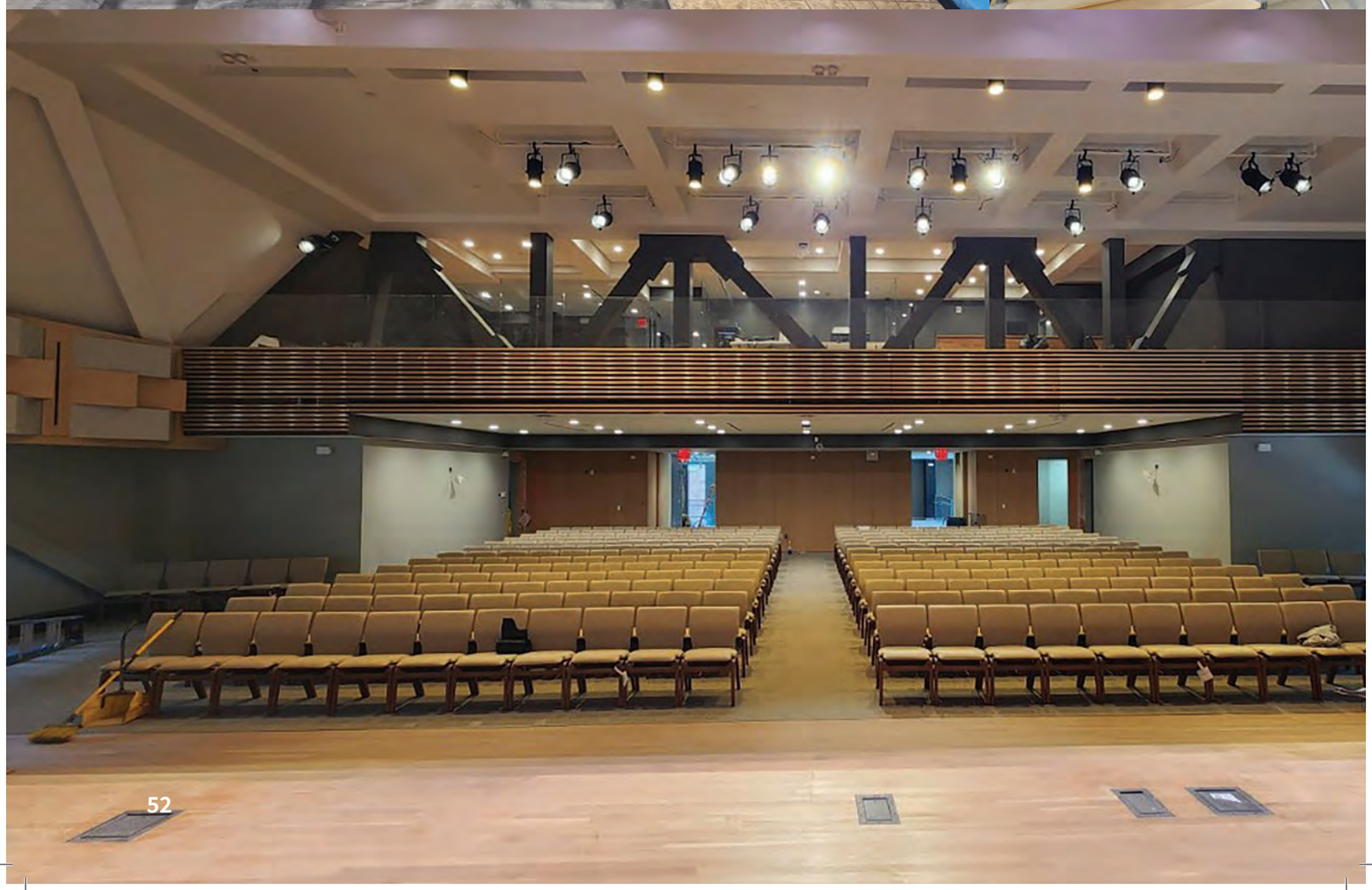

EXIT
EXIT
EXIT
EX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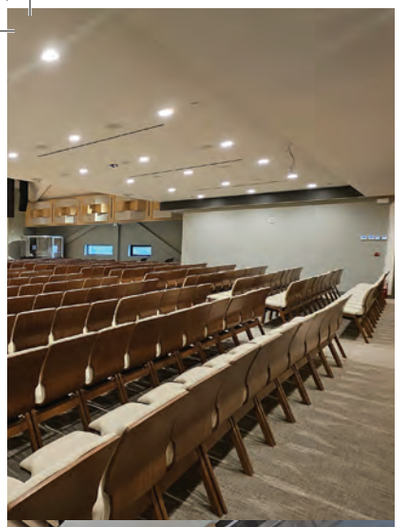
〔새 성전과 하나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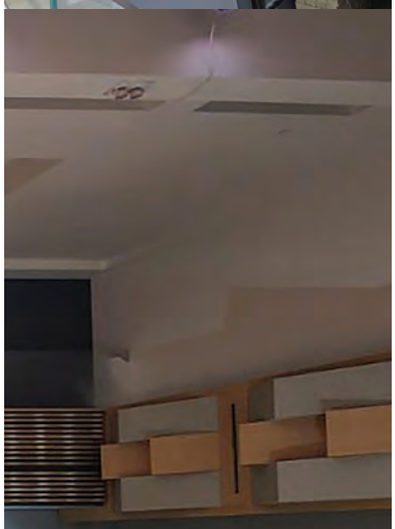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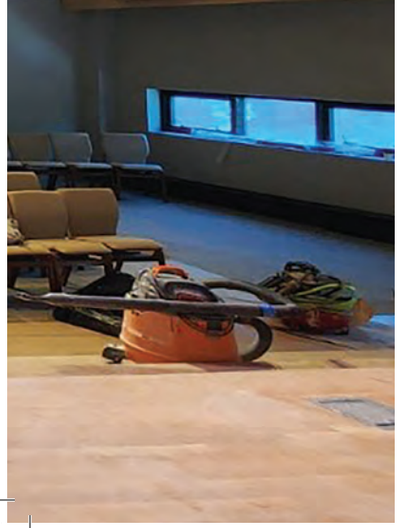












세번의 성전 건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박정봉 장로 | 건축위원회

50년전 하나님께서 고 장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뉴욕 퀸즈 플러싱 땅에 저희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73년,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처음으로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으며,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금식 작정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린 기도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저희 교회를 통해 당시 이민 1세대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다음세대들을 허락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세대의 부흥과 늘어나는 교인들로 인하여 저희 교회는 또 한번 교육관인 '양순관'을 건축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저희는 다음세대인 영어권 예배부의 부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50년이 지난 지금, 저희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다음세대와 다민족 예배의 비전을 위하여 새 성전 건축의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7년 처음 새 성전 건축을 위한 미팅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NYC DOB(Department of Buildings)으로 부터 공사 시작 허가를 받아냈으며, 담임목사님과 교인들을 모시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 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렇게 새 성전을 위한 공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다시 허락해주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에는 모든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으로 저희는 잡아놓았던 예산안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기도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으며, 2017년 처음 정한 예산안으로 모든 공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TCO permit filing 을 마지막으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새 성전 건축이 사고 없이 잘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세 번이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도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크나 큰 축복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통해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다음세대와 다민족 예배의 비전을 함께 품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워지는 새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퀸즈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5

50년을 돌아보며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장미은 사모

사랑하는 목사님!

총동원 주일이면 "그 좋은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며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자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 좋은 천국"에 가 계시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지요?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왼쪽 몸을 못 쓰시는 6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셔서 고마웠어요. 어린아이들이 걷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부러워하셨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셨으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시지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셨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가는 아들을 위해 아버님이 밤새도록 제본한 성경책을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시도록 내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리라" 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은 기도하며 도운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수없이 반복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남편은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정말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님은 저와 함께 하신 오십 여년 동안 한 아내만 사랑한 남편이었어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쁘게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또한 목사님은 자녀들에게도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좋은 아버지였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집을 떠나시면 애들에게 사랑의 엽서를 보내시고, 전화하시면서 자상하게 묻고 살피시는 아버지였어요.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성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신 신실한 목회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가 있는 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설교 준비에 온 힘을 다 쏟으셨어요. 나는 부족하여 설교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불쌍해" 라고 제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것 생각나시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날까봐 늘 결석자 보고서를 살피셨어요. 누군가가 예배에 잘 참석하다가 한 두번이라도 교회에 안 나오면 심방전도사님과 의논하여 그분이 소속된 부서에서 찾아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가셔서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목사님이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특별한 건강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이민 목회를 40여년 동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제가 목사님의 성품 중에 가장 부러워한 것은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네 번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쉽게 용서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용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저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너무 갑자기 천국으로 가신 후 저는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가고 싶어서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목사님 같이 저도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저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오래도록 동행한 때는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찬송만 부르면 은혜로 감싸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셔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감사한 것은 제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신 것이에요. 남편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울며 떼를 쓰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해요.

주님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사랑하는 퀸즈장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제 생명이 다하기까지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다가 그 좋은 천국에서 목사님을 만날거에요. 제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해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드립니다.

1974
2024

06

퀸 즈 장 로 교 회 5 0

50

제1대 장영춘 목사

1973
~
2012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

Strive to be a church that emulates the great works of the church in Acts

2011
~
2013

제2대 박규성 목사

제3대 김성국 목사

2013
~
2024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churches transforming themselves and the world with the Bible

퀸즈장로교회 50년 연혁

1973.9.18	**브루클린에서 성인 3명, 아동 4명으로 가정예배 형식으로 시작** Started as a house worship service in Brooklyn with 3 adults and 4 children
1974.2.24	**Flushing 소재 Redeemer 루터 교회를 빌려 장영춘 목사를 담임으로 60여명이 퀸즈장로교회 설립예배 드림** KAPCQ's inaugural worship service held at the Redeemer Lutheran Church in Flushing with Senior Pastor Rev. Young Choon Chang and attended by 60 people
1974.3.17	**찬양대 조직** Church Choir installed
1974.7.7	**장영춘 목사 위임 및 당회 구성** Church Session installed
1975.2.3	**설립 1주년 예배 및 아가페 1호 발간** First anniversary service and publication of Agape No. 1
1975.4.6	**후러싱 Sanford Ave. 성요한 루터 교회로 예배장소 이전** Worship service moved to St. John's Lutheran Church on Sanford Ave. in Flushing
1981.8.24	**성전건축 기공예배** Groundbreaking service for new church building
1983.2.27	**설립 9주년 기념 및 입당예배** Dedication service for new church building
1983.6.29	**장영춘 목사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제7대 총회장으로 피선** Rev. Young Choon Chang elected as the 7th Moderator of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KAPC) denomination
1987.3.15	**제 1회 사순절 새벽서원기도회 시작** Inaugural 40 Days of Lent Early Morning Prayers
1987.9.15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설립** Eastern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established
1988.9.6	**제 1회 전도폭발훈련 시작** The 1st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began
1988.12.12	**카네기홀에서 북한선교회 모금을 위한 [메시아] 공연** "Messiah" performance at Carnegie Hall to raise money for the North Korean Mission
1989.3.5	**주일 낮예배를 3부로 개편** Installed third Lord's Day Worship service
1991.5.16	**교육관 기공예배** Groundbreaking service for the Education Center
1992.3.1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갈보리 장로교회 (이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로 개명) 설립** Calvary Presbyterian Church (later renamed Almaty Queens Presbyterian Church) was established in Almaty, Kazakhstan
1992.9.11	**장영춘 목사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사장으로 취임** Rev. Young Choon Chang becomes President of the Korean Christan Press newspaper
1993.11.7	**영어예배 (QPEM) 시작** Inaugural English-speaking (QPEM) worship service
1994.2.27	**교회설립 20주년 기념 및 교육관 헌당예배** 20th anniversary of the church and dedication of the education building
1995.6.2	**제 19회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최** The 19th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KAPC)

2004.6.13	**30주년 기념 축제 감사예배 및 만찬** 30th Anniversary Thanksgiving service and dinner
2004.12.2	**탈북자 후원 위한 30주년 메시야 공연 - 카네기홀** 30th Anniversary “Messiah” performance at Carnegie Hall to sponsor North Korea defectors
2009.12.13	**장영춘 목사 성역 50주년 감사예배** Thanksgiving servic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Rev.Young Choon Chang’s ministry
2011.12.11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 Commissioning service for Senior Pastor Rev. Kyu Sung Park
2012.2.26	**장영춘** 목사 **원로목사 추대** Rev.Young Choon Chang installed as Pastor Emeritus
2012.6.30	**제 30회 중고등부 시와 찬미의 밤** 30th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Poetry and Praise Night (Theme: Generation to Generation)
2013.11.17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Commissioning service for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2015.1.4	**중국어 예배부 설립예배** Inaugural Chinese-speaking worship service
2016.5.29	**러시아어권 예배부 설립예배** Inaugural Russian-speaking worship service
2016.6.12	**전도폭발국제본부로부터 D. James Kennedy EE 전도대상 수상** KAPCQ awarded with the D. James Kennedy EE Evangelism Award from Evangelism Explosion International
2016.12.25	**캄보디아로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 파송** Missionary Ilhoon Lee and Sooyoung Park commissioned to Cambodia
2019.9.21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새성전 기공예배** Groundbreaking service for new missional church building (Multi-ethnic & Next Generation)
2020.3.22	**Covid-19 펜데믹으로 온라인 예배 시작** Online worship services begin due to Covid-19 pandemic
2020.4.10	**장영춘 원로 목사 소천 받으심** Pastor Emeritus Rev.Young Choon Chang called to heaven
2020.6.28	**Covid-19 펜데믹 지속, 그러나 현장예배 재개 (온라인 예배 병행)** Covid-19 pandemic continues, but on-site services resume (with online services)
2021.8.12	**펜데믹 지속 중 온라인 선교 킹덤미션 진행** Online Kingdom Mission continues during the pandemic
2023.4.	**캄보디아 국제학교 건축 시작** Construction begins on Cambodia International School
2023.5.23	**제 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최, 김성국 목사 총회장 취임** Hosted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KAPC) and installed Rev. Seoung Kook Kim as Moderator
2023.10.29	**교회설립 50주년 감사예배 ‘THE WAY’** KAPCQ 5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Service ‘THE WAY’
2024.2.25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예배** The Church’s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Service.
2024.7.20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 및 Grace Chapel 완공예배** Completion Ceremony for Cambodia Bethel International School and Grace Chapel.

제3교구

퀸즈장로교회
교육관건축 시공예배

제5교구

증경장로추대
권사임직식
1991년 2월24일

17주년 기념예배

감 용 원 손 학 지 권 사 직 임
1975 2 23

기도는 생명,축복,승리이다!

1983.2.27

창립9주년 세성전입당
1983.2.27

제4교구
모 에 라 퀸 장 으 로

제2교구
2교구

TOTAL SURRENDER

ppy New
주후 2012년 1
(주일)
퀀즈

2012년 남전도회 연합 수련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강사: 박규성 목사
일시:2012년 9월
~3일(월)
장소:포코노 하워드 존슨 호텔

CALYPSO
CLP-42LE110
42" Widescreen LED TV

40 함께하는 찬양축제

주 이름 영광 받으소서
WE BRING GLORY TO YOUR NAME

Thank You
여호와께 감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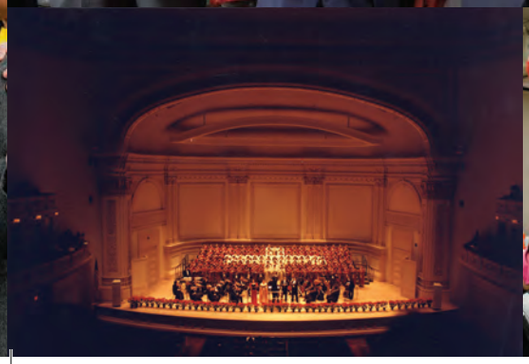
NYCB Mobile
Banking on the Go!
OUTFRONT
Peter Koo

김성국 목사 위임예배

So listen to our heart
36주년의 은총을 감사하는 예배

"다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EX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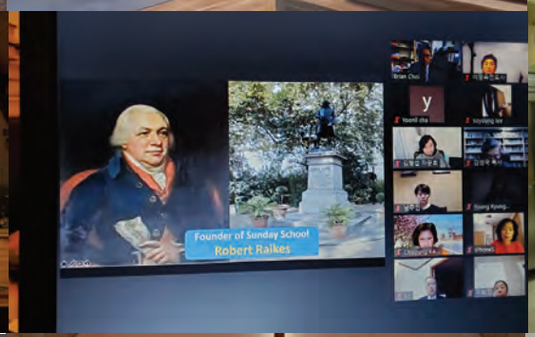
QUEENS LIBRARY

사무총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ПОЗОВИ,
ПОЗОВИ

러시아어권 설립예배

주일예배


Founder of Sunday School
Robert Raikes

Merry Christmas

천파하니 주의 손이

CHRISTMAS
PRAISE FESTIVAL

Jesus Loves you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반세기 전,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에게 이 땅 미국은 온실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삶의 뒤안길에서 고난과 역경의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교회의 시작
1973 년 9 월 18 일, 브루클린(187 Franklin St. Brooklyn)에 위치한 한 교우의 아파트에서 4 명의 성인과 3 명의 어린이들이 초대 고 장영춘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퀸즈장로교회 50 년 역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같은 해 10 월, Woodside (69-56 43 Ave)의 한 가정집으로 예배 장소를 옮긴 후에는 교인들이 40 명으로 늘어나면서 교회 설립의 꿈을 꾸게 됩니다.
1974 년 2 월 24 일, 플러싱(157-16 65th Ave)에 소재한 리디머 루터란 교회를 빌려 60 여명의 교우가 장영춘 목사님을 담임으로 퀸즈장로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75 년 4 월, Sanford Ave 에 소재한 성요한 루터교회(147-46 Sanford Ave)로 예배 장소를 이전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지속하게 되었고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됩니다.
1978 년 5 월, 143-17 Franklin Ave Flushing 지금의 교회 터를 성전을 건축할 대지로 구입하였고 1983 년 2 월 27 일, 마침내 설립 9 주년을 겸한 감격의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장영춘 목사님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먼저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의 과정 하나하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에 부어 주신 크나큰 은혜와 축복으로 기억되며 성도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7 명으로 시작한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놀라운 부흥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장영춘 목사님의 리더십과 복음을 향한 열정,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이민 교회의 장자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생명, 승리, 축복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 그리고 주변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 모든 장벽을 뛰어 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날 장영춘 목사님의 금식을 시작으로 매일 한사람이 24 시간 종일 금식하며 이어온 기도는 입당예배를 드리는 전 날까지 1 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현재까지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금식기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 외에도 수요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등 매 기도회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어두움의 영이 물러나며, 병든 자가 치유 받고, 가정과 교회에 평안을 가져왔으며,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기도로 점철된 역사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 곳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요셉을 길러내는 교회학교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었습니다. 1994 년 2 월, 교회설립 20 주년을 기념해 교육관과 양순관을 헌당하고, 체육관을 개관함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요셉처럼 인내하고 요셉처럼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요셉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이 시대 요셉을 길러내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헌신된 지도자와 교사들이 세워짐으로 교회학교는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고,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큰 별이 지다
퀸즈장로교회의 시작과 역사에는 늘 장영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척박한 땅에 생명을 꽃 피우겠다는 간절함과
메마른 땅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겠다는 믿음으로 은퇴 후에도 남다른 소명으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시다가
2020 년 4 월 10 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전통과 개혁이 공존하는 교회
생명이 꺼져가는 도시 뉴욕의 한 거리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신 곳, 그 곳에 세워진 퀸즈장로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온 길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니 교회는 부흥되었고 목말라 지친 영혼들은 살아났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섬김에 축복이 부어집니다.
온 열방을 향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후손들은 더욱 강성해져 갑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하는 교회로 퀸즈장로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연단을 통해 더욱 성숙한 교회로
40 년에 가까운 첫번째 리더십을 지나 두번째 리더십은 2012 년12월, 제2 대 박규성 목사님 위임예배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함께 소망의 미래를 향한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 청년 사역으로 출발했던 박규성 목사님은 기성세대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을 잘 계승하고 젊은 세대의 강점인 참신함과 능동성을 잘 수용함으로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사임과 담임목사 공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있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함께 울고 깨어지고 녹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더 낮아짐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셨습니다.
2013 년 11 월 17 일, 3 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김성국 목사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이기에 우리는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새로운 시대의 한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다민족 교회의 시작과 새성전 건축
믿음의 선조들이 전해준 신앙 유산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새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복음 전파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다민족들을 향해 교회 담장을 허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교의 경계와 고정 관념을 버림으로 선교의 지경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다민족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며 새로운 비전을 꿈꿔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 충성한 교회, 비전 받아 전진하는 교회
우리는 이 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성도들은 신자에서 제자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각종 훈련과 모임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은 마르지 않았고, 우리 안에 교제와 나눔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의식과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50 년을 은혜 받아 충성스럽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깨달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50 년을 비전 받아 전진하며 또 다시 달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당장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주저함 없이 올라가셨듯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듯이 오늘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다민족, 다음세대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다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를 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곳
이 땅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것처럼 아니 이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우리는 그 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The Way! 그 길로 함께 손잡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07

사 역 위 원 회

행정국

교회 행정의 총괄, 기획, 시행을 담당합니다.

행정위원회	총무부, 서기부, 비서실, 의전실, 부설기관(아가페유치원,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 열린유아원, 도서관)으로 구성되며, 교회행정 전반을 수반합니다.
재정위원회	교회 재정을 계획 수립하며, 집행과 감독을 총괄합니다.
기획위원회	교회 내외적 환경과 변화에 대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제안하여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사위원회	교회의 재정과 행정의 실무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며, 모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의 역할을 담당 합니다.
홍보출판위원회	문서출판부와 홍보부로 구성되며, 교회의 모든 홍보물과 출판물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감수, 진행, 홍보의 과정과 책임을 담당합니다.
장학위원회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하며 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역사위원회	교회의 역사와 기록을 각종 자료로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문사운영위원회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운영을 책임집니다.

예배국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총괄합니다.

예배위원회	예배준비부, 안내헌금부, 통역부, 중보기도부로 구성되며,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위한 준비, 예식, 의전, 통역, 중보기도를 담당합니다.
찬양위원회	임마누엘, 호산나, 시온, 3개의 찬양대와 관현악대, 경배와 찬양팀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모든 예배음악을 담당합니다.
특별찬양대	글로리아싱어즈, 그레이스, 킹스콰이어, 블레싱, 헤리티지, 쥬빌리, 두드림, 주향의 각 특성을 살린 중창단과 악단 등으로 구성되며, 교회예배 및 대내외 행사의 찬양과 공연을 담당합니다.

교육국	교회의 교육부서를 담당합니다.	
	교육위원회	영아부, 유아부, 유얼부, 얼통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가페웨이브, 그루터기 청년 1부로, 다음세대의 교육훈련과 양육을 담당합니다.
	특별활동위원회	아이노스오케스트라, 하랑예찬, G2G, 어와나, 국악반으로 구성되며 다음세대를 위한 음악 및 특기를 개발하고 교육하는 특별활동부서 입니다.
양육국	성도들의 영적 양육과 훈련을 담당합니다.	
	새가족위원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열매학교위원회	새가족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교회에 더욱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퀸장바이블칼리지	각 선교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평신도 성경대학입니다.
	제자훈련위원회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의 3단계 훈련과정을 담당합니다.
	전도폭발위원회	복음증거를 위한 전도폭발 훈련으로 전도자를 훈련하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선교국	각 선교회의 운영과 실무를 담당합니다.	
	선교위원회	각 연령대별로 19개 남녀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및 해외 단기, 중기 선교사역을 담당합니다.
	중국교포위원회	중국교포들을 위한 사역부서 입니다.
	청년선교위원회	그루터기 청년2부 30세이상의 미혼청년들을 위한 사역부서입니다.
	청장년선교위원회	31-40세의 젊은 부부들을 위한 사역부서 입니다.
	다민족위원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예배부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선교지원위원회	각종 선교사역을 지원합니다.
봉사국	교회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여러가지 봉사와 섬김을 담당합니다.	
	봉사위원회	취사부, 주방관리부, 미화조경부, 행사영접부로 구성되며, 교회의 식당운영과 예배 및 행사의 친교를 위한 음식과 조리를 담당하고, 각종 행사의 장식 및 의전을 책임집니다.
	사회사역위원회	법률세무상담부, 의료부, 구제부, 경조부, 가정사역부, 지역사회부, 향유옥합부로 구성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각 개인과 협조하여 필요한 각종 사역을 담당합니다.
관리국	교회의 각종 시설과 자산을 관리 운영합니다.	
	자산시설관리위원회	건물시설관리부, 비품관리부, 전산관리부로 교회건물과 자산 및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각종 소모품과 비품을 지원하고, 전산장비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차량위원회	셔틀부, 안내부, 관리부, 운송부로 구성되며, 교회 차량의 운행, 보험, 유지보수 등을 책임집니다.
	안전관리부	교회의 시설과 인원에 대한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제안과 시행을 담당합니다.
	건축위원회	교회의 건축과 관련하여 계약과 시행을 관리 감독합니다.
기술국	교회의 기술 인프라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영상방송위원회	예배와 행사 및 온라인 방송등을 담당합니다.
	미디어위원회	영상부, 프로그램부, 디자인부, 사진부로 구성되며 동영상 제작,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와 유지보수, 포스터와 배너 디자인, 사진촬영 등을 담당합니다.
영어회중국	**중국어회중국**	**러시아회중국**

고액자

당회

퀸즈장로교회 선교위원회

담당 교역자 : 손요한 목사
위원장: 채영주 장로　　총무: 심성문 집사　　서기: 김성민 집사　　회계: 김미영 집사
남선교회 총회장: 이광윤 집사　　여선교회 총회장: 채현주 권사

퀸즈 장로교회 설립 5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선교 위원회는 '바울과 마리아 전도회' 2부서로 시작되어 '20부서의 남,여 전도회'로 확장되었다가 이후 시대적 사명과 방향성에 따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선교 위원회는 주로 연령별로 편성된 19개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교제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월례회를 통해 모임을 하며 교회 부흥과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선의 섬김으로 봄에는 선교 바자회를 열어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가을에는 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 베이글을 서빙하며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에서 식사 봉사를 담당하고 추수 감사절 만찬을 준비하여 함께 감사의 자리를 나눕니다.

각 선교회는 각각 담당 선교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바구니를 제작하여 전달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으로, 봉사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순서에 따라 19번의 헌신 예배와 토요 새벽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도 빠짐없이 충만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초창기부터 이웃 전도, 세계 선교, 믿음의 봉사, 성도의 교제라는 분명한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공동체이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회'입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선교회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새롭게 열어가는 50년을 바라보며 '선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리아
브리스가
아르다
다비다

담당 교역자: 전진영 전도사, 회장: 박한나 집사, 부회장: 박승희 집사

저희 마리아 선교회는 41세~45세 자매들이 모인 선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하여 그 사랑을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경배와 찬양, 교사, 찬양대원으로 섬기며 그 외에도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매일 주님께 엎드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 늘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캄보디아 박수영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조하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이소영 전도사, 회장: 김미영 집사 부회장: 정희원 권사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홍황식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은 이소영 전도사님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남다른 젊은 에너지와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섬기며 교제하는 퀸즈 장로교회의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매월 첫째주 주일 11시 45분에 토기장이 북카페에서 활발한 월례회 모임이 있으니 아직 참석하지 않은 브리스가 회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 김미영 전도사, 회장: 이정혜 권사, 부회장: 이희정 권사

김미영 전도사님을 담당 교역자로 모시고 현재 40여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케냐 최동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으며, 새로 임직 받은 7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교사로, 찬양대로, 훈련자로, 안내자로 또 주방과 북카페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교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당 교역자: 강지영 전도사, 회장: 채현주 권사, 부회장: 임순미 권사

강지영 전도사님을 담당 교역자로 모시고 러시아어권 송요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와 살아내는 삶의 예배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교회의 각 부서(예배 위원회, 찬양대, 주방, 카페, 교육 위원회 등)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헌신예배 때에 드린 이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 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하소서.”

루디아
한나
사라
안나

담당 교역자: 이양미 전도사, 회장: 나인애 권사, 부회장: 신진숙 권사

"루디아야!" 주님이 부르시면 디립다 어디든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여성도님들 모임입니다. 인생의 반을 바쁘게 보내고 이제 남은 삶을 젊게 그리고 하나님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61세에서 65세까지 여성도님들이 모이는데 힘쓰며 서로 믿음안에서 이끌어주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지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예배 안내부원으로, 회계실, 북카페 등등 교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일 월례회모임은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맞추어 합심기도와 회원간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친목의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자회때는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배추김치와 모듬 튀김, 삼계탕으로 선교와 건축에 적극 동참하며 매달 카자흐스탄 김관중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계화자 전도사, 회장: 손옥순 권사, 부회장: 민미숙 권사

퀸즈장로교회의 한 지체로 모인 한나선교회의 무기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되는 선교회!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장차 귀한 믿음의 기둥으로 우뚝 설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는 선교회입니다. 주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나날이 아주 행복한 선교회입니다.

담당 교역자: 함미희 전도사, 회장: 김명숙 권사, 부회장: 황은애 권사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며 또한 아들 이삭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준 성경의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우리 사라 선교회도 이러한 사라처럼 늘 기도하며 퀸즈장로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도록 애쓰며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적극 동참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라 선교회는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운동하기, 매일 전화하여 격려하기" 를 표어로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비록 몸은 날로 약해지는 나이이지만 영적으로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미약하나마 봄 가을 선교, 건축 바자에 최선을 다하여 동역하는 선교회입니다. 퀸장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담당 교역자: 홍현숙 전도사, 회장: 주봉순 권사, 부회장: 이경자 권사

안나 선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로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홍현숙 전도사님이며, 미국 할렘에서 사역 중이신 김명희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회원들은 76세 이상의 어머니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교회는 바자회의 '맛나선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나 족발'은 바자회 때마다 즉석에서 완판되는 '맛난 족발'로 유명합니다. 김치 양념은 안나 선교회의 '어머니 손맛'으로 특별함을 더하며 다른 선교회도 도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1부 예배 후에는 교회 지하 친교실에 모여 월례회를 가지며, 교제의 시간을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여 풍성한 간식을 나누고, 선교회 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합니다.

바울
아굴라
베드로
갈렙

담당 교역자: 차평화 목사, 회장: 배성로 집사, 부회장: 이태현 집사

저희 바울 선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일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특별 행사시 식사 설거지 및 라이드, 바자회, 사랑의 바구니 만들기를 섬기며 특별히 올해 다시 시작하는 효도 관광을 주관하는 선교회로 교회의 각종 사역에 힘을 다해 섬기며 차량부, 교육부 등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는 (83) 년부터 (79) 년도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주 주일 1:00시에 북카페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선교회 월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않는 바울 회원들께서는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 김성은 목사, 회장: 김성민 집사, 부회장: 박정봉 장로

아굴라는 초대교회때 와이프인 브리스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저희 아굴라 회원들도 이를 본받아 튀르키예의 김성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으며 선교 바자회와 건축 바자회때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으로 도네이션해주신 헌옷들을 판매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회원들은 교회의 회계실에서, 교육부에서,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그리고 예배부로 모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굴라의 직업이 텐트 수선사 였다는 것을 아셨나요? 저희 아굴라 회원들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친교도 나누는 저희 아굴라 선교회는 아직 join하지 못하신 46-50세의 퀸즈장로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언제나 기다리며 환영합니다!

담당 교역자: 김정민 목사 회장: 심인보 장로, 부회장: 권혁민 장로

베드로는 자칭 주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제자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주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성령충만함을 받아 다시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한 정말 멋지고 귀한 제자입니다. 저희 모든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도 이러한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시험과 환란가운데 실패하였지만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의 맡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순교한 베드로처럼 주님 다시오실때까지 묵묵히 책임을 완수할 선교회입니다.

담당 교역자: 최진식 목사, 회장: 김지현 장로, 부회장: 송동율 장로

저희 갈렙선교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패기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주님께 헌신된 회원들로 모여진 선교회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갈렙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봉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0년 퀸즈장로교회의 걸음을 같이해 온 갈렙선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될 것을 갈렙선교회원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론
아브라함

담당 교역자: 최진식 목사, 회장: 심성문 집사, 부회장: 차상남 장로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선진의 믿음을 이어받아 성심과 열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호수아선교회는 만 61세부터 65세까지의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이오스틴 전도사, 회장: 이광윤 집사, 부회장: 이인철 장로

모세 선교회는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님, 한국 통영 사랑도의 류동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교회는 모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며 친교합니다. 든든하고 탄탄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합니다.—중요한 식사와 함께.

한번 조인하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시간과 예배 시간이 달라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월례회 시간에는 모두 서로 모이기에 힘씁니다. 비록 70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나이지만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 윤원상 전도사, 회장: 최상호 집사, 부회장: 윤영신 집사

“우리에게 있어서 아론 선교회와 퀸즈장로교회란 피를 다시 공급받는 수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주 동안 피와 땀을 흘려 다 써버린 지친 몸에 다시 피를 주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기적과 같은 삶을 지금까지 누리게 되었으며 믿음과 열정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온 세상 열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아론선교회!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개혁주의 신앙을 곧게 지키고 다민족 선교로 뉴욕에서 우뚝 서 나가는 퀸즈장로교회 아론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당 교역자: 이신은 목사, 회장: 장봉석 장로, 부회장: 김인환 집사

아브라함선교회의 담당교역자는 이신은 목사님이고 담당 선교지는 캄보디아 베델국제학교입니다. 매 월 첫 토요일에 정기월례회로 모이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교회와 담임목사님, 성도들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카페에서 조반과 함께 친교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장자선교회로써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후배 선교회의 모범이 되는 선교회로써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루터기 청년 2

갓즈윌

중국교포부

담당 교역자: 손요한 목사, 회장: 권향련 권사, 부회장: 김성월 집사

교회 설립 50주년 뜻깊은 해에 중국교포부는 17주년을 맞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뉴욕, 뉴저지에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예배 드리며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교포부 다음세대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말씀중심의 양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예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고 있

담당 교역자: 김재상 목사, 회장: 이국향 집사, 부회장: 박찬준 집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30~40대 미혼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열정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매주 예배 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교회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청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담당 교역자: 이명옥 전도사, 회장: 송인태 집사, 부회장: 이나래 집사

갓즈윌 선교회는 2017년 12월 10일에 30대 결혼한 부부가 함께 하는 선교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에스더, 디모데, 뵈뵈, 요한으로 나눠졌던 것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자는 취지아래 'God's Will'로 선교회 이름을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지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회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힘쓰는 기도하는 선교회로, 이명옥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날 예배 후 모임을 통 해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말씀을 묵상하며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면서 여러가지 삶의 상황속에도 먼저 교회와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함께 돕고 예배와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회입니다.

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함께 모여 손요한 목사님의 성경공부로 말씀 양육을 받으며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포부에는 네분의 권사님과 한분의 안수집사님이 임직받아 든든한 일군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운남 박일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바자회때에는 중국어 예배부와 협력하여 섬기며, 주님의 다리 역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부서로 더욱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Ω A

05:57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Thanks for tears by now forgotten,
Thanks for peace within my soul!
感谢神，抹干泪眼泪，感谢神，赐我安宁。
И за слезы, что пролиты,
Дал Ты мир, благодарю!
EXIT
EXIT
자모실

Gentle Mary, Chosen one,
hear this salutation:

찬양위원회: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 하는 하늘의 소리! 퀸즈장로교회 찬양위원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된 날짜는 1974년 2월 24일인데 그로부터 그 해 3월 17일에 찬양대가 조직 되었습니다. 퀸장이 교회로서 면모를 갖추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부서인 것입니다. 당회가 구성된 것은 이보다도 4개월이 지난 7월 7일이니 찬양대가 퀸즈장로교회의 시작을 이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송영으로 이루어지는 것 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출발은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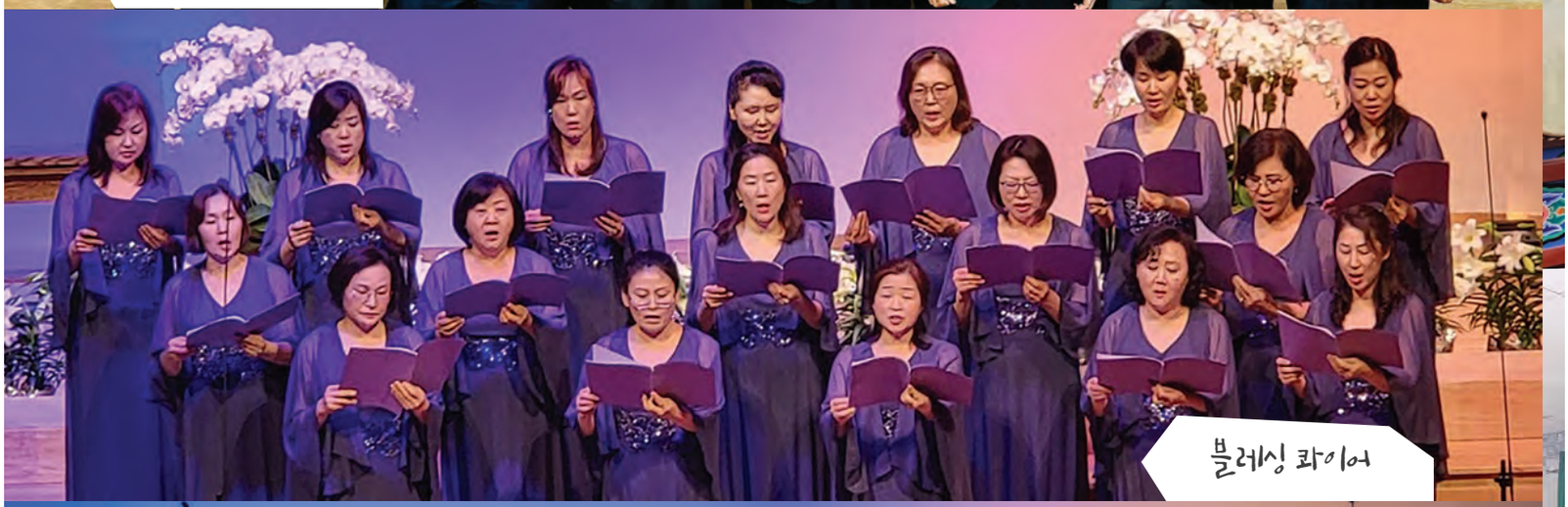
희년을 맞이 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한 마음을 품고 달려온 퀸즈장로교회 찬양대는 지난 50년 동안 조직과 장르면에서도 큰 부흥을 거듭하여 지금은 찬양대와 특별찬양대로 확장되고 분화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안에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예배(公禮拜)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을 위해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등 3개의 찬양대와 관현악대, 그리고 〈마라나타〉 〈리빙리버〉 경배와 찬양팀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교우 교육을 마친 성도는 찬양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로서 필요한 다섯가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찬양대원 지원서를 제출한 후 찬양위원장 장로의 면접을 거쳐 담임목사님이 임명합니다.

절기예배 및 교회 안팎에서 올려지는 각종 특별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미션으로하는 특별찬양대는 성악 전공자들이 다수 포함된 〈글로리아 싱어즈〉, 시니어 여성 합창단 〈그레이스 콰이어〉, 남성 합창단 〈킹스 콰이어〉, 여성 합창단 〈블레싱 콰이어〉, 색소폰 합주단인 〈쥬빌리 앙상블〉, 청년 합창단 〈헤리티지〉, 국악 북 연주단 〈두드림〉, 국악 무용팀 〈주향〉, 댄스 워십팀 〈미리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관현악

킹스콰이어

블레싱 콰이어

글로리아 싱어즈

그레이스 콰이어

특별 찬양대

두드림

미리암

주향

쥬빌리

리빙리버 찬양팀(Living River Worship Team)

리빙리버 찬양팀(Living River Worship)은 퀸즈장로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찬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찬양팀입니다. 매 주일 4부 그루터기 청년 예배의 문을 찬양으로 활짝 여는 리빙리버는 그 이름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와 삶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리빙리버 찬양팀은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청년들부터 장년들까지 여러 세대를 아울러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목소리와 악기를 통하여 각자가 받은 달란트 대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워크샵과 말씀 훈련을 통해 찬양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참되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리빙리버 찬양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찬양팀입니다. 리빙리버 만의 작곡과 편곡을 통하여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 찬양과 헌금 찬양을 비롯하여 다양한 찬양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예배 중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된 음원과 영상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품고 다음세대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빙리버의 새로운 찬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송 (당신 때문에) / 나의 길 / 좋으신 하나님 / 예수 빛나는 그 이름 / 이 땅의 아픔을 보시고

퀸즈장로교회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리빙리버 찬양팀은 찬양의 기쁨과 예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동체로써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삶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는 우리 교회와 온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배와 찬양

마라나타 찬양팀(Maranatha Worship Team)

퀸즈장로교회 2부 주일예배를 섬기고 있는 마라나타 경배와 찬양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훈련하는 찬양팀입니다. 30대 선교회인 갓즈윌 선교회원들이 중심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과 연습집중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도리어 찬양사역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신앙 성장과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경배와 찬양팀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찬양의 반주와 연주를 맡은 악기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찬양보다는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싱어팀, 악기팀과 싱어팀에 소속된 배우자들이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큐티와 기도회를 이끌어 가는 사역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풍요로움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고,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의 내용에 충실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그리고 은혜스러운 가사와 음률의 새 경찬곡과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송가 가운데 발란스를 잘 맞추어 가도록 고심하여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 마라나타가 매주 풀어나가야하는 숙제이며 기쁨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라나타 경배와 찬양팀의 마음입니다.

예배위원회

예배 위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모든 곳을 살피고 성도님들의 질서있는 입장을 도우며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부분을 돕는 부서입니다.

예배위원회의 조직은 안내부와 헌금부로 구성되어 안내와 봉헌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며 무엇보다 목사님과 성도들께서 설교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마다 예배순서를 미리 살피고 순서자와 찬양팀 등의 예배드림에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예배위원회 부원은 모두가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로서 성도를 맞이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일1부에서 4부까지(1부: 8:00, 2부: 10:30, 3부: 12:30, 4부: 14:00)각 예배별로 섬기는 부원들이 나뉘어 있으며 우리 교회 최고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 생각 되신다면 예배부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방송위원회

Q: 예배방송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떤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방송위원회를 미디어 팀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디어 팀 안에 방송팀, 영상팀, 아나운서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 예배나 교회의 특별 행사와 같은 현장 LIVE 작업을, 영상의 경우 편집과 제작이 필요한 POST-PRODUCTION 작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원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봉사자들이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원으로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상이나 자막, 조명,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하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궁금합니다.

A: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Q: 매년 다양한 영상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계획하고, 편집하고, 또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영상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작되었던 The Way 영상의 경우, 50주년 기념하는 역사적인 기록이었고 영상의 길이도 30분으로 길었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Q: 예배방송위원회를 섬기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항상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방송일을 시작했을 때, 도움이 필요해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실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곳을 폐쇄적인 공간, 무섭고 험한 곳, 혼나는 곳 (웃음), 관심은 가지만 독립적인 곳으로 여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방송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그렇다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2017년…2018년이었나요? 방송실에 자막만 가능한 PC 1대, 영상 편집이 가능한 아이맥 1대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방송실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15명의 팀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Q: 이제는 5년전의 과거 이야기가 되었지만, 처음 팬더믹이 터졌을 때 어떠했는지 그 때의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A: 팬더믹 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방송팀, 정진규 집사님, 이렇게 4명이 예배를 이끌어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퀸즈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여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교회에서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팬더믹이 시작되기 전 QPEM부서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도 YouTube LIVE에 관련해서 배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가운데 2-3주도 되지 않아 팬데 믹이 터졌고, 감사하게도 주님의 인도로 저희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큰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6-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Q: 예배방송위원회의 목표 혹은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문화 사역을 알리는 영상은 그래픽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작업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스타일의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함께 사용하여 다채로운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데, 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위원회

문태일 집사

50년동안 퀸즈장로교회에 거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에 셔틀부장으로 섬기게 된 문태일 집사입니다. 차량부는 앞장서서 섬기시는 위원장 송동률 장로님과 부위원장 차광혁 집사님을 중심으로 운송부, 안내부, 관리부, 셔틀부로 네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안에서 봉사할 때는 알지 못했던 교회밖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후에 안내부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차를 움직여 주셔야 하는 곳에 파킹해 놓은 분들이 차를 움직이지 않을 때, 직접 찾아서 차를 빼 달라고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춥거나 할 때, 웰컴파킹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셔틀을 기다리며 춥거나, 비를 맞지 않게 하기위해 셔틀부는 셔틀 3대를 매시간 풀가동하며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하기위해 분투하였습니다. 차 트래픽이 심한 날이면 성도들이 추위에 떨며, 비 맞으며 기다리고 있으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운행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관리부는 차량등록을 어떻게 하면 매년 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매주 직접 발로 뛰어서 한명 한명 차량등록을 시켜서 차를 빼야 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차 주인과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 리스트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차량부 대원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운송부는 브롱스로, 맨하탄으로, 롱아일랜드 시티로, 엘머스트로, 베이사이드로, 프레쉬메도우로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매주 라이드를 나갑니다. 안내부가 교회 주차장에서 파킹을 도울 때 안전하게,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빽빽하게 차량 파킹자리를 연구하며 안내를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34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교회 최전방에 차량부 오피스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회의 문을 단단히 지키고 주차장 안내로, 차량 운송으로, 차량 등록으로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에, 겨울에는 강추위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시는 남자 성도들을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자 대원들간에 끈끈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차량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이면 따뜻한 차도 만들어서 갖다주시고, 간식도 도네이션 해주셔서 차량부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는 아름다운 퀸즈장로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봉사위원회

채영주 장로

봉사 위원회에는 경건한 예배를 도우는 강대상을 장식하는 품위로운 화분을 변함없이 섬기는 미화 조경부와 손님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라는 가르침에 순종하고 은혜로운 집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사를 섬기는 행사 영접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위해 애쓰는 주방 관리부와 이미 교계에 맛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맛집' 퀸장의 취사부가 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의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은 교회 내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난 이유에는 주방장 이정훈 집사와 헌신적인 각 선교회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 집사는 오랜 시간 주방을 책임지며, 신선한 재료 선택부터 요리 과정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그가 고르는 재료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교인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늘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이정훈 집사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영양 균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나 모임마다 그 성격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의 요리는 전통적인 맛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각 선교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정훈 집사와 각 선교회는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교회의 각종 행사에서 차려지는 음식이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협동과 헌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선교회의 헌신과 이정훈 집사의 리더십 덕분에 퀸즈 장로교회의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교인들 간의 교제와 나눔이 이뤄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 결과, 퀸즈 장로교회의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연합 행사가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이 퀸장의 음식을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Book cafe 토기장이

Potter's Book Cafe

토기장이 북카페를 섬기며 김순영 집사

토기장이 북카페는 펜데믹이 종식 되기 전인 이른 2021년, 기존의 교회도서관을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다양한 교제와 모임의 장소가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북카페로 변모하여 오픈하였다. 이전 교회 도서실이 서적을 열람하거나 대여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면, 새롭게 오픈한 토기장이 북카페는 기존의 도서관 역할에 더하여 음료 등 여러 먹을 거리 등을 제공하고, 더욱 다양한 나눔의 장소를 제공함으로 더욱 많은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교제하며 영적인 쉼과 행복을 누리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새롭게 여러 테이블과 의자 및 소파가 구비되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음향시설도 정비했고 인터넷 사용을 위해 WIFI도 확장하였다. 북카페에서는 선교회의 모임들과 구역예배 등을 장소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매달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의 교회 각종 모임과, 새신자 교육과, 특별 음악회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전 요청시, 주로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 생일잔치 등 성도들의 사적인 용도로도 무료대여를 하고 있다.

토기장이 북카페는 단지 평범한 커피와 차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 가능했던 많은 커피 음료수와 각종 티와 과일 스무디를 저렴한 값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Barnes and Noble 서점 내에 있던 Starbucks가 여러 서점 방문객들에게 커피와 맛있는 간식거리를 판매하며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였듯, 토기장이 북카페 역시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이러한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북카페의 메뉴 화면엔 수많은 종류의 음료들로 성도들의 시선을 사로 잡아 성도분들에게 선택하는 즐거움 또한 제공하여 준다. 처음엔 과연 이렇게 많은 메뉴들의 맛을 제대로 잘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국에서 수년간 카페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정기영 장로님이 카페 오픈 첫날부터 커피 원두의 종류 결정부터 각 음료의 포인트를 잘 살리는 배합까지 외부의 그 어느 전문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맛있고 수준 높은 커피와 커피 음료수 및 과일 스무디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높은 원재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지 $1~$2에 판매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전후에 부담 없이 만나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찜질방에서나 맛보았던 구운 계란과, 샌드위치, 군고구마, 그리고 여러 종류의 김밥들이 주일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역시 저렴한 값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컵라면, 냉동 햄버거, 한국식 핫도그, 쿠키, 스낵, 캔디, 주스, 소다와 작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아이스크림과 한국 아이스바들로 많은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 시켜주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께서는 아이들이 북카페에서 아이스바를 너무 많이 사달라고 조르는 통에 이들의 마음을 달래느라 힘들었다는 여담도 많이 있었다.

토기장이 북카페는 주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중과 토요일은 새벽기도회 후부터 성도들께서 모두 귀가할 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주 7일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책임자인 정기영 장로님을 비롯,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다양한 선교회의 회원분들께서 자원과 헌신으로, 부족한 손길은 여러 전도사님들께서 함께 도움으로 매일 만남과 교제의 장소가 되고 있다. 주일 오전에는 어린 청소년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간이다. 그날 판매할 김밥 용기가 실수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줄로 감고 판매 자리를 정리하고, 각종 커피 음료들을 만들고, 이들의 봉사가 없다면 매 주일 북카페의 시작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토기장이 북카페는 다민족 성도분들 역시 즐기시는 장소로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다수의 RM과 CM 성도들이 예배전에 식사와 커피로 예배를 준비하고, 1부 예배가 끝나는 오전 9시부터 마감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께서 찾는 교회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가끔씩 주일 이른 시각에 샌드위치를 구입하려고 이웃 주민이 방문하곤 하는데, 북카페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하에 위치하여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방문하시는 분들은 퀸장의 교인들로 제안되고 있지만, 새 성전이 완공되고 토기장이 북카페 분점이 그 곳에서도 오픈되어 운영될 땐 교회 주변 이웃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일단 교회에 잦은 방문을 유도하여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간접적 전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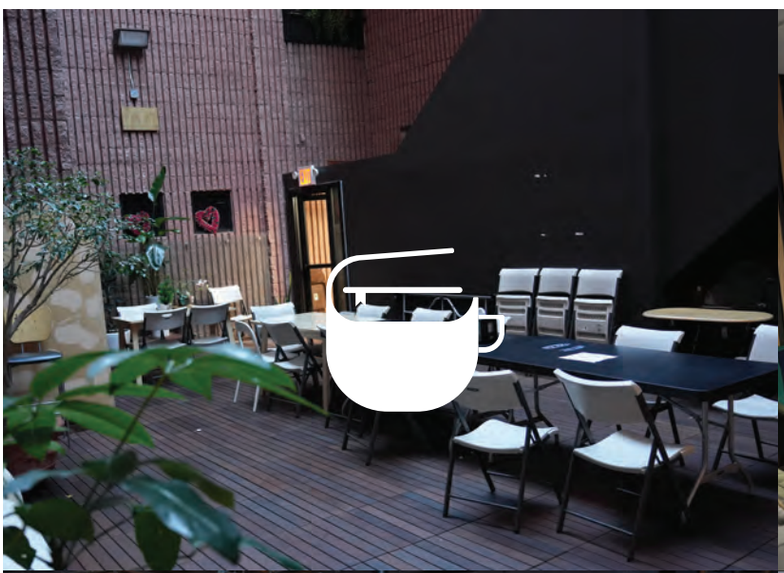
토기장이 북카페에선 현금과 Venmo로 구입을 결제할 수 있다. 이제는 Zelle이나 Venmo가 Credit Card와 더불어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고, 봉사자들께도 Venmo 결제가 더 편리하게 느껴진다. 또한 특별 절기마다 교회에서 $10 상품권을 발매해서 판매 사용되고 있는데, 성도들 서로에게 부담없이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말 연시에 성도들간에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부담 없이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 보인다. 또한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구입을 통해 각종 시상식에 상품으로 수여하고 있다. 북카페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수와 음식이 저렴함으로 상품 금액을 한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잔액을 상품권 뒷면에 기록해 드림으로 여러번에 나눠 사용함에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어느 부서나 공동체 부원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지정된 요일에 와서 대접하는 분이나 기관장 이름을 대고 음식과 음료수를 즐길 수 있다. 이때 단지 봉사자들이 실수 없이 기록하느라 조금의 수고가 따르고 있지만, 모

든 봉사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록을 하신다.

주일 북카페는 예배 후에 다수의 성도들께서 주문과 구입을 하시기에 특정 시간대엔 조금의 기다림과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께서 한정된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함으로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지만, 때로는 인내심 없으신 몇 분의 성도들로 인해 봉사자들이 힘들어 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봉사자들은 한정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힘든 일들도 있기에, 조금의 불편함을 성도들께서 큰 인내심으로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것이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이라 믿는다.

북카페가 오픈한 2021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정기영 장로님은, 커피제조와 판매이외에도, 북카페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을 여러 Wholesaler들을 직접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려 7 - 8곳을 방문하심으로 재료 구입가를 낮추고 더 좋은 물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또한 맛있고 신선한 김밥을 제공하기 위해 심원희 권사님은 토요일 밤을 세워가며 김밥을 만들어 주일 아침에 배달해 주신다. 봉사자인 정소연 집사님은 때때로 정성껏 쿠키와 컵케익 등을 구어서 북카페에 무료제공해 주심으로 매출도 올려 주시고 homemade 쿠키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신다. 북카페 안쪽 공간에서 판매할 샌드위치를 만드시는 김성은 목사님의 어머님과 식당에서 고구마를 구워서 배달해 주시는 권사님들, 북카페는 이외에도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자의 헌신이 필요로 하는 교회의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봉사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늘 마음에 새기며 봉사에 임하고 있다. 북카페는 어느 선교회원이든 자원하는 마음과 시간이 허락되는 성도들에게 항상 열려있다.



조이친교실

드림카페

〔나의 사랑하는 교회〕

08

간 증

나의 사랑하는 교회 - 윤혜진 집사
그래도 감사 - 정진규 집사

새내기 노년의 피가 다시 끓는다 - 김숙자 권사
부르신 하나님, 돌아온 퀸즈장로교회 - 지경화 교우

기도실에서의 새로운 출발 - 박노운 집사
아들 딸과 함께 한 사순절 성경암송대회 - 저우리 교우

매일 매일 불러야 할 은혜 - 박상용 집사
그날에 - 김정윤 권사

나의 사랑하는 교회

윤혜진 집사

퀸즈장로교회를 처음 온건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일하던 우리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퀸장에 있으면서 섬겼던 사역들은 새가족부, 안내부, 회계실, 경배와 찬양팀, 유아부, 청년부를 섬겼고 지금은 경배와 찬양, 유아부,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국 생활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미국에 온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나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에 동행하시고 너무 좋은 퀸즈장로교회에서 많은 훈련과 공동체 또 예배를 통해 저를 계속 단련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죄인인지를 공동체를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알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기쁜일을 함께 축하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에게: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퀸장으로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고 지금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랑스러운 퀸장으로 있어 주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

정진규 집사

저는 미국 온 지도 3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가 잘한 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불의에 사고로 지금은 장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벌써 3년 6개월이 되어가네요. 수술 후 저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장애인이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아내의 고생을 볼 때마다 미안도 하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표현을 안 했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 알면 더 힘들까봐 혼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살아온 아내가 밤잠을 설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나를 도우며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차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간절한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바쁜 몸으로, 간절히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든 아니면 이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충성하려고요. 말로 일일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용기와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때마다 눈물이 흐르곤 한답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더군요. “모든 분께 글로나마 감사하려구요”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이 모습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주에 두 번은 교회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할 때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다시금 감사하게 되더군요.

요즘은 혼자서 휠체어 타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양보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역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구나 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담임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내기 노년의 피가 다시 끓는다

김숙자 권사

2023년 8월 마지막 주일에 혼자서 이 성전에 첫 발을 들인 후 5주간의 새신자교육을 마치고 11월 1일, 새가족 수료 123기생으로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려졌다. 이제 나이도 있기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퀸장을 선택한 것이다.

처음에는 용커스에 위치한 노인아파트 생활 10년을 정리하고 좋은 환경이라 소문난 이곳으로 장막터를 옮겨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얕은 계산 속에서 내가 택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깨달음이 빛처럼 스쳤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뒷방에 앉아 있을 생각마라, 젊은이 같이 뜨거운 피를 회복하거라, 뜨겁게 나를 섬기다가 내게로 오라"

마루 깊숙이 들어온 햇살 속에서 앞이 확트인 창밖, 푸르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거처는 네게 덤으로 준 것이다" 라고..

7개월의 시간을 지나 이 순간까지도 감사는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또 난다. 아마도 내가 교우들의 환송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이 감격과 감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교회에 들어서면 교우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참 기분이 좋다.

목사님의 찬양 드리는 모습에서 나는 다윗왕을 본다. 덩달아 나도 춤을 춘다.

새벽부터 엄마, 아빠의 손에 끌려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 땅에 임할 복된 미래를 본다.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고 있어 마음 또한 든든하고 흐뭇하다. 나아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비전도 그려진다.

다민족을 위한 새 성전이 완공되어감을 보며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인도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저절로 기도가 올려진다.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되어 섬기는 자들의 모습에서 나이든 나도 뭔가 해야지.. 라며 도전을 받는다.

뭐니 뭐니 해도 교회의 영적 에너지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밑에 마련된 중보기도실을 포함한 세 곳의 기도실에서 시작되리라.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이 성전에서 올려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담장 너머 온 세상에 바이러스처럼 퍼지길 바라는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주어진 숙제 앞에 서 있다

안주해 있어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이 숙제, 아마도 내가 퀸장의 교인이 아니였다면 받지 않아도 되었을 숙제가 아닐까? 그래, 비록 섭리대로 육신은 약해가지만 인도하신 이 제단에서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고 복으로 주신 영적 뜨거움이 날마다 나를 키워가고 있다. 이 감사 안에서 나는 이 숙제를 내 그릇에 맞게 충실히 해가련다.

퀸장의 물결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지… 교우들과 함께 하는 나날이 행복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교회를 무지무지 사랑한다 ♡

"좋으신 하나님,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르신 하나님, 돌아온 퀸즈장로교회

지경화 교우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를 재등록한 중국교포 지경화라고 합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저에게 최고의 교회이고,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7년에 어느 분이 우리 집에 두고 간 퀸즈장로교회 아가페란 30주년 축제 잡지를 주시며 읽어 보라고 권하셔서 읽다가 바로 이 교회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집 부근에 교회들은 있었지만, 돌고 돌아 40여분만에 찾아간 우리교회는 때마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 교회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바로 등록하고 매주 6일씩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주일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국에 금방 왔으면 돈을 많이 벌어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무슨 교회냐면서 핀잔과 구박도 주었지만,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3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위에 계신 믿음의 분들로 인해 도움과 기도로 다른 사람보다 신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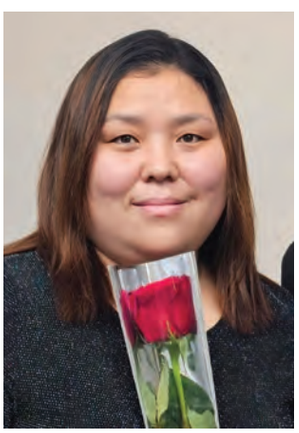
신분이 해결된 후로도 한동안은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언제부터인지 주일날만 기대하고 기다리던 저에게 교회가 가기 싫어지면서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믿음이 약했던 저로서는 그것이 유혹이었나 봅니다. '신분도 나왔으니 이제 너는 돈 많이 벌 때야! 교회는 돈 번 후에 다녀도 늦지 않아?' '이만 다녔으면 잘 다닌거야~~' 등등,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어느덧 한 발은 세상 물에 담겨 있었고 그저 교회는 절기 때만 가끔 나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보니 믿었던 세상 친구들로부터 배신도 당해 그 아픔으로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싱글 라이프를 선호하며 살고 있던 저에게 모태신앙의 1.5세 한국교포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향도, 교육도, 별로 맞지 않은 우리였지만, 크리스천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언젠가는 교회에 다시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먹었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저한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렸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린 채로 4년을 버텼습니다.

문득 "교회에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무서운 소리였지만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어 가까운 주변 교회를 찾아갔지만, 제가 처음으로 느낀 그 첫 사랑, 퀸즈장로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퀸장 교회 분들을 자주 마주쳤는데, 막상 돌아가려니 의지할 만한 분이 보이지 않아 결국 탕자처럼 제 발로 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던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성경을 필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은 모세오경까지 필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기회를 통해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다니는 퀸즈장로교회의 한 성도임을 당당히 말해 주어서 저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또 다른 유혹이 올지라도 모두 이겨내어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연약한 저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실에서의 새로운 출발

박노운 집사

나의 직장의 최종 직위는 대기업의 상무이사였으며, 54세(94년 1월)때 27년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직장을 사임한지 3개월 후, 미국 영주권이 있었기에 전가족이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 사업을 추진했지만, 매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업경영에 익숙했던 나의 고지식한 처세관이 이곳 일부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교포사회를 너무 몰랐습니다. 낙심하여 실의에 빠졌을 때 아내가 나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 주더군요.

"아직도 우리는 한국에 좋은 집도 있고 생활의 능력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 제자훈련을 받으며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내일의 비전을 창조해 나가요."

그렇게 시작된 제자훈련 일주일만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집이 심하게 타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평생 모아 두었던 패물과 보석, 그리고 한국에 남겨둔 모든 재산 증명서, 그 밖에도 당장 필요한 은행 구비서류와 영주권까지 소실, 이민 온 지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맨하탄의 차디찬 아스팔트길 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교회에서 지하 친교실을 우리들에게 임시거처로 배려, 덕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10일간 2식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술 담배 안하고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에게 마음 빼앗긴 적도 없었는데… 또 공직 위에 있으면서 뇌물 하나 받은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모든 걸 빼앗으시는지…' 라는 불평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감정적으로(?) 하던 중, 10일째 되던 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묵상과 기도, 또 묵상과 기도를 반복하니, 어느새 한국에 돌아가겠다던 생각은 싹 사라지고, 죽더라도 이 미국땅에서 끝을 보겠다는 야망이 내 마음에 솟아나더군요.

할렐루야 ! 이튿날 계화자 전도사님이 1룸짜리 아파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 ! 미국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씨름하자!"

미국 최저 임금인 경비 업무부터 시작, 시간당 $6짜리 6개월, 빌딩 화장실 청소 $9짜리 약 6개월, 10m 높이의 긴 사다리를 어깨에 매고 로비 높은 천정에 꺼진 전구를 새것으로 바꿔주는 $13짜리 1년 남짓…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간지 신문 한쪽에서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요건과 그 소지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즉시 한국에 연락, 공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그리고 7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를 시험기관에 제출하고, 한편으로 부족한 영어를 익히기 위해 퀸즈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대학시절에 공부했던 원서(전자공학, 자기공학, 계측공학)를 다시 펼쳐들고,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현장 일을 병행했습니다. 드디어 60세의 나이로 당당히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Generator M/T & Induction M/T의 1급 기사 라이센스의 위력은 내 나이 83세가 될 때까지, 미국직장 23년동안 연봉 $17만을 유지시켜 주더군요. 또 다른 3개의 자격증을 추가, 내 자신의 위상을 구축하며 이 사회에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사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망하던 그 때가 참되고 값진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 변화는 회개를 통한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퀸장의 지하 권사기도실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성취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 값으로 세워진 참된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들 딸과 함께 한 사순절 성경암송대회

저우리 교우
중국어예배부

저는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부의 저우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님을 믿은지도 오래됐지만, 저의 영성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8년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리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담임목사님이신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교회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예배부를 맡고 계신 첸위지 목사님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년동안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도전하였는데 40일을 개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단순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왜 그리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일까? 날씨가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제시간에 교회에 나타나는 그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성국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합심하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할 때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비록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는 마치 보배라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동안 몸이 피곤할 때도 연약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빼먹으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저는 두 해 연속 사순절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사순절 새벽 기도회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금방 외운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36개나 되는 성경구절들이 마구 짬뽕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써 보기도 하고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운전할 때나 음식을 만들 때나 틀어놓고 무한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있을 때는 계속 성경구절을 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사순절이 끝나고 한달 넘게 외울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36구절 다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울 때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번에 성경암송 대회 때 저의 아들과 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소에 말씀 외우는 모습도 보았고, 대회에 도전하여 알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저의 아들과 딸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용기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진실된 말씀이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걸어갈 이 영생의 길은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매일 매일 불러야 할 은혜 사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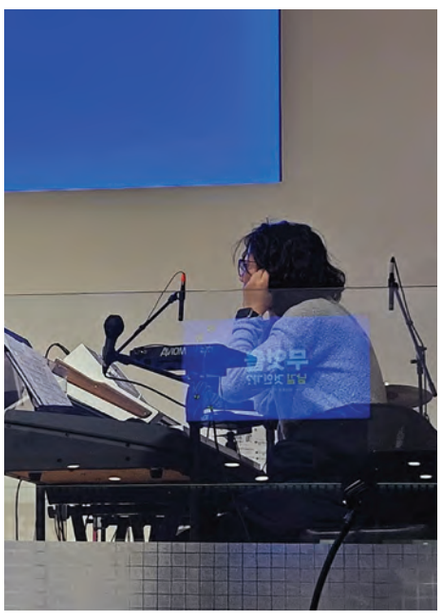
박상용 집사

솔로몬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다. 나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기둥같은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주야로, 쉬지 말고 remind 하기 위하여 매일 부를 수 있는 아이들 이름으로 지어버렸다. 첫째 아이 이름이 CJ 금 박, 둘째가 Hear O 우림 박, 그리고 셋째는 Canon Emeth 박. 그런데 아직 셋째는 안 주신다. 이름만 주셨다. 하지만 주실거다. 말씀을 주셨으니 곧 만나고 싶다.

내 삶을 보면, 10년 주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이 있다. 9살때 미국으로, 24살때 결혼으로, 34살때(결혼후 10년후) 첫째를 주시고, 그리고 둘째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셋째의 timing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꿈을 꾸게 하신다. 왜? 어떻게?? 사순절을 통해서 언제부터 사순절을 나갔는지 기억은 없다. 하지만 그냥 나간다. 무.조.건. 무조건 그냥 하니까 쉽다. 나이키(NIKE)가 내게 말해주었다. JUST DO IT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냥 한다. 대충 대충 계속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잘하면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붙으면 모맨텀 (Momentum) 이란게 생긴다. 좋아하는 단어다.

1년 단위로 삶을 펼쳐보면 그 중심에 사순절이 있다. 난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 1월 1일이 아니라 사순절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에도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Critical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다리지 않는다. 그냥 사순절로 정해버렸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critical time 이다. 사순절이 나에겐 이런 시간이다.

내 삶에, 내 신앙에, 두 기둥이 있듯이, 두 축 (two axes) 이 있다. 중심성과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란 문학 용어인데 제일 좋아한다. 사순절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붙든다. 첫번째로, 중심성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팽이가 중심축이 있듯이, 그 중심축에 따라 팽이의 팽팽한 회전이



좌우되듯이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로 spin 의 파워와 생명력은 이때 좌우된다. 도는 중심이 있는가? 있어야 한다. 시편 40:8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또 원하고 원해서 주의 말씀을 내 심장에 넣으려 한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된다. 시편 30:7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소서'의 외침이 있는, 울부짖음이 있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에 주만 바라보는 방향성이 꼭 필요하다. 이게 사순절이다. 눅 7:6-7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사순절이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시간이다.

두번째로, 사순절은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의 삶을, 신앙을 낯설게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바꾸기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편안한 걸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걸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삼성도 한때 그랬나? Wife 빼고 다 바꾸라고? 낯설게 해야 새롭게 보인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새로운 눈 (perspective) 을 갖는 시간이다. 새로운 눈은 내가 찾아 나서는게 아니다. 주어지는 것이다. 중심되신 말씀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revelation) 것이다. Before and after 가 달라지는 시간이다. 전에 했던 것을 하지 않고, 전에 안 했던 것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쉽게 말해 reset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시간이다. 우린 모두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내 삶을 Reset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열심을 내어 Reset 하는게 아니고 Reset이 그냥 되는 것이다. 말씀이 주어져 가슴에 불이 붙고 불붙은 가슴으로 Reset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하게 된다. 일은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일은 그냥 되는 것이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CJ 이다. 그 뜻은 천지창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파워는, 권세는, 능력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파워다. 이런 권세가 있는 분에게 무엇이 impossible 하겠는가? CJ 란 이름은 이런 base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다.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창조 되었다. 그래서 CJ 이다. Chun Ji Chang Jo. CJCJ. Creation in Joy. 이런 권세 속에서 나 자신,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려 한다. Reset되는 순간 바로 한다. 안되면 말고. 또 Reset 되면 되니까.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 충만하게 채워지면 (my cup overflows) 그 다음은 흘려 보내야 한다. 무엇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엄청난 호기심에 exciting 된다. 가슴이 뛰며 삶이 재미 있어진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여기서 만족과 자족이 흘러 나온다. 사순절은 이런 시간이다.

내일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남길것인가? 의 질문 가운데 말씀을 받고 나아가려한다. 어제도 그래왔듯이, 내일도 그리하려 한다. 참 감사하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부르고, 찬양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업고, 들고, 안고, 무릎끓고, 엎드려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게 부어주세요. 피곤함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젠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밖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말건 상관없다. 그냥 간다. 그냥 감사한다. 그냥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하는 교회로,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자리로 간다.

그날에 노방전도

김정윤 권사

2003년 성 금요일 저녁, 저는 첫 아들 노아의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정도 남긴 임산부의 몸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벌어진 골반뼈로 인해 일어설 수 조차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진통까지 시작되어 병원에서는 혹시 아이를 출산하게 될 수도 있으니 분만실에서 하루정도 모니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에 띠를 두르고 진통이 올 때마다 지금 아이가 나오면 안되는데 하면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개근을 하고 있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 혼란스러웠고 조산에 대한 걱정은 이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있다보니 창가 너머로 어느덧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갑자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흐르는 중에, 아! 부활의 새벽이 밝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이 무서운 공포와 고통에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 삶에 어떤 의

미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는 택한 바 되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제 마음을 흔들며 감사가 차 올라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 이소영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방법 같기도 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놓치 않고 계시기에 나갑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려는 제 손을 기뻐하시고 Jesus loves you 라고 인사하는 제 목소리를 기뻐하시기에 나갑니다. 전도지를 받자마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방 속에 바로 넣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받은 전도지를 읽으시며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화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보이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쓰러져 가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하늘의 소리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바라며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3년전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남편과 저는 먹먹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저희를 보시며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고 시편 18편을 함께 읽자고 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며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울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담임 목사님의 신간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나" 를 시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려고 목사님께 싸인을 부탁드렸을 때 놀랍게도 목사님께서는 첫 페이지에 시편 18편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좁은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햇빛도 필요치 않은,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그날,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될 그날, 그날에 천국에서 퀸즈장로교회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될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찬양 사역자는 '예배자'이다

윤원상 전도사 | 김소연 청년

예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거나 흡족해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본질이다. 찬양은 공연이 아니라 예배이다, 기도이다. 소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퀸즈장로교회의 찬양의 역사를 이끌어온 지휘자 윤원상 전도사님을 호산나찬양대 솔리스트 김소연 자매가 만났다.

소연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의 찬양사역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사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 되었으며, 퀸즈장로교회에서의 사역 초창기는 어떠셨나요?

윤 전도사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마치고 뉴욕에 와서 처음에는 브루클린한인교회에서 지휘를 하였습니다. 당시 퀸즈장로교회 바로 근처에 살았기에 수요예배는 퀸즈장로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형님(윤원국 장로, 뉴저지 에리자베스 한인교회)께서 퀸즈장로교회 건축설계를 하셔서 마음속에서는 퀸즈장로교회가 아주 가깝게 느껴졌었습니다. 지금의 유아부실에서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장영춘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인들도 목사님의 성경 강론을 듣기 위해 많이 왔었다. 장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후에 퀸즈장로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예배만 드리다가, 1985년 시온 찬양대가 조직되면서 지휘자로 퀸즈장로교회 찬양사역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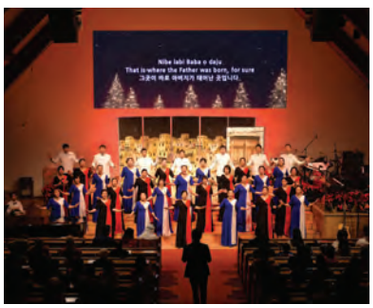
소연 윤 전도사님께 퀸즈장로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악 사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네기 홀(Carnegie Hall)에서의 메시아(Messiah) 공연, 글로리아싱어즈의 세계 순회 연주 등 여러 사역들에 대하여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 전도사 그 간의 사역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2분 걸리는 곡이나 2시간 걸리는 곡이나 모든 연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똑같아서 딱 잘라 한 가지를 고르기는 어렵지만(웃음), 브루클린 남쪽에 있는 CCC(Christian Cultural Center, Brooklyn) 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글로리아싱어즈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회중석도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찬양하는 무대 뒤로는 그 교회의 찬양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찬양 중에 한 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였습니다. 지휘 도중에 갑자기 곡의 후렴 부분을 이곳의 미국 사람들과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찬양 중에 뒤 돌아서 같이 부르자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계획에 없던,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나의 사인을 보고 뒤 쪽에 앉아 있던 찬양대원들도 일어서고, 화면에 찬양의 자막이 실시간으로 타이핑되면서 교인 전체가 다 함께 일어나 큰소리로 그 곡을 불렀습니다. 55년 사역 중에서 기억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 메시아(Messiah)공연은 1978년 6월 10일 제 1회 성전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해 맨해튼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에서 연주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Queens College Colden Center, Arch Street 감리교회에서 전봉구 지휘자님을 필두로 연주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지휘자로 사역하면서 1988년과 1990년에 카네기 홀(Carnegie Hall)에서 북한선교 모금을 위해, 2004년에는 교회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카네기홀에서 연주했습니다. 당시 한인교회가 카네기홀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과 93년에는 Kazakhstan Almaty 교회 주최로 Messiah의 원어인 영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2회의 공연을 올렸습니다. 소비에트연방 전체에서 러시아어로 메시아를 초연한 날 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글로리아싱어즈는 1995년에 조직되어 1998년 4월에 제13회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되어 찬양을 드렸고 그 후로는 한국, 아르헨티나, 일본, 브라질, 미국 등 여러 나라와 도시를 돌며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연 4월부로 3부 시온찬양대 지휘자 자리를 아들 윤수영 집사에게 물려주시게 되셨습니다. 매우 보기 드문, 또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 전도사 나와 윤 권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 수영 집사에게 교회음악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교회음악에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대물림이 아닌, 누구의 아들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아 가길 원하며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길 바랍니다.

소연 퀸즈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음악가 가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악가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악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점이 있으실까요?

윤 전도사 음악가 가정은 일반 가정과 생활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온 가족이 음악을 전공할 경우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음악을 일단 틀어놓고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곡 선정은 항상 수영 집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휴일에 집에서 더 많이 연습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Nashville에 있는 소영이가 며칠 방문했는데 역시 매일 연습합니다. 음악은 연습을 쉬는 순간 바로 퇴보합니다. 수영과 소영이 만나면 90%의 대화는 음악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 가정과 다른 부분입니다.

또 온가족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들 CM 찬양대가 크게 성장한 것에 대해 나를 칭찬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윤현주 권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지난 1년도 내가 시온 찬양대를 맡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 대신 찬양지도를 도왔습니다. 또한 아들 수영 집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CM 찬양대에 힘을 모았습니다.

소연 윤 전도사님이 평가하는 퀸즈장로교회만의 교회 음악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윤 전도사 이전에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찬양과 교회생활의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이른 시간, 늦은 시간, 주중, 주말 상관없이 모여야 한다고 하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개인과 가정이 우선시되는 모양새입니다. 30-40년 전에는 퀸즈장로교회의 찬양이 뉴욕지역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찬양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라고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의 목회방침과 찬양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우리교회는 찬양에 관심이 많고 항상 격려와 후원을 아

끼지 않으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찬양 부르다가 하늘나라 가길 원하는 대원들이 많아서 염려 없습니다.

소연 퀸즈장로교회의 교회음악을 돌아보면 윤전도사님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40년간의 퀸즈장로교회 음악사역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실까요?

윤 전도사 모든 찬양 사역자들(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경찬 팀)은 찬양자이기 이전에 예배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에 하나님과의 일대 일 위치에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필요해서 부를 때는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일반 아마추어 찬양대원은 3-4분짜리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5시간은 연습해야 합니다. 시간을 나눠보면 예배 전 1시간 반, 예배 후 1시간 반, 주중에 2시간. 이렇게 5시간을 투자하여야 주일예배 찬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CM 찬양대는 주일 오전 예배 전, 오후예배 전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연습합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찬양대원은 그냥 남이 하니까,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대원 숫자가 적다고 교역자가 밀어 넣어서 등등 이런 이유만으로는 찬양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도 진정한 찬양 사역자가 되기 위해 헌신할 각오가 있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윤 전도사 소연 자매는 찬양 사역자로서 힘든 점이 없는지요?

소연 제가 성악을 시작한 이후로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잊지 않고 가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가족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제가 찾아낸 해답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재단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 한 곡을 제대로 준비해 진심을 다해 부르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어디라도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하여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윤 전도사 앞으로 남은 사역은 CM 찬양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양육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다. 인구가 많다. Flushing은 이미 China Town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95%가 불신자입니다. CM교인들이 지난 8-9년을 매주 토요일 마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이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중국어예배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중국교회는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CM 찬양대가 많은 중국교회 찬양대의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CM 사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년 2025년이 CM 예배를 시작한지 10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연 감사합니다.

[정리: 김소연 청년]

제 삶의 지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혜영 권사

2001년 음악 공부를 위해 연고 없는 뉴욕에 온 제게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곳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할 계획이었지만, 저를 이곳 뉴욕에 붙들어 둔 곳 역시 퀸즈장로교회였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제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고 제가 사는 이 타향을 제2의 친정처럼 여기게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를 찬양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교회 사역들을 시작으로 교회 설립 30주년, 40주년, 그리고 50주년의 역사적인 축제를 통해 한없이 부족한 저를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릴 일만 생각납니다.

박약한 신앙을 가졌던 제가 찬양의 기쁨을 만끽하며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었던 것도 퀸즈장로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음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연습하고 그럼으로써 구별된 찬양을 올려 드리는 지휘자님들과 연주자님들 그리고 함께 하는 찬양 대원들의 자세는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예배 찬양뿐 아니라 절기별 특별 찬양을 준비할 때면 온 교회가 믿음의 군사들처럼 함께 움직이며 기도, 순종, 감사, 헌신이 담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찬양의 대표적인 지휘자시며 저를 이끌어 주신 윤원상 전도사님은 참으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사역자이십니다. 전도사님의 지휘 아래 시온 찬양대 독창자로 글로리아 싱어즈의 찬양자로 섬기면서 교회 음악이 무엇인지, 찬양은 어떻게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인지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을 밑거름 삼아 2018년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며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휘 경력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The Way'를 통해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The way'는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로 우리 교회 50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올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길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퀸즈 장로교회의 풍성한 찬양 여정이 앞으로의 50년으로 이어져, 다민족과 다음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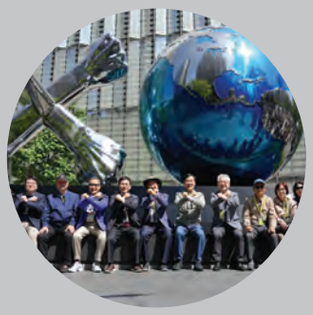
제가 음악을 처음 접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걸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고 했던 기억이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매주 준비되고 올려지는 찬양이 제가 설레며 음악을 배울 때처럼, 진심을 다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퀸즈 장로교회 찬양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이신 주님을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합시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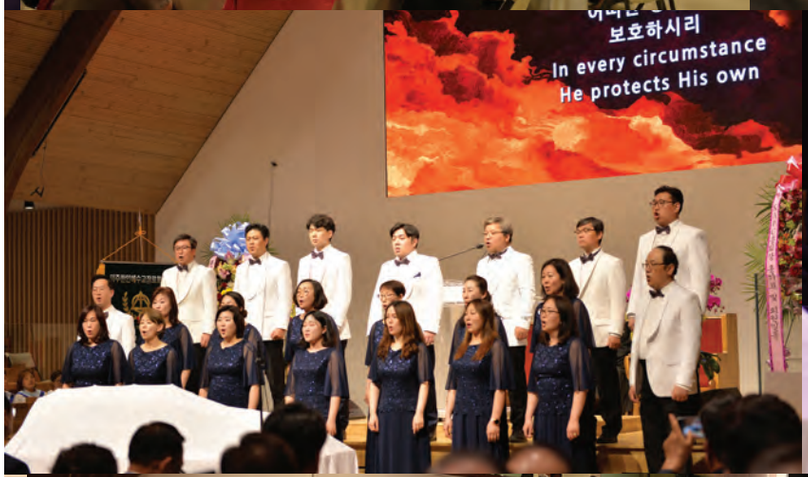
KAPC47회총회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

1983년 6월 28일, 3박4일간 미국 펜실베니아 마운트포코노에서 열린 제7회 총회에서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취임하셨다. 그로부터 40년후 김성국 목사님께서 제 47회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분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다.

충만
Jesus Christ
제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EXIT

보호하시리
In every circumstance
He protects His own

EXIT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제47회 KAPC 총회를 준비하며

박정봉 장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40년만에 저희 퀸즈장로교회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고 장영춘 원로 목사님께서 제7회 총회장으로 역임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심에 순종하신 김성국 담임 목사님께서 47회 총회장으로 취임하심으로 이번 총회가 저희 교회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인 줄 감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총회를 준비하기에 앞서 저희는 하나님이 이 총회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게 무엇인지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신 마음은 '충만' 이었습니다. 끝을 헤아릴 수 없으며, 다른 헛된 것들을 몰아내는 힘,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 있고, 선택이 아닌 필수, 권고가 아닌 명령인 '충만' 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소망 없는 것들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라는 주제가 교회와 총회를 시작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이를 모두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총회 준비 위원회는 특별히 예배, 축제, 위로, 계승에 포커스를 맞추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였고, 2023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47회 총회를 저희 퀸즈장로교회가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에서 오신 507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저희 퀸즈장로교회와 LaGuardia Plaza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첫날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총 6번의 예배와 성찬 예식, 사모님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선교의 밤, 영어권 세미나, 세계의 심장인 뉴욕 관광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진행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함께해주신 뉴욕노회와 퀸즈장로교회 교인들 덕분에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에 진행된 뉴욕을 관광하는 시간에는 함께 크루즈 투어를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계의 중심지 타임스퀘어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총회의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었으며 총회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김성국 담임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민 땅의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예배와 찬양의 벅찬 감동을 모든 교회와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비전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옆을 묵묵히 지키시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모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신 한 사모님의 감사의 편지를 나누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준비위원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저희 퀸즈장로교회 교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APC 총회와 사랑의 섬김으로 훈련된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익명의 편지

산골 생활 23년 동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거대한 도시 뉴욕에서 열린 이번 총회 참석을 하면서 무엇보다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동안 늘 목사님 그늘에서 총알받이를 하던 사모들을 특별히 섬겨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천국 잔치에 참석한 느낌입니다.

급하게 준비 됐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오빠 부대까지 동원된 힐링 콘서트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누구나 드는 코치 핸드백 조차도 눈치거리가 되어 몇 번 이나 망설이며 샆을 드나들기만 했던 사모들 마음을 읽으신 듯 ...이젠 총회에서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성경이 들어갈 만한 큼직한 가방을 하나씩 들고 행복하게 숙소로 돌아갈 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밤 한 시간 자고 뉴욕으로 날아온 피곤도 잊게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집 식탁에는 올라와 보지 못한 랍스터 한 마리를 들고 그 것이 에피타이저 라는 소리를 들을 땐 “아. 내가 이런 삶도 살아보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며 그동안 수고 했다. 그러니 눈치보지 말고 어서 맘껏 먹으라며 등 두드려 주시는 그 분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카페에서 성심껏 기쁨으로 섬겨 주시고 미국 와서 처음 먹어본 싸만코 아이스크림까지 챙겨 주신 놀라운 카페 또한 천국이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기쁘게 미소를 잃지 않고 손뼉을 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던 봉사자들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생일 맞은 사람들에게 손수 만든 귀한 보석 왕관과 장미꽃 그리고 3단 케이크까지...외식 없는 사랑으로 잘 섬겨 주셔서 그저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때론 어린아이 같이 권위를 내려 놓고 함께 웃어 주시고 때론 강력한 영적 파워로 타임 스퀘어에서 인도하신 그 우렁찬 기도의 울림의 선봉에 서서 함께 해 주신 총회장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과 퀸즈장로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을 돌려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 갑니다. 코로나의 긴 어둠의 터널을 이겨낸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를 안고 돌아가 받은 사랑으로 잘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

퀸즈장로교회50주년기념예배

THE WAY

오늘은 교회 설립 50 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 당신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드려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주신 헌금과 섬김 덕분에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 나갈 차례입니다.
어떤 도전에도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THE
WAY

THE WAY-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남형욱 장로

우리 교회의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세대와 다민족 회중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기 위해 50주년 기념 사업의 한가지로 2023년 10월26일 (주일), 틸레스 센터에서 50주년 기념 예배 (THE WAY)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전에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계의 중심인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이야기와 역사를 교인 모두가 정성을 모아 'THE WAY'이라는 뮤지컬을 통해 담아 내었습니다. 'THE WAY'를 기획하고 연출하며 정리해 왔던 내용을 50주년 기념 아가페에 나누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1. THE WAY의 극본은 누가 쓰셨나?

하나님이 쓰셨고 담임목사님께서 그 줄거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하신 심지원 작가께서 연출용 대본을 각색하셨습니다.

2. THE WAY 의 줄거리와 그 배경은?

1974년도 뉴욕의 이민세대가 도착한 뉴욕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몰랐던 시대였습니다.우리의 이민 1세대 선진들께서는 약소국가 국민의 설움 등 여러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셨고, 가정 예배를 시작으로 후러싱에 있는 미국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회가 아니였기에 예배의 시간도 한정적이였고 친교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였고, 자녀들도 눈치보며 교회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진들께서 당시 자체 교회 건축이 없었던 뉴욕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지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여 1983년 2월 27일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THE WAY”는 그런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속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강가에서 두고 온 조국 이스라엘과 그곳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동시점인 관점을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THE WAY에서 연출적 관점은?

5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여 담임목사님께서는 50주년의 희년에 대하여 크게 4가지 주제 (은혜,충성,전진,비전)로 기념 행사를 담아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THE WAY 의 연출 구성도 거기에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는 은혜와 충성의 시점에서 구약의 이야기(느헤미야 시대)로, 그리고 현재와 다음세대의 이야기는 전진과 비전의 시점에서 신약의 이야기 (십자가 사건, 오순절 성경 강림, 계시록의 천국에서 모두가 어린 양 예수께 찬양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다민족 사역과 다음세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 THE WAY의 흐름을 이어가는 주요 요소는?

구약시대로 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STORY를 성경에 나오는 건축의 STORY 와 우리교회의 건축 STORY를 주요 요소로 두고 극 전체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 건축에서 우리 교회의 다민족을 위한 새 성전과 캄보디아 벧엘 국제학교 건축으로 극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5. THE WAY의 제목이 뜻 하는것은?

주제곡으로도 사용하였던 '길을 만드시는 분, WAY MAKER'의 가사가 말해 주듯 퀸즈장로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6. THE WAY 를 통해 보내는 메세지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히브리 노예들이 두고 온 고국의 성전과 그 예배를 그리워하였듯이 우리의 선진들도 두고 온 조국과 그 땅에서 섬겨 오셨던 교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으셨던 그 마음들을 "THE WAY"에 담았고 극의 마지막 부분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표현 하였습니다.

7.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HE WAY"는 공연이 아니라 예배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THE WAY"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으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THE WAY"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맘으로 바랐던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맘껏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Amazing things will happen
Until the day You return to us

설립 50주년 감사예배, 뮤지컬예배 'The Way'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0월 29일 주일 오후 5시 롱아일랜드대학교 틸레스(Tilles) 센터에서 드려졌다. 틸레스 센터 로비에는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교회역사 사진전이 동시에 열렸다.

퀸즈장로교회는 장영춘 목사라는 미주한인교계의 역사에 남은 걸출한 목사가 1973년 브루클린에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으며, 1974년 플러싱에서 60여명이 모여 설립예배를 드렸다.

퀸즈장로교회는 1981년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렸고, 1987년에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냈으며, 장영춘 목사가 2011년 퀸장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퀸즈장로교회는 보수 개혁주의의 전당이자 미동부 대표 한인교회의 역할을 했다. 1992년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역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김성국 목사로 리더십이 바뀌었다. 김 목사는 다민족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영어예배 사역에 더해 2015년에는 중국어 예배부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어 예배부를 설립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19년에는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새성전 기공예배를 드렸다. 김 목사가 부임한 지 10년이 지나 다민족사역은 한인이민유입의 중단 흐름 가운데 퀸즈장로교회만이 아니라 한인이민교회들의 방향성이 되었다.

김성국 목사의 목회성향에 따라 개혁주의적인 메시지는 여전했으며, 단단한 성경적 기반아래 뜨거운 열정이 더해졌다. 퀸즈장로교회는 전통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인 이미지도 가진 교회로 발전해 나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선교는 멈추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선교를 한 킹덤미션도 한 예이다.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는 한인이민교회가 50주년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민의 전성기에 세워졌으며 한때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했던 교회가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향력을 잃지 않고 50주년을 축하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뉴욕의 한인교회들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은 달랐다. 50주년 예배가 열린 롱아일랜드대학교 틸레스 센터에 발을 디딘 모든 회중들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는 퀸즈장로교회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들이 모두 모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창립멤버부터 유아까지 온 세대가 가득 모여 지난 50년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50년 동안의 걸어갈 길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50년 전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감사를 돌렸다. 김성국 담임목사의 개회선언 후에, 교회를 49년 동안 섬겨 온 허경화 장로가 희년을 맞이하기 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별칭은 "The Way"이다. 요한복음 14:6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온 주제이다. 김성국 목사는 "모든 인류가 걸어야 할 길은, 길(The Way)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는 다른 3개 언어 회중 담당 목사들과 요한복음 14:6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마지막 선교명령"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 시대는 진리가 허물어졌다. 더 이상 이 시대는 진리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듯이 진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성경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회복하자.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자"고 외쳤다.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1부는 50주년 축하순서였다. 개회선언, 기도, 축사, 중국어 예배부 축하공연,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 앞으로 5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와 부모들이 찬양을 했다.

2부에 이어진 "The Way"는 기도와 찬양, 말씀이 어우러진 뮤지컬 형태의 예배였다. 심지원 극작가가 극본을 쓴 뮤지컬은 이민 1세대인 장로와 딸의 대화를 통해 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뮤지컬을 통해 미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이민자들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겹쳐 보이게 만든다.

퀸즈장로교회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과 다음세대까지 모두 무대에 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1만 가지의 이유를 세며 주님을 송축했으며, 김성국 목사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출처-아멘넷]

11

캄 보 디 아 벧 엘 국 제 학 교

캄보디아벧엘국제학교

BETHEL
INTERNATIONAL SCHOOL
សាលាអន្តរជាតិបេតអែល
BETHEL INTERNATIONAL SCHOOL
GRACE CHAPEL
Bethel International School and Grace Chapel Completion Commemoration Service
07.20.2024 (Sat) 06:00PM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 꿈을 꾸며…

해외선교위원회 | 남형욱 장로

2014년 1월 어느 날 고 장영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집사, 캄보디아 선교지에 선교센터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가지' 조용한 목소리지만 모든 일에 신중하셨고 위엄 있으셨던 원로 목사님의 권고에 계획에 없던 캄보디아 방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벧엘 센터의 오픈 예배만 드리고 오는 짧은 여행길에서 그때는 왜 하나님이 선교의 문외한인 저를 그 땅에 부르셨는지 몰랐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2024년, 캄보디아 벧엘 국제학교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야 10년전 센터의 오픈자리로 부르신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을 보게 하시려는 의도였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벧엘 국제학교는 2013년에 우리 교회가 박수영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하며 벧엘센터를 건축하는 일로부터 태동이 되었습니다. 청년이던 시기에 여자의 몸으로 홀로 센터를 건축하고 주변의 어린이들을 불러보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선교지를 떠나셨던 박수영 선교사는 2017년 이일훈 목사님과 결혼 후 돌이 채 되지 않던 아들 이안이를 데리고 모든 가족이 캄보디아로 재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고 주일학교를 든든히 세워가던 중, 2020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로 모든 나라의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던 그 시간 가운데, 퀸즈장로교회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끝까지 지키셨고 교회는 Zoom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던 그 20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행의 길이 막히고 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시점에 선교지도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나의 때이니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코비드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은 묶여 있었지만 집에서 보낼 수 밖에 없는 시간을 통해 선교지와는 여러 형태로 더욱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한 나라를 복음화 시키는데는 교육만한 것이 없다는 의견을 이일훈 목사님과 함께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건축을 위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하신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 '학교 설립 제안서 및 운영계획'을 이일훈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신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선교를 가지는 못 했지만 매년 열렸던 선교바자회를 통해서 건축 자금을 매년 10만불씩 30만불을 SEED MONEY로 모을 수 있었고,
2021년 3월, 3개의 건축 설계사 제안서를 검토 후 학교 건축 경험이 있던 MUNY-Rachana ARCHITECTURE DESIGN 설계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으며 2022년 7개 공사업체의 입찰을 거쳐 서류 심사 및 최종 인터뷰 과정을 통해 최종 KBT CONSTRUCTION COMPANY 로 시공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첫 삽을 뜨게 되었고 2024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가운데 완공 예정을 한 달여를 앞둔 상황에 공정의 95%를 거의 마치어 2024년 7월20일 현지에서 완공예배를 준비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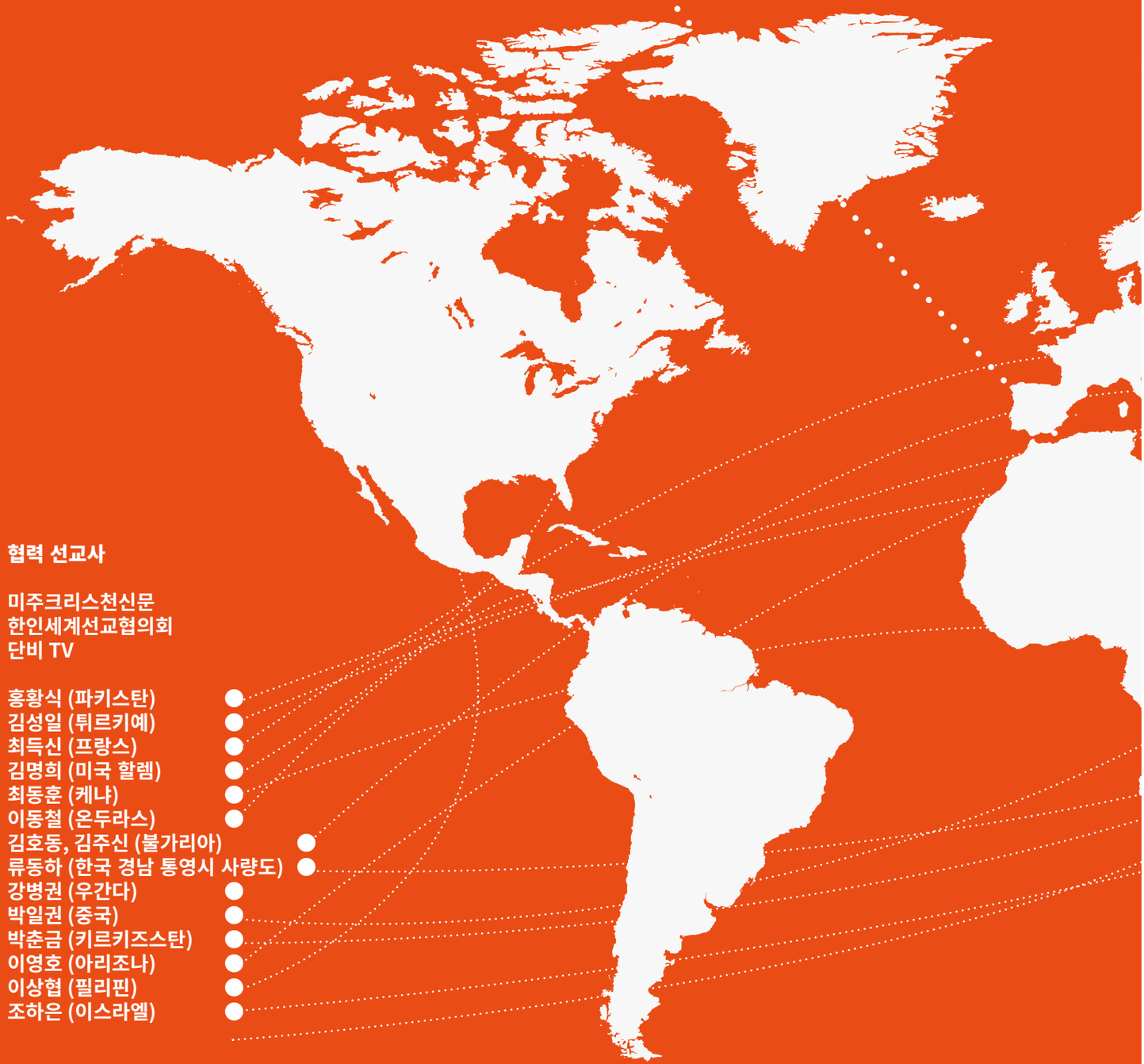
학교를 준비하며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공립학교 허가를 영구적으로 받은 일, 우기임에도 비를 멈추게 하셔서 계속 공사가 이어지게 하셨던 일, $805,000의 건축비용에서 모자란 3만불이 외부 독지가를 통해 교회로 $33,333의 체크가 서부로부터 날라와 채워진 일 등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수많은 간증들로 우리 캄보디아 국제학교는 세워져왔습니다.

140년전 한국을 향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내었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연세대)등을 통해 배출된 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로 인해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의 빛을 이제 캄보디아를 통해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벧엘 국제학교를 통해 매년 900명의 크리스천 리더를 배출해 낸다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되는 캄보디아를 복음화 시키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고 이제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라는 모토로 세계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현재 해외에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키르키즈스탄, 중국, 프랑스, 파키스탄, 온두라스, 불가리아, 필리핀, 국내에서는 아리조나와 뉴욕 할렘 등에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들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케냐, 키르키즈스탄 - 정길표, 정경애 선교사



협력 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단비 TV

홍황식 (파키스탄)
김성일 (튀르키예)
최득신 (프랑스)
김명희 (미국 할렘)
최동훈 (케냐)
이동철 (온두라스)
김호동, 김주신 (불가리아)
류동하 (한국 경남 통영시 사량도)
강병권 (우간다)
박일권 (중국)
박춘금 (키르키즈스탄)
이영호 (아리조나)
이상협 (필리핀)
조하은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
● 카자흐스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 김관중 이재의 선교사

파송 선교사
● 캄보디아 벧엘교회 -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12

선 교 지

지금의 국제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시작부터 현재까지

저희 가정은 퀸즈장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후 2016 년 12월 31일 밤에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하였습니다. 2017년 새해부터 현지적응과 교회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사역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고 예배로 인도하기 위한 영어 방과후학교가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늘 바뀌는 어린이 대상의 전도사역을 한 결론은, '어린이들은 관리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관리를 안해도 교회를 알아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지원이 없는 신앙훈련의 한계랄까요, 보다 정확히는 부모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하면서 벽돌을 쌓듯 선교열매를 쌓아갈 수 있는 선교사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기로 하고 청소년예배를 10여 명과 시작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외국 선교사로부터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고, 부모세대와 달리 타종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르치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저녁마다 수십명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금요청소년모임(TGIF)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배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하여도 청소년들은 거부감 없이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금요모임에서 더 나아가 주일예배에까지 참여하도록 권면하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청소년부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청소년들과의 지속적 관계형성의 용이성,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스스로 종교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하며 청소년선교는 향후 벧엘국제학교와 벧엘교회의 중점 선교전략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벧엘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준비되면서 비로소 선교유치원을 개원하기에 이릅니다. 유치원 학제가 미약한 캄보디아였지만, 캄보디아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특화된 선교유치원으로 지역사회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개원 첫날 수업 참여 아동은 이안이를 포함한 4명뿐이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학교 아이들을 모으는 방법은 '홍보'가 아니라 '입소문' 이라는 학교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조언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유치원으로 소문이 나도록 매일 매일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칠 뿐 아니라 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한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오전에는 가르치고 오후에는 배우는 일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 년 동안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이 35명이 되었습니다.

2020년 초, 학교를 통한 선교의 열매를 쌓아가기 시작하던 때에 코비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비드의 가공할 위력에 우리 벧엘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걸음마 단계를 막 벗어난 벧엘유치원은 3월부터 정부의 명령으로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와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소리로 북적거리던 학교는 하루아침에 적막이 흐르고 뜨거운 열기만 내리쬐는 마치 사막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땀 흘려 일궈온 유치원 사역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 시절 줌을 통해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담임목사님의 설교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코비드 이후에 '더 나아가는 사역'을 준비하자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라고 가만히 있지말고 코비드 이후에 학교가 '더 나아가는 사역'이 되도록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모여서 공부를 가르칠 수 없으니 교사들을 학생들의 집으로 보내서 학업을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각 교사들이 학습교재를 만들고 각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마스크를 쓰고 일대일로 학습과제를 부모대신 지도해 주는데 어느 부모인들 싫어하고 거부했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결과로 벧엘학교가 '더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비드를 회복하고 난 이후 2022년에는 학생이 70명으로, 2023년에는 145명으로, 현재 2024년에는 유치원생과 초등과정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영어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이 185명으로 학교가 '입소문'을 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성장함에 따라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등 크마에과정과 영어반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의 주일 아침 어린이 예배 고정 참석률이 늘어나면서 예배의 부흥 뿐 아니라 신앙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졸업하고 중고등부 예배로 승급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주일저녁 중고등부 예배의 부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중고등부에서 세례를 받고 졸업한 20여 명의 청년들과 주일낮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으로써 로컬교회의 모습을 한 단계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이렇듯 학교사역은 교회사역과 부흥의 모판 역할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벧엘국제학교 건축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코비드 사태가 한창인 2020년 3월에 캄보디아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운영 허가를 받은 이후, 2022년 들어 설계자와 계약을 시작으로 도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면이 완성되고 12월 6일에 '건축허가서'를 취득한 후, 본격적으로 8개의 건축회사의 입찰을 받았습니다. 참여한 회사 중에 4개의 회사를 선정한 후, 전성호목사님과 남형욱장로님께서 줌미팅을 통하여 까다로운 인터뷰작업을 장기간 진행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의 세밀한 제안서들 점검과 수차례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KBT' 건축회사를 선정하고, 2023년 6월 8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곧이어 6월 10일부터 1년의 공사기간을 예정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말 현재, 전체 공사의 80% 이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20일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완공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바자회와 기타 사역으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학교발전을 위해 이사회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학교건축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신 담임목사님과 해외선

벧엘센터는 앞으로 '학교사역'을 통해 열매맺는 선교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을 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사역을 할 수 없었기에 새로 학교 건축이 요구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에 해외선교위원장님의 지도로 학교 자립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해 7월 건축 설계자와 첫 만남을 가지면서 캄보디아의 건축시세 등을 파악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재값과 물류비 상승으로 두고 보기로 하고, 무엇보다 본교회의 새성전 건축이 우선적으로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퀸즈장로교회 교회설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 건축 준비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위원장 장로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미션스쿨입니다. 벧엘국제학교는 학교선교를 통하여 캄보디아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가 될 재목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캄보디아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실현되게 만드는 지도자들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선교를 꿈꾸는 선교지 교회

김관중 이재의 선교사

KAZAKHSTAN

카자흐스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이재의 선교사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위대한 사역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는 1992년 3월 8일에 설립되어 3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성한 열정을 가진 청년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이런저런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타격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거의 뿌리까지도 흔들렸던 기억이니까요. 100여명의 성도들 중에서 16명의 사망, 다수의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개척 아닌 개척을 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다가와 힘이 되어 준 성도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면, 장년들은 대부분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외출조차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집회가 금지되어 교회 문이 닫혀진 상황이라 교회는 손길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교회로 와서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심장들이 되어 준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청년들의 봉사로 인해 차츰 안정되어 갔고 회복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역에 힘이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함께 동역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적은 수의 청년들이지만, 교회 구석구석까지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일당백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우리 청년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일꾼들입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팀과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3부까지 주일 예배 봉사와 주일학교 예배(교사)를 드린 후에 하나, 둘 본당에 모여 기도하고 주일을 마감하는 청소까지 하고서야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카작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회 언어학교에서 자기들의 달란트를 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아침 06시 30분에 아침 경건회를 줌으로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출근을 하니 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많은 소규모 교회와 가정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1년 정도 행한 집회 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졌고 조용히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의 알마티 퀸즈장로교회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곳을 회피하고, 지금도 전염병의 기운이 돌아 많이들 아파하고 모임을 꺼려하기 때문에 예전의 교회 모습은 추억으로 간직해야만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들과 청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알마티 퀸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장년과 주일학교 예배를 도와주고 재건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청년들이 순번을 정하여 전도여행에 동역하고 있어서 큰 힘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도움과 동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역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자 준비와 훈련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염병의 아픔과 위험과 성도들의 많은 죽음과 오래동안 닫혀진 교회 안에서 여러 눌림으로 인해 저마저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교회에 찾아와 준 성도들이, 청년들이 회복의 눈물이었고, 소망의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어쩜 그리 동일한 말을 하고 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위로였음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잃은 것이 많지만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린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 낮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힘이 되어 주신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성장과 회복인 줄 믿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늘 한걸음에 찾아주시는 알마티 선교팀원들께 소중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에 올리고 있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회복(부흥과 재정)과 사역자 훈련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 모든 성도들이 예배(말씀, 기도)의 은혜로 삶이 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 선교(사역)를 위해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어 오래 동역하길 기도합니다.
- 카자흐스탄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 알마티 퀸장이 중앙아시아의 허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돕길 기도합니다.
- 준비하고 기도한 사역들이 주님께서 길 여실 때 강하고 능력있게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힘과 건강 회복과 뉴욕 퀸즈장로교회의 부흥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KAZAKHSTAN

“약속의 땅”

정길표 정경애 선교사

KENYA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니라”(사 48;12-13) 밤새 먹이를 찾아 으르렁 대던 하이에나의 굶주린 소리와 더불어 이곳 어두운 광야의 알 수 없는 주인공들도 간밤의 무대뒤로 서서히 퇴장하고 먼곳 동쪽에 병풍처럼 둘러쌓인 사보산의 미명의 커튼이 서서히 열려 하나님의 웅장한 하루의 역사가 펼쳐질 킬리만자로 산기슭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에도, 텐산산맥의 봉우리마다 쌓여있는 천년 고도의 만년설은 고요하나 ‘쌀라흐’(기도 또는 예배)를 위한 모스크에 매달린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모이라고 외치는것) 소리로 라마단의 아침을 깨우고 있는 이곳 키르키즈스탄, 뷔쉬에도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 여명이 밝아옵니다.

2023년 3월, 장기 사역의 첫발을 내딛은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설레임과 각오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 했는데 아직도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의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게 된 저들의 궁핍함과 연약한 삶은 늘 저의 걸음을 붙들었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붙들린 듯한 향방없는 저들의 걸음은 늘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걸음이 붙들린 곳에 그리고 시선이 멈추었던 곳에 피흘리며서 계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서야 응답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과 함께 버텨 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논리는 더 합리적 이어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임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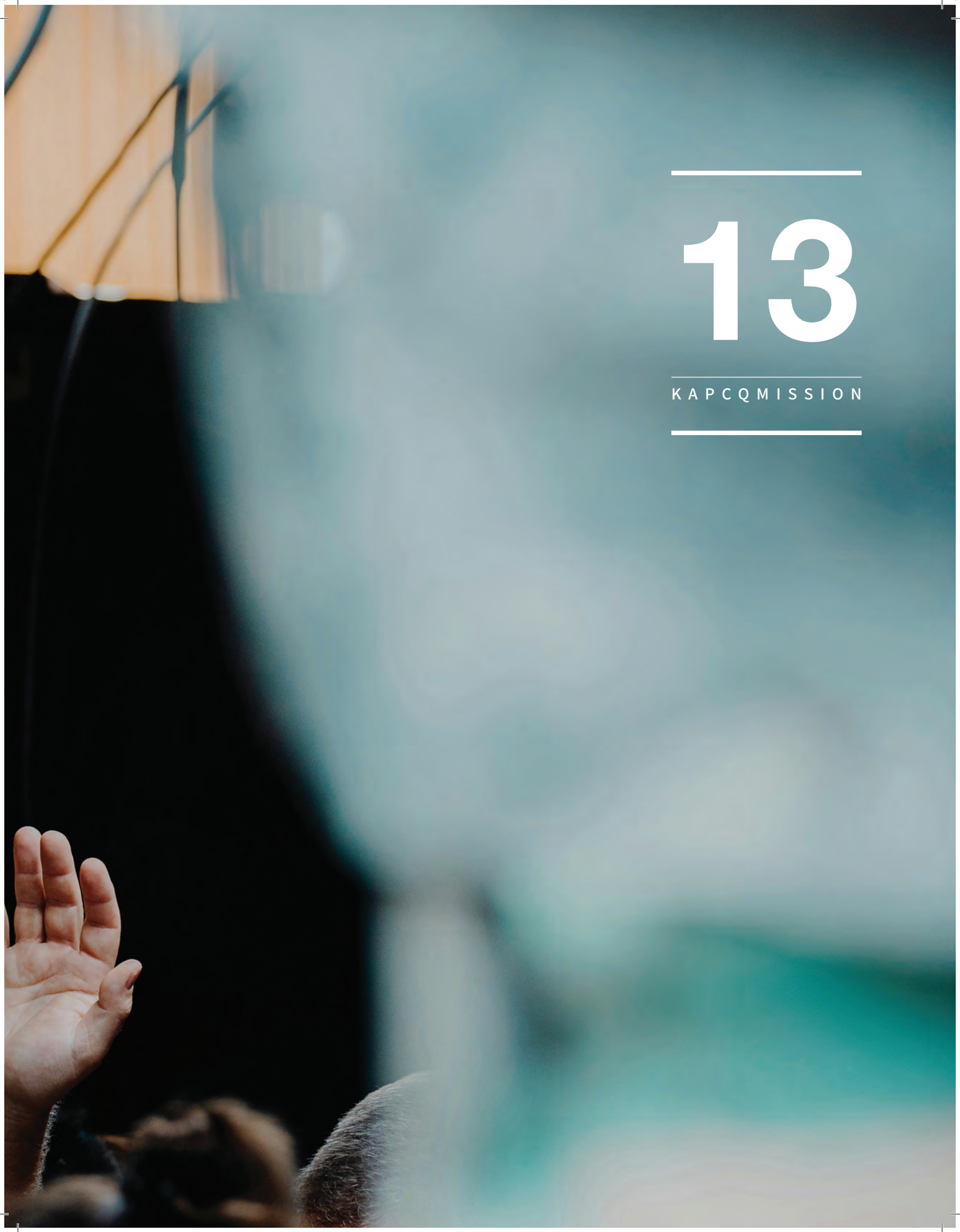
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후에서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덕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하여 땅끝까지”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이 아직 아련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늘 사모하며 부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 갑니다.

작년 1월,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벽두에 교회의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곳 아프리카까지 직접 방문 하셔서 지경을 밟고 기도와 함께 복음의 씨를 뿌리신 담임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의 발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2022년 7월 정성호 총무 장로님께서 직

접 찾아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중앙 아시아 키르키즈스탄에도 퀸즈장로교회 세계 선교의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 깨어 있는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이 다민족과 함께 다음세대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과 복음의 거룩한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퀸즈장로교회가 될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을 받으며, 진리가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관과 세계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로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자랑 스럽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끊임없는 영적 갈등과 도전이 이곳 선교 현장에도 있었지만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올려진 기도를 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교회 설립 50주년을 감사하며 그날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와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KENYA

〔이미 임한 그 나라〕



13

KAPCQMISSION

KAPCQ MISSION

2024

HONDURAS

KAPCQ

MISSION

2024 CAMBODIA

KAPCO

MISSION

2024
KAZAKHSTAN

KAPCQ

MISSION

2024 KENYA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점철된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정해성 장로

1년만에 다시 찾은 '형제 교회'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도착하자마자 감동이다. 교육관 벽면엔 2024 VBS 'Scuba'를 위한 예쁜 장식이 설치되어 있고, 교회 입구에 커다란 풍선 아치가 세워져 있다. 지난밤 늦게까지 VBS 준비를 했다는 청년들은 이른 아침 교회에 나와 선교팀을 맞았다. 풍선 4,5백개로 만든 대형 문어 장식은 그들이 얼마나 애써 준비했는가를 알게 해준다.

알마티 퀸장의 VBS는 뉴욕 퀸장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작년부터 VBS를 위한 교사 교육이 사전에 줌으로 진행되어 프로그램은 현지 청년교사들이 이끌고, 선교팀은 말씀사역을 중점적으로 맡았다. 지난해 첫 시도에서 다소 어색함이 있었지만, 올해는 강지영 전도사님의 훌륭한 지도력에 힘입어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놀라웠다. 오랫동안 호흡을 잘 맞춰온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1층 친교실에서 VBS가 진행되는 동안 2층에서는 미용과 안경사역이 진행된다. 뉴욕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만족스러워 한다. 무더운 날씨에도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우려해 선풍기조차 켤 수 없지만 황선영 권사님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올해 안경사역은 돋보기에 집중되었다. 첫 계획서에는 없었지만 출국 6주전 장봉석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 정민영 권사님이 집중 교육을 받은 후 돋보기로 한정된 안경사역을 진행했다. 결과는 대만족. 준비한 대부분의 돋보기들이 성도님들께 밝은 시야를 제공하게 되었다.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 3일간의 알마티 VBS, 월요일 새벽에 출발하여 이틀 간의 현지인 교회 VBS, 그리고 마지막날 세미나와 평가회까지 현지에서의 6일은 분주했다. 틈틈이 미용과 안경 사역, 지난해 설치한 영상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교육, 교사세미나와 새가족 세미나까지 진행됐다.

알마티 퀸장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인들은 대거 한국으로 귀국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기간 사택 집사님이 소천하여, 김관중 선교사님은 4년 넘게 홀로 목회실에서 기거하며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매주 토요일 새벽 차로 4시간 거리인 우슈토베 소망교회로 청년들과 선교사역을 떠난다. 코로나 때 목사님이 떠나고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 사정을 듣고 알마티 퀸장에서 현지 교회를 돕기로 나선 것이다. 또 현지에서 배출한 카자흐인 목사님의 지역교회도 돕는 중이다. 또 자립이 어려운 가정교회를 찾아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알마티 퀸장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알마티 퀸장의 선교적 사역의 지경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뉴욕 퀸장의 지원으로 알마티 퀸장의 지붕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처마가 내려앉고 부식이 심했던 지붕이 말끔하게 새 옷을 입었다. 또 곧이어 예배당 조명 교체와 페인팅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회 부흥을 위한 지도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선교를 위한 카자흐어 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 5년간 알마티 퀸장은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사명과 길을 열어 주셨다. 넉넉하지 않아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어려운 현지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청년들은 휴가와 주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김관중 선교사님과 동행하고 있다.

올해 단기선교는 현지 청년 교사들과 한마음 한 몸이 되어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정이었다. 모든 일정이 은혜이며 감사였다. 경찬(남샤샤), 유경(쥴디스), 아이유정(알리나), 솔미(아넬랴). 한국 이름으로 불리며 선교 일정 내내 동행한 네 명의 청년은 '기쁨'이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벌써 그립다. 네 명의 선교 대원과 네 명의 청년 리더는 주 안에서 뜨거웠고, 그들은 작은 거인이었다.

케냐 "프라미스랜드(Promiseland) 선교" - 약속의 땅으로

김도현 목사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8월 12일부터 22일에 걸쳐 진행된 케냐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 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10명의 영어예배 성도와 2명의 중국어 예배 성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사역이 하나 되어 한가족과 같이 협력하며 섬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신실하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정길표, 정경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자 우리는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퀸즈장로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동역 할 수 있었기에 더욱 축복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키마나(Kimana)시 근처 프라미스랜드 센터에서 찬양과 예배, 드라마를 통해 복음 중심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과 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VBS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인도했습니다. 학대를 당한 어린 소녀들이 복음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난민여성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후에 탄자니아 국경 근처의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 힘든 길을 운전하여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주도한 최초의 선교 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나이로비의 빈민가였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극심한 빈곤과 환경을 보는 것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빈민가 아이들의 마음 속에 담긴 밝은 미소와 기뻐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것은 부족하지만 참된 만족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케냐와 같은 나라에 계속해서 선교팀을 보내는지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케냐에 살고 있는 5,600만 명 중 거의 80%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번영복음이 교회에 스며들었고, 개혁신학교와 깊은 신학적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구원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이슬람교는 현재 케냐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신앙으로 약 520만 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냐 북부에서는 기독교로 1명이 개종하게 될 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100명에 달할 정도의 비율로 그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웃 국가인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를 거쳐 더 남쪽인 케냐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케냐에 선교사와 선교팀을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케냐가 이슬람교에 빠지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길표, 정경애 선교사님이 프라미스랜드 센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라미스랜드의 비전은 올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선교사, 목회자, 지도자 및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케냐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신학교 교육과 훈련은 너무나 부족하여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통해 우리 개혁 신앙의 부요함을 배고프고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연 처음 세대의 지휘봉을 이어받아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세대의 선교사들을 세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냐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망에 굳건히 서서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영적 전선을 잘 지켜 나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다시 돌아오실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지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퀸즈장로교회를 부르시고, 맡겨 주신 사명대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을!

KENYA

삼겹줄로 지침없는 선교

조정숙 권사

HONDURAS

모기 바이러스로 인한 뎅기열을 앓고 계심에도 공항에 이동철 선교사님이 직접오셨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온과 모기로 인해 주변 환경들은 열악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한 우리 팀원들은 짐을 내려 놓기 바쁘게 Nate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와 QT 시간을 시작으로 선교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평화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의료사역 (Elder. David Shin & Deacon. Edmond Choi) 과 VBS사역을 준비하였고, VBS사역은 Austin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찬양, skit, puppet show, & 3 crafts를 spanish로 준비하였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출발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날- Guanchia 근교의 학교에 방문하여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상인원을 넘겨 8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저희를 맞이하였고, 선교지의 조력자들2분의 통역선생님 (Gerson & Gipsie)과 3명의 학생들의 도움으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 셋째날- 두대의 트럭으로 센터에서 3시간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고산지역으로 나누어진 지대로 이동하기위해, 중간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둘째날- San Isidro, Siguatepeque방문한 고산지역에 계신 목사님은 가장 좋은 옷을 가족들과 입으시고, 일찍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화려한 모습이 아닌 정갈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첫날 방문한 학교와 다르게 지붕과 예배당만 있어서 의료사역팀은 강열한 햇볕을 피하여 처마 밑에서 사역을 하여야 하였고, VBS팀들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Craft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는 저희의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VBS 끝에는 함께 찬양하고, 자신들이 만든 Puppet, 목걸이,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며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아쉬움을 남겨두고 내려오는 길에 지나가는 저희를 향하여 Craft들을 보여주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며 모든 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셋째날- Junco, Siguatepeque방문한 교회는 base에서 1시간이 넘게 고산지역으로 올라 가야 했습니다. 인솔하시는 선생님도 길을 모르셔서 목사님께서 꼭두 새벽 그 먼 길을 좋아보이지 않는 오토바이를 타시고 저희를 안내하시기 위해 손수 내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할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였습니다.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아 두 교회가 저희가 온다고 같이 모였다 하였습니다. 둘째날은 화장실이라도 있었는데, 이곳은 화장실도 없어서 이지수 집사님, Irene Moon과 저는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다행이 중 고등부 남학생(Caleb & Joshua)들은 자연을 벗삼아 멋진곳에서 화장실을 갔다고 해서 웃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당 지붕을 겨우 올려서 바닥은 아직도 흙 바닥이였습니다. 처마 주변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의료 사역팀들이 예배당 안 뒤쪽에서 어렵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전 날과 또 다른 극빈한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것이 얼마나 복 된일인가를 전하려고 팀원 한분 한분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장비를 관할하며, skit에도 참여하면서, 아들의 모습을 안 놓칠려고 사진에 닮고, 매우 빠르고 분주하셨던 Johattan & Joy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넷째날- Buenos Aires, El Progresso선교센터에서 한시간 거리 고산지역 학교에 사역하였는데, 학급이 두개 교실로 이루어진 곳이였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무렵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그 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Austin 전도사님 인도로, 부모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귀중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의 교실에서 40명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Craft를 진행하며, 모든 팀원들이 옷을 입고 땀으로 샤워하는 경험을 하며, VBS 마지막날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다섯째날- 선교센터 입구의 부설학교 로고를 페인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미와 모기 전쟁을 치르며, 특별히 art에 재능있는 Irene과 지수 집사님, Elder David님께서 수고 하여 많은 부분을 끝낼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끝내고, 다행히 이동철 선교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쉼의 시간을 가지며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환경과 목사님들의 어려움들, 사역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땀으로 샤워를 하고 뛰어 다녔는데도 결코 지치지 않았던것은 건강식으로 매끼를 최선으로 준비해 주신 이순미 사모님의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손길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평화 목사님의 매일의 말씀과 기도, 특별한 QT 시간은 우리 팀원들을 지켜내는 삼겹줄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곳에서 모든 팀원들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사역을 마칠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귀한 교회 KAPCQ를 섬기는 일원으로 소중한 시간을 경험할수 있는 단기선교의 일정을 계획해 주시고, 언제나 끝없는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김성국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혼두라스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단기선교와 새로운 비전

최치훈 집사

CAMBODIA

이번 단기선교는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선교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부터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수직적인 선교이고, 둘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 선교가 만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교가 킹덤미션으로 시작해 단기선교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특히 학교 완공예배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원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9명의 대원들이 함께 가면서 더욱 조심스럽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베테랑이신 남형욱 장로님과 송수진 집사님의 지혜를 통해 모든 계획과 60일의 훈련, 중보기도, 금식기도 등을 잘 마치고 대망의 선교 첫 여정을 떠났습니다.

역시 선교는 선교였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스탠바이 티켓이었기 때문에 팀과 함께 가는 비행기가 만석이 되어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했던 다른 플랜으로 선교지를 하루 먼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 40시간 만에 첫 번째 집결지인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 파리에서 대만, 대만에서 캄보디아로 이동하며 기내식만 5번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출발하다 보니 팀 리더로서 팀을 챙기지 못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돌아 돌아 간 캄보디아 땅에서, 학교로 가는 길을 가다 보니 울컥했습니다. 포장도로를 달리다가 학교 들어가는 골목부터는 비포장도로와 항상 젖어 있는 땅, 푹 패인 물웅덩이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교회와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완공예배라는 큰 행사가 있었지만 선교팀은 의료, 교육, 예배, 봉사, 의료 접수, 전도 폭발, 문화 이렇게 7개의 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사역을 하니 모든 것이 너무 쾌적했습니다. 구 건물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환경이 열악하여서 이전에 왔던 선교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의, 치과, 검안을 통한 의료사역과 3개 팀으로 나누어 복음을 전한 전도 팀,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접수받고 인도한 접수팀, 400명 이상의 음식을 준비한 봉사팀, 6개의 학교 과목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교육팀, 예배 준비부터 기도, 설교까지 세세하게 준비한 예배팀, 고전 무용으로 한국을 보여준 문화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한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사실 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첫 오리엔테이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해 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 Corinthians 7:3 "I do not say this to condemn you, for I said before that you are in our hearts, to die together and to live together"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며 팀이 더욱 한마음 한뜻, 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른들부터 가장 어린 주아까지 주일마다 모여 훈련을 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같은 곳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끈끈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20일 토요일에 있었던 학교 완공예배는 국제학교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전통예배 형식대로 진행되었고, 2부 순서로 축하 무대와 마지막으로 만찬을 운동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힘드셨겠지만, 우리 여자 대원들이 400명 이상의 음식을 몇 시간 만에 해낸 것이 너무 놀랍고, 바자회를 일년에 두 번씩 하는 퀸즈장로교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일예배를 두 번의 VBS로 드리며, 1부는 이명옥 전도사님이, 2부는 차동미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액티비티를 통해 충분한 선물들과 간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특별히 오전 11시 청년예배를 저녁 6시 청소년예배와 같이 드렸는데,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지에 계신 이일훈 목사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참석률을 보고 우리 팀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의 사역 목표가 유초등부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청소년, 청년들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청소년들이 한곳에 이렇게 많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타겟을 청소년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를 선교사역으로 진행할 계획을 이일훈 목사님과 남형욱 장로님과 상의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들 사역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청소년 사역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나 자신이 선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단기선교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

이민진 집사

제가 이십대 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학생이었고 그분은 청년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제 곁에서 엄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고 신앙적으로도 저를 많이 지도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학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다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분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고 복된 일인지를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사님께 받았던 사랑과 도움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앞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19년에 캄보디아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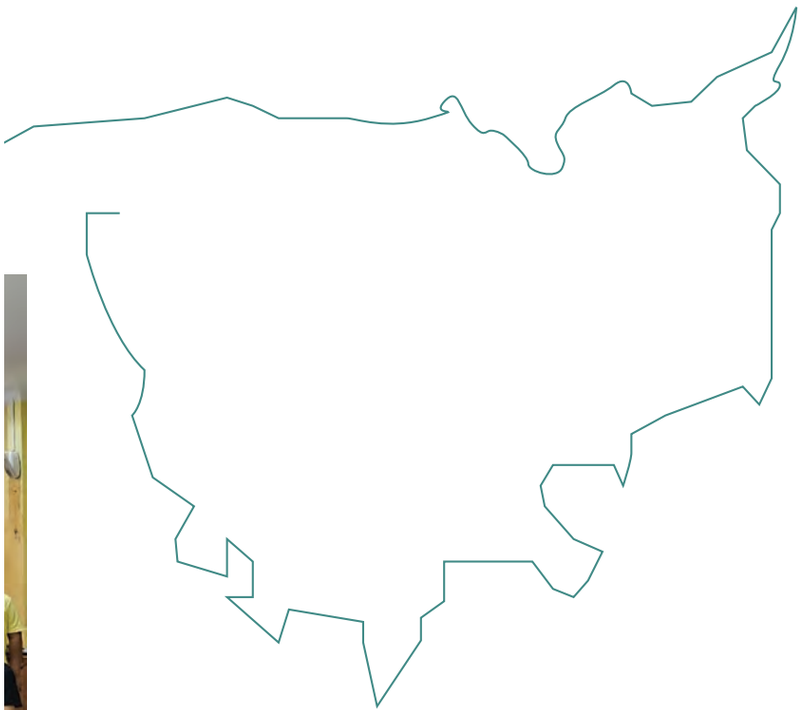
캄보디아 선교에서 제가 맡은 일은 청년부와 함께 VBS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 나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적인 수준의 봉사와 자기만족, 종교적 행사로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매일 말씀과 큐티, 기도를 병행하고 팀원들과 함께 서로를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준비 과정과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도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지도 못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정 과정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 거라는 믿음 없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일정 가운데 오지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과 VBS를 하루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눈에 공허함과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 학교로 이동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과 같이 율동을 하며 찬양하자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육체의 지치고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새 힘이 솟아남을 경험하였습니다. VBS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한 어린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마음에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제가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 같이 예수님도 또한 저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연약하고 흠이 많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만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저 자신을 내려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CAMBODIA

캄보디아 킹덤 미션을 기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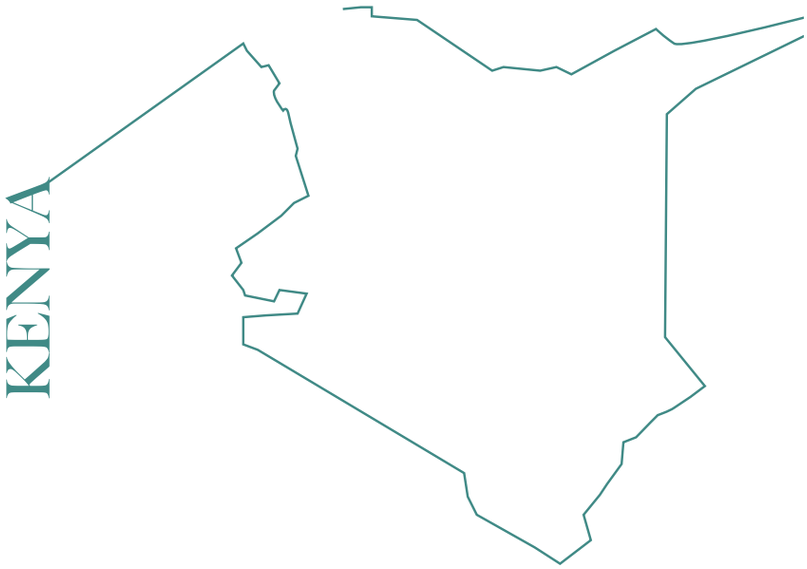
KINGDOM MISSION

장누리 집사

작년 여름 2박 3일의 짧았지만, 어떤 화려한 휴가보다도 풍성한 여운과 느낌이 지금까지도 설레는 킹덤 미션! 랜선으로의 만남이었지만, 성령의 뜨거움과 서로의 눈빛 교감은 언어라는 장벽도, 시차도, 서로의 나이도, 인종도 모두 뛰어넘었고, 우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해외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크리스천도 아닌 사람들에게, 왜 종교를 강요하지,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의 반발심이 생겨 불편했다. 그러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구원의 감사함에 가족,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고, 전도 폭발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시작하게 되었다. 작년 여름, 교회에서의 해외선교와 킹덤 미션계획을 들으며, “같이 킹덤 미션 해보자, 재미있다.” 하는 집사님의 추천에 망설임, 설렘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2박 3일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교회 가족들과 밤을 새워가며 “어린이 전도 폭발”이라는 주제에 따라, 통역과 바디랭귀지, 소품들을 활용하며 재밌게 복음 제시를 하고, 몸치에 음치이지만 같이 하는 “찬양, 바디워십, 연극”도 하였다.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캄보디아에 비도 많이 왔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책상도 없는 강당에 꼬박꼬박, 피곤함도 불편한 기색도 없이 씩씩하게 또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참여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복음 제시 부분에, 각자의 죄를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순수한 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는 나의 생각과 달리, 아이들은 하나씩 자신의 죄를 적고, 용기 있게 소리치며 고백했다. 친구와 싸웠고, 거짓말 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고…. 등등.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또 기뻐하는 아이들, 찬양도 바디워십도 적극적으로 따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복음이구나 깨닫는 시간이었다. 왜 크리스천들이 전도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는지, 단 한 번의 참여로, 선교는 이기심이 아니라, 큰 이타심이라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같이 참여하자고 했던 분과 그 자리를 만들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어디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백미혜 청년

얼마 전 친한 언니로부터 케냐 선교 간증문을 적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권사님들과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간증문을 한국어로 담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어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와 제 동생을 위해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며 우릴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통해 우리 가족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 생활을 지금도 시도해봅니다. 저와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선교지를 향해 일 년에 한 번씩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를 갈 첫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를 통해, 여름 2010년도에 첫 선교를 상하이로 정하고 가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상하이에 갔을 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저는 첫 선교를 통해 선교의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갔었고, 2023년에는 퀸즈장로교회의 교인이 되며, 케냐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게 됐고, 새로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케냐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을 통해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같이 선교에 갔던 12명의 형제, 자매, 목사님, 권사님 그리고 케냐 원주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케냐의 아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의 하루는 매일 아침 오전 6:30에 일어나는 빡빡한 스케줄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선교 대원과 함께하는 QT 시간은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교에 새롭게 만난 형제, 자매들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그들을 더욱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진솔한 공유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에 나눔의 공동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활동을 한 후 다시 팀 모임으로 끝내다 보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상하이, 캄보디아, 케냐, 어디를 가던,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고전 3:6-7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디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KINGDOM MISSION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최경민 집사

저와 저희 가족을 통해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년 전, 킹덤 미션은 저희 가족의 첫 선교였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킹덤 미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일을 그만두려 마음먹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많은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했기에 심적인 갈등이 크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안을 좇아 살아가려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오랜 고민 끝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며 결단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을 그만둠과 동시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일을 맡기시며 저를 단련해 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순절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마다 부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킹덤 미션을 시작했던 해에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순절, 부모에게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무릎꿇는 우리 아이들. 이 자녀들이 다음세대의 비전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겪게 될 많은 세상의 문제 앞에 적은 숫자로 모여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게 다음세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새벽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다음세대를 놓고 눈물과 감사로 기도드리게 하셨고, 2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본당 앞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 무릎꿇고 기도하며 사순절을 지켜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일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두 번째 훈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경찬이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었던 곳. 찬양팀의 한 일원으로, 찬양 사역으로 파송됐던 시간. 세계 곳곳에서 모이신 선교사님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찬양도 선교의 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장거리 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왕복 12시간 멀미로 고생하며 웃고 울며 다녀왔던 선교대회. 그곳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배우며 많은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의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가슴에 불씨가 지펴졌던 아주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가족은 선교를 위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며 한발 한발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선교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처음 선교지를 정할 때, 여러 선교지가 있었지만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몰라 저희 부부가 소속된 갓즈윌 선교회의 후원 선교지인 캄보디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선교가 우리 가족의 비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와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비전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부모의 결정을 자녀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라와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펜데믹 이후 선교지 방문이 제한되었고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우리 교회는 줌을 통하여 미디어 선교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선교를 계획했던 저희 가정에게는 간접적으로 선교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특히 캄보디아는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있는 선교지이어서 아이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통해 줌으로지만 우리는 선교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또래의 친구들을 줌으로 만나며 캄보디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하고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음을 바라보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선교지를 캄보디아로 정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줌으로 진행된 캄보디아 선교를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주어졌던 킹덤 미션의 훈련시간. 어린 자녀들에게도, 직장과 교회의 일로 바빴던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었던 미디어 선교 킹덤 미션. 킹덤 미션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훈련시키시며 선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킹덤 미션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첫해에 아이들과 함께 킹덤 미션을 마치고 주변에 아직 도전하지 못한 많은 가정들에도 그 기쁨과 감격을 공유하며, 그 다음 해에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용기를 내 도전해서 더 많은 아이가 킹덤 미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간절히 바랐던 그 곳, 선교지의 땅으로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그곳에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려 합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일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훈련의 시간. 많은 시간 지쳐서 쓰러지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너를 위해 살 거라며 왜 벌써 넘어지려 하니" 말씀하시며 일으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분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우리 가정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킹덤미션 온라인 선교

킹덤미션 QT

킹덤미션 캄보디아팀의 대원으로 섬겼던 Stella Hong 학생은 60일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직접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QT를 하였습니다. Stella 학생의 눈과 마음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다섯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봅니다.

Stella Hong

Luke 1:46-47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Mary praised the Lord when she received His grace. I have received the same grace of the Lord and that is why I want to praise Him. Through Kingdom Mission, I pray that I will be able to exalt the Lord with praise.

Psalm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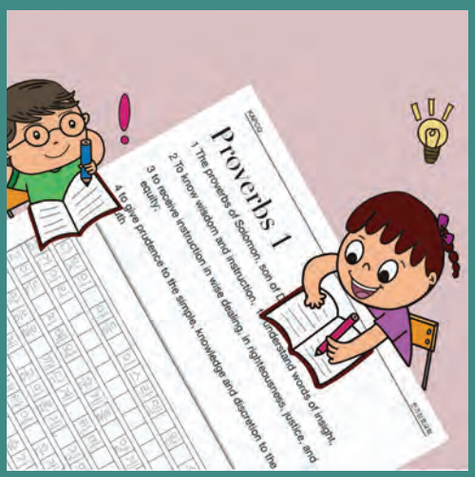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shaken.

Jesus is always with me, so nothing can defeat me. This is true and perfect happiness. I won't look for happiness offered by the gods of this land but will seek the lasting joy that comes from Jesus.
Lord, please stay close to me so I can't be beaten, and help me find the true happiness You give, not the short happiness from other things.

Psalm 18:1-2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This passage expresses deep trust in the Lord's protective and sustaining power. It tells us that God is our strong protector and safe place when we have trouble, giving us strength and help when we really trust Him.
Lord, You are my strong protector and safe place; please give me the strength to trust in You as my shield and deliverer, especially when I have problems.



2 Thessalonians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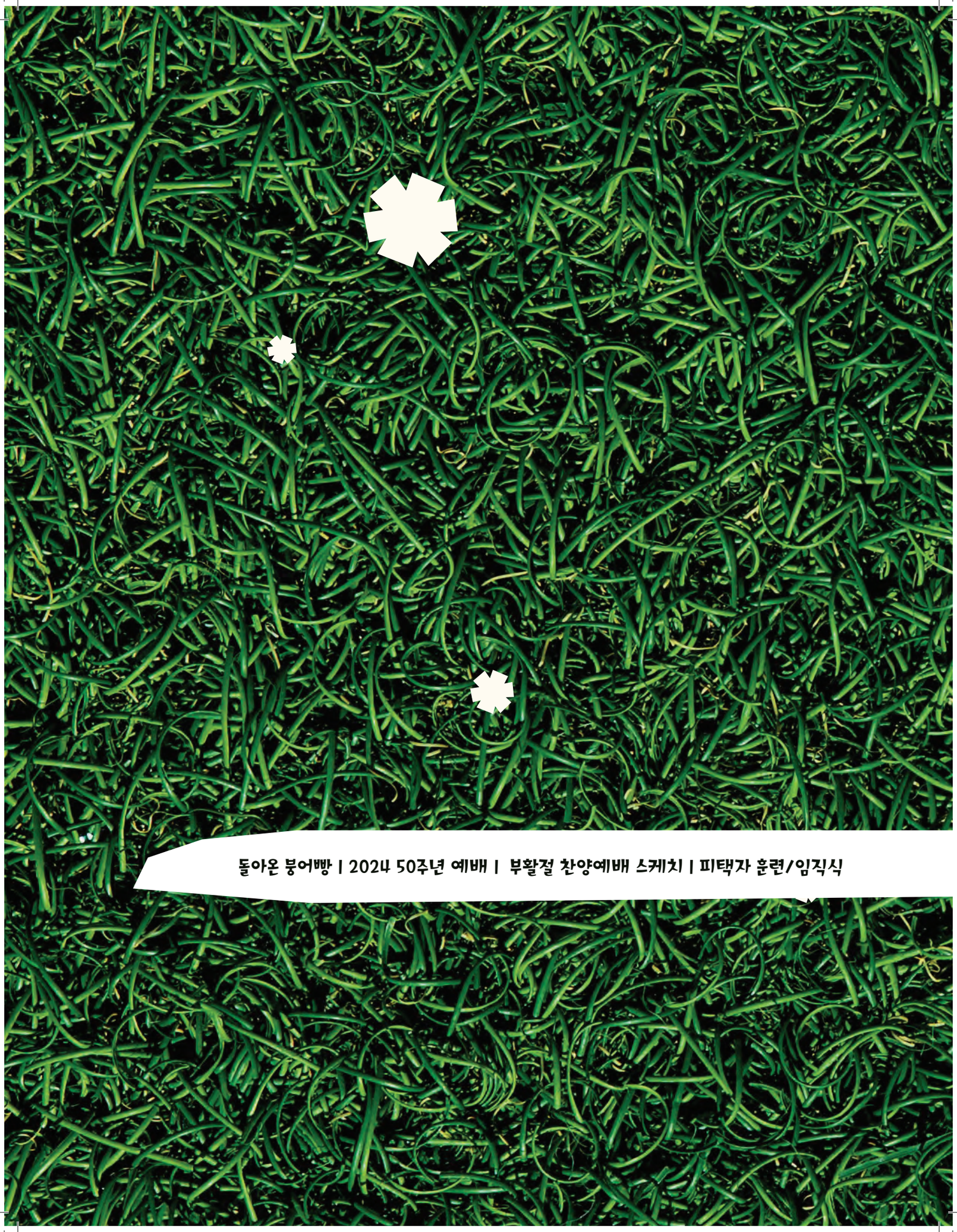
So then, brothers, stand firm and hold to the traditions that you were taught by us, either by our spoken word or by our letter.

Paul tells us to follow Jesus's teachings and keep our traditions important. By practicing these teachings every day, we can live a life that follows God's words and shows others God's will.
Lord, help us to really follow Your teachings and keep our traditions important, so we may live according to Your Word and be faithful witnesses of Your will.

Romans 15:16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He gave me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God asks us to share God's message with many people, helping change their spirits with the Holy Spirit's power.
God, help me to be a good messenger of the Gospel so that through my words and actions, others can be changed by the Holy Spirit and make You happy.



돌아온 붕어빵 | 2024 50주년 예배 | 부활절 찬양예배 스케치 | 피택자 훈련/임직식

14

교 회 행 사

기독교 세계관 훈련 | T4피크닉 | 선교바자회 | ALISE | 전교인 여름수련회 | 2024 VBS SCUBA

돌아온 착한붕어

돌아온 착한 붕어는 캄보디아 벧엘국제학교를 후원합니다

블랙보드를 다시 화이트보드로

김현정 집사

가장 소중했던 순간, 즐거웠던 기억은 언제인가? 가장 순수했고 걱정없이 뛰어놀던 어린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머리를 부여잡고 공부하면서도 소소하게 옆자리 친구와 장난을 치던 수업시간, 때때로 무섭고 때때로 다정하던 선생님들. 우리는 학교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쌓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추억을 만들었고 그것은 지금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어린시절이 불우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좋기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든 현재의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차가운 바람에 하얀 입김을 실어 보내는 겨울이 왔다. '겨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 간식은 어떤 게 있을까? 따끈한 찜기에서 쪄낸 호빵, 달달한 냄새를 풍기는 군고구마 또는 군밤, 지글지글 기름에 눌러 만든 달콤한 호떡.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겨울에 생각나는 대표 간식은 역시 붕어빵이다. 머리부터 먹는 사람, 꼬리부터 먹는 사람, 지느러미부터 먹는 사람, 혹은 가운데를 갈라 팥 앙금이 가득 든 가운데 부분부터 먹는 사람 등 먹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시린 손에 쥐고 호호 불며 먹던 붕어빵에 '돌아온 착한붕어'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선교헌금을 위한 우리들의 붕어빵데이를 알리는 공지가 단톡 방에 떴다.

토요일이 왔다. 오후 12시까지 교회에 모이기로 한 시간이 다가온다. 가벼운 마음으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본다. 반죽을 하던 사람, 기계를 예열하고 있는 사람, 그 외의 자잘한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모두 반기며 인사했다. 붕어빵 만들기는 처음이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작게 나마 동참해 보길 잘했다는 생각 뿐이었다. 처음엔 찌그러진 붕어가 나와서 일단 맛보기부터 시작! 모양은 좀 애매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다. 따끈하게 갓 나온 붕어빵인데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점점 예열이 되고 나면 더 예쁜 붕어가 나올 거라고 위안을 삼고 계속 만들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수다들 속에 붕어빵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그리고 계속 반복될 수록 더 예쁘게 찍혀 나오는 통통한 붕어의 모양새에 즐거웠다. 아직 말도 잘 나눠보지 못했던 청년들도, 잘 참여하지 않던 청년들도 많이들 참여해 주는 덕분에 함께 여서 즐겁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붕어빵데이였다. 단지 붕어빵 만들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서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모였든지 간에 우리는 그루터기 청년 선교회라는 이름아래 모였고 같은 공동체안에서 같은 목표를 놓고 나아갔기에 끝까지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붕어빵이었을까. 착한붕어라고 이름 붙여놓고 예쁘게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선교헌금으로 쓴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인 머리 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을 떠올리지 못했다. 아마도 붕어빵을 만들던 누군가가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일이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친구들에게 현지 사정을 대략적으로 나마 들었다. 화이트보드가 까맣게 변했는데도 다시 살 수 없어 그대로 쓰고 있다고도 했고 연필깎이가 없어서 휴대용으로 나온 작은 걸 손에 쥐고 연필을 돌려 깎느라 손이 아팠다고도 했다.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증축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교 헌금이었다. 우리의 하루가 그들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숙연한 분위기에 무게 잡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더라는 담담한 말이 그저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어린시절과 너무 비교가 되었다. 공부하기 싫어 학교를 가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언정 학교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해 볼 수도 없었다. 작은 헌신이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갈까를 생각해보니 괜스레 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걸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분명 붕어빵 뿐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 이렇게 모이고 함께 나누고, 작게도 또 크게도 어떤 것이든 해 나아갈 것이다.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어린시절을 생각하며 다음세대로 나아갈 그들에게 좋은 추억과 따뜻한 시간을 남겨줄 수 있는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주제로 설립 50주년 기념예배를 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리며 1974년부터 2024년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설립 50주년 기념예배에서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신 증거로 가득차 있다. 함께 걸어 온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지난 5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The Way! 우리가 또 다시 가야할 길이며 그 길이 곧 예수의 길이다. The Way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며 다시 50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도들은 “2013년에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선교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다민족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했다” 며 김성국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사모의 수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더했다.

그리고 김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 세워나갔던 교회, 예배당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라고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는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다. 지난 50년 전의 첫 출발도 있었고 이제 50년을 마무리하는 끝이 있다. 이제 새로운 출발도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고 했다.

김성국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 모든 과정과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다 떠나고 다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니 끝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선교, 뉴욕의 다민족 선교, 다음세대 사역 등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 부탁했다.

퀸즈장로교회는 장영춘 목사가 50년 전에 개척했다. 설립 50주년 기념예배에서 고 장영춘 목사의 부인이자 교회개척 멤버인 장미은 사모가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에는 “장미은 사모님은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교회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고 장영춘 목사님의 목회를 아름답게 내조하셨고,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교회부흥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에 온 교회는 감사함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라는 감사가 적혀있으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도 담겨진 패를 증정했다.

은퇴식이 진행됐다. 시무장로 김수산 장로, 전도사 이명옥 전도사, 시무안수집사 3인(남궁영일, 정철호, 이왕수), 시무권사 6인(강옥순, 정혜경, 전광인, 최정우, 이성은, 이일향) 등이 은퇴했다. 또 명예권사 8인(이혜숙, 송승옥, 정영순, 이현숙, 오송옥, 유경선, 김재분, 조옥금)이 추대됐다. 성경문답서 시상식과 전도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광의 전도상은 10가정 21명을 교회로 인도한 전소영 집사가 받았다.

시무장로에서 은퇴한 김수산 장로는 답사를 통해 “직분자는 은퇴하지만 믿음생활에는 은퇴가 없기에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덕이 되며 유익이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은퇴하는 우리들은 모두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전수되도록 성경의 강권적인 역사가 교회학교와 교회에 임하여 놀라운 영적부흥을 이루고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속히 복음화 되고 우리들의 값진 유산인 새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꿈이다”라고 했다.

50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49년 동안 교회를 섬긴 허경화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들에게는 은퇴라는 말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 남보다 기도에 앞장서시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며, 무엇보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설립 50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50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힘 있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축사가 이어졌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회중 담당 첸위지 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퀸즈장로교회는 여러 분들의 신실한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셨다.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적표가 우수하여 A이며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50년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퀸즈장로교회와 동역하는 세계각국 선교지 선교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설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마치며 다민족 사역을 하는 퀸즈장로교회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 담당목사들이 앞으로 나와 찬양을 했으며, 영어회중 담당 김도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멘넷]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룩한 행진” 부활절 찬양축제

조성순 집사

부할절 찬양축제가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에 부활을 맞이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최미희 권사의 기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으로 김성국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다. 과거 월남을 준비하던 고 장영춘 목사님께 부친께서 성경을 챙겨 주셨다는 일화를 소개 하셨다. 우리 삶에서 제일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성경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말씀은 성경에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음을 알리시는 기도로 예배는 마무리 되었다. 사순절 기간동안 열심을 다한 성도들과 봉사자들에게 시상이 있었고, 성경 필사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왕의 소유된 킹스콰이어, 축복이 흐르는 블레싱콰이어, 은혜가 넘치는 그레이스콰이어,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콰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글로리아싱어스, 그리고 연합 찬양으로 이어질 부활절 찬양 축제가 2부로 준비되었음을 알리었다.

겸손하시고 의로우시며 베푸시고 감동 주시는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고 잡히셨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버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두움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스며들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다.

킹스콰이어: 시편 1편을 노래 하였다. 그들의 정제된 소리는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을 옮겨내는 듯 하였다.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듯한 그 감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주를 따르는 자녀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들려주었다. 시편 20편 힘 있는 남성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응답하실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고백. 야곱의 하나님,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를 들고 나가는 장년들의 찬양은 짙은 여운을 남기며 이어질 순서를 기대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외쳐진 호산나 오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외침 호산나!

블레싱콰이어: 호산나 호산나 온 맘과 마음을 다하여 주 찬양하고 영원히 기쁜 노래로 감람산 길을 따라 큰 무리와 함께 주 예수님을 따르는 딸들로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하여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 맘에 주신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섬김에 본이 되는 딸들이 찬양하였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던 순간이 지나고 어둠이 내려 앉았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거룩한 행진을 이어 나가셨다.

그레이스콰이어: 고난의 시작, 그때 그 무리들은 귀중한 그 보배 피를 흘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셨다. 마지막 피 한방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의 어머니들이 찬양으로 올려 드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주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상함을 받으셨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나의 죄 때문에 오르시고 두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 가셨다.

새벽이 밝아오니 무덤은 비어있었다. 영원한 봄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다. 우리의 심장은 기쁨으로 뛰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찬양한다.

헤리티지콰이어: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이어 가는 청년들이 우리죄를 위해 죽으신 주를 찬양한다. 우릴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밝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악기 없이 만들어 내는 청년들의 아카펠라는 경쾌하고 발랄한 청년들의 장점을 마음껏 자랑하였고, 속도와 리듬으로 젊음을 찬양으로 발산 하였다.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예수 부활했으니를 외침으로 할렐루야로 성도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내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고통 받는 자에게 위안을 절망 받는 자에게 소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주심으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라 하신다.

글로리아싱어스: 부활의 빛을 전할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부활의 증인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찬양한다. 성경대로 다시 사신 주, 길과 진리되시는 주, 부활 생명의 주님을 사명자의 한 사람되어 찬양하였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외친다. 나팔소리 들리고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 잔치 참여하리라, 그리고 이 세상 지난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였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때에 우리의 입술엔 찬양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라 이 영광의 날, 승리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연합찬양: 승리의 날 사망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하신 우리 주를, 약속대로 다시 사신 주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기쁨으로 예수 사셨다를 온 성도들이 함께 외쳤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찬양함으로 2024년 희년에 맞이한 부활절 축하 찬양 예배를 마무리 하였다.

부활절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HERITAGE CHOIR

윤수영 집사

2017년 4월, 어머니 주일 행사를 위하여 28명의 찬양 좋아하고 잘하는 청년들이 저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하려고 이름도 없었지만, 미래를 꿈꾸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으시고 "교회의 유산"이라는 뜻의 "Heritage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헤리티지 콰이어는 그 후로 담임목사님과 함께 웨스트체스터 부흥회에서 찬양하였고, 중국 교포부 설립 10주년 예배와 부활절 예배, 교회 설립 44주년, 45주년 예배에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2019년 이후 온 세상과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2019년 1월에는 청년이 담당하는 4부 찬양대가 해체되며 합창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헤리티지 콰이어가 5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5년 전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18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부활주일 찬양을 준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주일에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헤리티지콰이어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헤리티지 콰이어는 원더풀 박정봉 단장님, 판타스틱한 송소영 반주자님, 그리고 헌신적인 단원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을 갖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과 준비,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모든 교인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세대인 헤리티지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비가오나 눈이오나 37년동안 지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 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 헤리티지 콰이어가 앞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성호 장로

작년 더운 여름부터 시작된 피택교육은 2024년 3월까지의 직분별 수련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 직분별 수련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피택장로수련회에도 똑같이 임하셔서 막연한 직분의 사명을 자세하고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의 직분 중 집사 때에는 없던 치리의 역할, 목사님과 당회를 돕는 역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충성되이 살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31일 주일저녁 첫 날은 5인의 피택장로 부인들과 함께 말씀과 교제를 통한 장로 혼자로서의 섬김이 아닌 부부가 한마음 하나로 섬길 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제 가운데 한 가정씩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사업과 직장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새롭게 듣고 알아가며 교회 안에서 바쁘게 봉사하는 모습 뒤편의 몰랐던 모습들까지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역자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둘째날은 맨하튼으로 가벼운 발걸음의 추억을 쌓기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첼시마켓의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다민족 도시 뉴욕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피부로 느끼며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선교를 위해 뛰어가고 있다는 감사함과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백성을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과 헌신을 더욱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에 김성국 담임목사님은 수련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장로의 직분을 충직하고 영광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다짐을 말씀하셨고 야외에서 통성기도로 우리에게 첫 출발의 길에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피택교육부터 직분별 수련회까지 바쁜 일정 뒤로 하시고 기도와 가르침으로 보살피며 양육해 주신 담임목사님의 사랑과 수고에 임직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자를 크게 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름다운 직분, 함께한 시간

강석춘 권사

2024. 3.21에 기대하던 벅찬 권사 피택자 훈련이 시작됐다. 사순절 막바지에 기쁨을 기대하며 함께한 권사 피택자훈련은 벅차고 감사한 순간, 순간이었다.

1부는 정소연 집사님의 진두지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갖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비빔밥! 눈을 황홀케 하고 감사 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쁜 시간이었다.

임직을 향한 마지막 준비과정

이현승 집사

2024년 3월 17일 주일. 드디어 피택 안수집사들의 수련회 시간이 왔다. 피택 투표 후 9개월이 지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친 후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았지만 임직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했다.

모든 공 예배가 끝나고 교회가 조용해질 때쯤, 피택 안수집사들은 조이 친교실에 모였다. 목사님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였다. 메뉴는 회덮밥이었고, 모두 허기진 터라 맛있게 식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두 사람이 말문을 열며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졌다.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 북카페로 갔다. 수련회 교육과 교제를 위한 간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북카페를 섬기는 한 피택 안수집사님의 도움으로 커피도 마실 수 있었다. 목사님의 기도로 수련회 교육이 시작되었다. 목사님은 모범 집사의 자격과 참 교회에 대해 교육하셨다.

우리 그룹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 모범이 되는 집사에 대해 토론했다. 스데반은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으며, 빌립은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범이 되는 집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리더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깨달았다. 목사님은 환란을 통해 교회가 흩어지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말씀을 통해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사님은 다민족 선교의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고백하셨다.

말씀과 교육, 토론이 끝난 후 우리는 게임을 시작했다. 목사님과 여러 피택 안수집사들은 찬송을 부르며 테이블을 돌다 인도자의 신호에 맞춰 컵을 잡는 게임을 통해 눈치와 민첩함을 테스트했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다. 휴지종이를 같은 편끼리 잡는 게임에서는 협동심으로 한마음이 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퀸즈장로교회의 역사와 목사님의 목회 행적에 관한 퀴즈 맞추기는 안수집사님들의 열정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재미있는 게임이 끝난 후, 우리는 합심 기도와 단체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했다. 집사님들의 늠름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흐뭇하셨으리라! 수련회는 김성국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쏘시며 마무리되었다. 저녁, 교육, 토론, 공감, 게임과 팀워크,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디테일한 수련회였다. 무엇보다 다른 안수집사님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2부는 담임목사님의 권사 피택자 훈련으로, 성경의 핵심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믿음을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은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끝으로 권사의 직분은 권면하고 섬기며 돕는 은사와 영성을 가진 여자에게 주는 직분이라고 하셨다.

3부는 이송은 집사님이 진행하는 모든 게임을 통하여 각자의 모든 달란트를 나타내고 함께하는 기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 권사 피택자들이 모두 나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로 기도하는 뜨거운 순간,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은 잊지 못할 시간, 잊지 못할 말씀으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직분자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축 설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
원즈장로교회 담임 김영우 목사

희년의 기쁨을 열방에 전하는 섬김이로

2024 임직식 스케치
조성순 집사

2024년은 퀸즈장로교회엔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교회 설립 50주년 바로 희년인 것이다. 전인류를 힘들게 하였던 펜데믹이 끝나고 50주년에 맞게 50인의 임직자를 세우는 날이다. 쥬빌리앙상블의 서곡 연주를 시작으로 임직감사예배가 시작되었다.

순서에 따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선언과 이어진 찬송과 기도, 성경봉독과 퀸즈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성경봉독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김남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라면 이후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라는 설명으로 말씀을 이어갔다. 출애굽 홍해 사건을 상기 시키지만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잊고 앞으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다. 지나온 퀸즈 장로교회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신다. 개혁 신학의 정신을 지키고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 책임과 봉사에 있어서는 내 교회, 협동과 일치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어 가며 본이 되고 앞서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기를 권면함으로 말씀을 대신 하였다.

글로리아싱어즈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나 된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 임직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해 보았다. 그들은 이 찬양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각기 살아온 환경과 걸어온 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테지만 이순간 한가지 공통점은 희년을 지나는 교회의 임직자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 주셨기에 선하고 충성된 자녀의 역할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의 길을 가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기를 기원해 보았다.

장로 임직식: 5명의 임직자들이 순서에 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5가지를 서약하였다. 교인들의 서약이 뒤를 따랐고 안수 위원과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장로안수가 진행되었다. 악수례, 공포, 예복 착의, 임직패 수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섬김에 성령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장로들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되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장로가 되기를 권하였다.

안수집사: 17명의 집사들이 온 교우들 앞에서 서약과 안수, 악수례, 공포, 임직패 수여의 순서를 가졌다. 초대 교회의 일곱 집사가 세워져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믿음,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안수 집사들이 되기를 권면하였다.

권사: 28명의 임직자들이 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로 거듭나고 믿음의 용사로 본이 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으로 믿으며,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들을 심방하고 병자와 곤란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보며, 교회의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 하였다. 공포에 이어 임직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권사 주님의 기쁨이되며 주님께 영광이되는 딸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형상이 가득한 딸들, 능력의 지도자의 길을 가며 마리아와 같은 섬김과 드보라와 같은 리더쉽을 지닌 딸들로 임해주길 기도하였고 임직패 수여로 권사 임직식은 마무리 되었다.

권면 임직자들에게: 딤후 2:3 이규본 목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역할자로서의 임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권하였다.

권면 성도들에게: 이용걸 목사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초대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찬 받은 것처럼 임직자들을 칭찬하고,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위로하라 하셨다.

축사: 조문휘 목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으로 한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니 눈물과 희생으로 세운 교회에 충성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함을 잊지 말라는 권면으로 축사하였다.

이어서 찬양대의 축복 찬양이 오늘의 임직자들과 온 성도들을 축복하였고 임직자들의 헌신 찬송이 이어졌다. 임직자들이 교회에 전하는 기념품증정에 이어 교회에서 임직자들에게 준비한 기념품도 전해졌다.

답사: 임직자들을 대표하여 최성호 장로는 임직받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교회와 당회에 당부함으로 답사를 대신하였다.

광고와 찬송 그리고 문성록 목사의 축도로 임직식은 마무리 되었고 온 교우들과 참석자들이 만찬을 나눔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였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고 승리하는 참된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임직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였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함으로 기도하였다.

다섯명의 장로들은 모든 일에 본이 되며 하나님 일에 후회없는 헌신을 다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한다. 열일곱의 안수 집사들은 솔선수범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스물여덟명의 권사들은 섬김의 자리에선 마르다로, 말씀의 자리에선 마리아로, 기도의 자리에선 한나처럼 본이 되는 딸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2024년 설립 50주년 희년의 임직식을 마무리 하였다.

AFRICA

기독교 세계관 훈련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라

홍한나 권사

반세기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스럽게 달려온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2주 과정으로 개설된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며, 훈련에 참가한 60여명의 훈련생들은 신앙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깊이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움으로 신앙의 성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 훈련 속으로 들어가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세계관이 내 생각, 행동,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던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둘째,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셋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세우는 기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은 기독교 세계관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를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동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습관, 성품, 대인관계, 리더십, 신앙 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훈련 커리큘럼

신설된 기독교 세계관 훈련은 12주 프로그램으로 알버트 월터스의 저서 '창조, 타락, 구속'을 기반으로 하는 9주 강의와 3주 동안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해 보는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 주는 유익

훈련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적 진리가 어떻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법과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 나아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한 훈련생들은 이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일상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훈련생들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훈련의 비전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 훈련의 중심지로서, 모든 세대에 걸쳐 믿음을 깊게 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시키는 일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대략 1시간이 소요되는 예배와 공과 공부 위주의 교육으로는 교회교육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신앙이 종교 생활을 넘어 일상의 삶 전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만능주의, 권위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 등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작금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다음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다양한 세계관을 해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판하는 훈련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기독교 세계관 훈련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개인 모두가 이 중요한 여정에 함께 참여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되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T4 메모리얼데이 피크닉
Memorial Day Picnic

Picnic

10
7in1 COOKING FUNCTIONS

T4피크닉

T4, 무슨 뜻인가요?

이정훈 장로

2007년 3월 저녁의 맨하탄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전화의 벨이 울렸습니다. 당시에도 지하철 안에서는 전화 시그널이 잘 잡히지 않고, 전화 통화 또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신기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하경남 목사님이셨습니다. 멋진 중저음 목소리의 하 목사님이 전화하신 용건은 바로, 당시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불렸던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올해 한 해만 '전교인 체육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세요. 내년에는 다른 분을 구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부탁'을 하지 않았던 하 목사님의 '묵직한' 음성에 "네 목사님, 일단 급하시다 하시니 올해는 어떻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로 대답하며 시작한 본 행사를 올해까지 총 14년간 (팬데믹을 제외하니 그렇습니다) 섬기게 된 시작이 이와 같았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던 어느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전교인 체육대회'로 치러진 본 행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매우 경쟁적이고, 또 치열한 응원전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운동회의 분위기 그것이었습니다. 종종 한 두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되고, 심각하지 않은 판정 시비(?)도 종종 있었던, 상당히 치열한 분위기의 행사로 모두들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구별 경쟁 구도와 더불어 징과 꽹과리 및 각종 도구가 총동원 되었던 그때의 분위기와 요란한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010년대 중반, 본 행사는 '전교인 한마음 축제'라는 명칭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담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응원의 행사보다는, 당시 새롭게 시작되었던 중국어 예배 및 러시아어권 예배의 가족들을 '한 마음'으로 담기 위한 목적,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행사의 분위기 또한 경쟁의 그것보다는 '하나'되고 '즐기기'위하여 준비되고 진행되게 됩니다.

펜데믹으로 잠시 멈추었던 '전교인 한마음 축제'는 올해 또 다른 변화를 담게됩니다. 수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던 EM, CM 및 RM의 대표들이 중심이 된 '다민족 위원회'가 준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명칭과 개념 및 프로그램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행사의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을 서로가 나누어 담당하는, 실로 모든 회중이 함께하는 진정한 '한 마음'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민족 위원회의 기도와 고심끝에 그렇게 탄생한 이름 'T4 Memorial Day Picnic Day (T4: Together, 4 Congregations)'. '4개의 언어 회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의 뜻을 담은 T4, 이 명칭으로 인하여 본 행사는 한국어 회중의 전반적인 준비 및 기획과 영어 회중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중국어 회중의 행사준비 작업, 러시아 회중의 적극적 참여 등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분업이 시작된 첫 행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내년에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본 행사를 섬기며 항상 느꼈던, 모든 교우들이 더욱 하나되는 진정한 감사와 은혜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민족 회중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올해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T4가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 이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개의 언어 회중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는 또 다른 세대의, 모든 언어 회중의 다양한 은사와 기획 및 기도로 준비되고 변화해 갈 'T4 Memorial Day Picnic'의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퀸즈장로교회

2024 선교바자회

KAPCQ Mission Bazaar

6/1(토) 오전 7:00 ~ 오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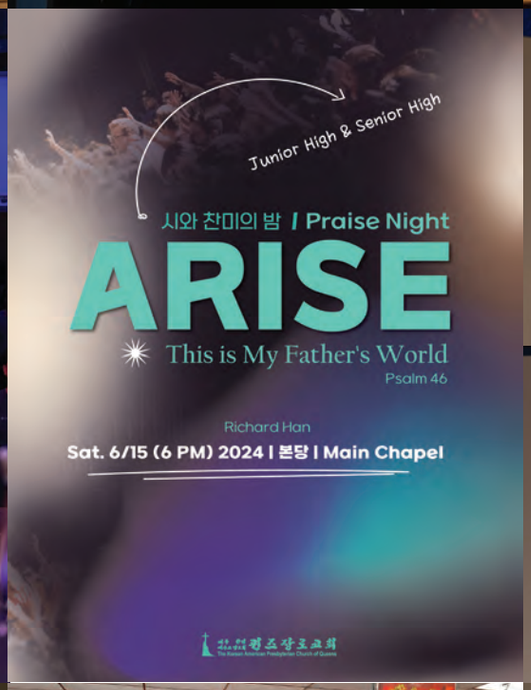
6/1(Sat) 7:00am ~ 5:00pm

선교 바자회

Junior High & Senior High
시와 찬미의 밤 | Praise Night
ARISE
This is My Father's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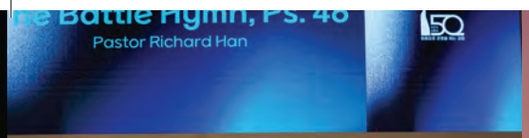
ARISE

Praise & Response
Praise & Response


Junior High & Senior High
시와 찬미의 밤 | Praise Night
ARISE
This is My Father's World
Psalm 46
Richard Han
Sat. 6/15 (6 PM) 2024 | 본당 | Main Chapel

ARISE

ARISE


Pastor Richard Han

ARISE

ARISE
This is My Father's World

ARISE

ARISE

ARISE

ARISE
This is My Father's World

ARISE

Praise Night
ARISE
This is My Father's World
Sat. 6/15 (6 PM) 2024 | 본당 | Main Chapel

ARISE: 청소년 부흥회

차평화 목사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며, 10여 년 만에 청소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동문,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 화합과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부흥회가 "O2 (One Life, One Purpose)"로 불렸었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목적을 위해 그들의 삶을 헌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O2의 아이디어를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비전은 이사야 60장 1-3절에서 나왔으며,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부름입니다. 50년 동안 많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찾고, 이 세대의 임명된 자로서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 장로님, 스태프, 그리고 연장자들의 격려 속에서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은 찬양의 복된 시간과 리처드 한 목사님의 말씀 전파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을 새며 학생들은 재즈 앙상블, 스킷 영상, 간증, 연극, 시 낭송, 바디 워십, 사진 및 미술 작품, 랩 영상 등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ARISE (일어나라)" 예배의 주제는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세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학생들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등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동물, 나무, 돌 등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화를 구속하고 현재의 시대를 구속하기 위해, 학생들은 랩, 음악, 춤 등 인기 있는 예술 형식을 예배의 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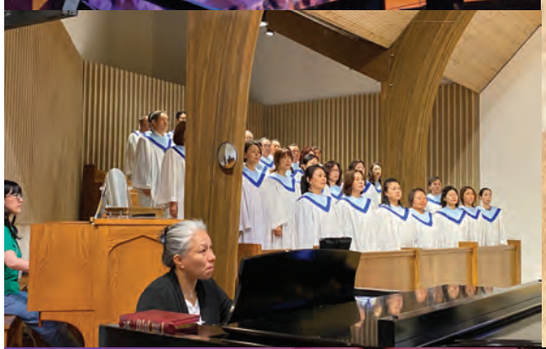
예배 중에 영어 사역의 젊은 성인들이 찬양을 인도했고, 한국 사역의 젊은 성인들은 스킷에 참여했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그 밤에 참여하여 그들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영상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와 여러 문화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모든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도와 찬양을 함께 하며 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치와 공동의 목적을 상징하는 손을 잡고, 학생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함께 바베큐 교제를 나누며 끝났습니다. 많은 마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좌석에 500명이 앉아 있든 두 명이 앉아 있든 상관하지 않았고, 이 예배를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5분짜리 영상이나 3분짜리 바디워십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지만,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조화로운 멜로디가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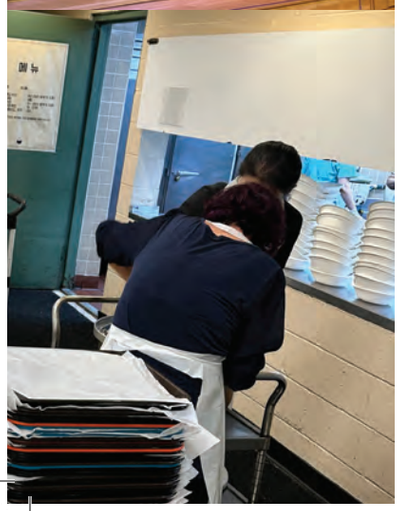
앞으로 청소년들의 열정, 열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ARISE" 부흥회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산과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밤을 회상하며, 우리는 감사와 낙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다음세대의 신앙과 교제를 계속 육성하려는 우리의 공동 정신을 다시 불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의 다음 챕터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합니다. 좋은 추억들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ARISE"의 확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한교회
2024 전교인 여름 수련회
건강한성도

등록 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거야



퀸장 전교인 수련회 2024

한상윤 집사

퀸즈장로교회를 다닌 지 어느덧 5년차, 3번째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첫 날에는 참석할 수 없는 걸 알았지만, 삶에 치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갔던 예배 생활과 신앙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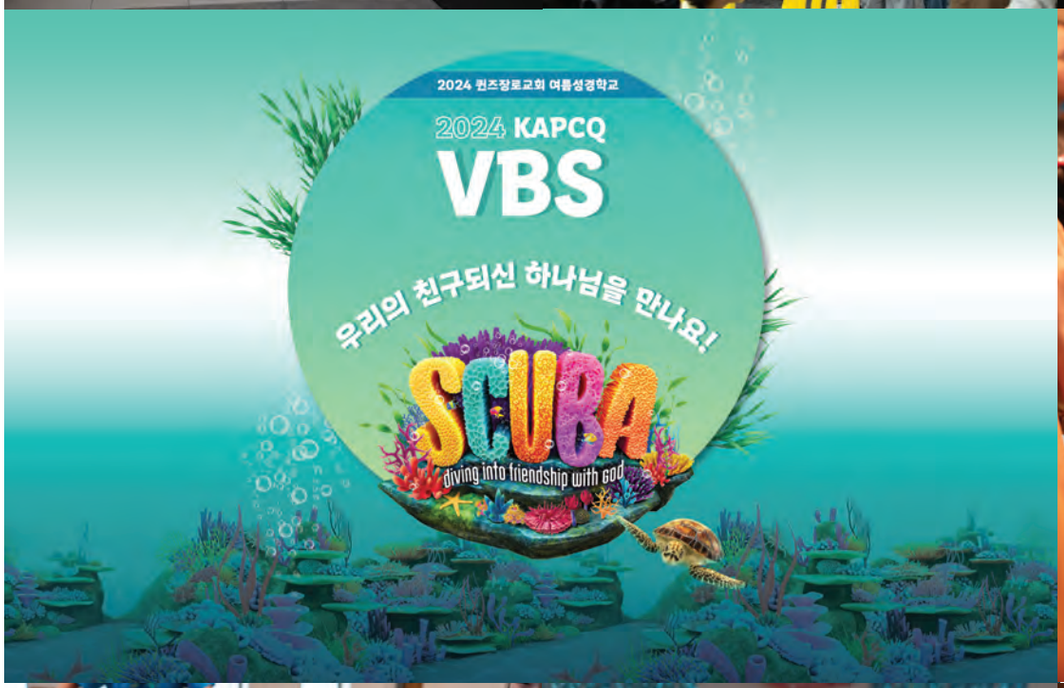
수련회 첫 날 온라인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아말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혈기에 사로잡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모두 나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승리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가지 감사했던 것은 진행부에 속해 예배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이끌어 가시는 책임 장로님, 여러 집사님들과 모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몇배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며 마음이 열리는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할 나위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우리 교회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실망하고 미워 하기도 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다시 말씀 앞에 점검해 보고 경각심을 느꼈으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가 있었던 은혜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또한,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도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인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퀸즈장로교회 아리아리!


2024 원즈장로교회 여름성경학교
2024 KAPCQ
VBS
우리의 친구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SCUBA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SCUBA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 한국어예배부 | Korean Ministry 〕

15

다 민 족

〔 Together, 4 Congregations 〕

〔 영어예배부 | English Ministry 〕

퀸즈장로교회에서 영어 예배부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역할

영어 예배부 김도현 목사

당장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누가 슬퍼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몹시 서운해 하시겠지만, 만약 퀸즈장로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우리 지역 공동체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이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가슴 아파하며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까요? 아니면 프랭클린 애비뉴의 주차 공간과 교통 혼잡이 해소된다면 우리 이웃 중 몇몇은 오히려 기뻐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통해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동네 이웃 사람들이 과연 슬퍼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주변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했을까요? 선교적 교회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사회에 끼친 큰 영향에 대해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국내 및 해외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도시와 이웃 주민들을 변화시켜 오신 것입니다. 한인 이민 교회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역할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영어 예배부(QPEM)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로 캄보디아나 케냐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 중 저는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 대해 배웠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에 파송 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이끌어 가십니다. 선교는 우리를 직장, 가족, 교회 밖의 세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주일을 제외한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한인들 만을 위하여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예배부 사역의 특수성은 우리가 단순히 한인들을 위한 영어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예배부는 교회가 속해 있는 이곳 지역 공동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웃들과 그들의 삶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가 속한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던지, 아시아계 미국인이던지, 히스패닉계이던지, 백인이던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던지, 그 누구라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 가운데 그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 위에 우선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문화가 최우선입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인종, 민족, 사회 경제적 지위,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민족 교회로서 우리의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문화 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아름다운 유산을 잘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이제 그 모든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초월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문화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됩

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적인 영역에서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야 하며, 그것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모험이 될지라도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공동체, 학교,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공공 기관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지역 경찰 109 구역과 함께 지역 사회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희망의 정원(Garden of Hope) 및 엔젤 트리(Angel Tree)와 같은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도시의 가장 연약하고 버려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프랭클린 요양원에서 노인 주민들에게 성경 읽기, 노래, 기도를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선 봉사의 기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온유하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나눌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침투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 회복의 빛을 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와 섬김의 사역 모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계와 이 세상의 사회 정치 체계,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복음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선교적이며,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택되었습니다. 한때 이민자들 뿐이었던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와 이웃과 하나되어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이제는 기존의 편한 자리를 뒤로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 가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 성경 묵상, 기도, 제자, 공동체 생활 및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사와 선교 프로젝트를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도록 부르신 이 도시에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까지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다면 이제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 지역 공동체에게 다가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업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도시와 이웃이 복음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문화와 민족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반부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쓴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봤던 교회"를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위한 교회도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모두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영어 예배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 중국어예배부 | Chinese Ministry 〕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중국어 예배부 첸위지 목사

[시 96: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퀸즈장로교회를 통치하시고 50년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 장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기반을 견고히 닦아두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양육하셨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만족함을 얻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집을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섬김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들의 생명이 세움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 54:2-3]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아직도 얻지 못한 백성, 얻지 못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많은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열속에 라합이 있고, 다말이 있고, 룻이 있고 기브온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많은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도 아람사람 이갈, 암몬사람 셀렉, 헷 사람 우리아 그 외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김성국 담임목사님에게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김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 장영춘 목사님으로 부터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좌우로 넓히셨고 다른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셔서 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성국 목사님의 비전과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섬김 속에서 영어예배부에 이어 중국어예배부와 러시아어 예배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퀸즈장로교회에 있는 4개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언어도 전통도 문화적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어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줄 믿습니다. [요이 1: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요이1:5-6]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KM, QPEM, CM, RLM의 성도들이 주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년째 해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땅이 안식을 누리고 팔았던 토지를 돌려줄 것이고 종으로 팔린자가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의 희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50년동안 우리 퀸즈장로교회도 장영춘 원로목사님,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충성되게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였고 죽음의 쇠사슬에서 해방함을 얻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지난 50년동안 하나님께서는 퀸즈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희년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퀸즈장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이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가오는 50년에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어떤 언어로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얻고 치유함 얻고 새로워지고 해방되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김성국 담임목사님에게 주신 다민족의 비전을 통하여 4개의 예배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이 흥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과 종족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셔서 하나님 이름만 영광 받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상의 예배가 우리가운데 나타나길 바립니다.

[계 7: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서 김성국담임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고후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러시아어예배부 | Russian Language Ministry〕

JESUS
SZA

선교적 비전과 열정을 가진 교회

러시아어 예배부 송요한 목사

할렐루야!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퀸즈장로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50년 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교회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50년 동안 퀸즈장로교회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기념일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모든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로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8년 전 우리 교회 안에 러시아어권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고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뉴욕시에서 다민족 우리 교회는 엄청난 선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종 "세계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눈에 띄는데, 구소련에서 온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소련에서 온 수많은 국가, 국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 가운데는 7개 국가에서 온 아홉 민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이슬람교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도달하기 가장 어려운 인구 집단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수는 약 100만 명에 도달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전쟁 때문에, 난민 유입으로 인해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최대 200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수는 1,000명도 넘지 않습니다. 이는 뉴욕의 러시아어권 디아스포라가 선교의 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의 힘과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답은 다민족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었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역을 개설한 것은 모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퀸즈에서는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교회 모임입니다. 한국어권 예배와 협력하여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통합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마지막 과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러시아부에는 다음과 같은 선교 과제가 있습니다.

*복음과 교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적인 의미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임을 전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교구민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더 쉬워져서 좋은 소식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인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목회: 러시아어신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목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전과 문화로 많은 러시아어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원과 멘토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예배가 언어적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 미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회중은 복음을 그들의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중 신도들과 같이 언어와 문화를 잘 앎으로써 단기, 장기적인 선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고국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우리가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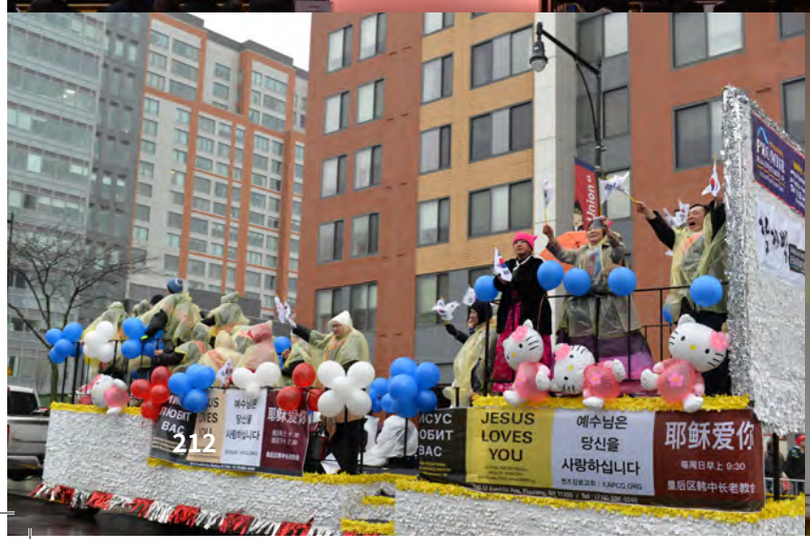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선교학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마지막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과제는 모든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욥 12:23)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오늘 이 도시에 많은 민족, 특히 많은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이 마지막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적인 비전과 열정이 항상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Даже если я хожу по долине тени
смерти

Nibe labi Baba o daju
That is-where the Father was born, for sure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耶稣爱你
每周日早上 9:30

Благодатью наполнемся
QPEM FAMILY

퀸즈장로교회의 다민족 이해하기

손요한 목사

저희 퀸즈장로교회 11월은 특별히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은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11월에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11월에 엄태용 전도사님의 담당으로 영어권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의 성장과 영어권 성도님들의 많은 등록으로 영어 예배부가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유년시절부터 퀸즈장로교회에서 성장하신 김도현 목사님께서 영어회중의 담당목사님으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에 교회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성도 한 분이 뉴욕에 이민 와서 교회를 찾아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 등록한 중국교포 성도였습니다. 그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더 많은 중국교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민족이지만 두 가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던 중국교포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2007년 중국교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 11월에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기도하시던 중에 다민족 선교와 다음세대 양육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 후러싱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주하여 이민자의 수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모두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다민족 선교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9-10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모습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시작으로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존 파이퍼

2014년 11월에 중국어권 예배부 설립을 위하여 첸위지 목사님을 청빙 하였고, 2015년 1월에 중국어 예배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교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했던 중국어 예배부가 빠른 속도로 부흥하여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년들의 많은 등록으로 아이들도 많이 등록하여 중국어 교회학교 유얼부(2~5세), 얼통부(6~14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교포위원회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도 2014년 11월에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 다민족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신 고려인 송요한 선교사님께서는 2015년 11월에 미국비자를 받고 뉴욕에 이민 오셨고, 12월에 저희 교회 부임하셔서 2016년 5월에 러시아어권 예배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셔서 멀리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매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다민족 선교를 위하여 새 성전 착공 감사 예배를 2019년 9월에 드렸고, 다민족을 위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교회 설립 50주년 되는 올해 완공됨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이 땅에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 수많은 모델로 명칭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 빌딩을 함께 공유하는 정도의 다민족/다문화 사역의 모델들(Host Church Model)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퀸즈장로교회 다민족은 입양 모델(Adoption Model)을 시작으로 다른 민족 그룹을 선교하기 위하여 교역자를 청빙 하여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4 개 언어권들이 모여 한 퀸즈장로교회의 구성원이, 여러 민족 그룹의 성도들이고, 다민족 예배의 형태로 모이는 다민족 모델(Multi-Ethnic Model)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권 예배부가 경제적인 독립과 4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서 영어권 회중국이 시작되면서 다중 회중국 모델(Multi-Congregational Model) 여러 개의 민족의 성도들이 한 퀸즈장로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각 민족별 회중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별 회중국의 자녀들이 한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할 때, 다세대 회중을 위한 다세대 모델(Multi-Generational Model) 예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21세기는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권들이 도시에 모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특히 세계중심인 뉴욕에 있는 다중 회중 교회로서, 지도자들과 각 회중국 리더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과 사역들을 찾아가며 다민족과 다문화 공동체의 모범적인 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었고,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한 퀸즈장로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민족별 회중이 설립되고 연합하여 함께 복음전파하고,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상호 협력과 친밀한 연합 회중 모델(Inter-Congregational Model)을 꿈꾸며, 예배 회복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교회, 한 가족 되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고대하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세계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다민족과 다음세대의 예배 회복을 향하여 전진하는 퀸즈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IT

RESERVED
RESERVED
RESERVED

16

빛 과 소 금

크리스천에게 직업이란

조용기 청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1부를 섬기고 있는 조용기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올해 초, 큐니 버룩컬리지를 졸업하고 OPT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공에 맞는 여러 직종들과 회사들을 찾아보던 중,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뉴욕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9곳에 지부를 둔 농림 축산·수산물의 가격안정·수출 증대·유통 개선 및 식품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군대를 전역 후에 국가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배우고 익힌 정보와 경력을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선,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면 제 자신을 더욱 공정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강박 같은게 있었는데,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그러한 강박 혹은 경계심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집단보다 큰 개념이 아니듯이 한 사람이 끼칠 수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집단이 개인들의 모임이기에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 하나의 촛불이 그 공간을 전부 비추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밝고 긍정적이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천후 하나님의 Messenger

김누리 집사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갓즈윌 선교회 소속 되어있는 김누리 집사입니다. 갓즈윌 선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주일 2부예배 경배와 찬양팀, 수요예배 경배와 찬양팀, 교회내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직업은 할이버지께서 이민 오시고 시작하셨던 간판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는 작은 아버지 밑에서 모든 작업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이곳에서 일한지는 햇수로만 12년이네요.
딱히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눈썰미랑 손재주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더울 때는 무지 덥고 추울 때는 무지 추운 직종이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거 보다는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끔 가게 되는데 여러 인종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끔 다른 회사와 협업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 여러 경험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직업 때문만이 아니었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와 육체적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존감 마저 저 밑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신앙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친구를 만나고 싶어 왔던 퀸장이었는데 그 안에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재미로 갔던 겨울 수련회 가운데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며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지요.

현재 직장에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는 아직도 고민중이지만 작년에 전도폭발을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지식을 통해 어떻게 전도를 해야할지 막막했었는데 전도폭발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적었던 것처럼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전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시대는 삶은 좀 더 편해지고 즐길거리도 많아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갈급함이 있는 삶이 점점 흐려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현세대와 다음세대를 위해 저를 쓰셨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경험 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아직도 어제인 것처럼 따뜻하고 뜨겁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소아병동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하은 성도 (갓즈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장로교회 갓즈윌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하은입니다. 저는 낫쏘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3년차 간호사로 소아과에서 일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전문 간호사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많은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환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케어해주는 간호사, 환자를 상담하고, 처방을 직접 내리는 간호사, 여러가지 임상실험을 하는 간호사, 복잡한 서류 업무를 도와주는 간호사 등, 통상적으로 학위와 자격증, 경력,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나뉘고, 모든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어린 환자들을 돌보는 외래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간호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밖에서는 병원 건물의 위엄에 압도됐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일을 하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갈등관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잊어 버리고, '하나님은 왜 내 편을 들어 주지 않으실까' 하며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들은 내가 말씀을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시는 분들과 저를 동시에 보고 계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매 순간 성령충만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부터 왔음을 믿는 크리스천이기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듯이, 저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먼저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때문에 교회를 배척하면 안되잖아요 :) (웃음)

사진: 최치훈 집사의 일터

일터에서의 선교

우리의 역할은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속에서도 소망을 잃지않는 이유

송수진 집사

Disability Coordinator

Developmental Disability Coordinator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직업은 발달장애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발달장애 개인과 그들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식별하고 이를 제공하며 진행까지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발달 장애 개인과 그들의 가족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및 기타 조직과의 연락을 조정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지원활동 조정원(outreach coordinator), 가족지원서비스 케이스 매니저(family support service case manager), 접수 코디네이터(intake coordinator), 그리고 자기결정 지원 브로커(self-direction support brok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명칭이 다양한 이유는 발달장애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그에 따른 역할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장로교회에서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송수진 집사입니다. 현재 뉴욕발달장애아동국(OPWDD, the 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과 연계된 GHO(General Human Outreach inc)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 장애, 뇌성 마비, 다운 증후군, 자폐 스펙트럼 장애, 프라더-윌리 증후군 및 기타 신경 장애를 포함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심리검사/심리사회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을 OPWDD에 등록하고, 관련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에는 SSI, 메디케이드 웨이버 신청, 후견인 신청, 직업 훈련, 재활 훈련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코디네이터를 하며 인상에 남았던 가족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막막한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난 한 가족이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뉴욕발달장애국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으로, 후견인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신청을 도와주는 곳은 대기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은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찾아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서류 작업과 공증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후견인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마치고 부모님이 개인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저에게 큰 감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의 도움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주는 것과 같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험이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항상 저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세상의 빛으로서 제가 하는 일이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시작한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안전을 책임지며

최치훈 집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말라"
(골 3:23)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JFK American Airlines 에서 항공정비사(Aircraft Mechanic)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직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처음 정비 공부를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때 직업학교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항공정비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 계기로 육군항공부대를 지원하게 되었고, 제대 후 미국에 와서 아내의 권유로 다시 항공정비를 정식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충하거나 빨리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좋게 말해 꼼꼼한 사람이나 나쁘게 말해 소심한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일을 시작한 첫 주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럿과의 소통, 다른 사람들과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많다 보니 저의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고 한주 한주 버티다가 무턱대고 메뉴얼을 읽기 시작하였고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 방대한 양의 메뉴얼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어느샌가 영어도 못하는 제게 새로운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함과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항공정비사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동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고 일이 터프하다 보니 말도 행동도 거칠어 집니다. 처음엔 나도 모르게 따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동료를 통해 너는 크리스천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후 말투를 고쳤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무 어불성설 아닐까요? 말투만 고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상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을 통해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늘 함께 계신다 생각하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일터에서 담임목사님이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절대 대충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세상사람들이 하는 최선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최선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사는법

박새롬 집사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갓즈윌 소속 박새롬 집사입니다. 퀸즈장로교회에 12년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회계법인에서 Corporate Tax 팀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현 직장으로 오기전 유학생 신분이였기 때문에 한인 회계 사무실 여러군데에서 학생 때부터 계속 일했습니다. 좋은 한인 사무실도 많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흔히 적은 pay 로 많은 일을 시키고 직원들의 대한 benefit 과 존중은 전혀 없던 곳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사무실을 그만두면서 다시는 한국회사에서는 일 안 하겠다 다짐을 굳게 하고 나왔을까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회사들이 있어서 유학생 시절에 부모님 고생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며 집세와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과 정신이 참 연약한 사람 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지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저를 인내케하시고 훈련시켜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일이 참 고되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는것은 예전에 했던 그 고생들을 생각하니 불평불만을 할 수 없겠더라구요. 현 직장에서 힘이 들 때면, 그래,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 앞으로 걸어갑니다. 또 얼마나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것은 연약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셔서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저를 지금의 자리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주로 투자, 부동산, 확실한 노후 대처 등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은데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관 그리고 성경적 경제관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더 불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주고 받습니다. 저 또한 아주 관심이 많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싶고 풍족한 노후를 누리고 싶으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관은 말 그대로 내가 잘 사는 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원하는 것만 누리면서 남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경제관인 것 같습니다.

반면의 성경적 경제관은 주님과 어떻게 같이 잘 사는 법인 것 같습니다. 풍족한 노후는 이미 우리 본향에 영원히 살 멋진 집 하나 장만 되어 있을 것이고요, 본향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덜 먹고 못쓰더라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불우한 이웃을 돌봐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 성경적 경제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풀어보니 두 경제관이 참 많이 다르네요. 나에게 퍼주는 것은 참 쉽지만 반대로 남에게 퍼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에게 얼마나 남길 것인가 따져보고 계산하게 되더라구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하셨듯, 저에게 허락한 것들을 형제 자매에게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합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혜연 집사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Pre-K Center에서 3세에서 4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같이 공부하면서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공평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도록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또 있다고 해도 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애를 가졌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어려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끌어내주는 안내자입니다. 각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교육 전략을 끊임없이 계획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교사로서 가장 마주하기 힘든 순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치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즐거운 곳이였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이가 다쳐서 부모님께 설명드려야 하는 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 가장 감사한 순간은 졸업한 학생이 인사하러 매년 학교에 찾아왔을 때 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잊혀지기 쉬운데 절 찾아와주는 학생들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부족한게 많은 교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하며 인상에 남았던 일, 혹은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다면 얘기해주세요.

Pre-K 학생들 중에 한 남자 어린이는 친구들을 밀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셔서 하교 후에는 할머님이 돌봐주시고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등의 이유로 '문제아' 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 대답을 하거나 다른 이들과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방문하는 소셜워커와 상의한 결과 그 아이는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이라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치거나 미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학생의 행동을 칭찬하고 더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교사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그 아이를 계속 문제아라고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머무는곳

송현림 집사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시는 곳에 제 마음 가고, 하나님의 손길가시는 곳에 제 손길 닿길 원하는 송현림 집사입니다. 저는 마리아 선교회 소속으로 2부 경배와 찬양팀과 영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마운트 사이나이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간호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정성껏 돌봐드린 환자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코드블루(응급상황)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맞게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딤후 4:2)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픈 환자분들이 있을 때마다 간호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쓰임받는 순간들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간호사를 하며 인상에 남았던 일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숨쉬는 것과 먹는 것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여 여러가지 기계의 힘과 도움을 받아야하는 신생아환자를 케어했었는데 산모도 출산 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아직 입원중에 있어서 아기를 자주 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늘 그 아빠와 엄마가 영상통화로 인큐베이터의 아기를 보며 눈물짓는 그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파서 그 가족분들께 아기의 상태를 자주 업데이트 해 드리고 아기를 세심히 돌보아 드렸습니다. 특히, 우울해 있는 산모에게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된다고 나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응원과 격려의 메세지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퇴원하는 날에 산모가 우시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기를 케어해주는 간호사가 자신과 아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힘이 되고 감동이었다며 고맙다는 뜻의 작은 선물과 그 아이의 첫번째 생일 파티초대장도 함께 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환자분을 퇴원시켰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환자를 케어해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같은 의료직종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협력하여 의료선교를 자주 다녔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모여 사시는 서울역과 쪽방촌을 매주 방문하여 의료선교를 하거나, 한국에 유학 온 후진국의 학생들에게 무료 진료해주며 전도를 하고, 시골 오지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교회에 매년 여름마다 방문하여 무료 진료와 함께 전도 잔치를 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될 처음 뵙는 분들에게 전도할 생각에 떨리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제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고, 우리가 가진 좋은 약품들과 필요한 전도 물품들보다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고전 13:3).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지혜와 손길에 함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고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더욱 밝히 비추게 되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문화적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 하시니라

창 1:28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공간

송명남 집사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퀸즈장로교회를 섬기며 아이 셋을 키우는, 세 아이의 엄마 이자 영원한 퀸장인인 송명남 집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스타벅스 Northeast 지역의 매장 디자인을 담당하는 스토어 디자인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건물이나 집, 또는 어떠한 내부공간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상황에 맞고 필요에 맞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디자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에게 디자인은 거듭남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감, 시각, 그리고 감각으로 어떠한 공간을 그 필요에 따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 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란 직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일인데, 일을 하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많았고, 또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힘주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디자인상을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제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기도 하였을 때 비로소 이 직업을 포기 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나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 일에 보탬이 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제가 맡은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때 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 싫은 소리도 해야되는 상황에 처할 때 마다, 지적을 하기보다 격려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나 여러가지 시안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6-7 제가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와서 심방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지연 성도 (갓즈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하탄에서 헤어/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아티스트 김지연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을 외적/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직업이에요.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을 좀 더 끌어내 주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장난으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연히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주일 성수였어요. 직업 특성상 주말에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 스케줄이 매우 바빠요. 처음에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상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했을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스케줄에 맞춰 최선을 다해 새벽이나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가끔 스케줄로 주일에 못 나오게 되는 날이 있다면 결혼식에서 드리는 일터에서의 예배가 제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광고 촬영, 뮤직 비디오, 유튜브 컨텐츠, 웨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웨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결혼하는 모든 커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메이크업, 크게는 뷰티라는 문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메이크업 클래스를 할 때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문화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이동훈 집사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집사입니다. 그루터기 청년 1부와 전도폭발부, 경배와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양이 세마리를 부양하기 위해 키스라는 회사에서 비디오팀에서 영상 제작 및 아트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관련된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몇 년 동안, 그리고 주로 어떤 작업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변변하게 잘 하는 특기가 없어 패션/뷰티라는 필드 내에서 여러번 직종을 바꾸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해 아트디렉터 생활을 하다 사진을 찍다 어쩌다보니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와 가치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이 되는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 디렉터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일 많은 죄를 지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제 죄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보단 주어진 하루하루에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며, 약한자의 편이 되고 남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살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최대한 나누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 악하고 자극적인 방향 대신에 선한 방향의 영상을 찍으려고도 노력하고 있고요.

패션, 뷰티 광고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동성애자라던지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이라던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서 반기독교적인 세계관들과 많이 부딪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일 큰 딜레마는, 저는 럭셔리 패션 쪽 필드에서 시작을 하여 지금은 뷰티 쪽을 하고 있는데 모두 특징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치품들을 그럴듯하게 꼭 사야할 것처럼 보이는 미디어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그리 믿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가야 하나 하고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다보니 일을 하는 이유가 인간이 범죄함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창 3:17-19)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제가 영상을 찍을 것 같지는 않고 대신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수셨고, 사도바울도 장막 제작자였지만 성경에 그다지 그 내용이 직업 외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가장 중요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내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할 수 있는 리마인더라고 생각하려 하고 그래서 언젠가 들어갈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는 어떠한 행위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정죄하기 보다는 사랑으로 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 있다면, 그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오직 은혜로 죄에서 돌이키리라 믿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하였던 것 처럼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지요.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가치관과는 철저하게 맞서 싸우되 죄인들은 사랑으로 품어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ARKANSAS MICHIGAN FLORIDA TEXAS IOWA WISCONSIN CALIFORNIA MINNESOTA
WEST. 1975
MARKET FARM

● ● ● 다음세대

OREGON
KANSAS
WEST VIRGINIA
NEVADA
NEBRASKA
COLORADO
NORTH DAKOTA

17

다음세대 | 교회학교

Education Vision 교육부 비전

의인의 비전

이정훈 장로 | 교육위원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물론, 선한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연속이며, 그렇다보니 '절대로' 손해보아서는 안 되는, 손해 보거나 양보하는 것은 결국 패배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결코 참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이겨야하고, 양보하거나 손해보는 것은 패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의 가르침이나 말씀은 일단 제쳐두고, 일단 경쟁에서 승리한 후,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과 어떻게든 compromise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인의 모습, 혹은 의인의 비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비전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Vision (vizh-uhn):

1. the act of power of sensing with the eyes; sight.

2. the act of power of anticipating that which will or may come to be.

굳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행위 또는 능력', '꿰뚫어 보는 힘' 혹은 '마음의 시력' 등등의 의미

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비젼은 '그 다음에는'이라는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즉, 비전은 미래의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는 고급 승용차를 가질 것이다' 혹은 '나는 더 넓고 큰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보다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비전은 목표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제, 성경에서 의인의 비전을 가졌던 인물을 한 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극찬하셨던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양보'하거나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형제들 중 막내였음에도 집안에서 가장 궂은 일인,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해야했고, 하나님께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와 공격을 피하여 항상 손해보고, 피해보며 또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에는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손해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뒤에 숨어 울었습니다. 직접 복수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복수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으셔도 어쩔수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단 한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 보일 때 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이스라엘 군대의 그 누구도 나서서 이를 저지하지 못 할 때), 다윗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결코 참을 수 없었고,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 보일때마다 맞서 싸웠고, 그럴 때마다 승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다윗의 성정과 믿음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중 크리스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하는지에 관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다라면, 우리 크리스챤들은 '배'입니다. '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살아야 '배'입니다. 그러나, '배'는 바다에 떠 있을 때에 '배'의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이 되어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배가 아닌, 잠수함이 됩니다. 크리스챤의 삶이란, 세상속에 살되, 세상에 잠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도록,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도록 양육되는 것이 세상의 스탠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와는 다르게 양육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글의 가장 앞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크리스챤의 부모로서, 자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는 양보하고 손해 볼 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는 '의인의 비전'을 가진 자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성경적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수도, 실패한 삶의 모습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닮고 따르는 것이 우리 크리스챤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맞다면, 나의 일에는 손해보고 양보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에는 분연히 일어서는 '의인의 비전'을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기꺼이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믿습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한 '의인의 비전'을 가진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만나는 매우 제한적인 만남의 상황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제한적인 시간동안의 만남과 양육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일주일간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warm-up'해 주시기 바랍니다. Warming-up이 잘 된 자동차가 빠른 시간내에 최고의 속도를 문제없이 낼 수있는 것과 같이, 일주일간 말씀과 기도로 Warming-up 된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말씀의 양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배우게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애타게 찾으시는 '의인의 비전'을 가진 다음세대가 퀸즈장로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양육되고 배출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50년을 돌아보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이명옥 전도사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는 교회가 1974년 설립한 이래 처음부터 함께 시작된 교육기관이다. 이는 설립자이신 장영춘 목사께서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익히 아시고 교회가 다음세대를 교육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신 귀한 결단이기도 하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의 교육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장 목사님은 '교육목회'사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셨고, 이런 교육 철학은 지금의 김성국 목사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반기 --- 2012년까지

1975년 첫 교육담당 전도사로 김석형 전도사가 임명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교회학교는 담당 교역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교회학교 학생들 전체를 한 교육부서로 모아 시작하였지만 곧이어 유·초등부로 나누어지게 되고, 주일학교는 점차 세분화되어 지금은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유얼부(중국어 어린이부서), 얼퉁부(중국어 초등부서), 아가페 웨이브 등이 있고 각 부서에 담당 교역자들이 모두 함께 하는 교회학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가지는 뉴욕에서의 첫 교회로 역사를 기록한 것과 같이 자체 교육관을 가진 첫 교회가 큰 기반이 되었다. 교육관은 1991년 5월 16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1994년 20주년 설립기념예배에 본관 건물에 이어 교육관을 지어 헌당하므로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민자 교회로서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목회와 온 성도가 다음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설립 15주년 기념사업으로 당시 영아부 지도자였던 김옥대 전도사의 '성경이야기 365'가 출간되었고, 1990년에는 제1회 유초등부 여름학교가 개교하였다. 초창기 교육부장으로 섬기셨던 황인섭 장로는 당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신실하고 열정적인 교사들이라고 손 꼽는다. 당시 교사로 함께 섬겼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역자, 장로, 안

수집사, 권사로 교회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회상한다.

또한 오랫동안 교육부 부장으로 섬겼던 홍승룡 장로는 교회학교 교육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장 목사님의 교육 방침도 그러하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때 다른 모든 것도 이뤄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일념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자라난 학생들이 지금은 수많은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섬기고 있음이 교회학교 50년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우리 퀸장 교회학교의 좋은 전통이 되었고 양질의 교사 훈련과 오픈 클레스를 통해 연구수업을 하는 일 등은 교사로서 항상 깨어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회학교는 주일에 하는 주일학교에서 나아가 주중에도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나아갔다. 당시 총무 장로였던 허경화 장로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담임이셨던 장영춘 목사의 목회 방침은 교육목회였고 그 교육은 주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길러주고 한글을 잊지않게 하기위해 1984년 토요 한글 학교가 시작하게 되었다. 주중에는 정식 교육기관으로 1994년 9월에 아가페 유치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무료로 하는 열린유아원도 주중에 하여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1995년에는 방과 후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과후 학교도 시작되었다.

청년부도 부흥하여 1997년 4월부터는 주일예배 2부를 청년부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청년들의 은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하는 'IMPACT'라는 전시회를 교회 친교실에서 열므로 청년들의 문화사역의 장이 넓혀지게 되었다. 2003년에는 '쉐마 교육부흥회'를 가져 유대인의 교육 중 유익한 것을 배워 교육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였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관하는 '시와 찬미의 밤'이 1982년 시작하였고 후에 'O2'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금년부터는 'Arise'란 이름으로 이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간증하며 선포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수련회를 가지므로 영적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름에 영아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함께 하는 VBS도 아이들에게 영적 별미를 먹고 나누는 특별한 천국 잔치가 있다. 이는 지금도 뜨겁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지도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민족 아이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1988년에는 교사 훈련 과정으로 EDS를 만들어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스스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현 공립학교에 준한 교회학교 연령별 부서 편제가 유년부 K-2, 초등부 3-5, 중등부 6-8, 고등부 9-12 새롭게 이뤄졌다. 또한 1995년 고등부를 맡았던 홍민기 목사(당시 전도사)를 통해 고등부는 큰 부흥의 시기를 맞았다. 당시 부장이었던 정성호 장로의 회상을 통해 홍 전도사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대신 무릎을 꿇고 부모대신 사죄하였다는 일화도 듣게 된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열심과 헌신이 교회학교 부흥에 큰 요소가 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후반기 ---

김성국 목사께서 2013년 부임하므로 교회학교 교육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진 교장이신 김성국 목사께서 우리 교회에 제시한 교회 4대 비전인 '제자, 복음, 의인, 예배'의 비전 중 특별히 교육에는 '의인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하므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공동체의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 '의인의 비전'을 교육의 목표로 세우게 되면서 이를 향하여 더 넓고 더 효과적인 교육으로 나가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에 풀타임 목사로 처음으로 차평화 목사가 담당하면서 교육의 질과 환경을 점점 효과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교회학교는 특별활동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은사를 계발하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도 확대되었다. '하랑예찬-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율동팀'이 만들어지고 발표회도 열면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G2G(Glory to God-어린이 찬양대), 아이노스(청소년 관현악단), 하늘소리(난타), 파이디온(장구팀) 높이리 무용단(고전무용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주일 오후 말씀 암송 프로그램인 Awana도 2015년 시작되었다.

2015년 담임 목사님의 다민족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중국어 예배는 중국어부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서로 유얼부, 얼퉁부가 만들어

져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FFF(Fall Family Festival)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세상 문화인 Halloween에 자녀들을 보호하고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장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육 컨퍼런스가 '청교도와 교사'라는 주제로 담임 김성국 목사님과 뉴욕 나무교회 정주성 목사님을 강사로 가졌고 매년 교사들을 위한 교육 컨퍼런스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부 학생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본 교회를 떠나 대학 캠퍼스로 가기 전 이들에게 좀 더 의미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한 '졸업생 캠퍼스 파송예배'는 매년 큰 감동과 결단을 주고 있다. 이제는 익숙한 환경, 관계를 떠나는 의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캠퍼스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발달 장애아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아가페 웨이브 사역도 참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편견으로 잘못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어린이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게 되었고 그해 6월에는 차세대 전도폭발인(Xee) 제 1기 어린이 전도폭발(Hope for kids) 수료식이 있었다. 그 해부터 또한 성도들의 각종 기념일에 드리는 장학기금이 학생들에게 전해졌는데 제1회 'Speech contest'를 열어 장학위원들의 세심한 심사를 걸쳐 학생들에게 전해지므로 이들에게 교회의 사랑과 후원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위기도 있었다. 바로 펜데믹-세계적 전염병 Covid-19이다. 온 세계와 나라가 거리두기, 휴교령, 마스크 착용, lockdown이라는 생소한 현실을 맞이하였고 교회도 이를 비껴가지 못했다. 2020년 3월 22일부터 교회는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를 하게 되고 교회학교도 이에 맞추어 각 부서마다 지도자들이 새로운 IT 기기와 씨름하며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복된 기회가 되었다. 온라인으로 이어가는 새 역사를 쓰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육을 놓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자로서 당시 교육부장을 맡으신 최원일 장로는 우리 아이들이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채워나갔다고 말한다. 만나지 못하지만 각 가정을 심방하며 멀리서라도 학생들을 보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2022년 다시 대면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 빠르게 참석 학생들이 회복되는 기적도 보게 하셨다. 이 기간에 우리 교회학교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연합 세미나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였다 'Post Covid 퀸장 교육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정현 목사님을 모신 온라인 세미나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1년 4월 유·초등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이지만 대면예배를 시작하였고 6월에는 영·유아·유치부도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다. 팬데믹이 해제되고 교회학교뿐 아니라 다양한 특별활동위원회의 활동도 - 하랑예찬, 아이노스, G2G, 하늘소리 국악반, 높이리 무용단 등-신속히 재개되었다. 2022년 2월에는 '메타버스' 세미나도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학교로 발돋움하게 된다. 팬데믹으로 닫힌 환경이라 여겼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정비하게 하셨고 교인들을 위한 북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해 2022년 2월 키즈 카페를 만들게 하셨고 이어 드림카페까지 만들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공간들을 준비시켜 주셨다. 이 팬데믹은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

는 킹덤미션이라는 새 선교의 장도 열게 하셨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미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zoom meeting에 익숙해진 이들이 온라인으로 선교지와 소통하며 선교지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기존의 직접 가서 선교한 선교지역을 넘어 지역이 파키스탄, 캄보디아, 카작스탄, 몰도바 등 해외 청소년들과 VBS와 수련회를 함께 하므로 선교의 지경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목이 넓어지는 영적 도전도 함께 받게 된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토요 한글학교는 킹덤 아카데미 한글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족 비전여행'을 시작하여 가족이 함께 신앙으로 단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에 나와 통성기도 시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다 감동과 긴 여운을 준다. 이들이 기도하는 자들로 자라나도록 2022년부터 새벽예배 후 시작된 '기도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열매도 기대하게 한다.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나가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거룩한 영향력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 교회학교 교육은 지금도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교사들과 구별된 양육을 감당하는 부모와 함께 교회가 하나되어 나아갈 것이다.

교회학교를 통하여 자라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한국에서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욱 목사님을 통해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가 1978년부터 본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과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교회의 전적인 후원과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들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는 본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학교 사역자로 다시 와서 유년부, 중·고등부를 섬겼다. 당시 홍승룡 장로, 황인섭 장로님이 함께 한 분들이 교회학교 사역에 참 좋은 동역이 되었고 산 경험이었다고 고백하며 이때 본 교회에서 아내인 이종선 사모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중·고등부를 분리하게 되면서 하게 된 이중언어가 지금 사역에도 큰 자본이 되었고 처음 시작한 '시와 찬미의 밤'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회상한다.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 답이라 한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교회 교육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태어나고 자라 사역의 길을 가는 많은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 교회 축복의 열매이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교회학교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 교육은 이렇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신도 교육, 목회자와 선교사를 길러내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통한 신학교 교육, 미주크리스천 신문사를 통한 사회와 지도자들의 영적 교육, 이제 선교지인 캄보디아의 국제 학교 설립으로 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교육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제 앞으로 50년,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교육은 끊이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어 온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는 자로 서게 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각오하는 사람들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영아부

영아부 Ministry for Infants (Age: Birth - 2 years)

비전 (Vision) :퀸즈장로교회 영아부는 태아와 신생아- 2세 미만의 영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구별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가치를 배우고 거룩한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며 이를 위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Infants and Toddlers younger than two years of age will be worshiping together with parents).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1부 - 오전10:30/ 2부 -오후12:30 (First Service - 10:30 A.M. / Second Service - 12:30 P.M.)
장 소: 지하 영아부 예배실-B05 (Location: Basement Infant Ministry Chapel - Room B05)
교역자: 이명옥전도사 (Pastor: Joy Myung Lee) | 부 장: 최효진권사 (Director: Hyojin Choi KSN)

유아부

유아부 Ministry for Toddlers (Age: 2 - 3.5 years)

비전 (Vision) : 말씀 위에 굳게 자라나는 유아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퀸즈장로교회 유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2세~3.5세까지의 유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부서 입니다.

주일 예배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1부 - 오전 10:30 / 2부 - 오후 12:30 (First Service - 10:30 A.M. / Second Service - 12:30 P.M.)
장소: 유아부실-212 호 (Location: Toddler Ministry Chapel - Room 212)
교역자: 홍현숙 전도사 (Pastor: Hyunsook Hong) | 부장: 박경미 권사 (Director: Kyongmi Paek KSN)

유치부

유치부 Ministry for Pre-K (Age: 3.5-5)

비전 (Vision)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퀸즈장로교회 유치부는 3세반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훈련시키는 부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딤후 3:15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아이들로 양육한다. 딤후 3:16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딤후 3:17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1부 - 오전 10:30 / 2부 - 오후 12:30 (First Service - 10:30 A.M. / Second Service - 12:30 P.M.)
장소: 유치부실-208 호 (Location: Pre-K Ministry Chapel-Room# 208)
교역자: 전진영 전도사 (Pastor: Elisha Jeon) | 부 장: 계연란 권사 (Director: Yeonran Kye KSN)

유얼부 얼통부

중국어 교육부-中文教育部 Church Website (유얼부, 얼통부) - Chinese Ministry

비전 (Vision): 뉴욕 땅에 수많은 중국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목으로 자라 숲을 이룰 것을 꿈꾸는 중국어 교육부.
부서연령 (Age) : 유얼부幼儿部- 2세-5세(2- 5 years) | 얼통부)儿童部- 6세-14세 (6 - 14 years)
주일 예배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유얼부 예배시간: 오전 9:30 - 11:00 (Service: 9:30 A.M. - 11:00 A.M.)
장소: 유얼부 예배실 B03호 (Location: Room B03)
얼통부 예배시간: 오전 9:30 - 10:30 (Service: 9:30 A.M. - 10:30 A.M.)
장소: 얼통부 예배실- B02호 (Location: Room B02)
교역자: 황웨이 전도사, 린첸첸 전도사 (Pastor: Wei Huang, Zhenzhen Lin) | 부장: Daisy Zhao K1 (Director: Daisy Zhao)

유년부

유년부 Ministry for Kinder & Junior Elementary (Age: K - 2nd Grade)

비전(Vision): This is Jesus' Church! Matthew 16:18 (ESV) 유년부는 만 5살부터 7살 까지 초등학교 K부터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말씀, 기도, 찬양 중심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는 어린이 2)예수님을 닮아가며 삶의 목적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 3)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1부 - 오전 10:30/ 2부 - 오후 12:30 (First Service - 10:30 A.M. / Second Service - 12:30 P.M.)
장 소: 유년부 예배실-408호 (Location: K & Junior Elementary Ministry Chapel - Room 408)
교역자: 강지영 전도사 (Pastor: Chiyoung Kang) | 부장: 김형섭 집사 Director: Deacon Danny Kim

초등부

초등부 Ministry for Juniors (Age: 3rd - 5th Grade)

비전 (Vision): KAPCQ 교회학교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학생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여 언젠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스스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배와 토론 중심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 1부 - 오전 10:30 / 2부 - 오후 12:30 (First Service - 10:30 A.M. / Second Service - 12:30 P.M.)
장 소: 초등부 예배실 308호 (Location: Junior Ministry Chapel - Room 308)
교역자: 이 오스틴 전도사 (Pastor: Austin Lee) | 부 장: 이재현 집사 (Director: Deacon Jae Hyun Lee)

중등부

중등부 Ministry for Junior High (Age: 6th - 8th Grade)

비전 (Vision) : 또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And how from childhood you have beel acquainted with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2 Timothy 3:15)

주일 예배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시간 : 오전 10:30 - 11:30 (Service: 10:30 A.M. - 11:30 A.M.)
장 소 : 중등부 예배실-401호 (Location: Junior High Ministry Chapel - Room 401)
교역자 : 김성은 전도사 (Pastor: Sung Eun Kim) | 부장: 송인태 집사 (Director: Deacon James Song)

고등부

고등부 Ministry for Senior High (Age: 9th - 12th Grade)

비전 (Vision): KAPCQ 고등부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목적은 예배, 제자 훈련, 전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로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Service: 10:30 A.M. - 11:30 A.M. (예배시간: 오전 10:30 - 11:30)

Location: Senior High Ministry Chapel - Room 317 (장소: 고등부 예배실-317호)

Friday Night Worship Service (금요 예배 안내)

Service: 7 P.M. - 10 P.M. (예배시간: 오후 7시 - 오후 10시)

Location: Senior High Ministry Chapel - Room 317 (장소: 고등부 예배실-317호

교역자: 차평화 목사(Pastor: Nate Cha) | 부장: 송현규 장로 (Director: Elder Hyunkyu Song)

아가페 웨이브

아가페 웨이브 Agape Wave

비젼 : '아가페 웨이브'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 (Lord's Day Worship Service)
예배 시간 Service Time: 12:30pm 장소 Location: Room(209) 아가페 웨이브 실 Agape Wave Chapel
교역자: 김성은 목사 (Pastor: Sung Eun Kim) 부장: 정민영 권사 (Director: Min Young Jung KSN)

그루터기 청년1부

그루터기 청년1부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공동체 비전은

01. 예배 (Worship) 그루터기 청년1부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예배는 주어진 시간의 공동 예배와 함께 청년의 삶 전체를 드리는 전인적 삶의 예배를 포함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다.

02. 봉사 (Ministry) 그루터기 청년1부는 봉사를 통해 각 받은 바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섬긴다.

03. 전도와 선교 (Evangelism) 그루터기 청년1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a) 명하신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 곧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

주요활동: 기도모임, 양육훈련, 수련회, 노방전도

담당교역자:김정민 목사 | 부장: 김광남 집사 | 간사: 이동훈 집사

AW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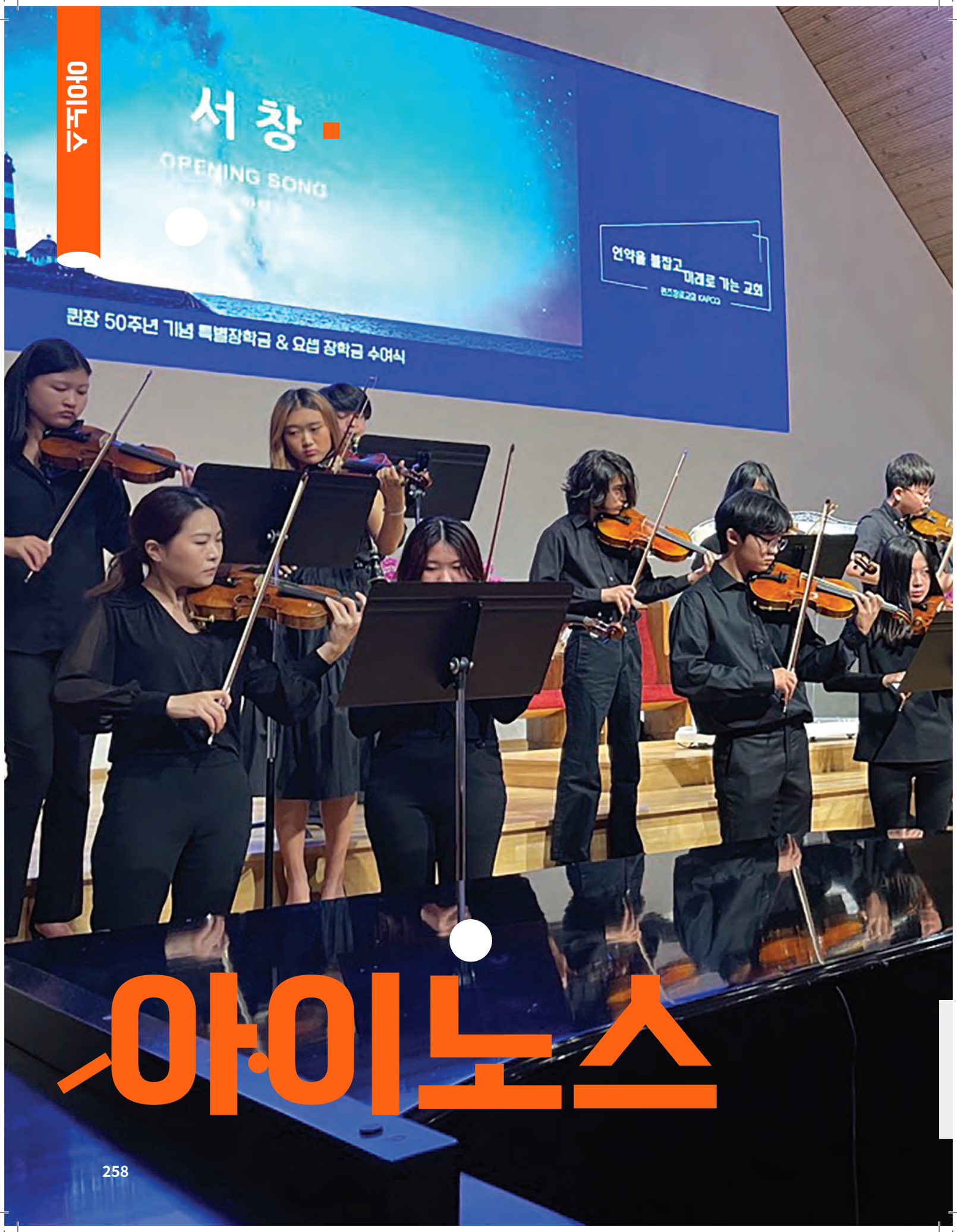
어와나 (Awana)
자녀들을 차세대 영적 리더들로, 복음의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어와나의 다섯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어와나는 '복음' 중심입니다. 어와나는 '성경 암송'이 핵심내용입니다. 어와나는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어와나를 통하여 섬기는 자'로 훈련됩니다. 어와나는 '리더쉽'을 든든히 길러줍니다.
모임시간: 주일 2pm-3:30pm Puggles(2:15pm-3:15pm) 지도: 이오스틴 전도사, 전진영 전도사 외 교사

G2G

G2G (Glory to God)

G2G 어린이 선교 합창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유, 초등부 소년소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와 외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습시간: 매주일 12:20-1:30pm 지휘: 윤두현 선생 반주: 임세현 선생

서 창
OPENING SONG
찬양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는 교회
한국장로교회 KAPCO
퀸장 50주년 기념 특별장학금 & 요셉 장학금 수여식

아이노스

Ainos Youth Orchestra

Ainos Youth Orchestra는 본 교회 유,초등부 (Ainos I)부터 중, 고등부(Ainos Ⅱ)까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예배 및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교회 활동을 위해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매년 2회 정기연주회가 있으며 여름에는 Music Camp를 엽니다.

연습시간: 주일 1:30-2:30pm (Ainos II), 2:30-3:30pm (Ainos I) 지도: 오재혁 선생 및 악기별 Teaching staffs

하늘소리

국악 (파이디온-장구, 하늘소리-난타)

세계 문화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다음세대를 한국의 전통적인 악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Leader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여 다음세대에 리더들로 자라가며 국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려는 목적,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주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하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첫째도 주님께 영광, 둘째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진행합니다.

연습시간: 매주일 1:30pm-2:30pm (장구) 2:30pm-3:30pm (난타) 지도: 허영미 선생, 보조교사: 길정애 선생

하랑예찬

하랑예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찬양)

본 교회의 유,초등부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body worship 팀으로 Senior(초등부)와 Junior(유년부)로 나누어, 율동을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지도 선생님과 매주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랑예찬 주관의 어린이 찬양집회를 합니다.

연습시간: 주일 11:40am-12:30pm　　지도: 송은주 선생

Education Philosophy i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교육부 철학: 다음세대 키우기

Navigating the Future: 전통적인 혁신

차평화 목사

우리교회 다음세대의 미래는 막중한 책임이자 무한한 희망의 원천입니다. 다음세대는 퀸즈장로교회의 풍부한 신학적 전통을 물려받으면서,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른 이념으로 가득찬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본적인 성경이야기를 아는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삶을 성경의 관점에서 볼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에만 초점을 맞춘 아이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세대가 교회를 미래로 인도하기위해 교회는 이러한 핵심 원칙을 명심해야합니다.

변화 및 지속성: 교회 다음세대의 미래의 핵심은 성경 진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입니다. 문화 적규범이 변화하고 사회적 가치관이 진화함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확고한 닻으로 남아 우리 아이들을 명확성과 확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높은 가치를 두어야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음세대가 신앙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행과 교리는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지만 젊은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혁신과 적응을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역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창의성을 배양함으로써 다음세대는 하나님 말씀의 변하지 않는 진리에 확고히 뿌리를 두는 동시에 교회를 전도와 영향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풍부한 신학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교회는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선한 것을 지키고, 더 나은 것을 기꺼이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다음세대의 미래는 변화와 지속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와 멘토: 우리 선진들에게 교회는 종교와 문화, 삶의 모든 부분이 교차하는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장소였고, 24시간 하나의 대가족으로서 삶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인화 문화에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와 세대간 멘토십을 확립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다음세대가 소속감과 활발한 활동을 갈구할 수록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뽐내고 전시하는 갤러리 같은 교회를 찾기보다 죄인들이 모여서 치유를 받는 병원 같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별 행사, 체계화된 사역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여정을 탐구하고, 각자의 달란트와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교회를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시편 78:4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인생의 복잡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앞서 길을 걸어온 노련한 멘토들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구할 때 교회는 이러한 멘토들로 가득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코치나 교사를 넘어 먼저 부모를 존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 멘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 여정을 탐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한 위임과 리더십: 우리는 다음세대가 교회를 위한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세대는 단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입니다. 우리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방향과 사역을 형성할 수 있는 책임을 멘토링하고, 준비시키고, 심지어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필요한 중앙집권적 권위와 함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자원하고, 참여시켜 이 교회가 그들의 부모의 교회가 아닌 그들의 교회가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다음세대의 미래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진리, 교육, 제자양육,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혁신을 우선시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희망과 구원에 굶주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며 내일을 만들어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혁전통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임재를 확신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미래를 맡깁시다.

HA·HA
HEE·HEE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가르치다

이오스틴 전도사

부모이건 봉사자이건 우리 모두에게는 절실한 시급함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돌보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세대 자녀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유혹, 그리고 거짓된 자율성에 대한 이유들로 가득찬 세상에서 계속 걸어갈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영원한 선하심으로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와 부모 모두가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자녀들이 참으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막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이든,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든, 현실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배우게 될 것이고, 어떤 종류의 종교도 구식이고 필요하지 않다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이며, 자신의 뜻 외에는 복종할 사람이 없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은 교과 과정, 자료, 은사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려면 믿음, 구원, 구속, 칭의, 성화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것은 가장 시급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다음세대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와 기초를 명확하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은 항상 성경적 증거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일에 물을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KAPCO JUNIOR HIGH
SUMMER RETREAT
JULY 3-7, 2023
THE
HEALED
SAMUEL CHA

교회가 다음세대에 주는 영향

Catherine Lin 전도사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비참한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자란 후 결국 '마귀'가 되어 자기의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리 고생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양육했지만, 결국은 '마귀'를 키울까요? 저는 다음세대의 유실로 결국 문을 닫는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공회'는 고령화로 인하여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에서도 날마다 '잘못된 인식'을 전하고, 마귀도 '진화론 사상'과 '동성애사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유입시키고 무분별한 성관계, 동성연애관, 이혼과 재혼 등을 보편화시키고 '심리상담'이 '목회상담'을 대체하여 많은 '죄악'을 '병'이라고 해석하고, '유전자 문제'나 '성교육결핍'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중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창한 심리학 이론이 가장 악합니다. 그는 많은 심리적인 병을 도덕 개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성관계에서 자유로워야 많은 심리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는 말세에 나타난 마귀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가 온 후 이 세상에 음란한 현상이 더 심해졌고 이혼율이 높아졌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우리는 먼저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젖을 먹을 때부터 "먼저 기도하고 젖을 먹어야 한다"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딤후 3:15)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그에게 외조모와 경건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구원"은 본래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몇 분 내에 듣고 이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마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집으로 연령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균형 잡힌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 설교, 교회시설, 양육, 행사, 출판물,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무대를 만들어주어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의 포부와 비전과 섬김과 배움을 발휘하여 더욱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다음세대가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학교 아이들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

강지영 전도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있기에 다음세대들이 부모님에게 이끌리어 교회에 나온다.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말귀를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라고 물으면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유년기의 나이부터는 그 질문에 조금 주츰 하기도 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 그런 대답은 아마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지 의문도 생기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보이지 않기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유초등부 나이에 어린이 전도폭발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각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퀸즈장로교회는 꾸준히 전도폭발을 교육해 왔고 교육부도 2016년 첫 어린이 전도폭발 교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하였다. 어린이 전도폭발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심어 주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게임, 드라마, 바디워쉽, 미술활동 등을 통해 암송해야 할 성경 말씀과 예화들을 직접 해보며 실감나게 체험하며 훈련하며 복음 제시해야 할 내용들을 암송하도록 훈련한다.

어린이 전도폭발은 게임을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제시 때 사용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대화를 통해 친구에게 "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젠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셔,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너는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니? 하나만 더 물어 볼께, 만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하며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복음 제시를 시작하는지 교육한다. 복음의 핵심인 천국, 인간(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게 된다. 복음을 듣고 결신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훈련하게 된다.

어린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배우게 되었고 14주라는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볼 수 있고 어떠한 세상의 의심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 전도폭발은 교회 안에서의 훈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 캄보디아, 케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단기선교를 통해 현지 아이들에게 어린이 전도폭발을 통해 복음을 심어 주었고 코로나 펜더믹 가운데 선교를 가지 못했을 때 줌을 통해서도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어린이 전도폭발을 통해 훈련받은 많은 아이들은 지금도 교회, 학교, 양로원, 홈레스셀터, 노방전도, 단기선교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린이 전도폭발은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며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의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다.

퀸즈장로교회 50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된 것 같이 다음세대들도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세워갈 것이다.

부모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전진영 전도사

1:16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느라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율은 부모들이 왜 집에서 성경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현대 사회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 책임은 종종 교회에만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4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의 주요 영적 멘토로 임명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에 새길뿐더러 네 아들, 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집에서 행해지던 아이들의 교육을 대신 맡는 학교가 생기면서 교회에서도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가 생겼습니다.

교회학교의 많은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교회 혼자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성경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도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시 127:3절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으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위임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5-17)

선생님이란 호칭의 '선생'이라는 한자는 먼저 선(先), 날 생(生)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먼저 산 사람'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먼저 산 누군가가 앞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들도 자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우선 그 지식을 경험하거나 습득해야 합니다.

"빈 잔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다"는 속담은 영적 교육에서도 적용됩니다. 부모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깊게 연구하고, 암송하여 그것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기르는 일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부모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데 힘씀으로 다음세대가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길을 열어 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

김정민 목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16)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이 저희는 자신의 생애에 힘써 본받으려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번 연도 퀸즈장로교회는 벅찬 감격 가운데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긴 시간 가운데 다음세대의 비전을 품고 교회학교를 섬긴 교사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서두에 말한 바울처럼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멘토로 삼은 교사들이었으며 학생들은 교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학교 교사들은 보여주었고 또 오늘도 저희가 힘써 닮아가므로 다음세대의 비전을 더욱 더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행하신다.

저희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해 세우셨던 직분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그들의 잘못을 뉘우쳐야 했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므로 무엇이 옳고 틀린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쳤습니다. 다음세대 학생들을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더 나아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 말씀을 통해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때론 훈계를 통해 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 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죄가 있는 백성들을 중보했습니다. 죄가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갔고 여러 제사제도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도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중보인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싸웠던 왕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학생들은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것을 기억하며 먼저 자신이 왕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학생들을 위해 싸우며 이들을 보호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직분이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진 능력과 지혜로 이 직분들을 감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세대의 비전을 성령충만함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받아 교회학교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며 또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퀸즈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CHOSEN
Called From Eternity To Eternity
KAPCQ
SENIOR HIGH
SUMMER RETREAT
Wed. July 5 - Fri. July 7
Speaker: Rev. Isaac Lee

Embracing special needs student

김성은 목사

세상의 가치는 모두 '비교 가치'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쓸모가 있어야 하고, 특별해야 하며, 잘난 것이 있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가시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의 이유'만으로 가치를 인정해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장애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쉽게 '불편'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능적 불편함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안 그래도 불편한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장애만 아니라, 내면적 그리고 영적 장애도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 관점에 본다면 우리 모두는 '비정상'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났고, 육신을 따라가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비정상'이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애가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누가 다른 이를 판단하고, 선을 그며, 이익의 여부를 따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두 공평하게 교육하고, 양육하며, 함께 성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교회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비장애인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기능적 문제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함의 신비'를 가진 유익한 존재다. 그들의 의존적 삶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연약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부르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

1분동안 잠시 몸을 살펴보고,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찾아보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는 온몸 구석구석 필요의 이유를 찾게 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각 지체에서 필요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만약 필요 없게 되는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나의 가족, 나의 지체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고,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는 장애인들도 품으며 가는 교회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12:21-27)

AgapeWave
아가페웨이브

믿음의 계승

황웨이 전도사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서 두각을 나타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선다고 여기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반드시 출세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식적인 교육? 아니면 진리의 교육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의 모든 재능, 지혜, 기술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큰 권세와 지위를 얻더라도 아무런 의미없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 학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부모?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돈만 벌어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학교, 방과후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부모님들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인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부모님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6:1-2]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세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를 닮아 계명을 지키고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고 우리의 다음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번째 계몽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 중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진리가운데 행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정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진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Rekindle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키우는 것

남주인권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물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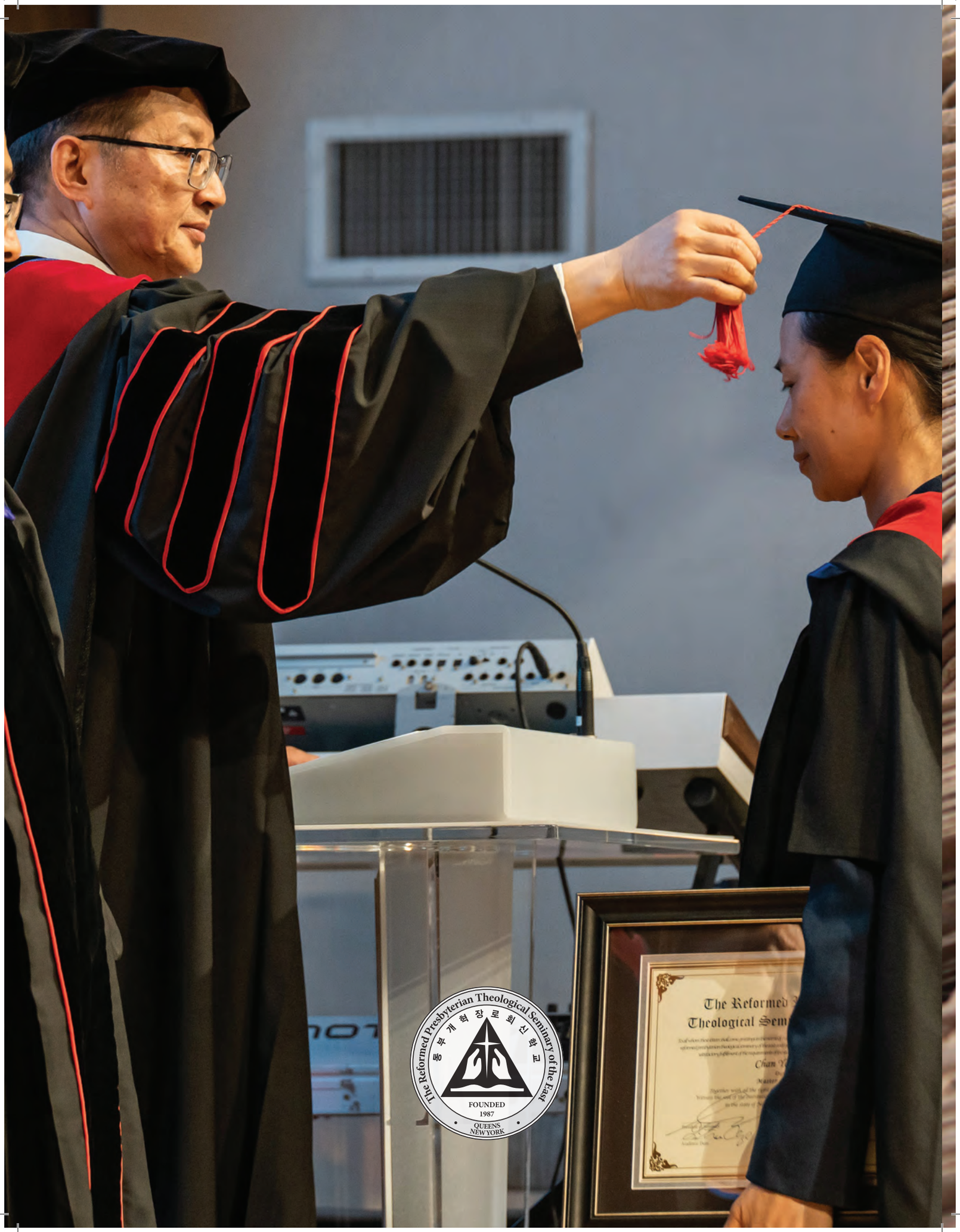
제가 사역하고 있는 특별활동위원회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Original Design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도, 양육하는 부서로, 악기와 목소리, 바디워십, 전통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재능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사용할 때는 아주 겸손하고, 특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감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특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는 것이 바른 재능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연주회나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닌, 자신이 높아지거나 남을 낮추기보다는 예배를 수종 들며,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진짜 목적이라 믿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FOUNDED
1987
QUEENS
NEW YORK

18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미주크리스천신문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신학의 길에 서서

외면한 콜링, 결국 주의 손에 이끌려

임지홍 목사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품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지만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대략 유아부 때부터 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을 하셔서 방과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 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셨고 매일 기도해 주심과 십계, 쿼바디스, 벤허와 같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와 예배에 익숙해져 있던 어느날,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방학때 였습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부흥회는 3일동안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기도제목을 물어보셨는데 저의 기도제목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집회 때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했었지만 방언의 은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날, 방언의 은사가 아닌 그 동안 그저 익숙하게만 알고 교회학교에서 배우며 자랐던 예수님을 생각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기도와 함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저의 신앙의 방황시기였던 대학생 때를 보냈음에도 예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동행하심으로 또 그 동행의 확신으로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콜링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콜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 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할 때에 저에게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셨지만 공대를 지원했고, 대학생 때 편입을 준비할 때 할머니께서 “신학교 갈래?”라고 물으셨지만 유학을 준비하였고, 한국 교회에서 청년부 때 교회 목사님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 주보를 만드는 봉사를 하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야지?”라며 물으셨으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생활과 한의원 개원하고 운영하던 때에 담임목사님의 치료를 돕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꿈에 대해 물어보시고 꿈에 대해 대화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한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신학교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고 목사님께 ‘한국에 있을 때에 신학교에 대한 제안을 여러번 들었고 저의 조부모님의 저에 대한 소망이 의료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까지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신학교에 대한 제안을 다시금 듣게 되니 이게 우연이 아니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수까지 받게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지만 목회에 대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미국에 온 후로 청장년기를 보내고 있는 퀸즈장로교회가 모교회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또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방문하여 선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와 각 기관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전파가 이루지는 것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신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지원 권사

32년전 신학교에 가겠다는 서원을 했었다. 무슨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학공부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도미한 후 그 약속은 희미해졌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서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서원을 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때가 되자 나의 길이요 목자되신 주님은 나를 신학교로 밀어 넣으셨다. 그 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잠든 영을 깨우는 시간이 있었다. 2020년 4월 팬데믹으로 갑자기 조기은퇴를 하고 집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내 죄를 회개 시키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마음이 예수님 없이 예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그 해 가을에 꿈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셨다. 그때는 뜻을 모르고 그냥 일기장에 적어두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2년만에 꿈이 현실이 된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가 꿈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종이에 썼던 일곱 글자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셨다.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이 사명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내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주님께 헌신된 학우들의 마음이 느껴져 낯설지 않았다. 또 놀란 것은 교수님들의 영적인 영향력이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신학교였는데 들어가보니 수준이 높은 것이었다.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애쓰시는 학교의 마음도 알아지고 졸업한 선배들과 설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퀸즈장로교회 등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다.

벌써 2년이 지났다. 왜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약한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까?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루 하루 살아간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찬송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시다. 주님은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신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하나되고,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신부로 빚어지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세부사항은 아직 잘 모른다. 오늘 하루 순종하고 멈추지 않고 걸어갈 뿐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8)

이 땅의 것들은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길이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기를 소원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설희숙 권사

숨가쁘게 살아왔던 삶, 앞만 보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가장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삶의 생활에 매였던 것들이 하나, 둘,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말씀의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편한대로 생각하고 무례하게 행했던 시간들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했던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의지적, 감정적, 외부의 환경까지 분명한 뜻을 보이셨기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멀게만 느껴졌던 아니 감히 생각조차도 없었던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학습은 삶의 깊은 의미를 탐험하고, 믿음 생활을 더 깊이있게 신앙체험을 통해 영적 성장과 새로운 통찰력을 키워가며 더 깊은 신앙과 지식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선교활동을 통하여 연로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며 신앙생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불러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이 말씀 붙잡고 나아 갑니다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는데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기독교 상담, 마약중독, 알콜중독 치유를 위한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상담 기술 및 윤리에 대한 훈련, 경험쌓기 등 필요한 교회와 상담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교훈과 믿음으로 순복하므로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복음전도에 필요한 마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 하셨듯이 저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개혁주의 삶

민준성 집사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단 한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집으로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과 매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학교로 부르셨을 때, 주님 가겠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실패할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신학교는 힘을 빼는 훈련 받는 곳인데, 제 힘이 너무 많이 남아서 빼고 빼도 남아있었습니다. 주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와서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개혁된다는 것은 다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어두운 곳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개혁주의의 기본은 먼저 제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안에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제 삶에 모든 순간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갈망하는 삶이 개혁주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길로? 저는 이 질문을 참 많이 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와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다르며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신학교 중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하나남께 감사합니다. 신학교가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의 걸음을 정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KAPC) 총회 인가신학교로 성경의 영감과 절대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는 1대 학장 장영춘 목사님께서 1987년 9월 15일 개교된 이래 2023년 6월 5일에 제 34회 졸업식까지를 통하여 신학석사(Th.M) 5명, 목회학석사(M.Div) 273명, 기독교 교육학석사(M.R.E) 57명, 선교학석사(M.Miss) 17명, 교회음악석사 5명, 여교역학과 45명, 신학사(B.Th) 149명, 교회음악학사 3명, 총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554명의 졸업생 중에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담임목사 70여명과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 기관 사역자 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질병, 기근과 전쟁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 본질적인 선한 것을 찾기 힘든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복음 사역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령충만한 개혁주의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2대 학장 김성국 목사님의 열정적인 리더쉽과 이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님들의 명강의와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개혁주의 신학 학문을 잘 훈련받고 수학하는 신학생들의 모범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개혁주의 신학교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목사님과 이사님들, 학감, 처장교수님들과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내용 참조는 신학교 홈페이지 https://www.rptseast.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 정기태 목사

정기태 학감, 김신정 실장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복음과 사랑 싣고 세계를 향하여!!

LA 지사장 이성자 전도사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사시를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40년,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며 더 큰 비전 품고 오늘도 달린다"

미주크리스천신문(The Korean Christian Press)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83년 미주크리스천신문 창간 발행인 고 김순명 목사님, 2대 발행인 고 장영춘 목사님에 이어 3대 김성국 목사님을 발행인으로 모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고 있다.

본 신문은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의 사시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제시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동부에 발행인과 편집부, 디자인부가 있어 동부 기사는 물론, 전체적인 편집을 주도하고 있고, 서부에서는 서부 기사와 신문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한호, 한호 16면으로 구성된 신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신문 인쇄는 이곳 엘에이에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진한 잉크냄새 풍기며 도착되는 신문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지나 신생아를 안고 기쁨을 누리는 듯한 설렘을 안겨준다.

신문의 첫 장을 넘기노라면, 한 호의 신문이 발행되기까지 수고한 직원들의 모습과 발행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신문을 위해 구독과 광고로 후원해 주시는 따뜻한 손길, 신문에 귀한 옥고를 보내주시는 필진들의 노고,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까지, 한꺼번에 밀려와 깊은 감동과 감격에 잠기곤 한다.

서부 사무실에는 기자와, 일반 사무업무와 신문 배부 상황을 맡고 있는 직원,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기자는 각 교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일간지까지 들추며 기사거리를 찾느라 늘 바쁘다. LA를 중심으로 오렌지카운티, 토렌스, 풀러턴 등 거리를 불사하고 기자를 부르면 언제든 달려간다. 기자의 발걸음이 아니면 신문은 있을 수 없기에 기자의 사명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을 위한 서명운동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자가 지난 토요일 '주님의영광교회' 세미나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다.

그때 교회 문 앞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주민발의안을 저지 하고 세미나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몰려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마다 신문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필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는다.

뿐만 아니다, 매년 언론협회에서 주최하는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많은 보람도 누린다. 지면 신문의 위기,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속이지만, 신앙 독서운동을 펼치며 이어지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노라면 '참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많은 참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언론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어디 그뿐이랴, 때론 교단과 교회 모임 취재를 가면 민망스런 모습도 간간히 눈에 뜨인다.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단체에서???"라고 놀랍기 그지없지만, 그런 것을 사실대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행여나 이런 기사를 보며 독자들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주춤거린다. 마음 같음 펜이 가는대로 속 시원히 풀어내고 싶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시리라. 우리 신문은 따뜻한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문이 발행되어지는데 필요한 노고가 어찌 그뿐인가? 우리 신문은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선교! 선교는 얻어지는 수익이 없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다. 그래서 늘 투자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처럼 한없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을 위한 투자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광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기도하며 전화를 돌린다. 컴퓨터를 열고 메일을 보낸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이 노력은 우리 신문이 이어지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광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가끔 광고를 내는 대신 꼭 취재해서 기사화 해 달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다. 광고가 나가는 행사를 기사화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조건을 다는 광고는 뭔가 석연치가 않다. 그럴 땐 눈물을 머금고 거절해야 한다. 광고비가 눈에 아른거려 갈등이 없지 않지만.....

그러면서 늘 고개를 길게 빼고 우체부가 전해줄 광고 및 후원금 체크를 기다림은 직원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문서선교 사역은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헌신적인 섬김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의 자세로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보람과 기쁨을 열매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쉽지 않은 문서선교 사역을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퀸즈장로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다. 퀸즈장로교회의 후원이 아니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이 사역이 중단 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쉼 없는 기도를 올린다.

홍정주 집사, 이성자 LA 지사장, 박지수 집사, 박준호 기자

김재상 편집국장, 이국향 실장, 홍현숙 편집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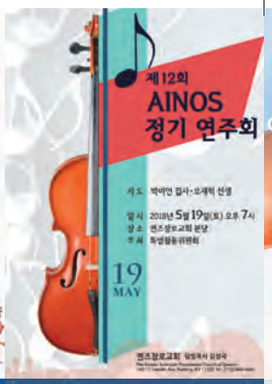
291

선교바자
2015.5.30 토요일 Saturday
함께하는 선교
BAZAAR

예루살렘 구석구석 순례길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지순례
예수 품은 순례길
2015. 8.9 주 - 15 토
ONLY all-inclusive $2,100 50 PERSONS

예배와 삶이 있는
2015 전교인 여름수련회
주제
하나님의 마음
은혜 + 거룩 + 드림
강사: 한철호 목사
6월29일(월)-7월1일(수)
HUDSON VALLEY RESORT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2016년 2월 15일(월) - 3월 27일(주)

제1회
G2G Glory to God
찬양발표회
"다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일시 1pm Saturday, June 9, 2018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주최 퀸즈장로교회 특별활동위원회

제12회
AINOS
정기 연주회
19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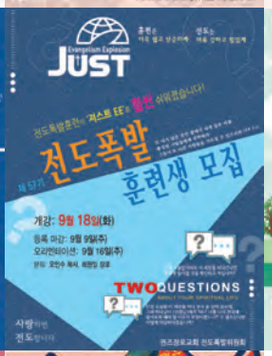
10월 22-27일 오전 5:45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가을 새벽 부흥회

퀸즈장로교회
고혈압.중풍 심장마비를 대비한
건강세미나
2018년 6월16일(토)
오전 7:30 - 8:30
퀸즈장로교회 만교실

FISHING
Brooklyn Sheepshead Bay
퀸장 친목 낚시 대회
2018년 8월 11일(토)

2018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7월 2일(월) ~ 7월 4일(수)
Sheraton Parsippany Hotel

퀸즈장로교회
오픈탁구대회
2018
OPEN
PING PONG
TOURNAMENT
2018년 6월 10일(일)
SUNDAY JUNE 10
퀸즈장로교회 체육관


JUST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개강: 9월 18일(화)
TWO QUESTIONS

2018 여선교회 수련회
말씀이 여 말씀으로 사는 사람
강 사 : 이동진 목사
2018년 4월 2일(월)-3일(화)

함께하는
선교바자
Missionary Bazaar
2018. 6. 2 SATURDAY
6:30 AM - 7:00 PM

2020 KAPCO
VIDEO MAKING CONTEST
2020 퀸즈장로교회 영상컨텐츠 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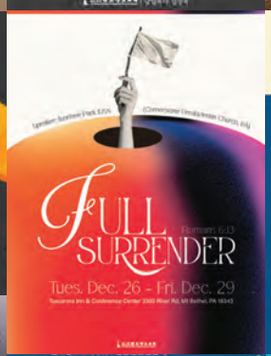
전교인
여름
수련회
2018
6.30(토)-7.2(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

JESUS
The 7th Concert
One Way Jesus!
JUNE 15TH SATURDAY 7PM

2019.10.27
BHGBb
AGAIN
어게인 重新

Writing
a SeRMoN
Contest
KAPCO 45th Anniversary
Scholarship Award


FULL
SURRENDER
Tues. Dec. 26 - Fri. Dec. 29

살아계신주

TRANSLATION
2021 퀸즈장로교회 통번역 경연대회
KAPCO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Contest

은혜 입은 자의 삶

GIVE
You
EVERY PLACE
WHRER YOU SET
Your Foot
JOSHUA 1:3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PRAISE
THE
LORD
JUBILEE
ENSEMBLE
CONCERT
JUNE 18, 2023
주빌리앙상블 찬양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8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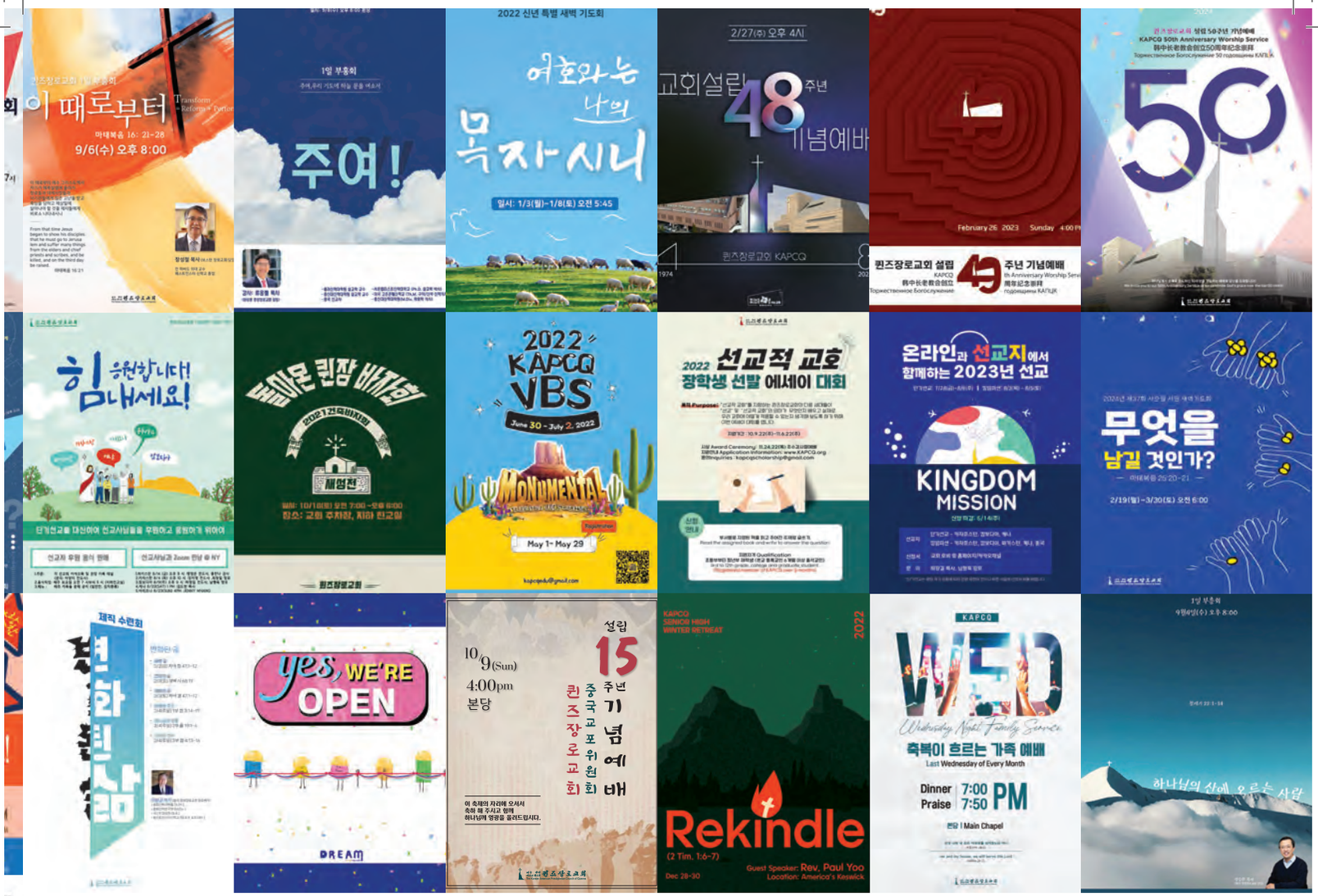
메시아 맞으라
메시아 전하라
MERRY CHRISTMAS!
2021년 12월 19일 (주) 오후 4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WHEN: 07.04 (화) - 07.05 (수), 07.09 (주일)
WHERE: 퀸즈장로교회 본당
김정희 사모
이기영 전도사
우혜림 간사
강사: 손경민 목사
CCM 작곡가 (은혜, 행복, 충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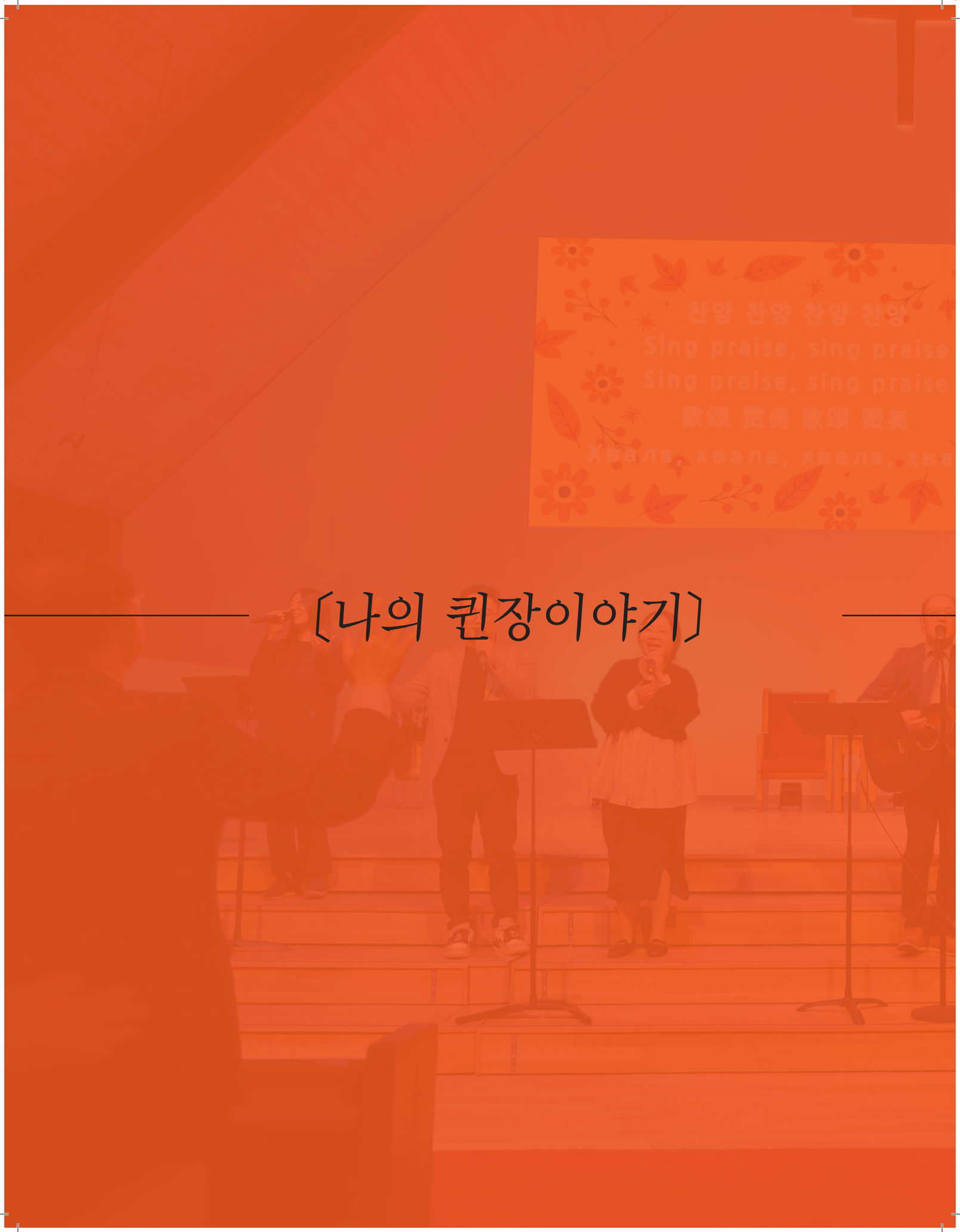
설교문
Writing a SeRMoN Contest
쓰기 대회
퀸즈장로교회 설립45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 대회

2020년도 제직 수련회
미래를 여는 사람

2023.04.09
4:00 PM
부활
마지막 시간, 영원한 승리


이 때로부터
9/6(수) 오후 8:00
주여!
2022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시: 1/3(월)~1/8(토) 오전 5:45
2/27(주) 오후 4시
교회설립 48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 KAPCQ
퀸즈장로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예배
February 26 2023 Sunday
50
힘내세요!
2022 KAPCQ VBS
June 30 - July 2, 2022
May 1- May 29
2022 선교적 교호
장학생 선발 에세이 대회
온라인과 선교지에서 함께하는 2023년 선교
KINGDOM MISSION
무엇을 남길 것인가?
2/19(일)~3/30(토) 오전 6:00
yes, WE'RE OPEN
DREAM
10/9(Sun) 4:00pm 본당
설립 15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
Rekindle
(2 Tim. 1:6-7)
Dec 28-30
Guest Speaker: Rev. Paul Yoo
Location: America's Keswick
KAPCQ
WED
Wednesday Night Family Service
축복이 흐르는 가족 예배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Dinner 7:00
Praise 7:50 PM
Main Chapel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
THE WAY
KAPCQ VBS
우리의 친구되신 하나님을 만나요!
6/27(목)-29(토)
SCUBA
등록기간: 5/5-5/31
Let Us Magnify the LORD
2023
METAVERSE
online seminar
메타버스 온라인 세미나
일시: 2/20(주) 오후 6:00
Zoom ID: 4314160978 Passcode: 3927
임직 감사 예배
내가 사는 이유
The Reason I Live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PERS
설립 47주년
장학생 선발 글쓰기 대회
한 줄 인생
10/19(수) 오후 8:00 본당
Alive in Christ
Ephesians 2:4-5
JESUS
February 19th-21st, 2023
Guest Speaker: Pastor Timothy Lee
거기 빛이 있었고
And there was light
2022 성탄 축하 찬양제
12/11(주) 오후 4:00
"무엇으로 봉사 하고 계신가요?"
성령으로 봉사하자
5/15(월) ~ 5/20(토)
오전 6:00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1/2(화) - 1/6(토)
오전 6:00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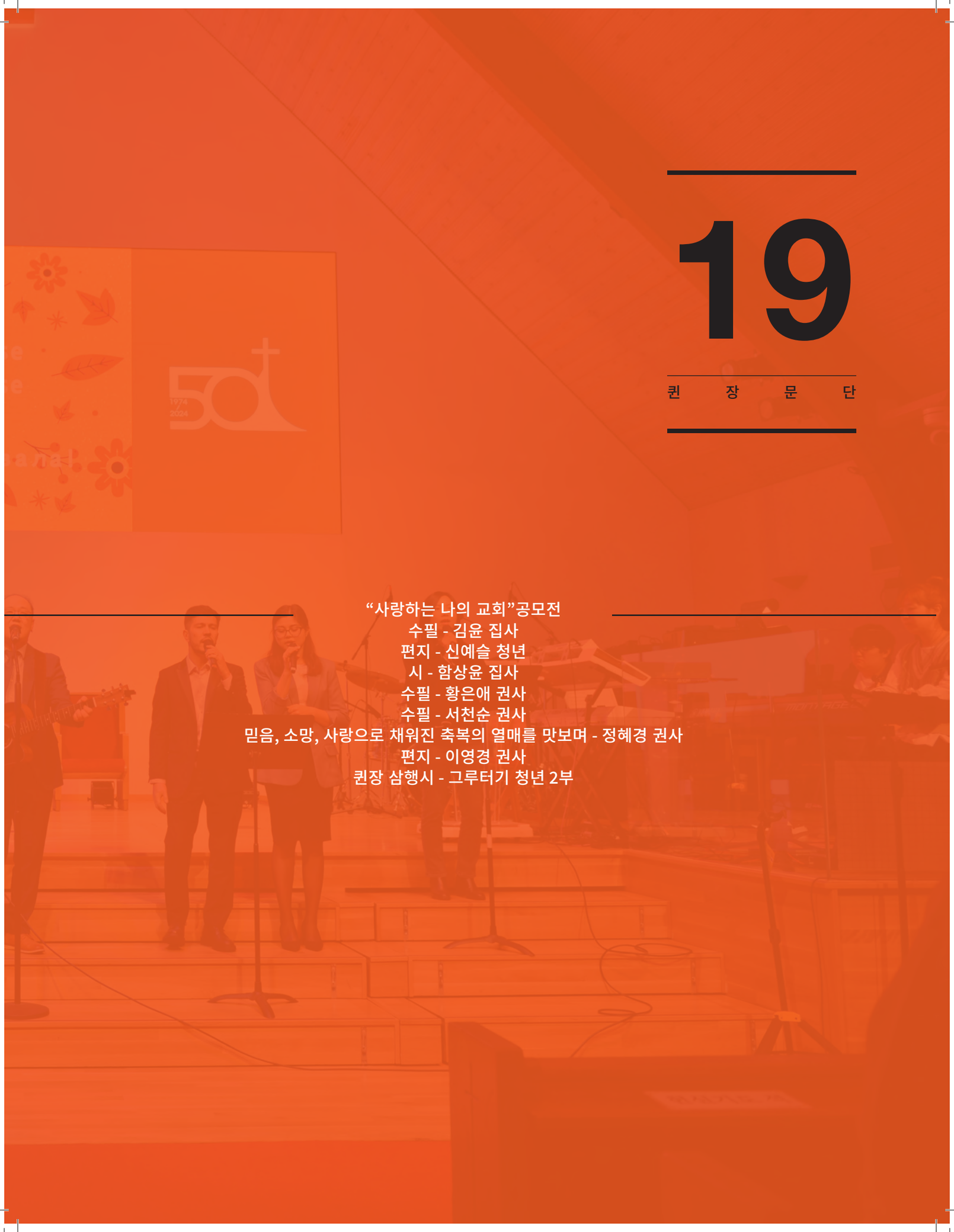
포스터로 담은 퀸장


찬양 찬양 찬양 찬양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歌颂 赞美 歌颂 赞美
хвала, хвала, хвала, хва

〔나의 퀸장이야기〕

19

퀸 장 문 단



"사랑하는 나의 교회"공모전
수필 - 김윤 집사
편지 - 신예슬 청년
시 - 함상윤 집사
수필 - 황은애 권사
수필 - 서천순 권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 정혜경 권사
편지 - 이영경 권사
퀸장 삼행시 - 그루터기 청년 2부

김윤 집사

사랑하는 나의 교회

꽃을 사려고 꽃집에 들렸습니다. 예쁜 꽃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구석진 곳에 거의 죽어가는 잡초같은 풀덩이가 마음에 거슬려 결국 사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 가장 눈에 띄이는 자리에 놓고 매일매일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어제나 오늘에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 풀덩이를 보며 남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았고 매일 꽃에게 물을 주며 대화도 하고 찬양도 불러 주었습니다.

사실 그 꽃이 처음 내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내 모습 같아서 였습니다. 세상속에 방황하고 있는 부족하고 능력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의 퀸즈장로교회로 부르셔서 섬김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풀덩이 같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자였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 주시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 잡초같은 풀덩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 자라나 어여쁜 꽃을 피우듯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지을자가 누구 있을까요.

오늘도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저를 불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신예슬 청년

사랑하는 나의 교회

18살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나에게 한인교회란 너무도 친숙하고, 나의 미국 생활에 있어서 빠지지 않았던 나의 일상 중 하나였어.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따뜻한 분위기, 맛있는 밥, 건전한 놀이문화 였을 뿐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였어. 6년이란 군대생활을 마치고 아직 사회에 완벽한 적응을 못했던 때에 난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오자마자 처음 만난 교회가 바로 퀸즈장로교회야. 큰 기대 없이 찬양이 좋았던 나는 그날 바로 새 교우 등록을 했고 그렇게 나의 퀸장 생활이 시작되었지. 미국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이것저것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 뉴욕이란 대도시에 살아보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두렵고 매 순간 긴장을 해야했던 나는 유일하게 교회를 나올때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너무나 알고 싶어졌어. 그 마음이 간절해진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서 그 분과 친해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셀 리더가 된 나는, 리더로 나를 뽑아주신 덕분에 말씀 공부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었고, 리빙리버 찬양팀 싱어로 세워주신 덕분에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었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나에게 그저 사랑만 주었어. 어떠한 편견도 시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식구가 되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이 공동체로부터 받았고, 그렇게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나, 신예슬을 위해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를 이 교회로 불러 주셔서 끝끝내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거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퀸즈장로교회, 내가 속해 있었던 이 공동체를 나는 이제 떠나야 해.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하실 것을 알기에 슬픈 마음보단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할게. 너무 고마웠어 퀸장. 이 교회를 위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줬던 모두를 위해 언제나 기도할게. 그럼 안녕!

함상윤 집사

저 담장 너머에

차가운 담벽 아래 그늘진 땅에
넘실 넘실 바람타고 실려와
조심스레 뿌리내린 씨앗 한 톨
남 몰래 싹을 틔우려
이슬을 머금고 별 빛을 담아낸다

한 낮의 고난 한 밤의 외로움에도
한 날, 한 날
쉴새없는 눈물과 기도
더없이 맑은 소리로 부르짖음이여

세월은 가지를 뻗치고
가지는 이파리를 피워내고
이파리는 조심스레 꽃망울을 보듬어 내어

어느새 담벽 위로 고개를 내민 열매 하나 둘…
그 향기가 바람에 실려
저 먼 동쪽, 그 보다 더 먼 북쪽으로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나보다

사무치게 그리워 하던 담장 너머
해 높게 뜬 먼 하늘 어딘가
우리 주님 타고 오실
커다란 구름 한 조각

곱디 고운 빛깔로
색칠 하듯이 바라보자
빨강 노랑 초록
그렇게 부지런히 열매 맺어보자

황은애 권사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는 한국에서 믿음으로 잘살아 보겠다는 다짐으로 결혼하고 1979년 2월 15일에 뉴욕으로 와서 돌아오는 그주일에 남편과(황동아 집사) 시어머님(김승원 권사)의 손에 이끌려 퀸즈장로교회에 (그때는 센포드 149가 루터란 교회) 등록했으며 퀸장에 시집온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장미은 사모님의 수요주부성경공부를 통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으며 고 장영춘 목사님의 신앙훈련과 말씀을 통해(전도폭발 및 소그룹지도자 공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잘 배웠으며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때 김성국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도 믿음의 열정으로 늘 도전을 주셨으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믿음의 여운을 남기시고 홀연히 한국 대전으로 가실 때 무척 섭섭했지만,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복음 전하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8년 만에 다시 우리 성도들 앞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으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퀸즈장로교회는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교회이며 예수님을 알게 해준 교회이며 영아부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봉사하게 한 교회이며 찬양대에서 찬양하게 한 교회였으며 나의 젊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교회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변함없는 믿음생활로 김성국 목사님께서 다시 오신 후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믿음이 장성해 갔으며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 합니다.

지난 30주년 축하예배 때도 우리 찬양대가 그 유명한 맨해튼 카네기홀에서 메시야를 찬양하므로 뉴욕 맨해튼을 놀라게 했고 그때 찬양하던 모습들이 지하 친교실에 큰 액자로 걸려있어 함께 찬양했던 분들과 나의 젊은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지난 50주년 기념예배 때도 롱아일랜드 Tilles center에서 다민족과 200여 명의 찬양대원들과 어린이들까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조국을 그리워했던 찬양 뮤지컬로 그 시대의 옷을 손숙자 권사님이 디자인하시고 김미견권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옷을 모든 찬양대원들이 입고 찬양하니 더욱 실감나는 찬양이었으며 1부 예배는 네 분 목사님(김성국 목사님, 첸위지 목사님, 김도현 목사님, 송요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각 언어의 말씀이 있었고 2부 축하순서로 마지막 찬양은 찬양대원과 다민족찬양대원, 어린이 찬양대원 모두가 함께 강혜영 지휘자님의 혼신을 다한 지휘로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를 4개 국어로(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찬양할 때 감사와 감격이 복받쳐 눈시울을 적시며 찬양했어요. 내 나이 칠순이 훨씬 지나 The Way 찬양대에 참여하여 다른 언어로 외울려니 몹시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니 저절로 외워져 찬양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교회를 누구에게나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다민족이 함께 하는 교회)
목사님 자랑(말씀은 칼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며 제단에서 내려오시면 모든 성도의 친구가 되시는 사랑의 사도)
교육부 자랑(주일학교는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가르치는 말씀의 맥이 이어집니다)
특별찬양대 자랑(킹스콰이어, 그레이스콰이어, 헤리티지콰이어, 블레싱콰이어, 글로리아 콰이어)
바자회 자랑(남녀 20개의 선교회원들이 성령으로 하나됨)
훌륭한 리더들의 자랑(믿음과 재능을 갖춤)

서천순 권사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의 친정

우리 교회는 나의 이민 역사와 같다. 1978년에 남편과 단둘이서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도착하여 Franklin Avenue에 있는 퀸장에 등록하였다. 세 딸 모란, 아란, 세란이를 낳고 세 딸을 모두 백일. 돌잔치를 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키웠다. 주일학교에서 귀한 선생님들의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모두 결혼하여 지금은 4명의 손주가 잘 자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퀸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5년 전에 남편이 아플 때도 천국으로 먼저 홀연히 떠났을 때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의 배려 없이는 헤쳐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믿음이 부족하여 제정신이 아닌해로 2~3년을 보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의 몫을 감당하려고 하니 70이 넘어 은퇴 권사가 되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 주시면 먼저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다 가고 싶다.

모태신앙으로 예나 지금이나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한 교회만을 67년 섬기신 친정어머니처럼 퀸장에 깊이 뿌리박고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다. 우리 교회만큼 말씀에 바로 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3대 목사님이신 김성국 목사님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진액을 짜는 듯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정신이 번쩍 든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다.

정혜경 권사

“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곳은 어디일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소망가운데 살아가는 그곳은 바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아닐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세 곳의 복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곳을 통하여 넘치도록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나의 첫교회는 태어나서부터 11년 가량 사랑의 소낙비를 맞으며 자라온 작은 농촌에 있는 교회이다. 구름이 쉬어갈 만큼 높다란 종각에서 울려 퍼지던 종소리가 유난히 정겨운 그 교회에 가득한 이야기들… 따스한 봄에 가던 야외예배와 풍성한 추수감사절, 즐거운 성탄절의 기억 중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의 성탄절이 더욱 뚜렷하게 떠오른다. 그 때 ‘주는 기쁨’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을 했는데 그 연극을 통하여 어린 나이에 주는 기쁨을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두번째 교회는 서울로 이사해서 결혼할 때까지 15년 가량 다녔던, 아직도 친정가족들이 섬기시는 가파르고 높은 돌계단이 인상적인 교회이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1주일 동안 여름성경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을 맡아 함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너무나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일주일이 꿈같이 지나 마지막 날 저녁에 평가회를 했는데 내 차례에 정들었던 아이들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끼던 웃지 못할 기억이 엇그제인양 떠오른다. 그 1주일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33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세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사랑하는 나의 교회는 결혼과 더불어 무지개빛 꿈을 안고 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퀸즈장로교회이다. 처음 이곳에 왔던 2-3년 동안에는 미국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장목사님의 조용하면서도 강한 메시지와 찬양대의 힘찬 찬양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첫 아이를 태의 선물로 받고부터 성경 문답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 여선교회 주최로 있던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고 또 목사님께 칭찬을 받으며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50년전 이른 봄에 어른 네분과 어린이 세명이 얼어붙은 땅을 파고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교회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싹이 트고 자라나 이제는 튼튼한 거목이 되어 숱한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에 감사가 넘친다.

11년전 가을에 주님의 섭리가운데 다시 본교회에 오신 김목사님과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향한 거룩한 주님의 비전을 주셔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다민족이 함께 각기 다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교회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하다. 그동안 그리운 본향에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으로 맺어진 탐스러운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며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쳐 흐른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심장을 지닌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다가오는 50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최경선 권사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나는 지난 몇 달간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에 나는 그의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유머스럽게 보이려다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 한사람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한적 있기에 그가 내마음을 알아 볼가 싶어 마음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자리에서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들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 말로 나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입니다.
그 시간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아주 다정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포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에는 다른 원인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를 찾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익에서 멀어 질까 두려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것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함부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가는 관계가 곧 숨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갓난 아이와 같고 갓 솟아난 연한 새싹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이 오로지 한곳에 집중하기를 멈추는 순간 ….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리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해성 장로

당신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지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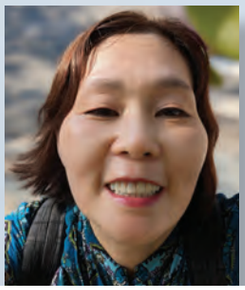
나는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하던 때가 있었다. 나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책망하였다. 때론 믿는 자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과는 괴리감이 있고,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유롭지 못하니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때론 아팠고 때론 그 아픔마저 회피하였다.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상처받았다.

어느날 나는 교회를 떠나 교회로 돌아왔다. 완벽한 이상적인 교회를 떠나 흠 많고 허물 가득한 교회로 발길을 돌렸다. 천사만 가득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세리, 과부, 고아, 버림받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향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는 곳,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께 의지하는 이들이 모인 곳, 죄를 용서받고 싶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싶은 간절함으로 모인 이들 함께 하는 교회를 찾았다. 물리적인 교회 이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존재하는 교회의 기준이 바뀌고, 교회의 주역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는 변화였다.

"당신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지 아시나요?" 내가 이따금 내뱉는 행복한 푸념이다. 그렇다. 퀸즈장로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열성으로 쌓아올린 전통과 신념이 곳곳에 녹아있는 교회이다. 사순절이나 바자 때면 성도들의 열성과 헌신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배를 최우선으로하며, 찬양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며 열정과 사랑이 충만한 담임목사님을 필두로 솔선수범을 몸으로 보여주는 장로님들, 헌신과 봉사가 몸에 배인 권사님들, 교회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교회 사역을 챙기는 집사님들, 선교를 숙명처럼 받아 들이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퀸장의 구성원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은 상처를 치유받는 병원같은 교회라는 존재감이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부르심 받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퀸장이다. 허물을 감싸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며, 아픔을 위로하며,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 결심하게 하는 곳이다.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다. 질타보다 응원이, 꾸중보다 칭찬이, 시기보다 축하가 있어 위로받고 재생되며 재활하는 교회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아픔, 상처, 과거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좋은 것만을 칭찬하고 간증한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머물기 어렵다. 세상에서의 고통과 낙심이 치유되고, 용기얻고 분투를 다짐하게 된다.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에클레시아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온다할지라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예수그리스도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다. 퀸장은 병원이다. 나도 치료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퀸장'이다. 내 사랑 퀸장!



이영경 권사

사랑하는 퀸장에게

내가 너를 통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호감만큼 주님께 호감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너를 점점 안 보게 됨으로 주님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너와 주님께 한마디의 말도 없이 떠나버렸지. 너와 주님을 떠난 후에 행복과 기쁨도 있었지만, 고통과 상처, 배신감이 더 컸어. 결국 상처를 안고 너와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를 띄며 언제 내가 너와 주님의 곁을 떠나는지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주었지.

얼마 안 있어 내 마음속의 상처는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슬픈 나의 얼굴은 점점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 한참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나는 더욱 너와 주님을 찾으며 울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지. 계속 울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 주님께선 나에게 위로를 건내며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셨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해결되었어. 그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 엄청나게 감사드렸지. 그 뒤에도 많은 아픈 일이 있었지만 늘 그랬듯이 너와 주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구했고 변함없이 도와주셨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지. 이제는 너와 주님 없이는 한 시도 살 수 없고 너와 주님을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너와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었어. 너와 주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거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 줘서 고마워.

팬데믹 때 너를 한참이나 못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항상 잠겨있는 문 앞에서 너의 모습을 보고싶어 한참이나 서 있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제발 너를 만나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너도 날 못 봐서 슬펐지. 너를 다시 만날 때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었는지…, 이 모든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렸지. 지금은 널 보고 싶을 때 실컷 볼 수 있는데 너와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또 식은걸까? 너 같이 애절함이 덜한 것 같아 또 미안해. 너와 주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가끔 나는 사랑의 온도가 왔다 갔다 하네. 그래도 내가 너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알지.

퀸장아! 벌써 50년의 생일을 맞이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 너는 참 기특해. 한참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너가 되기를 노력하고 실현도 했지. 성전건축과 교육관 걸립, 선교하는 일도 잊지않고 50년을 달려온 너에게 참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너! 이제는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또한 주님 오실 때 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50년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기도하며 응원할께.

퀸장아! 그거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너가 어떤 큰일을 할지 기대가 커. 사랑하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너처럼 늘 네 곁에 변함없이 너를 믿으며 함께 할께. 아주 조그만 힘이지만 주님의 비전을 위해 보탤게. 앞으로 잘 해 보자. 같이 늙어가는 우리, 너랑 동행할 수 있어 너무 기뻐. 우리! 행복하게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보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 까지 달려보자.

그루터기 청년 2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퀸장 삼행시

퀸: 퀸즈에서 가장
장: 장수할 교회 퀸즈장로교회

- 윤혜진 -

퀸: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은
즈: 즈을겁고 신나게
장: 장구치듯이 뛰며 찬양하며
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 회복되고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네

- 박민아 -

퀸: 퀸즈장로교회는 월 하든
장: 장난 아님!

- 이국향 -

퀸: 퀸즈에서 살면서 서른
즈: 즈음에 이 나이에도 청년으로 퀸즈
장: 장로교회에서 새
로: 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 교회생활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기
회: 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 김현정 -

퀸: 퀸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즈: 즈을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장: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로: 로제 떡볶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교: 교장 선생님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청년부
회: 회장님 대신 한마디 할게요.
"믿음으로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미래의 청년부 파이팅!"

- 장연재-

퀸: 퀸장 떠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너무 그리워요
장: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퀸장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 신예슬 -

퀸: 퀸즈장로교회
장: 짱이다!

- 황현희 -

퀸: 퀸즈장로교회 청년부에 오시면
장: 장연재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 최지은 -

퀸: 장은 뉴욕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즈: 즐즈즐(구질구질의 옛말)하게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장: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로: 로드가 때론 험난하고 ,외롭고,어렵더라도
교: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흥될 거라고 믿습니다
회: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 이유정 -

유년부- "사랑하는 우리교회" -2학년

유년부- "사랑하는 우리교회" -2부예배

유년부- "사랑하는 우리교회" -2학년

유년부 - "사랑하는 우리교회" - 킨더가든

사랑하는 우리교회

배하영

Ryan Park

"KAPCQ is like a second family but as Christians, I feel safe and that the church is strong in the Holy Spirit. KAPCQ is a place that I feel like I can come to anytime and worship God to feel at home in heaven. KAPCQ is a place where I can come together with friends and have fellowship too!"

Christopher Chin

"KAPCQ is my lifelong church, so it definitely means a lot to me. KAPCQ means a place to worship God freely, a place to listen to God's word through Pastor Austin (the best pastor of KAPCQ), and pray. I also really enjoyed the winter retreat and the 2023 Stellar VBS. This church holds many special memories for me and I wish to never leave here!"

Victoria Lee

"KAPCQ means goodness to me because it teaches me about God and helps me learn about Him better!"

April Song

"KAPCQ means worshiping and praising God to me. I like it because praising God means I get to go to 하랑예찬 and learn new songs. Also worshiping God means I get to learn about Him, go to church, and be able to know Him while having a relationship with Him. KAPCQ, happy 50th anniversary!"

Jace Lee

"To me, church means being able to meet God, and to know him more. It means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and praise Him and appreciate what He has done for us during our LIVES. Being in the church community helps me grow together with my friends and learn how to love and work with different people. Congratulations to KAPCQ for your 50th Anniversary! All glory to God!"

이 슬 Taliah Lee

저는 14년전 퀸즈장로교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며 많은 성장을 거친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많은 성장을 거쳐 이렇게 50주년을 마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왔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들 간절히 외치며 눈물을 흘린 기억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해 하고 있던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하였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한명 한명 큰 미소를 짓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한번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겁게 찬양 할 수 있는 한 가족만 같은 중등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위한 The Way 뮤지컬 예배를 통해 또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퀸즈장로교회에 CM과 RM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솔직히 별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The Way 당일날 마지막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부르며 크게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우리들을 갈라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여러 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 한다는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고등부로 올라간 저도 또 조금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 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각 부서에서 모여 나의 문화, 그리고 언어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 할 수 있게 하는 퀸즈장로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퀸즈장로교회 50주년 축하합니다!

이준서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희 가족은 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퀸즈장로교회로 왔습니다. 이민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50주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외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지어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최준영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만 하던 저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한 번 나가 보라는 친구의 조언을 시작으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온 날, 신기하게도 친절하게 맞아 주시는 분들에 한번, 그리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 50주년 The Way 합창대에 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지만 50주년이라는 대단한 업적에 한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합창단을 하면서 느낀 점은, 50년동안 이어져온 그 기독교 정신과 그 믿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시간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를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이 교회가 더 오래, 더 크게 성장해서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여기에 뿌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50년동안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교회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앙과 마음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빚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l Kwon (권율)

Congratulations on Kapcq's 50th birthday! The shared memories I have made throughout the years at KAPCQ has allowed me to grow in my faith and in our loving community. This church has always felt like a 2nd home to me. From Sunday services to fellowships, and Friday nights, I have had a great time creating countless memories. I am looking forward to see how this church will continue to grow in its faith, love and community.

Chloe Song (송예은)

Huge congratulations to KAPCQ's 50th birthday! Though I may not be 50 years old, I have spent my entire life faithfully serving KAPCQ. Every Sunday, I am excited to learn more and more about God and improve my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friends, pastors, and amazing teachers. As our church just recently went through such a remarkable milestone this past winter, I am beyond proud and grateful for KAPCQ allowing me to grow under God's name as His daughter.

Charis Choi (최채린)

Congratulations KAPCQ!

The church has served as my family and second home. The community and the love that fills the church truly inspires me in my pursuit to knowing Jesus. This church has given me comfort and reminds me of God's love shown through the ministries that come together to spread the word of God. I hope KAPCQ continues to prosper and foster a community of faithful Christians. Congratulations for 50 years!

Rebecca Song (송예진)

Congratulations to KAPCQ for its 50th birthday! After being raised in this church, I have learned to walk with God, and I have truly felt blessed to receive such a loving and supportive community surrounding me. I feel that this is a huge milestone as a testament of faith and love a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for half a century, and it is an honor to acknowledge the past and the future of this church. I thank God for helping this church to thrive and here's to many more blessings that lie ahead with KAPCQ!

〔영적고향 : 퀸장〕

에벤에셀의 하나님,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국환 장로
메릴랜드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계셔서, 1970년 초부터 이민의 물결이 일기 시작할 때에 이곳 뉴욕 퀸즈에 영적, 육신의 안식처로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시어 이민 생활의 힘들고 고달픈 삶을 달래며 위로하고 정착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과 사랑충만으로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였을 때에 감사충만을 더하여 5대 충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성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어떤 유혹이나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44년 동안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의 사정으로 정든 고향같은 교회를 떠나 메릴랜드 주로 작년에 이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김성국 목사님께서 장미은 사모님과 모든 교역자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더불어 토기장이 카페에서 의미있는 송별회를 베풀어 주시며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에게 오래 기억되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어 다민족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케 하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끝임없는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계승자들로 세워진 후배들과 잘 연합하여 다시 나아갈 50년을 기대하며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근우 장로
버지니아주에서

내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나의 영원한 본향 퀸즈장로교회를 하나님 은총으로 장영춘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50년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989년 8월 롯과 같은 적신의 몸으로 뉴욕 도성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하룻밤을 의탁할 움막과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만나 대신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하셨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의 시작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난으로 하루 14시간, 7일 동안 멸시와 천대, 모욕은 나락에서 떨어진 환란의 삶,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삶에 변곡점이 되도록 새로운 거처를 제공하여 주며 운전면허 취득을 하게 해준 은인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알선하여 주며 거래처에 지불보증을 해준 은인, 새로운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큰 자금을 차용해준 은인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일했던 선임자에게 모든 거래처를 양도받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새로운 뉴욕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첫아들 상협이의 출생 2일만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위중한 수술을 해도 생명을 5년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말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날, 길자연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셔서 “주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며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시기에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한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 아들은 장성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에 길자연 목사님의 권면으로 등록하게 된 퀸즈장로교회는 말씀충만, 성령충만, 기도충만, 감사충만 뿐 아니라 사랑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가족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고 장영춘 목사님과 장미은 사모님께서 말씀으로 훈련해주시고 기도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받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영춘 목사님의 특별하신 차세대교육으로 뉴욕교계에 선구자격인 교육부에서 상협이와 상현이가 잘 교육받고 성장하여 목사와 안수집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김도현 목사님께서 필리핀 협력선교사로 상협목사를 세워 주시고 온 교회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 역시 시무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날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모든 교역자분들, 장로님들과 권사님, 온 교우 여러분을 가슴에 담고 그 시절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 삶에 고난과 흘린 눈물을 다 씻기시고 평생에 그리던 노년의 삶을 버지니아 비엔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퀸즈장로교회 가족분들께

이승조, 양찬미 집사 가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에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이승조 집사와 양찬미 집사 그리고 하준, 하언이 가정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리운 분들이 너무 많아 정작 어디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드려야할지 막막했는데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을 맞아 축하와 함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2022년, 퀸장의 온가족이 함께 하는 사순절 새벽예배를 마치는 성금요일에 한국에서 친정아버지께서 예후가 좋지않은 암진단을 받았고 앞으로의 과정이 많이 힘들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남동생가정도 해외에 있어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렵기에 신랑과 저는 기도가운데 한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10년을 넘게 가족처럼 함께했던 퀸장을 물리적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퀸장의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토요일 총동원 새벽예배는 저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뜨거운 기도 후 먹는 토기장이의 김밥과 주일의 뜨끈한 국밥으로 한 주 한주를 지냈었고, 열정적인 김성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집사와 저는 영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뉴욕에서 태어난 하준이, 하언이는 교회학교를 통해, 어와나와 어린이 전도폭발, G2G 등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은혜를 듬뿍 받으며 성장했습니다.(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역예배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자의로, 때로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했던 여러 훈련(제자,영성,사역,전도폭발 등)을 통해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기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권면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육아로 힘든 시기에 '갓즈윌'이 생겨 또래 가정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많이 그립습니다. 아직도 저의 몸과 마음은 봄과 가을이 오면 알람을 울리듯 바자회의 갓즈윌 '돈까스'를 떠올리며 퀸장의 문화가 저의 DNA에 새겨진 걸까 생각하며 미소짓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눴던 퀸장과 갑작스런 이별을 하고 한국에 도착한 첫 주일,네 식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퀸장을 떠나기 2주 전에 퀸장을 방문하셨던 김승욱 목사님의 교회가 저희 집에서 25분 거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퀸즈로 늘 한시간을 달려야 했던 것을 생각하니 "오, 가깝다!" 하며 우선 그 곳에서 예배드리며 정착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큰 교회에서 예배 후에 김밥을 사먹으면서 "여기가 토기장이 카페야."라며 퀸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방문객처럼 몇주 예배를 드리던 중, "오늘 당장 공동체에 속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저와 신랑은 같은 마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 잘 정착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저희와 1년을 조금 넘게 함께 지내시고 작년 8월 말에 소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정아버지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안의 장녀로서 어려운 과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퀸장에서 배웠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하나님께서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어려운 시간을 용인에 위치한 기독교 '샘물 호스피스'로 보내주심으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상주하며 함께 할 수 있었고 매일 오전,오후에 드리는 예배로 말씀,찬양,기도가 충만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의 마지막 순간에도 종이에 '감사 또 감사'를 쓰시며 신앙고백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평안히 천국가시는 기도가 응답받아 아버지의 임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격려와 위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퀸즈장로교회를 통하여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받은 사랑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며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다고 가족이 아닌게 아니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늘 우리 퀸장과 퀸장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고보니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퀸즈장로교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를 인도해주신 50주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저희 가족의 영적 고향인 퀸즈 장로교회 50주년을 온 마음 다하여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퀸즈장로교회를 출석하였던 손정호, 석영지, 손연우, 손지윤 가족입니다. 2014년 예수님께서 저와 아내를 찾아와 주셔서 믿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석영지 집사를 회사 뉴욕지사로 파견 나가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이 3년간 뉴욕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믿음 안에서 갓 태어난 영아와도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을 배우게 해 주셨고, 제자훈련, 영성훈련, 전도폭발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 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듯 어린 생명에게 젖을 주고, 목도 가누게 하고, 걸음마를 배우게 하여 주신 귀하고 귀한 곳, 영아와도 같던 저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 곳이 퀸즈장로교회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건강하고 귀한 퀸장을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 같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듯 3년이 흘러 2019년 1월, 뉴욕 파견 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귀국 후 5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퀸장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면 기쁨과 그리움이 교차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광야의 선지자와 같이 탄식으로 외치는 김성국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새벽기도의 강대상 앞에 엎드리어 부르짖는 기도가 생각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를 다니던 때…

폭설이 왔어도 사순절 새벽을 지키시며, 주차 안내하시던 장로님, 집사님들…,

토요총동원 새벽기도와 여름수련회와 칸타타 찬양, 아가페 원고를 작성하며 밤 새우던 일들..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손정호, 석영지 집사 가정

시온찬양대와 킹스콰이어, 바울선교회, 뵈뵈선교회…

한 분, 한 분과 순간, 순간들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저희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퀸장에서 배운 건강한 믿음이 저희를 굳건하게 지켜 주어서 전남 나주에 있는 '글로벌지구촌교회'를 섬기며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우와 지윤이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장으로 승진하여 회사생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귀국 전 40일 작정기도를 하였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떠나지 말라고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 주신 곳…

주님 안의 형제, 자매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곳…

저희 가족의 영적 고향 퀸즈장로교회!!

저희 가족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발길 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길 잃은 자들의 요새 되어 뉴욕 땅 가운데 십자가 군병이 계속해서 양성되는 교회로 50년을 넘어 다음 50년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100주년을 이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퀸즈장로교회 되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퀸장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실록

[아가페에 담긴 교회 이야기]

온 땅에 울려 퍼진 영광과 감사의 교향곡
-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축제 스케치 -
편집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과 사
-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축제 진행됐으

땅 속에 있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김수신 집사
감

감사뿐인 내 인생
김숙래 권사

교회 설립 30주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베끼면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겼습
아가페
김기호 장로

을을 청소하는 기쁨
서 길 용 집사

장로가 되면서

아가페 204호1998년 6월 28일

故 윤영철 장로

할렐루야! 그동안 54년이라 세월을 지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우리 퀸즈장로교회에서 장로로서 직분을 받고, 감독과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점에서 장로 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으며 안수를 받고 귀한 직분이 주어질 때, 하나님, 목사님, 교회, 교인, 가정, 사회,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첫 절부터 마지막 절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믿고 섬길 것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도와 간구를 따라 나의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삼을 것이며, 크리스천으로서 부활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와 전도에 저의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둘째, 당회장 목사님에 대하여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성도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장영춘 목사님같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시고 지도 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 믿음 안에서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 지금만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 것이며, 모세를 보필했던 아론과 훌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받쳐 드리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셔서 육신과 세상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항상 기도하며 도와드릴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 대하여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피로 값 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몸 된 한 지체로서 이 땅 위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대로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며 퀸즈장로교회가 미국과 한국 및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가정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5-9 말씀과 같이 직분자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두 단정하므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하는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살 것이며 집안의 형제들과 식솔들과도 화평케 지내며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장로 된 자로서 교인들과 나를 위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뜻을 생각하며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교인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며, 항상 모든 교인에게 머리 숙여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 줄 것이며,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이며, 관혼상제에 참석해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것이며,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 모범이 된 행동을 할 것이며, 자신과 교인들이 해결치 못하는 문제들은 교회와 당회에 상의하여 교인들의 사정을 도와 줄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에 대하여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사회에 대하여 행함의 구원을 실천하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교회 생활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챤으로서 세상생활을 도와주면서 말씀을 전도하고, 미국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대해 가르치며 전도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믿는 우리들이 참 신앙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사회적인 역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서 장로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살 것이며, 장영춘 목사님의 교회 사역을 도와 당회를 복되게 하며 장로가 되기 이전 생활보다 장로가 된 이후에 자신과 가정, 교회 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참된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의 말씀을 제 인생 지침으로 삼고 예수님만 믿고 살고자 합니다. 아멘

감사뿐인 내 인생

아가페 279호 2004년 12월 5일

故 김숙례 권사

감사뿐인 내 인생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선정한 장한 어머니상

아침에 출근하였던 남편이 저녁에 쓰러진 채 직장 동료들에게 업혀서 들어왔다. 이전에 없던 일이라 하룻밤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였는데 그 밤이 내게 머문 마지막 밤이 되고 말았다. 그때 나는 마흔을 갓 넘겼고 막내는 열 한 살이었다. 아이들과 남편 곁을 밤새 지켰지만 그의 감은 눈은 다시 떠지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내게 딸 넷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한 마디 미안한 말도 없이 나의 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아버지된 자리를 떠나 버렸다. 모든 것을 놓고 먼저 간 남편이 미웠다. 원망스러웠다. 이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슬퍼할 시간도 오히려 사치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솜씨가 있다는 칭찬이 이제는 생계의 수단으로 바뀌어 아는 분의 집에서 한복을 짓는 삯바느질이 시작되었다. 그 길은 30여년이 이어졌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제일 우선으로 알며 살았던 내게 기도하는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게 하셨다. 어떡하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보니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었다. 하지만 기도로 매일 새벽을 열던 시어머니님은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위로해 주셨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시던 시어머님은 딸을 넷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낳은 것보다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셨다. 어느덧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었고 시어머님께서 엎드리던 새벽 기도 자리는 나의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 내게는 부요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든든한 줄도 없습니다. 나를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아픔을 감싸줄 자도 없습니다. 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오직 당신 밖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나의 기도는 끊임없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에 이렇게 계속되었다. 매일 새벽마다 나는 이 잠든 네 자녀들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을 정도로 일에 바빠 통행 금지가 되어 집으로 오는 내게 온전히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은 버스를 타고 오가는 출퇴근길이었다. "하나님, 나는 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배우자도, 이들의 앞길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 연줄도 없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스쳐 기도한 그 어느것도 스쳐 들으시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밀히 혼자된 나의 인생에 남편이 되어 주셨다. 과부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셨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정에 덩그러니 다섯 여자들만 살게 된 세상이었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딸만 넷을 낳아 세상적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자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사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손자들을 쌍둥이까지 보게 하는 은혜도 베푸셨다.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여 배우자들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만들도록 가르쳤다. 결혼 당시 네 자녀 중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결혼한 사위는 한 명 (둘째) 뿐이었지만 배우자의 성품을 보며 결혼을 시키며 단단히 일렀다. "아내 말 안 듣는 남편은 없다. 다 너희들 할 따름이니 남편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라." 라고…

세 자녀가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다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사님을 예비해 주셨고 바른 가르침과 교육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세 딸은 권사로, 세 사위는 다 장로로 한 교회를 섬기며 귀한 직분을 맡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지만 한국에 있는 셋째 사위는 아직 믿음 생활이 시원찮았다.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3년간 지낼 때도 교회는 둘째고 일과 일에 관계된 사람들과의 교제가 먼저였다. 내게는 새로운 기도제목이 생겼다. "하나님, 네 사위가 다 장로가 되는 것을 보고 죽게 하옵소서." 신문사에 근무하며 세상적으로 형통의 길을 달리던 그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와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은 6년 전이었다. 암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 발병의 근원지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국에 좀 오겠다는 것이었다. 의사들은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쌍둥이 아들에, 딸까지 세명의 자녀가 아직 어린데 나는 일찍히 남편이 먼저 길을 떠났던 일이 새삼 되살아났다.

나는 이제껏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새벽마다, 수양관 금식기도로, 교회의 사순절 새벽기도로 날마다 부르짖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실한 증거를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 주었다. 암의 근원된 뿌리가 빠져 저 망망 바다로 끝없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신것이다.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다. 낙심한 사위에게,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식구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래 이 병은 하나님께서 지민이 아빠를 부르시는 특별한 방법이다."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맹탕이던 사위는 차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자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 수술대에 누웠다가 발견된 암의 근원지는 8개월간의 방사선 항암 치료로 끝을 내게 하셨고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에 복귀하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셨다. 나는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모두를 응답하시고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눈을 두고 살았더니 그는 셀 수 없는 은혜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셨다. 내게 남은 인생은 감사, 감사뿐이다. 기도가 있는 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것을 확신하며, 나는 계속 기도와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김수산 장로

땅 속에 있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가페 150호 1993년 12월 26일

감사! 감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감사! 감사 드릴수 밖에는 없는 감사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커다란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도성 뉴욕에 살면서 하루에 몇번씩은 들어야만 하는 엠블런스 소리를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성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도시들에서만 느끼는 복잡스러움과 소음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리틀넥에 살면서 브르클린을 출퇴근하다 보면 일주일에도 몇번씩 교통사고를 눈으로 보면서 남의 일 처럼만 지내오던 저는 지난 8월 31일 사업을 목적으로 오하이오주로 향하던 80번 하이웨이 선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으레 차에서는 설교 말씀이나 찬양곡을 즐기는 저는 그날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모든것이 저의 생각과 제 자신만 의존한 그릇된 여행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심은 제게 대한 사랑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고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제 차를 트레일러 트럭이 55마일 속도로 뒤에서 받아 운전석만 남고 다른 부분을 없어져 버린 큰 사고 가운데서 저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2개월 전에 우리교회로 보내 주시어 잠자던 영혼을 깨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하여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아빠의 병 낫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딸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들 때에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기도하여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한 지체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시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구름처럼 둘러서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김기호 장로

성경을 베끼면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겼습니다

성경쓰기를 마치고

아가페 235호 2001년 1월 26일

지난 1999년도 다 저물어가는 때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 10여년동안 평안하게 살던 집을 팔아 치우고, 수년동안 운영하던 인쇄소도 집어 치웠다. 2000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한 시간이 있으니 컴퓨터나 배워서 '컴맹' 소리나 면해야지 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배웠더니 재미있다. 2월 1일 나의 71회 생일 을 맞으면서 문득 성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쓰셨고 어떤이들은 두번, 세번 쓰셨다. 참으로 놀랍고 경탄할 일이다. 그래! 나도 성경을 써야겠다. 나라고 못할쏘냐,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쓰기 시작했다. 시작이 절반이라 아니했던가. 절반은 쓴 셈이다. 보통 한 번 다 쓰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데, 나는 시간도 있고 빨리 써야겠다는 조급함에 1년내에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2001년 내 생일 때까지 써 바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써나가기 시작했다. 4월말에 장시간을 의자에 앉아, 눈은 성경과, 손가락은 펜과, 엉덩이는 의자와의 지루한 싸움이 끝났다. 내 맘속에 "너도 대단한 놈이다. 곰같이 미련하게 뚝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해냈다." 대강 성경 한 페이지 쓰는데 한 시간이 소요된다. 신구약 모두 1,753페이지니까 1,753(73일)이 소요됐다. 하루 6시간씩 평균 쓴 셈이다.

성경을 쓰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 하루 3장씩 읽는데도 은혜가 되겠지만 쓰는데서 얻는 은혜가 크다. 어떤 물체를 망원경으로 보던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것 같았다. 텔레비에서 스포츠 중계를 할 때 멋진 장면이나 판정하기 어려운 장면은 슬로우모션으로 되풀이 보여 줌으로써 자세한 것을 알게 되듯, 한자 한 구절을 써 내려가면서 더 깊은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 어떤 구절에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시원함을 얻을 때도 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쓰기에 참여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마음 먹기만 하면 된다. 다음에는 인내, 인내, 또 인내로 이겨야 한다. 늙기 전에(늙으면 시력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쓰기를 권합니다. 한번 쓰는 것은 세 번 읽는 것 만큼이나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쓸 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고유명사 중 "하나님", "여호와", "예수" 이 세가지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면 늦어집니다.

故 서길웅 집사

청소하는 기쁨

아가페 190호 1993년 4월 27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가페 담당교역자분께서 오늘 아침에도 전과같이 성전뜰을 쓸고 있노라니 제 옆으로 오셔서 집사님이 전을 쓸고 닦으며 헌신봉사하는 신앙자세를 간증을 통해 아가페에 게재할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한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봉사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심의 동기에서였지 결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한다면 성전뜰이 오물로 더럽혀졌을 때 어찌 그냥 밟고 지나치랴. 제가 새벽 단잠을 깨어 성전에 나오는 첫째 목적은 먼저 세상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의 체험을 맛보며 새 힘을 얻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말하였고 또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제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번째 성전뜰을 청소하게 된 동기는 주님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청결케하고 내 집은 나중에 하자 남이 하기 꺼리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내가 맡자. 건강한 육체를 주셨을때 헌신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믿음이 저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전을 쓸고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고 계시리라는 걸 생각하면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속의 나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며 남이야 알아주든 말든 나는 개의치 않고 성실함과 진실로서 주의 전을 섬기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1:7) 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주님께 봉사하고자 노력합니다. 새벽차량운전, 주차안내, 교회청소, 전도에 헌신봉사며 좋은 일, 궂은 일 상관없이 교회측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때고 "예" 하고 즉시 행동에 옮길 각오가 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저의 옛사람의 모습을 회상해 볼 때 너무나도 방탕한 생활로 육체의 썩어져 갈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하였고 물론 내 심중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탕자와 같이 삶의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내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봉사나 헌신, 전도하는 일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게 건강주셔서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찬송가 376장 을 부르면서 미약하나마 부족한 간증을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故 이귀순 전도사

내가 심방원이 되기까지

아가페 23호 1981년 6월 6일

저는 모태 교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과 기쁨으로 사시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의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음과 기도로 키워주신 두 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도 국민학교만 아니고 고등학교, 간호학교를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 후의 직장도 대부분 기독교 계통에서 경영하는 병원과 학교에서 봉직하게 되어 항상 주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그대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 전부인줄 알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나의 생활은 계속 교회를 중심하고 사는 생활이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예배드리는것이 모두인양 그 보다는 서로 만나 서로 인간끼리 교제하는 인간교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어딘지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교회는 이런 것이려니 하는 인식에서 그냥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내가 나가는 병원에서 후배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회에 관한 말을 나누게 되었을 때 후배가 나에게 퀸즈장로교회 장목사님을 은혜있고 신령하신 분이라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은혜를 사모하여 헤매던중이 아니고 생활과 자녀들의 결혼문제로 바쁠 때였습니다. 저는 고마운 말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듣고 흘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많아 그런지 와서부터 허술한 집이라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애쓰던 중 근무하는 병원도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한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이 못되어 아들이 신문을 보더니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한인 교회가 생겼다고 말하는데 매우 관심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았을 때 바로 후배가 소개해 준 장영춘 목사님이 시무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과 같이 그 주일에 나가 보았습니다. 저는 첫 예배시간에 마음이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좋았다며 이 교회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말씀중심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 낮예배 뿐만 아니라 저녁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십 평생을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이때까지 성경말씀으로 크지 못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지금은 평신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에 굶주렸던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던 중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변하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늘 외치시는 것처럼 말씀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에 들어가게 되면서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생겨 기도에 앞선 권사님들을 모시고 산에 가서 기도할 말도 생기고 기도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히 응답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터 심방도 하고 싶어져 작년 6월 부터 한집 한집씩 경험 많으시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을 따라 심방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게 되는 기쁨과 평강과 이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방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주시니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저는 몸으로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할 것을 늘 간구합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과 평안한 맘, 영광된 마음을 가지고 몸 된 교회의 교인 심방원이 된 것을 한없는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좁은 지면에 다 표현할 수 없어 간단하게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故 이규성 장로

잊을 수 없는 성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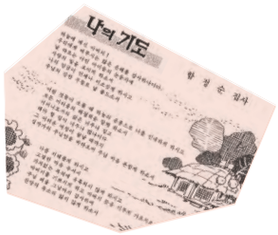
아가페 47호 1983년 12월 25일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로 바쁜 계절이 되고,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 축하 찬양연습이 한창일 때면 제 마음도 아기 예수님을 맞을 기대로 조금씩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이맘때면 저의 50여 평생 지내온 성탄절의 기억들이 새로와지지요. 여러 잊지 못할 일들 중 유난히 또렷이 떠오르는 마음 아팠던 한 성탄절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가슴에 남아 이때만 되면 또다시 그날을 회상하게 되곤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1947년 겨울, 고향이던 황해도 장현군 신화면 휴서리에 있던 휴서교회에서의 일입니다. 휴서교회는 교인 약 1백여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결된 성도들은 그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의 덩어리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달도 훨씬더 전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 20여명은 거의 매일 밤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성탄절 축하행사인 성극 준비와 찬양연습을 해야하고 교회 장식도 아름답게 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곳은 이북인데다 시골이어서인지 지금 생각에 무척 추웠다고 생각됩니다. 모이려면 울퉁불퉁한 길을 한참을 걸어와야 하는데도 참 열심히 모이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무척 기뻐들 했었지요. 초가지붕에 마루바닥인 싸늘한 교회에서 장작을 넣어 난로불을 짚혀 놓고 성탄절 찬송을 연습하노라면 활활 달아오르는 불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실듯한 착각마저도 드는 성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있노라면 부모님 혹은 형제들은 고구마를 삶아 오시기도 하고 연시나 사과를 한아름씩 가져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기도 하셨었지요. 그 당시는 6.25사변 전이어서 공산당의 탄압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예배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성탄절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슨 심술이 났는지 내무반원들이 우리들이 최종 연습 마무리를 하는 크리스마스 전날 낮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축하행사에 대한 집회허가를 보안서(지금의 경찰서)에 가서 받으라는 것이었지요. 행사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던거지요. 결국 행사 집회 허가를 받지 못했지요. 한달이 넘게 준비한 찬양과 성극발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우리 학생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좋은 날 예수님께 드리려던 이 모든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슬프고 속상했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책임지고, 경찰서에서라도 끌려갈 각오를 했다면서 집회를 갖자고 졸랐습니다만 교회 장로님들의 만류도 무척 완강해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성탄전야에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헤어져야 했던 온 성도는 예수님 탄생하신것을 축하하는것도 맘대로 못한다는 설움에 겨워 한사람 두사람 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모두가 울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던 찬양이 통곡으로 변한 성탄절이었지요.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북에서 숨어서 예배 보는 믿음의 형제들의 성탄절을 맞는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스럽게 맘대로 예배드리며 올해도 예수님탄생을 축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새삼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가페 -95-

함정순 권사

나의 기도

아가페 95호 1988년 9월 3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날 따르는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에
사랑의 빛을 보이게 하소서
나의 얼굴이 언제나 미소짓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두팔로 날 붙드소서

어린 것들이 조를 때 하늘의 은총으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을 알게 하소서
어머니로서의 삶은 너무나 길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나이다
그 어려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마음 받게 하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고결한 마음 주셔서
가치없는 목적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가르치소서
주님 뵈올 그날까지 감사하며
찬양의 목소리 잃지 않게 하소서

이무근 장로

주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가족 수련회 간증

아가페 78호 1986년 9월 7일

저의 작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며 글로써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년주일학교 3년, 중고등부 3년하여 6년 동안을 청소년 때에 교회라는데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차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후 그때는 세상 일에 재미있고 흥겨워서 깨닫지 못 했지만 지금에서 보면 많은 죄를 지으며 지내다가 결혼하여 주님의 인도로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1962년 10월, 그때부터 저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움과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공의 인물같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재미있는 전설같은 구약, 단명하여 인생에서 실패자 같은 예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든 것을 믿어버리자고 하기에는 세상지식들에 너무 젖어있었습니다. 예배보는 것이 즐거울리 없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혹시 준비한 헌금(십일조)을 집에 두고 와 내지 못하는 주일에는 어디서 공짜 돈 생기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기도제목이자 기도 전문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요" 남이 알면 부끄럽고 믿고 있는 분들이 보면 웃음칠 것 같았던 이 간단한 문장이 제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도중 2-3분간 통성기도 내용은 단지 "아버지 하나님 제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로 반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했지만 그 누구든지에서 저는 제외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 3개월, 하나님 믿어 보자고 교회 다닌 지 3개월에 한국에서 지병으로 앓아오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으셨다면 천국에 가셨을껄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즐기던 술, 담배 기타 등등도 조금씩 잊어가는 중에 아버님 돌아가신 1년 뒤에 어머님께서도 별세하셨습니다. "어머님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 어머님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계시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게 강한 믿음을 허락 해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미지근해 왔던 저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이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부모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제게 믿음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가족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라는 말씀 처럼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기도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많은 형제(6남 1녀)중 유일하게 주님을 영접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무엇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것을 인하여는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옛 생각 날 때, 저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긴장되고 힘이 생깁니다.

금년 첫주일 장목사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그날 주일 아침도 가게에서 먹을 점심을 차에 실어둘 것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와 닿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번 확인 반복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마음을 강하게하고 ……."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수주일 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눈 언저리가 뜨거워짐을 느끼며 목사님의 축도 시간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가족들과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가게를 "For Sale" 하고 다른 터를 보러 다녔습니다. 터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구하지도 않은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연륜이 길지 못하여 시험이 닥치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깊고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저의 혈육의 형제들에게 예수님 전할 기회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끝날때 까지 주신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故 황계덕 권사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아가페 104호(1990년 2월 25일)

85년도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나봅니다. 문제는 발가락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기를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서 있어서 동상에 걸렸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하루는 종아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제대로 걸을 수 없어 벌벌 기어서 아래층으로 내렸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무엇부터 손을 써야할지 생각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픔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두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여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프던 다리가 몹시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부분이 불덩어리였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만져 보았지만 피부는 차거운 상태였습니다. 속으로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몇달전에 꿈 생각이 났어요. 천사가 와서 저의 영혼을 데려갈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갈 수가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일을 하겠으니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O.K." 하시면서 "그러면 더 있다 오라"는 말을 듣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비된 다리가 점점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심방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은 혈루증 앓던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이 이렇게 매말랐구나? 혈루증 앓던 환자처럼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던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에 몰두하여 물질만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니? 너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주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까지의 그 기다림은 얼마나 한탄하며 탄식했을까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의 채찍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걷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이 환경속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돌립니다. 앞으로 남은 저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이해 한해도 감사하면서 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도 꺽지 아니하시고
먹물보다 진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며
길 잃은 자의 소망이 되시는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플때 믿음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며
낙심된 자에게 희망주시고
괴로워 눈물 흘릴때 씻어주시는 주님
이해 한해도 감사하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골고다로 향해
가시 면류관 대신 쓰시고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면서 살려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본받아
지극히 연약한것 같지만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장의 역사의 씨를 밝히는
사랑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쁨과 슬픔

소은자 권사

어머니의 기쁨과 슬픔

아가페 114호(1990년 12월 30일)

쌀쌀한 가을 아침 토요일이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도착한 아들이 침대 속에 피곤한 몸을 길게 뻗고 긴장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시 더 의젓하고 싶은 맘에 그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온다. 참으로 힘든 고비고비를 이겨내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홀로서기를 터득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었지. 결정 짓기 어려웠던 대학들, 부모의 도움 없이 밤샘하면서 고민하던 너의 모습, 무던히도 갖고 싶어 했던 자기 방, 간간히 친구 집을 비교하여 보면서 부모의 가슴을 끓이더니, 마지막 문을 나서면서 "엄마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사실거예요" 던져 준 한마디의 말이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다.

무능하게만 보였던 부모의 모습, 늘 빚진 기분으로 살아왔었지. 이번 여름, 대학을 보내면서 긴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아들 곁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목 메이게 했다. 모처럼 휴가받은 저의 어머니는 겸사겸사 손주 녀석 대학에 떨어뜨려 놓고, 근처에 사는 조카를 오래간만에 만나 볼 마음으로 선뜻 긴 여행에 나서신다. 손주 녀석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을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대학 주변을 조심스레 살펴본 후 마크가 붙은 대학 T-Shirts를 손주 녀석에게 사 입히신다. 아마도 따뜻한 정을 오래 머물러 있고 싶으신 모양이다.

우리들은 초라한 기숙사 단칸방을 둘러보고 필요한 조그마한 냉장고와 짐 꾸러미를 풀어 놓으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먼 곳에 놓고 와야 하는 것이 맘을 더욱 슬프게 한다. 그래도 그것이 내 방이라고 아들아이는 열심히 열쇠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디가, 어느 쪽인가를 열심히 답사하는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한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머니와 둘이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오늘 이른 아침 슈퍼마켓에 들려 여러 가지 물건들을 Wagon에 담고 있는데 어느 초로의 미국 어머니가 내 곁을 지나면서 묻는다. "이 깡통들이 모두 세일인가요?" "아닌데요. 멀리 떠날 자식을 위해 사 가는 거라오." "좋을 때요. 그러나 금방 이것을 못 할 때가 오고 마는걸요. 여자 친구 사귀고 또 결혼하면 금방 끝나는 일인걸요. 좋은 어머니시군요" 초로의 미국 어머니의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아들의 트렁크에다 자질구레한 물건을 차곡차곡 챙겨 넣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엾다는 듯이 쳐다보는 아들의 모습이 뒷전에 보이는 듯하다. 남편과 딸아이는 내가 부산 떠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여보,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 싸요." 모처럼 밥상에 둘러앉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서로 다정하게 얼굴을 쳐다본다. 한국음식은 생각나지 않았느냐. 대학 공부는 힘들지 않았느냐. 용돈을 모자람 없었느냐. 근처에 계시는 외삼촌 댁은 좀 연락 드렸느냐. 룸메이트하고는 사이가 좋으냐. 전화는 왜 그리 안 했느냐. 한국말은 잊지 말고, 바라건대 혹 여자 친구는 한국 여자 친구이기 바란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답게 얘기하는 소리가 부엌 쪽으로 간간히 들려온다. 음식들고 분주해 하는 엄마를 애처러운 눈으로 보면서 "이제 좀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해요" 네 식구가 밥상에 앉아 먹는 것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 모양 맛있게 먹는 모습과 활짝 웃는 얼굴에는 모두 행복에 겨워 바라보았다. 다시는 헤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저녁 식사 후 아들아이는 상기된 얼굴로,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온다. "엄마, 나 보고 싶었어요" 손을 한번 꼭 쥐여 줌으로써 서로 말은 없었으나 얼굴에는 넘치는 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람이 사는 동안 행복한 날은 계속된다기보다 순간순간 점철된다고 생각된다. 이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조용히 자란 아들에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딤후 1:3)

양어깨에 두개의 냅색가방을 짊어지우면서 항상 몸조심하고 음식은 거르지 말아라. 성경책은 너의 트렁크 깊은 속에 넣어 놓았으니 시간 있을때 마다 들여다보아라. 꼭 교회를 찾아서 주일에는 빠지지 말고 교회에 꼭 참석하여 너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어라. 신앙을 잃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너 자신이 알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식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일생을 좌우하느니라.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잊지 말아다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 잊지 말고, 어른이신 할머니께도 인사를 잊지 말아라. 너의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걸핏하면 "다 알아요"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활 속에 얼굴을 내밀지 말아라. 또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혜와 마음이 아울러 성숙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다. 아들은 엄마가 딱하다는 듯이 어른처럼 고개를 까닥까닥하면서 눈웃음을 친다. 따뜻한 말로 "엄마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소리가 내 귓전에 아직도 살아있다. 언제나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들 되기를 바라면서…

故 장정자 권사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가페 128호 1992년 2월 23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워진 퀸즈장로교회가 설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퀸즈장로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키워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 전인 73년, 가정에서 성인 7명이 모였던 첫 예배로 시작된 날로부터 74년 2월 24일 설립한 이후 날로 부흥발전하여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지금 3천여 성도들의 요람이 되었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와 생명의 진액을 바치며 애쓰시고 힘쓰신 당회장 장영춘 목사님의 눈물과 수고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퀸즈장로교회의 개척과 발전 과정을 통하여 장목사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기도하시며 생명의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장로님들과 순종잘하는 제직들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영춘 목사님께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시며 성전 건축을 염원하실 때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성전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땀 흘리는 정성과 이에 따른 물질도 아낌없이 바침으로 대규모의 성전이 완공된줄 압니다.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합심하여 10여 차례나 되는 성전 건축 바자회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신 일이며 사모님을 비롯하여 충성으로 헌신봉사하신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건축기금을 위한 메시야 대 연주회, 김영미 선생의 독창회(기금모금을 위한) 등의 행사에서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1년 성전건축 기공으로 부터 83년 건축 완료하기까지 연속적인 금식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목사님, 사모님(장미은)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금식하시며 철야하시며 눈물을 뿌리신 기도야말로 오늘이 있기까지의 큰 원동력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에 힘쓰시는 사모님을 우리 모두 본을 받아 기도의 역군과 제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 이국땅에 와서 성전건축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축복으로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파란 곡절이 있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우리 장목사님께서 당하신 많은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밀하게 아실 것입니다.

18주년을 맞으면서 마음 아팠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83년 가을 어느 날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병명도 모르는 중에 많은 고생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일이니 그렇지 그 때 직접 보시던 분들은 누구나 동감이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신 장목사님께서 이제 성전완공을 해 놓으시고 긴장하셨다가 마음에 여유가 있기 전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시니 참으로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드리며 속히 회복되시기를 호소했었습니다. 회복하시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때, 그 감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세 교육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하시면서 교육관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큰 뜻이 이루어져서 91년에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관 건축도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됨을 감사드리며, 완공하여 헌당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며 바치는 헌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큰 부자도 없는 퀸즈장로교회지만 마지막 고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미는 개미힘으로, 황소는 황소힘으로 정성을 다 하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면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큰 축복으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온 정성을 쏟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교육관과 더불어 신앙도 함께 세워지고 오는 후세에 물려주는 유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끝나면 북한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를 교구로 삼아주는 교회, 보내는 교회로써 청년기에 접어드는 의젓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세계선교를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엄마

최윤희 권사

믿음의 선배 우리엄마

아가페 369호 2012년 5월 6일

자동차 회사 사장의 딸로 떵떵거리며 살던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회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내가 15살 때에 큰 오빠가 자동차 사고로 죽고, 두 달 후에 아버지는 신장암으로 돌아가시는 악재가 계속되었다. 줄초상이 났던 우리 살던 집을 엄마가 팔려고 내 놓았지만 두 달 만에 장정 두 명이 죽어서 나갔다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어서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안 듣게 기르겠다고 우리들을 엄하게 키우셨다. 우리는 매일 같이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에 못 이겨서 온 식구들이 죽 둘러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엄마는 강제로 우리에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로 시작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로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을 매일 외우게 하셨다.

엄마는 돈이 없어서 별로 갈 곳 없는 우리를 앞세우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의 부흥회를 이곳 저곳 다니셨다. 이천석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 나운몽 장로님 등, 어릴 적부터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따라다녔다. 그 시절에 목사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있으면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 보라고 했던 터라 빨리 찾아서 읽는 재미에 목청껏 큰 소리로 성경을 찾아 읽던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다.

새벽이면 영락없이 엄마는 나를 깨우셨고, 마포 도화동 꼭대기에 살던 집에서 꼬불꼬불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교회에 데리고 가서 새벽예배를 드리셨다. 그 교회는 항상 울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출석인원 전부였다.

집에 쌀이 떨어지면 아버지 대신 생활을 책임졌던 오빠가 가지고 온 돈 중에서 미리 떼어 놓은 십일조 봉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쌀값이 떨어져 십일조 꾸어서 쌀 삽니다. 아들이 돈 가지고 오면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던 엄마였다. 난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리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엄마도 광신자구나 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사춘기를 오래 했던 나를 혼을 내는 대신에, 내가 자고 있을 때에 내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셨다. 그 기도로, 나는 자는 척 했지만 심장이 녹는 것 같은 죄의식을 느꼈다. 어려서부터 남이 안 하는 생각, 외모, 패션을 타고난 나는 남의 이목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서울 본토박이 가회동 출생인 엄마에게 너무 버거운 존재였으리라.

1983년 5월 31일,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미국을 오게 되었다. 딸을 보내는 것이 섭섭해서 많이 울면서 보내리라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엄마는 나를 김포공항 한적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우렁찬 음성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주여, 이 딸이 어디를 가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엄마의 축복기도를 받고 신나게 미국으로 달려온 나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도 매일 아침이면 우리 일어나기 전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던 우리 엄마와 같이, 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내가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한 버지니아 리스버그에 위치한 승마 교관학교에는 버스도 안 다니고 차도 없고 길도 몰라서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일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은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에 엄마와 팔 형제를 두고 꿈만 가지고 미국에 혼자 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막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 더군다나 파슨 스쿨의 구두 디자인 클래스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남편 리차드 칼리간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아무리 부부 싸움을 하고 토론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 아뢰면 모두 해결되었다.

하이스쿨까지 예배에 잘 나오던, 지금 대학을 다니는 두 딸 사라와 백희는 요즘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나 나는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한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셔서 부족한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 일하는 믿음의 딸이 된 것 같이 우리 딸들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소리 듣고 자란 굳건한 믿음의 가정의 아들들을 배필로 맞도록, 또한 세계 선교에 큰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내가 두 딸의 엄마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과 또 그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안다.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의 칼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신 지 6년이 되는 나의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엄마 이정자 권사님의 능력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

아가페
2013년 여름
제378호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름 VBS
여름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agape
2016·11
성경파노라마
노방전도
행복에의 초대/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경배와 찬양/내 몸을 드립니다
다민족 선교와 우리 부서
새로운 리더의 비전
아가페
2016년 2월
제384호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선교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agape
2016·3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교회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식 임직식
송동률·정길표 임직장로 인터뷰
2016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전폭은혼
아가페
agape 2016.4
사순절을 마치며
OPEM Orison Ministry Update
전폭, 국제전도폭발 D. Kennedy Award 수상
어머니 학교
부활
아가페
agape
KOREAN
ENGLISH
CHINESE
RUSSIAN
KAPCQ
Flushing Vision
2016.6
7월 선교의 달
KAPCQ
400
아가페 · 爱加倍 · Arana
Agape
2017 단기선교
교역자실 탐방
김명기 사모 인터뷰
아가페찬양
청년특집
나의 장애이야기
교회학교
400호 특집
2017 7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2017 8
Agape
2018 2
Agape
PNEUMA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9월 교육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爱加倍 · Arana
2018 1
새해 하나님의 축복 더 많이 받으세요
Agape
2018 10
Agape
耶稣爱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2017 9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6월 성령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爱加倍 · Arana
General Formation and Discipleship
아가페
2014년 신년호
제379호
김성국 목사 위임
성탄절
신년하례
제직 수련회
326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2017 11
BELONG
8월 사랑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爱加倍 · Arana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Mission trip | China Kenya Honduras
신약동독 Guide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아하~ 예수님!
2018 8
www.kapcq.org
12월 감사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 爱加倍 · Arana
KAPCQ's Gal Talent - Sports Star
2018 12
www.kapcq.org

정해성 장로

정오에 신문기사 마감, 오후 4시에 방송원고 마감, 10여년 마감에 쫓기며 살던 때가 있었다.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오랫동안 마감은 악몽으로 나를 찾아와 때없이 괴롭혔다. 잊고 지냈던 이 '마감'이 이즈음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전의 공포감은 사라졌지만 부담감은 여전히 생생하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거룩한 부담감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전했다. 지금 갖는 부담감 앞에 '거룩한'이란 표현을 붙여도 될까? 아가페가 거룩한 열매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함'을 더해 본다.

서다인 집사

아가페가 아니었다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들여다볼 기회 없이 그냥 흘려보냈을 퀸즈장로교회의 50주년. 시대가 바뀜에 따라, 세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섬김의 기쁨보다는 책임이라는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성순 집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일과 새롭게 펼쳐질 앞날을 기대하는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기억에 남게 될 50주년 아가페 특별호를 발행함에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의 일환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영경 권사

1975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아가페 분류작업(labeling)을 부탁받았을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아가폐를 디지털화한다는 뜻깊은 일에 함께하고 싶어 덥석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힘들게 했지만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고 나중에는 수월하게 했습니다. 분류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같은 작업을 함으로 지루한 면이 있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저에게 인내심를 가르쳐줬고 1975년부터 2012년의 퀸장 추억을 맛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통해 귀한 아가폐를 디지털로 보존하는일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마무리 할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료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부터의 모든 아가페를 이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민영 권사

희년을 기념하는 역사물로 남겨질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아가페'가 발간됨에 가슴벅찬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와 함께 하신 지난 50년의 은혜와 축복, 선진들의 이야기를 세세히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엮어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수고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이 미미하지만 뜻 깊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국향 집사

50년간의 신앙 여정을 담은 '아가페' 특별판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각 페이지에 담긴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길 기도합니다. 디자인 작업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이 특별한 간행물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와 큰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0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퀸즈장로교회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시무장로	정성호 정길표 송동율 차상남 최원일 함용식 남형욱 채영주 최시몽 황태현 박정봉 홍성익 정기영 김지현 이정훈 신성재 윤지현 최성호 정해성 권혁민 심인보 송현규
원로장로	허경화
은퇴장로	김기호 황인섭 홍승룡 김용생 황주현 이무근 김영오 김수산 김원도 이안식 임 정 장봉석
협동장로	허경천 김재욱 이희영 강성삼 이인철 박영규 박영권
안수집사	유만종 김용환 장용국 정진규 이광윤 김동성 김달수 김 만 김수연 신기만 오인택 허 강 오성태 이유창 이영호 계대원 김성민 김태선 강성근 정사용 심인보 김재헌 남정현 윤석현 차광혁 정영철 최성수 차윤일 박상용 임동진 이동훈 설동택 김형섭 임지홍 이정훈 민준성 민경원 황상우 박경수 김동은 홍지혁 최치훈 송인태 문태일 조영욱 이현승 강 호 강원철 김재일 오재혁 김준래 이성용 배강원 이재운
QPEM 안수집사	최원백 Marcelo Chan
CM 피택안수집사	陈鹤锦 金永德 蔡炎桥 彭约瑟
시무권사	정영숙 김연희 남궁혜령 최윤희 주광자 민미숙 이경애 김미견 한희견 김경옥 김경미 정희정 오성애 김종경 장헌미 박대희 박영미 나인애 이정숙 김은경 최용숙 차동미 이정심 장광숙 정금숙 이은정 남인화 이유숙 심화숙 박명순 채현주 윤현주 최미희 김유경 홍한나 정혜정 김홍덕 허영미 계연란 최효진 박경우 윤지영 정경애 이정혜 송순애 최은숙 이희정 우순우 조영숙 조나영 이숙녀 최경선 남주인 송미진 정경미 영미라티몰 정지원 정주영 송정향 정민영 이영희 황보명옥 이영경 김수진 심경선 설희숙 최경희 조정숙 조소영 신진숙 김정윤 신운영 박석미 박연경 김미정 심원희 길정애 이은술 정미정 이정아 강혜영 송소영 강석춘 박경미 권향련 이송은 권정자 이경미 최경란 정희원 정소연 차문희 이혜진 황선영 오연숙 윤영란 박정희 김순례 이미쉘 임경순 김성미 강하이디 임순미 차진희 김수자 이인화 엄경재 이우정
QPEM 시무권사	황지현 Margaret Yoo